

202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7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1. 7. 15(목), 14:00 ~ 17:10
-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 ▣ 출석위원 : 정명섭, 박경식, 이강민, 이경미, 이상종(성공),
이찬희, 정용재, 정정남, 최성은, 최장순
(이상 10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칠곡 송림사 대응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공개
2	대구 동화사 극락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공개
3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공개
4	사천 홍사리 매향비 주변 축사 신축(재심의)	공개
5	사천 홍사리 매향비 주변 공장 신축(재심의)	공개
6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주변 농지(전) 조성(2차, 재심의)	공개
7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주변 농사용 창고 설치	공개
8	순천 송광사 하사당 주변 진입로 개설공사(재심의)	공개
9	완주 안심사 금강계단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0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 주변 도로건설공사	공개
11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재심의)	공개
12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 주변 야영장 조성(2차)	공개
13	의성 만취당 주변 점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개
14	여수 흥국사 대응전 및 흥교 주변 허용기준 조정(안)	공개
15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주변 허용기준 제정(안)	공개
16	안성향교 대성전 및 안성향교 풍화루 주변 허용기준 제정(안)	공개

【검토사항】

17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지정명칭 변경 검토	공개
18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주변 법당 개축 공사 검토	공개
19	예천 청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요사채 개축 공사 검토	공개

【보고사항】

- 20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 청송 대전사 보광전 주변 주방천 하천재해예방사업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 창고시설 신축
 - 안동 청원루 주변 단독주택 신축
 -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 주변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신축
 -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심복사 화장실 건립공사
 -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심복사 종각 건립공사
 - 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 주변 농지 개간
 - 합천 백암리 석등 주변 농막 설치
 -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 주변 화장실 신축
 -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 주변 템플스테이 건립
 - 안동 개목사 원통전 주변 도로정비공사
 -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주변 마을회관 증축공사
 - 경주 용명리 삼층석탑 주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 완주 송광사 대응전 주변 서재 건립공사
 -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 주변 버섯재배사 신축
 -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주변 재해위험 및 화재예방을 위한 수목제거
 - 함양 덕전리 마애여래입상 주변 가족 장지조성
 -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주변 하천정비 사업(2차)
 - 칠곡 송림사 오층석탑 주변 농지 조성
 - 경주 삼랑사지 당간지주 주변 도시계획도로(소3-36) 개설공사
 - 군위 대율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
 - 해남 미황사 응진당 주변 적목당 건립
 - 서울 장의사지 당간지주 주변 주민편의시설 및 공영주차장 신축
 -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구룡루 해체보수공사
 - 완주 안심사 금강계단 주변 농사용 가설건축물(창고) 설치
 - 함양 승안사지 삼층석탑 주변 배수로 설치
 -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주변 근린생활시설 건립

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1-07-001

1. 칠곡 송림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경북 칠곡군 소재 「칠곡 송림사 대웅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34호 「칠곡 송림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21년 건축문화재분과 제5차 회의(2021.05.20.)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21.05.28.~'21.06.26.)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송림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34호 「칠곡 송림사 대웅전(漆谷 松林寺 大雄殿)」
 - 소재지 : 경북 칠곡군 송림길 73(동명면)
 - 지정일 : 2012. 02. 13.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칠곡 송림사 대웅전(漆谷 松林寺 大雄殿)
 - 소재지 : 경북 칠곡군 송림길 73(동명면)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송림사(대한불교조계종 송림사)
 - 시대/연대 : 조선시대(17세기)
 - 수량 : 1동
 - 지정면적 : 147.92㎡(보호구역 3,946.48㎡)

- 구조/형식/형태 : 다포계 한식목구조 맞배지붕
- 재 질 : 목재, 한식기와

라. 현지조사의견(2020.06.23.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6.23	대상문화재	칠곡 송림사 대웅전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칠곡 송림사 대웅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 년 3 월 31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1) 입지현황¹⁾

송림사는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에 자리한 사찰이다. 동명면 소재지에서 팔공산 방향으로 가는 지방도 79호선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동명면 저수지에서 동쪽 계곡을 따라 2km정도 오르면 해발 100m 가량 되는 가산 남쪽 허리 아래에 터를 잡아 사역을 조성한 평지사찰이다.

칠곡군 동명면은 동쪽으로는 군위군 부계면, 남쪽은 대구광역시 북구, 서쪽은 지천면, 북쪽은 가산면과 접해 있어. 유학산(해발 893m)과 팔공산(1,119m)로 이어지는 팔공산맥의 남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송림사가 자리한 구덕리의 동남쪽은 도덕산(道德山, 해발 660m) 줄기에 둘러싸여 대구광역시와 격리되며, 서쪽으로는 희녀산(嬉女山)에서 동명면 금암리와 접한다. 북쪽으로는 가산(架山, 해발 901.6m) 산록을 타고 내린 구지천(九池川)은 송림사 아래 동명지(東明池)에서 집수되었다가 봉암리에서 팔거천(八苜川)에 합류된다. 지방도 79호선(한티로)이 구덕리 중앙을 관통하여 한티재로 향한다.

한티로를 따라 자연마을인 덕산마을, 송림마을, 양지마을, 구지마을 등이 있다. 덕산마을은 도덕산 서쪽 산록에, 송림마을은 덕산마을의 아래쪽 마을로 구덕리의 중심에 해당한다. 양지마을은 동명지 위쪽, 구지마을은 저수지 아래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

2) 역사문화환경

송림사 소재지는 조선시대에 칠곡군 하북면(下北面)에 속하였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구지, 송림, 덕산, 양지의 일부를 병합하여 구덕이라 하고 동명면에 편입하여 오늘에 이른다. 구덕리 지명은 구지(九池) 마을과 덕산(德山) 마을에서 첫 글자를 따서 '구덕'이라 이름 붙였다.

칠곡군은 예로부터 영남대로와 낙동강 수운의 교통 요충지인 동시에 군사면에서도 요충지였다. 신라시대 팔거리현(八居里縣)·사동화현(斯同火縣)·대목현(大木縣) 세 개 현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통합되어 지금의 칠곡군을 이룬다. 송림사가 자리한 동명면은 신라시대 팔거리현에 연원을 두고 있는데 경덕왕은 팔리(八里)로 고쳐 수창군 관할 하의 현으로 만들었다. 고려 초에 팔거(八居)로 고쳤으며, 1018년 수창군에서 지경산부사에 소속시키면서 칠곡(七谷)으로 이름을 고쳤다. 1640년(인조 18)에는 가산에 성을 쌓고 칠곡도호부를 설치하였다가, 1895년에 대구에 붙였다가 뒤에 군으로 승격시켰다.

현재 송림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의 말사(末寺)이다.²⁾ 현재 사

1) 입지현황은 디지털칠곡문화대전, 검색어: 구덕리, 동명면 항목에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2) 디지털칠곡문화대전을 비롯한 몇몇 자료에 같은 사명을 지닌 사찰을 칠곡 송림사로 오인한 경우가 보이거나 조선시대 송림사를 사명으로 한 사찰은 여러 곳에 있었으므로 지역과 사명을 함께 비교 검토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있던 송림사의 역사를 칠곡 송림사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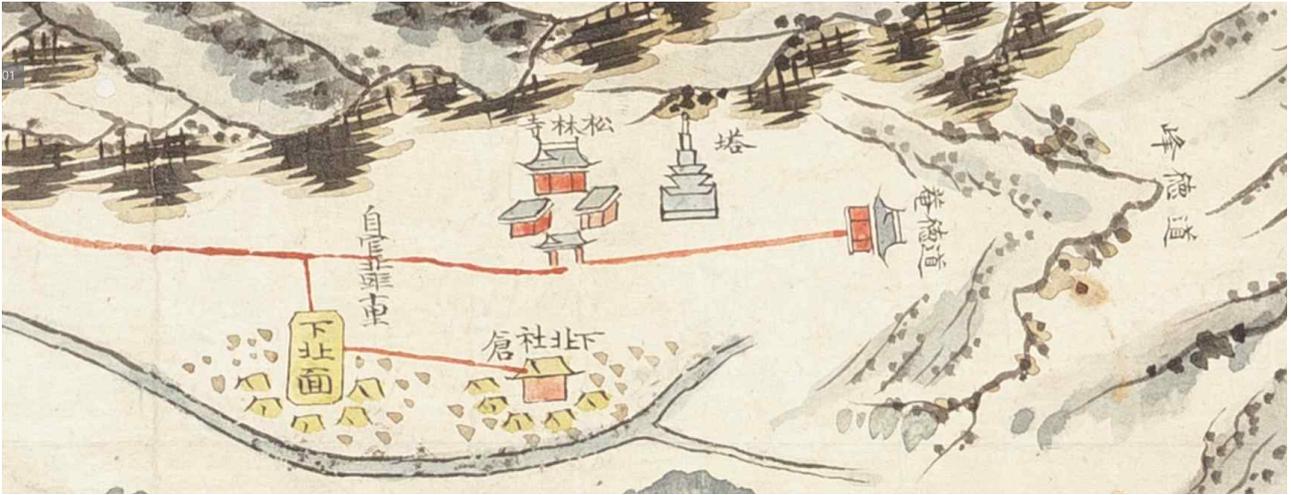


그림 1> <1872년 지방지도, 칠곡지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역 안에는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오층전탑과 여러 석조유물을 필두로 조선후기에 중건된 대웅전과 명부전이 사역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근래 들어서 응진전, 삼성각, 삼천불전, 설법전, 요사채 등을 새로 지어 사역을 이루고 있다. 이들 건물 가운데 대웅전은 2012년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34호로 지정되었다.

2. 연혁·유래 및 특징

1) 송림사의 연혁과 유래

사역 안에 남아있는 전탑이나 석재 유물은 송림사의 오랜 역사를 증명하지만 아쉽게도 기록이 드물어 송림사의 연혁과 유래는 조선후기의 자료를 토대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최근인 1980년에 세운 <송림사사적비(松林寺事蹟碑)>는 당시까지 사중에 전해오던 이야기와 자료를 토대로 삼았기 때문에 자료가 지닌 한계가 있다. 이외에 대웅전에서 나온 <1775년 대웅전중수기>, <1850년 상량문>은 주불전인 대웅전 건립에 관해서 자세하고 신뢰할만한 근거를 적고 있어 이들 기록과 기 연구 성과를 토대로 간략하게 송림사의 연혁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적비에 의하면 송림사는 신라 눌지왕대(417~458)에 묵호자(墨胡子)가 처음 불법을 전하면서 사명을 ‘송림사’라 하고, 이후 소지왕대(479~500) 무렵 사찰을 본격적인 가람을 성립했다고 전하나 뚜렷한 근거는 없다. 『해동고승전』을 보면 544년(진흥왕 5) 중국 진(陳)나라에서 귀국한 명관(明觀)이 불경 2,700권과 불사리를 이운해 왔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오층전탑에 봉안하였다고 한다.³⁾

송림사의 역사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오층전탑(보물 189호)은 사역 중앙부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 탑은 전탑이란 재료와 규모도 비교되지 않은 가치를 지녔지만 안에서 사

3) 1959년 송림사 오층전탑을 해체·복원할 때 사리장엄구에서 불사리 4과가 발견되었다. 전탑 안에 거북 모양의 석함(石函)이 안치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전각형 사리탑(殿閣形舍利塔)과 유리잔, 사리병 등이 출토되었다.

리장엄구가 발견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아왔다. 사리장엄구는 자체의 제작시기는 물론 송림사의 창건시기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로 쓰이고 있지만 시기를 두고 연구자 간의 견해가 엇갈린다. 오층전탑의 건립시기는 8~9세기로 추정하는 반면 사리장엄구는 7세기 후반경으로 추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지금 사역 안에 잔존하는 석조 유물은 양식으로 보아 8세기 중후반 경의 경향을 보이고, 출토된 명문 전돌은 7세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어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송림사는 늦어도 7세기 후반 무렵 사찰이 경영되고 있었을 여지는 충분하다. 요약하자면, 7세기 후반에 창건 내지는 사세가 확장되는 계기가 일어났음은 분명하나 구체적인 시기와 동기는 아직 밝혀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최근 들어 통일신라시대 송림사에 관해 신문왕의 달구벌 천도론과 연계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신문왕 즉위 후 달구벌을 천도 후보지로 계획하고 왕성 축성을 비롯하여 관아, 도로 건설, 사찰 건립 등 일련의 기반시설 조성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하고,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송림사를 건립 내지는 사세 확장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달구벌로 통하는 주요 육로 교통로는 송림사가 위치한 동명을 경유하여 남하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착안한 견해로 주요 교통로 상에 조성된 송림사의 사격과 평지사찰로서의 가람배치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로 판단된다.

고려시대 송림사는 여러 스님들이 거론되고 전란으로 소실된 정황이 나타나나 뒷받침할만한 사료는 부족하다. 이후 조선전기에도 기록이 드물기는 마찬가지여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조차 송림사는 기록이 없다. 임진왜란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언급한 1차 사료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으나 양란 이후 잇따른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 가산(架山) 요새에 삼중으로 산성을 축성하고 경산부(京山府, 현재 성주)에 속했던 팔거현을 ‘칠곡도호부’로 승격한 조치는 이 일대가 지닌 관방상의 중요도를 짐작케 한다. 게다가 임진왜란 당시 대구 지방은 일본군의 주력부대의 통과 지점인 동시에 후방 보급로로서 계속 일본군이 주둔하여 적의 소굴이 되었다. 이런 전쟁의 전개양상으로 미뤄 송림사 일대가 입었을 피해는 충분히 이해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17세기 중반부터 진행된 불사를 기록한 문서가 발견됨으로써 조선후기의 송림사에 관한 사정은 전보다 훨씬 낫다. 양란 이후 1649년부터 1665년 사이 송림사는 재건을 통해 대웅전을 비롯하여 극락전, 명부전 등의 불전을 지어나갔으며, 각 전각의 내부에는 존상을 봉안하였다. 1649년에 지은 대웅전 안에는 1657년에 목조 석가삼존상(보물 1605호)을 봉안하였으며, 극락전에는 1665년에 석조 아미타삼존불상을 조성하여 모셨고, 1665년에는 목조 시왕상을 봉안하였는데 지금 명부전에 모셔져 있다. 전각 명칭으로 미뤄 주불전인 대웅전 외에 극락전을 둔 구조였으며 부불전으로 명부전을 마련하여 사세를 구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호만 가지고 추측하기엔 한계가 있으

4) 후보돈, 「신라 달구벌 천도 지도와 김씨 집단의 유래」, 『백산학보』52, 1999, 570쪽; 수리보고서 63쪽에서 재인용.

나 조선후기 송림사는 대웅전과 극락전 두 불전을 중심으로 가람배치를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1775년 대웅전 수리, 1830년 당호를 파악하기 어려운 건물의 수리, 1850년 대웅전의 전면 해체수리 등을 거쳤으며 1959년 4월에는 전탑을 해체·복원하고 여러 건물의 크고 작은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2년에는 대웅전을 해체·수리하였다.

2) 대웅전 중수기록 검토⁵⁾

사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웅전에서 나온 기록자료로는 <건륭사십년을미사월초삼일경진진시상량 대웅전중수기(이하 대중전중수기 1775)>와 <1850년 중수 상량문>이 전한다. 두 기록은 18세기 후반 중수 사실과 19세기 중반 중수 사실과 함께 현 송림사 대웅전의 재건시기인 1649년의 공사 정황을 간략하게나마 수록하고 있어 1649년 재건 이후 1775년 중수에 이어 1850년의 중수과정을 시기별로 살필 수 있다. 이외 대웅전 중수 이후 봉안한 삼존불, 시왕상 조성을 적은 문건도 남아 있어 건물은 언급하지 않았다 해도 존상 봉안까지의 과정이나 참여자를 파악할 수 있어 조선후기 송림사의 사세까지 어렵할 수 있다.

1649년 대웅전 중수

1649년 대웅전 중수 정황은 당시 기록이 아니라 나중에 적은 <대웅전중수기 1775>에 요약된 형태로 적혀 있다. 1649년 중수공사는 벽암당(碧巖堂) 조희(祖熙)대사가 중수주(重修主)였고 도감은 판사(判事) 혜홍(惠弘)이 지휘하였으며 실제 건축공사는 ‘집승장씨(執繩匠氏)’ 각원(覺圓)으로 밝혔다. 각원은 1649년에서 1659년 사이에 송림사 대웅전 외에 운문사 대웅보전, 북지장사 대웅전에서 대목으로 활동한 이력이 확인되는 승려로 17세기 중반 무렵 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연관한 중요한 유물과 기록은 바로 현재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 석가삼존상과 불상 조성 과정을 적은 <석가삼존불조성기(1657)>이다. ‘순치 14년 8월에 조성·봉안’한 사실을 적고 있어 1649년 대웅전을 건립한 뒤 8년이 지난 1657년에 들어서 목조로 삼존상을 조성하여 모셨음을 알려준다.⁶⁾

이 기록을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1649년에 대웅전 공사에 중수주와 도감을 지휘한 조희와 혜홍이 화주질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내질(寺內秩)에 적힌 132명의 승려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6명의 승려가 1930년대에 구례 화엄사 재건역에 참여했고, 10여명은 17세기 전반기 완주 송광사 개창 불사에 등장하며 이 불사가 끝난 직후인 1657년 송림사 대웅전, 재건된 양산 신흥사 대광전의 상량문서, 1679년 산청 율곡사 대웅전

5) 이장근, 『송림사의 재건과 대웅전 건축의 연구』, 『강좌미술사』27호를 요약, 정리하였음을 밝혀둔다.

6) 송림사 목조 석가삼존불 좌상은 17세기에 조성된 대형 목조불상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조성기를 통해 조각승(道雨 외 7인)과 시주자 등의 조성배경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불상 조성 불사에 참여하였다.

또한 계신(戒信)은 1657년 기록에도 등장한다. 화주 덕명(德明)은 송광사 개창비문에 서는 연화질에, 송광사 불상 조성 시주록에는 삼강에 등장하고, 율곡사 대웅전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사내질에 적힌 도한(都閑)은 율곡사 대웅전 상량기에 시임 주지로, 설해(雪海)는 1653년 운문사 대웅보전 상량목서 수두질(首頭秩)에서 볼 수 있다. 이처럼 1657년 송림사 불상 조성 불사에 참여한 승려는 화엄사 중창(1630년대), 완주 송광사 개창(1636~1656), 운문사 대웅보전(1653), 신흥사 대광전(1657), 율곡사 대웅전(1679) 공사에 참여한 승려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1775년 대웅전 중수

<대웅전중수기 1755>에는 금파(琴波)대사 영화(永華)가 주도한 당시 대웅전 중수공사의 전말을 기록한 문건이다. 1755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4월 초3일에 상량하였는데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 짓기까지 기간을 신속(神速)했다고 자평한 내용이 눈에 띈다. 공사를 하게 된 연유는 건물이 기울어지고 썩어서 100여년 만에 수리를 한 것으로 적혀 있다. 공사 범위는 명확하게 거론하지 않았으나 수리에 참여한 기술진으로 개장(蓋匠), 도편수, 부편수, 좌편장, 우편장 등 4인이 적혀 있어 지붕 공사를 비롯하여 목공사가 포함된 수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승려 90여명과 속인 13명 등 100여명이 넘는 시주자의 이름이 적혀 있으나 시주자의 숫자만으로 공사범위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이름으로 미뤄 대부분 승장으로 추측되며 우편장 천○삼, 김대흥, 개장 김용○ 등 세 사람은 속인으로 판단되어 목공사와 지붕공사에 민간 장인이 참여한 변화를 볼 수 있다.

여기서 그간 의심 없이 자료를 인용해 왔던 송림사 기성대사비에 관해 간략히 문제점을 짚고 가고자 한다. 이 비석에 관해서는 “비는 송림사가 1243년(고종 30) 몽골의 침략으로 절이 소실된 상태에서 400여 년간 방치되어 오다가 1686년(숙종 12) 기성대사에 의해 대웅전과 명부전이 중창되었으므로 이를 기리기 위해 건립된 것이다. 비문은 이미(李瀾)가 짓고, 윤동섬(尹東澁)이 글씨를 쓰고, 조종현(趙宗鉉)이 전(篆)하였다.”⁷⁾고 하여 대웅전과 명부전 중창에 기성대사가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성대사는 한자로 ‘箕城’ 혹은 ‘箕聖’으로 쓰는 승려로 우선 생몰년(1693~1764)이 위의 설명과 불일치한다.⁸⁾ 비문 원문을 검토하지 못하여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대웅전과 명부전 중창에 관한 기존의 견해는 재검토가 필요하며, 기성쾌선이 팔공산 일대 사찰에 남긴 현판이나 일부 사찰 중창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송림사 사적 규명과 동시에 송림사 대웅전의 시대상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승려로 판단되므로 명확한 연구가 필요

7)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디지털칠곡문화대전, 검색어: 기성대사비.

8) 기성쾌선(箕城快善, 1693~1794)은 속성은 유씨로 칠곡에서 태어나 13세에 송림사로 출가하였으며 이후 팔공산 일대 사찰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한 점은 인정된다.

1850년 중수: <칠곡송림사대웅전중수상량문, 도광30년 경술>

이 상량문은 현 송림사 대웅전의 시기나 양식 규명에 가장 핵심을 담고 있는 기록이다. 글의 구성은 상량문·화주질·본사질·목수질·공양주질·도덕암질 순으로 기록하고 있다. 상량문은 진해당(鎭海堂) 영수(映修)가 짓고, 비구 상홍(常洪)이 썼다. 다소 과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웅전을 중수할 무렵 송림사는 사찰 전체가 쇠락한 분위기였다. 네 채의 법우(法宇)와 탑만이 남아 있어 십여칸의 방사는 모두 무너지고 새로 짓지 못한 상태였다. 크고 훌륭하여 존승을 받았던 대웅전은 한 쪽 [一遇] 이 퇴락하여 (절에) 사는 이는 혀를 차며 탄식하고, 지나는 이는 비통해했다. 수리 범위와 사유를 짐작케 하는 이 표현으로 미뤄 대웅전 한 쪽이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하게 퇴락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눈길을 끄는 내용은 “새 나무를 구하려 해도 얻을 수가 없었으나, 오히려 옛 재목을 사용하여 이를 수 있었다. 동서의 대발은 줄이고 덜었으며, 앞뒤의 주춧돌은 좁고 촘촘히 세웠다. (그리하여) 널리 장엄되었던 옛 명성을, 우뚝하고 치밀하게 오늘에 되살리었다.”는 부분이다.⁹⁾ 흥미롭게도 공사 과정을 역순으로 쓰고 있는데, 상량에서 파옥(破屋) 순으로 기록하였다. 파옥이라 쓴 것으로 미뤄 당시 공사는 대웅전 건물을 완전히 해체한 범위임을 알 수 있다.

상량문에 이어 도감·화주·수좌·상지전·하지전·도덕암지전·별좌 순서로 기록하였다. 도감과 동시에 화주는 경제당(敬濟堂) 정기(正基)가 맡았으며 화주 가운데 몽계당 선의는 현재 도덕암에 진영이 남아있다. 본사질에 적힌 승려를 보면 전총섭겸승통 쾌율을 비롯한 전직 승통과 승장에 있었던 승직(僧職)이 기록되어 있어 승군과 송림사와의 관련성이 추측되나 나중 연구로 남겨 둔다.¹⁰⁾

목수질에는 도편수 김종상, 부편수 승 대운(大允)·장원(壯元), 좌편장 장용진·박천웅·김대권·봉해룡·승 기운, 청장무(廳掌務) 창신, 철물편수 찬일, 우편장 권경득·승 수언(守彦) 등이 적혀 있다. 대웅전을 중수하는 공사지만 도편수는 민간장인이 맡고 부편수는 승장 두 사람이 수행하였으며 이외 7명의 목수 가운데 5은 민간, 2명만 승려여서 공사 전반에 걸쳐 민간장인의 기량이 발휘될 여지가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런 현상은 송림사에 국한되지 않은 19세기 이후 사찰의 건축공사를 민간 기술자가 담당하는 변화 가운데 한 사례일 뿐이다.

9) 원문은 “雖欲用新木而無處可得 勢將依舊材而有餘足成 縮除東西簾 促立前後礎 廣博嚴飾昔時間”이다.

10) 가산산성(架山山城)의 승군은 동원된 승군 254명과 이를 통솔하는 영남총섭(嶺南總攝) 1명, 가산진승장(架山鎭僧將) 1명, 군관인 기패관(旗牌官) 1명 등 모두 257명으로 편제되었다. 가산산성의 총섭은 때로는 영남도총섭으로 불리면서 영남 일대의 사찰을 장악하였다. 즉 경상도의 승군 전체를 통솔하였을 뿐 아니라 각 사찰의 사무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3) 대응전의 현황과 건축특징

송림사 대응전은 평면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정면과 측면의 비율이 약 2:1가량이어서 정면성이 강조된 형태이다. 영조척을 고려하면 정면은 정칸 17자, 협칸 12자, 뒷간 6자 간살이며, 측면은 세 칸 모두 9자로 일정하게 주칸을 계획하였다. 후불벽은 측면열기둥과 축을 같이하고 3칸 길이의 불단을 시설하고 있어 대응전 내부 전면의 예불공간은 전체 규모에 비해 다소 좁은 편에 속한다.

기단은 아주 얇아서 장대석 외벌대이며 최근 들어 수리하면서 신재로 교체되었으며, 일부는 탑의 부재로 추정되는 석재가 섞여 있다. 기단 외부로 네벌대로 쌓은 전면 축대가 있었는데 현재는 신재로 바뀌고 출입 계단도 재료는 물론 형태도 달라졌다. 초석은 자연석 초석과 주좌를 새기지 않은 방형으로 가공한 형태가 섞여 있어 시차를 짐작할 수 있다. 두 유형 모두 초석의 운두가 낮아 기단 상면과 높낮이 차이가 거의 없다. 기둥 직경에 비해 초석의 크기는 작고 낮다.

기둥은 모두 단면을 원형으로 가공하였으며 평주 16본, 고주 4본으로 구조를 짰다. 평주 직경은 520mm 내외, 우주는 600mm로 우주를 평주에 비해 다소 큰 부재를 사용하였다. 고주 4본도 위치에 따라 크기에 차이를 뒀는데 양쪽 끝은 540mm, 안쪽 2본은 420mm 내외의 부재를 사용하였다. 기둥은 전체적으로 민흘림으로 다듬었고, 일부 기둥은 거의 거피만 한 정도로 거칠게 다듬은 경우도 보인다.

기둥 상부는 다포집답게 창방과 평방을 차례로 올렸다. 창방은 폭 270mm, 춤은 420mm 내외 크기로 소매걸이를 한 뒤 장부를 내서 기둥 사괘와 결구시켰다. 창방 뿔목은 단면의 크기를 유지한 채 우주 상부에서 결구되어 있다. 평방은 폭 540mm, 춤 245mm 내외이다. 평방은 한 부재로 쓰지 않고 폭 방향으로 목재 두 개를 붙여서 설치하였다. 재목 두 개를 길이 방향으로 맞댄 후 측면에서 산지를 박아 쪽대로 평방을 구성한 것이다. 평방 이음은 정면 좌측 우주 상부에서는 도리방향의 평방이 받을장, 보방향의 평방은 업힐장으로 짜여 연귀반턱맞춤 결구를 한 반면에 나머지 우주 위의 평방은 도리방향은 업힐장, 보방향은 받을장으로 짜서 정면 좌측 우주 위의 평방과 반대로 결구한 점이 보인다. 맞배집임에도 불구하고 창방과 평방을 측면에서 구조재로 설치함으로써 측면 구성은 일반적인 맞배집 구조, 입면과 차이를 보인다.

공포는 내3출목 외2출목으로 짰는데 대응전 전후에 각각 10조씩 배열하였다. 전후 모두 정칸에는 주간포를 2조 두었으나 나머지 칸은 주간포를 1조씩 짜 올렸다. 측면은 창·평방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공포는 설치하지 않은 다포계 맞배집 유형으로 분류된다. 공포를 받는 주두는 첨차 폭과 비슷한 정도로 크기가 커서 걱정한 비례를 잃었다. 왜, 이렇게 주두를 크게 썼는지, 의아하다. 의도된 조형일지, 구 부재를 쓴 데서 비롯된 결과인지는 육안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첨차는 마구리 상부는 직절하고 하부는 원형으로 궁글린 교두형(翹頭形)이다. 첨차

는 주심과 출목에 사용된 첨차길이가 서로 다르다. 첨차길이는 주심대첨, 출목대첨, 주심소첨, 출목소첨 순이며 주심대첨이 가장 길다. 첨차의 결구는 제공살미와 반턱맞춤되어 있으며 살미가 업힐장 첨차가 받을장으로 짚다. 전면 기둥열 주상포 제공의 내2출목대첨차, 내3출목 소첨차는 대보 옆면에 첨차의 춤과 폭만큼 홈을 파서 결구하였으며 후면 기둥열의 정간 양쪽 기둥과 우주 위의 주상포는 대보, 협칸과 뒷간 사이 기둥의 주상포는 뒷보하고 전면 기둥열의 주상포에서와 동일한 수법으로 결구되었다. 살미는 아래에서부터 교두형+삼분두형+운공형으로 짜 올렸다. 교두형 부재를 중심으로 공포를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교두형 계열 공포는 대구 팔공산 일대와 경북 청도·영천, 경남 산청 등지에 분포하며 팔공산 일대 사찰에 집중 분포한 특징이 있다.

가구구조는 후퇴 이중량으로 짚다. 정간을 기준으로 보면 대보를 통으로 보내 전후면 기둥열을 연결하고 그 밑에 불벽을 구성하기 위해 세운 헛고주로 지지하는 방식이다. 측벽은 전후 평주 사이를 대보로 연결한 무퇴 이중량 구조이다. 내부는 우물천장과 빗천장을 혼용하였다. 처마는 겹처마루 구성하고 맞배지붕으로 덮었다.

창호는 정면 어간에 네짝, 협칸에 세짝, 뒷간에 한짝을 설치하고, 좌우측면은 전면 뒷간에 한짝, 후면 뒷간에 한짝씩 설치하였다. 배면에는 정간에 두짝이 설치되어 있다. 창호 개폐방식은 실내로 열고 닫는 안여단이 방식이다. 정·배면의 정간 가운데 창호와 협칸의 가운데 창호는 하인방과 결구된 신방목에 축구멍을 파고 문얼굴의 상부에 설치된 둔테를 이용하여 안으로 여닫는 방식이다. 신방목을 이용하여 안으로 여는 문짝 옆에 달린 문짝은 개폐되지 않는 고정식 불박이 창호라는 점도 특색이다. 전 시기 건물에 쓰였던 창호로 추정되는 실물이 후불벽, 배면 등에 남아 있다.

외벽은 하부를 판벽으로 꾸몄는데 판재 두께가 인방 폭과 비슷한 두께여서 구부재를 재사용한 흔적으로 추정하며, 표면에 회로 바르고 단청 마감하였다.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1) 정면 5칸 불전 규모가 지닌 가치

송림사 대웅전은 단층에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로 5칸이란 정면 칸수 면에서 현존하는 조선후기 불전 가운데서 흔치 않은 작례에 속한다. 기록에 따르면 임진왜란 이전 불전, 특히 주불전은 중층구조를 취하거나 정면 3칸 이상의 간살이 주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임진왜란으로 전국의 사찰들이 전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뒤 17세기 이후에 들어서 재건하게 되었지만 이전의 규모를 회복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존하는 대다수 불전은 17세기와 18세기에 다시 지은 건물로 이러한 시대변화가 잘 드러난다. 임진왜란 이후 재건된 불전은 대부분 단층으로 구조가 축소되고 평면 간살도 3칸, 혹은 2칸으로 축소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인다. 평면 규모에 대한 연구를 보면, 사찰의 전각이 지속적으로 축소는 경향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었

다. 고려시대에 비해서 사찰 경제가 축소된 경향 속에서 사찰은 재량이 되는 대로 작은 전각을 지어 나가는 것으로 세를 불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전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시각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제 역할을 하는데 양보하기 어려운 규모로서 3칸×3칸 전각이 유형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측면 2칸형의 유행도 연원은 유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¹⁾

현존하는 불전을 대상으로 평면형을 조사한 연구를 보면 송림사 대웅전과 같은 정면 5칸 건물은 측면 3칸의 사례가 가장 많아 22동으로 확인되었고, 측면 4칸의 사례는 3동이어서 대체로 다른 유형의 불전에 비해 분포도가 낮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5칸 규모로 주불전을 재건한 송림사 대웅전은 그 규모만으로도 3칸 불전이 주류인 다른 사찰과 차별되는 가치로 인정된다. 조선후기에 건립한 5칸 불전은 사례가 많지 않고 현재 대부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보호받고 있는 현실도 고려될 배경으로 판단된다.

2) 실내 중앙에 불단과 후불벽을 둔 고식 평면

송림사 대웅전은 1649년에 재건하면서 평면 구성에 있어서 동시기에 재건된 불전과는 불단과 후불벽 위치, 간살 구성에서 고식 특색을 견지한 점이 두드러진다. 측면 가운데 칸은 좌우 협칸에 비해 너비가 반 자 정도 좁은 편이고, 고주열을 배면쪽 기둥열에 맞춤으로써 불단이 대웅전 중앙을 차지하게 된다. 석가삼존상을 받치고 있는 불단은 거대한 편으로 크기는 가로 13m, 세로 2.44m, 높이 1.03m이며, 전면에는 화려한 부조 조각을 새겼다. 중앙 세 칸에 불단이 점유함으로써 사실 5칸 불전이지만 송림사 대웅전의 실내 예불공간은 일반 불전에 비해 넓다고 보기 힘든 결과가 되었다.

이런 실내는 동시기 재건된 불전의 추세와는 차이가 확인된다. 대체로 임진왜란 이후 17~18세기에 재건된 불전들은 이전과는 면이 관찰되는데, 불단과 후불벽, 바닥재료 면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그 이유로는 불전 안에서 법회와 의식을 거행하게 된 의례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꼽고 있다. 실내에서 의례를 거행하게 되면서 실내공간을 확장할 필요가 생겼고 자연스럽게 고주열을 뒤로 물려(이주법) 불상 전면의 예불공간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반면 송림사 대웅전은 여전히 배면쪽 고주열에 후불벽을 설치하고 그 전면에서 세로 폭은 건물 측면 가운데 칸과 길이를 동일하게, 가로 폭은 세 칸 너비에 맞춰 불단을 배치함으로써 실내 중앙부를 점유한 평면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선후관계는 규명하기 어려우나 불단과 후불벽이 고식을 나타내듯 간살 구성도 특색이 있다. 『영조법식 조사보고서』(문화재청, 2006)에 따르면, 동시기에 재건된 불전은 주로 정칸 강조형(B-B-A-B-B)이거나 5칸을 모두 동일하게 구성하는(A-A-A-A-A) 두

11) 전봉희·이강민, 『3칸×3칸(한국건축의 유형학적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74쪽, 80~82쪽.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비해 송림사 대웅전은 6자-12지-18자-12자-6자(C-B-A-B-C)로 주칸을 설정한 특색이 보인다.

이런 주칸 설정은 만복사지 서금당, 무량사 극락전 등의 건물에서 보이는 고식기법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완전해체한 뒤 중건한 1850년 수리공사에서 평면의 간살을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살 구성은 물론 불단과 후불벽 위치를 직전 대웅전의 모습 혹은 고식기법을 유지한 것으로 여겨진다.

3) 수기시기별 세부기법과 부재를 유지한 사례

1649년에 재건된 대웅전은 이후 1755년, 1850년의 수리 기록이 확인된다. 현재 대웅전의 건축에는 양식과 구조면에서 공사가 시행된 각 시기의 흔적들이 두루 남아있다. 이 가운데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둘로 집약되는데 첫째, 교두형으로 가공한 공포, 둘째는 구부재의 계속 사용을 통한 이전 시기 건축과의 연속성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송림사 대웅전의 공포는 살미에 쇠서가 없는 형태로 교두형 공포로 분류된다. 이런 유형의 공포 양식은 비교적 시기가 올라가는 편으로 조선후기에는 널리 쓰인 방식은 아니다. 이 시기에 교두형 공포를 채택한 건물은 분포지에서 대구 일원을 필두로 안동, 경남의 일부(산청)를 포함하는 범위에 든다. 송림사가 자리한 팔공산 일대에 교두형 공포를 쓴 건물들이 집중 건립된 점은 하나의 특색으로 판단되는데, 그 근간에 승장 각원(覺元)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의 기술과 기법을 계승한 승장들이 이들 지역의 건물을 지었다는 분석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공포 외에도 이들이 지은 건물은 구조면에서도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¹²⁾

둘째, 구 부재를 지속하여 사용한 1850년 중수공사인데, 앞서 상량문에 인용하였듯이 이 시기 공사는 여러 부분에서 이전 대웅전과는 건축의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상량문을 다시 인용해서 한 대목씩 내용을 분석해 보면, ㉠“새 나무를 구하려 해도 얻을 수가 없었으나”인데 수리를 앞두고 새 목재를 구하려고 시도한 흔적으로 판단된다. 한 쪽으로 기울어진 대웅전을 육안으로 살핀 뒤 대강의 공사범위를 파악하고 새 자재가 필요한, 교체 부재를 신재를 수급하려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교체할 부재는 주로 구조재로 추정되며 이 경우 대경재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쉽게 구하지 못할 유형의 목재로 추측되는데 가장 구하기 어려운 부재를 고려하면 추녀, 사례일 여지가 있고 만일 그렇다면 이때 수리를 거치면서 팔작지붕에서 맞배집으로 개조되었을 수도 있으나 ㉠의 내용이 지나치게 소략하여 더 이상의 추론은 어렵다.

다음은 ㉡“오히려 옛 재목을 사용하여 이를 수 있었다.”란 내용이다. 앞서 ㉠에서

12) 오세덕, 「17세기 승장의 건축술 연구」, 『동양미술사학』12호, 2011. 이 연구에서는 송림사 대웅전이 각원이 중수하긴 했지만 전면적인 재건이 아니라 일부 중수로 인해 각원의 건축 역량을 나타낼만한 기술력이 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 즉, 송림사 대웅전이 각원의 대표 기법으로 꼽히는 교두형 공포를 쓴 점은 인정되나 송림사 대웅전 이후 건물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 등이 채택되지 않은 점에 착안한 견해이다.

새 재목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대응전의 부재 즉 옛 재목을 이용하여 공사를 마무리 한 것이다. 새 자재 투입을 포기하고 기존 부재를 이용하여 조립하는 쪽으로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에서 자재수급이 어려운 현실을, ㉡에서 대책으로 기존 대응전의 부재로 수리하기로 계획을 세우자 그 방법으로 ㉢이 제안되었다. ㉢은 “동서의 대발은 줄이고 덜었으며, 앞뒤의 주춧돌은 좁고 촘촘히 세웠다.”는 내용인데 동서의 대발(주렴, 정면 간살)을 줄이고 덜었다는 표현은 동서 방향의 간살 규모를 줄이고 덜었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또한 앞뒤의 주춧돌은 좁고 촘촘하게 세웠다는 말 역시 간살을 이전과 달리 구성한 것을 가리킨다.

요약하자면 ㉢은 1850년 중수공사를 통해 송림사 대응전의 간살이 이전 건물에 비해 사방 모두 축소된 것으로 추론된다. 다시 말해서 1850년 중수공사를 통해 현 송림사 대응전이 갖추어졌지만 상량문㉣의 내용대로 구 자재를 최대한 사용하였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구자재 흔적은 공포, 평방, 판재, 창호 등 건축부재에서 두루 확인할 수 있다.

4) 불상의 시선을 고려한 의도된 개폐방식과 장엄용 꽃살문

송림사 대응전의 창호는 정면, 좌우측, 배면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이 가운데서 주목할 부분은 정면 정칸을 꽃살로 장엄한 데에 있다. 정칸은 4짝으로 창호를 나누었는데 가운데 두짝은 빗살, 좌우 두 짝은 꽃살문을 설치하였다. 협칸은 모두 빗살로, 뒷칸은 격자살로 창호를 짜서 정칸에 대한 위계를 드러냈다. 형태가 다른 문살은 수리시기를 반영한 결과겠지만 명확한 시기 구분은 어렵다.

불교의례에서 공양의 기본은 향(香), 꽃, 등불(灯) 3종이고, 여기에 음식이 더해진다. 불교의식에서 꽃을 공양하는 방법은 생화를 장식하거나 여건이 안 될 경우 조화를 쓰는 방식으로 변용되어 나타난다. 건물 문짝의 소재로 꽃을 사용한 방식은 꽃 공양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송림사 대응전의 꽃살문 역시 이러한 꽃 공양의 틀 안에 있는 장엄 방식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 송림사 대응전처럼 신방목을 설치하고 문짝을 안으로 여는 개폐 방식은 흔치 않다. 신방목은 정칸과 양 협칸에 설치되어 있다. 정칸에는 2개소를 설치하여 두 문짝을 안으로 열 수 있고, 좌우 협칸에는 신방목 1개소를 각각 설치하였으며 가운데 문짝 하나만 안으로 열게 고안되었다.

더욱이 정칸과 좌우 협칸의 열린 문짝을 통해 외부에서 삼존불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방식도 의도된 장치로 판단된다. 불단 위에 가운데 석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문수·보현보살이 봉안되어 있는데, 세 칸에 열린 문의 위치는 삼존불의 정면과 일치하여 이들 문짝만 열면 밖에서도 삼존불을 예불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문 전체를 개방한 경우보다 불상에 집중할 수 있는 극대화된 효과를 노린 장치로 추측된다.

게다가 정칸의 가운데 칸 문짝을 꽃살로 치장하는 방식이 훨씬 장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송림사 대웅전은 안으로 열리는 두 짝 보다는 항상 고정된 기둥 쪽 문짝을 꽃살로 장식함으로써 문을 연 상태에서 주존불을 장엄하는,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꽃살문에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³⁾

5) 다포계 맞배집으로 변모와 이를 뒷받침하는 구부재와 기록(상량문)

송림사 대웅전은 1649년 중건 이후 크게 두 차례의 수리(중수)를 거쳤다. 그 가운데서도 현재 모습으로 변모한 시기는 두 번째 수리를 한 19세기 중반인 1850년으로 당시 공사를 기록한 상량문이 남아 있어 명확한 중수시기와 수리공사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혼치 않은 가치라고 평가된다.

상량문을 보면 “청나라 도광 30년(1850) 2월 27일 오전 9시에 들보를 올리고, 2월 14일 7시에 기둥을 세우고, 2월 10일에 주춧돌을 박고, 2월 6일 9시에 터를 닦고, 1월 28일에 집을 뜯어냄”으로 적혀 있다. 공정을 역순으로 기록한 셈인데, 이를 정리하면 1850년 1월 28일에 건물 해체를 시작하고 2월 6일에는 터를 닦았다. 터를 닦았다는 표현으로 미뤄 이때 건물은 완전해체 공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터를 닦고 나서 4일 뒤인 10일에 들어서 초석을 놓았다. 이후 7일이 지난 14일에 기둥을 세우는데 들보를 올리는 시점은 이로부터 13일이 경과한 27일에 이르러서였다. 상량문에는 들보까지 올린 공정만 적혀 있어 대체로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건물은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1850년 중수공사의 특징으로 최대한 구부재를 재사용한 점을 꼽았다. 완전해체 공사였지만 신재 투입을 줄이고 구부재를 활용한 결과 이전 대웅전의 건축형태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 이미 상량문을 통해 간살의 변화와 구조의 변화를 추정하였지만 2012년 수리공사에서 부재에서도 그 증거가 확인되었다. 먼저 평방 길이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서는 “측면 정칸 평방의 산지구멍의 위치를 보면 평방 마구리에 많이 인접하여 뚫었는데 구조적으로 매우 불합리한 위치에 구멍을 만들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불합리한 위치에 만들었다기보다는 주간보다 길이가 긴 평방을 측면 정칸 주간에 맞춰 잘랐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근거이다. 만약 대웅전에 원래 사용했던 평방이라면 주간의 축소를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현재 후불벽에 설치되어 있는 창호는 중수 전에 쓰였던 창호로 추정되는데 만일 그렇다면 지금보다 평주열 주고는 700mm 정도 증가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두가 재폭에 비해 주두 상부폭의 비가 1:3~4 정도인데 송림사 대웅전은 6배 정도로 큰 편에 속하고 공포대 높이에 비해서도 큰 편이어서 중수 전의 공포

13) 마당에 자리한 전탑과 대웅전 정면 창호의 개폐방식은 다소간의 연관성이 추측된다. 야외에서 벌인 불교의례와 대웅전이 서로 조우하는 의례를 짐작케 하나 현재까지 확인된 연구는 없다.

대 높이가 지금보다는 높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판벽에 설치된 판재의 폭은 보통 판재 두께를 넘어선다. 장혀나 수장재 두께와 유사한 부재가 다수 남아 있어 구부재를 재사용한 흔적으로 추측된다. 살미 부재의 맞춤도 일부는 반턱으로, 일부는 맞댐 맞춤으로 결구되어 있어 시기별 기법의 혼재로 판단된다.

결정적인 증거는 측벽에 설치된 대보에 있다. 측벽에 설치된 대보는 보통 맞배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구조방식은 아니다. 게다가 이 대보는 상부에 결구홈이 있는데(좌측 1개소, 우측 1개소) 수장재를 끼웠던 홈으로 추측되며, 단면이 둥근 것으로 미뤄 원래 기둥부재를 보로 전용하였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렇듯이 1850년 중수공사는 신 자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출발한 중수공사였고 구부재를 적극 사용하면서 건축형태의 변모라는 결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조선후기 주불전에서도 이런 실상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나 송림사 대웅전은 건축부재의 흔적과 상량문이란 기록이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록 없이 부재만으로 추정하는 다른 불전과 차별되는 가치라 할 수 있다.

4. 종합의견

송림사는 사중에 남아있는 전답을 비롯한 석조유물 등에서 오랜 연원을 파악할 수 있으나 조선후기 이전의 사료가 소략한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팔공산 일원 사찰 가운데 뚜렷한 족적을 남긴 사찰로서 활발한 종교활동이 이뤄진 사찰이었음을 대웅전 중수를 기록한 상량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대웅전은 송림사의 주불전으로 전란을 겪은 뒤 1649년에 중수되었으며 이후 1755년, 1850년 두 차례의 중수를 거쳐 현재 모습으로 남아 있는 건물이다.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인데 동시기 재건된 불전이 정면 3칸, 혹은 2칸을 채택하는 추세인데 비해 이런 흐름과 달리 이전 시기의 규모를 견지하였다. 평면 규모뿐 아니라 실내구성에서도 중앙에 대형 불단을 설치하고 후불벽을 두어 예불공간을 확장시키는 시대 흐름을 따르지 않고 고식을 취하고 있다. 공포의 짜임은 비교적 시기가 올라가는 교두형 공포로 짰는데 이런 유형의 공포는 팔공산 일대 사찰 등에서 집중 나타나는 지역 특색으로 인정된다. 정간의 창호는 불상의 시선을 고려하여 의도된 개폐방식을 적용했는데 다른 불전에서 보기 드문 독특한 방식이다. 구부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점은 잔존하는 대웅전의 건축부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기록(상량문)으로 파악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송림사 대웅전은 17세기 중엽 중수된 이후 18세기 말, 19세기 중엽 두 차례의 중수를 거치면서 간살을 재조정하고 외관이 달라지는 수준의 큰 변모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팔공산 일대 사찰건축의 특징이 반영된 구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함으로써 지역색을 잘 계승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 6. 23.	대상문화재	칠곡 송림사 대웅전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 ○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칠곡 송림사 대웅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아래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아래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아래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아래 참조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아래 참조		
종합의견		아래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 환경

칠곡 송림사(松林寺) 대웅전은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의 팔공산 남서쪽 끝자락에 있는 사찰의 주불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의 말사이다. 칠곡군의 동명면은 동쪽으로 군위군 부계면이, 남쪽은 대구광역시북구, 서쪽은 지천면, 북쪽은 가산면과 접한다.

송림사는 대구에서 안동 방향으로 가다보면 가산의 남서쪽 능선과 도덕산 북서쪽을 관통하는 79번 국도변에 위치한다. 칠곡군청에서 동남부지역인 25.5km 거리에 있는데 79번 도로를 따라 다부IC 왜관 성주방면으로 우측도로 415m 이동 후 경북대로 상주 안동방면으로 우회전 8.2km 이동하여 한티로 동명 안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1.4km 이동하고 송림길 822m 직진하여 위치한다. 또한 대구광역시청에서 19.7km 거리에 있는데 대구광역시청에서 북쪽으로 북구 무태조야동 호국로 칠곡 안동방면으로 지하차도 진입 후 6.4km 이동 후 학정로 칠곡경북대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1.1km 이동 후 칠곡 중앙대로 우회전 후 2.9km 이동하고 한티로 팔공산순환도로 방면으로 우회전 후 1.4km 이동하여 송림길 송림사 방면으로 좌회전 후 789m 이동하여 위치한다. 송림사는 팔공산(1,192m) 줄기로 서쪽으로 뻗어내려 가산(902m)에 이르고 남서쪽으로 흐르다 남동쪽으로 흐르는 자락과 다시 남동쪽으로 틀어 남쪽으로 흐르는 자락으로 갈라지는데, 남동쪽 자락을 따라 남서쪽으로 흐르다 서쪽으로 뻗어 남쪽으로 넓은 자리가 형성되는데 자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팔공산(1,119m)에서 유학산(839m)으로 이어지는 팔공산맥의 남사면에 위치하여 가산·오계산·매봉산·명봉산·도덕산·함지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수계는 이곳에서 발원한 팔거천이 남류하면서 동명면을 관통하여 금호강에 합류하고 있다. 주변은 대부분 산지로 팔거천의 침식곡저에 경지와 취락이 분포하고 있다. 송림사는 팔공산 남서쪽 끝자락 위치하고 산들이 둘러싸이고 도덕산에서 발원한 팔거천이 송림사 앞을 흐르는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송림사 주변의 동명면 문화재로는 칠곡 기성리삼층석탑(보물 제510호)을 비롯하여, 칠곡가산산성(사적 제216호), 금암동돌덧널무덤, 천주사지, 기성동돌덧널무덤, 구덕동부도군, 도덕암, 봉암동고분군 등이 있다. 또한 도덕산 아래에는 한말천주교도들이 은거하다가 순교한 천주교의 성지인 한티마을 등이 산재해 있다. 송림사의 현존하는 건물 현황을 보면 중심전각인 대웅전을 비롯하여 명부전 그리고 최근 조성된 삼천불전, 응진전, 삼성각, 산령각, 설법전이 있고, 종각과 요사로 선열당, 염화실 등이 있다. 551,645㎡ 면적에 18동의 전각이 남아있어 비교적 규모가 있는 사찰이다. 송림사의 문화재현황은 지정문화재로 대웅전(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34호)과 그 앞에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벽돌탑인 송림사오층전탑(보물 제189호)이 있다. 동산 문화재로는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605호), 송림사 삼천불전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606호), 송

림사 오층전탑사리 장엄구(보물 제325호), 송림사 명부전 석조삼장보살좌상(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71호)· 송림사 명부전 목조시왕상과 제상(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60호)· 송림사 복장전적(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66호) 등이 있다. 그 외에 송림사의 소장 경관 『충장공유사(忠壯公遺事)』와 그 부록이 있다. 이와 같이 송림사의 역사와 함께 하는 18동의 건축물을 비롯하여 15점의 회화, 58구의 조각, 14기의 석조물, 1점의 공예, 3점의 현판, 10건의 서지(복장 일괄) 등 119점이 소장되어 있다.

중요 문화재를 살펴보면, 송림사 오층전탑(보물 제189호)은 통일신라시대의 양식을 보이는 전탑으로 원래 13층이었으나 조선 영조대까지 개보수를 거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기단부는 자연석과 흙을 혼합한 토층기단의 외부에 우주와 탕주가 모각된 면석이 둘러져 있다. 남면과 서면의 갑석은 각 12개이나 동면 갑석은 19개와 북면 갑석은 7개로 다르다. 탑신부는 한 변이 0.27m, 높이 0.62m 크기로 옥신과 옥개 모두 방형전과 1/2의 장방형 전으로 5층까지 축조하였다. 초층 옥신은 폐쇄된 감실의 흔적이 있는 넓이 2.8m, 높이 2.08m이고, 초층 탑신은 옥개석이 넓어 시각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2층부터는 1층보다 낮게 구성되고 있다. 옥개석은 층단형의 상하면을 이루고, 하면은 4단씩 조출되고, 낙수면은 위로 갈수록 1단씩 감소되고 있다. 금동제의 상륜부는 옥개 위에 노반의 신부를 쌓고 그 위에 풍탁이 달린 동판을 얹었다. 나무로 된 찰주는 동판을 씌운 다음 복발, 양화, 보륜, 용차, 보주 순으로 되어 있으나 보륜의 일부와 수연은 없어진 상태이다. 송림사 오층전탑 사리장엄구(보물 제325호)는 1959년 해체·수리할 때 2층 탑신과 5층 옥개석 윗면에서 발견되었고, 4층 탑신 안에서는 불경을 납입한 흔적이 있는 석함이 발견되었다. 2층 탑신 안의 적심석 속에서 발견된 뚜껑을 갖춘 거북모양의 석함 안에는 방형기단 위에 보개를 올린 보장형태의 사리기가 안치된 형식이다. 이 사리구는 절삭과 조금기법의 제작기법과 공양품의 성격으로 미루어 7세기 후반경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외에 고려시대에 전탑을 수리하면서 봉안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상감청자 사리합이 5층 옥개석 윗면에서 발견되었다. 사리기의 모양이나 공양품들의 구성으로 보아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605호)은 대웅전 불단 위에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문수보살좌상과 보현보살좌상으로 구성된 석가여래삼존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3구의 불상은 높이가 약 3m에 이르는 거대한 목조불로, 규모가 큰 불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체 비례가 균형감 있고 안정적이다. 석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복장유물로는 「석가삼존불조성기(釋迦三尊佛造成記)」가 있다. 첫 줄에 순치 14년 8월에 조성 봉안했다는 기록에서 대웅전의 석가여래삼존좌상이 1657년(효종 8) 8월에 조성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왕실의 수명장수(壽命長壽)를 축원하는 내용과 불상을 제작한 조각승으로 우두머리 화승인 도우(道雨)를 비롯한 쌍조(雙照)·신경(信罔)·성명(性明)·혜서(惠瑞)·경신(敬信)·도철(道哲)·학매(學梅) 등 8명이 참여한 기록은 불교조각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가치

가 있다.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17세기에 조성된 대형목조불상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조성기를 통해 조각승과 시주자 등의 조성배경 역시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606호)은 송림사 삼천불전에는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관음보살과 지장보살로 구성된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 봉안되어 있다.¹⁴⁾ 3구의 불상은 모두 경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연한 재질의 석재인 불석(拂石)으로 제작되었다. 아미타여래좌상은 복장에서 나온 발원문을 통해 1655년(효종 6) 조각승 무염(無染) 유파의 일원인 도우(道祐)가 처음으로 수화원이 되어 조성한 불상이다.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17세기 불교조각사 및 조각유파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송림사 명부전 석조삼장보살좌상(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71호)은 송림사 명부전의 중앙에 천장보살상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지지보살상, 우측에는 지장보살상 등 삼장보살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각 보살상은 좌우 협시를 거느리는 삼존의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데, 천장보살상의 협시는 후대에 따로 조성되었다. 2002년 조사 때 천장보살상복장에서 중수 발원문과 함께 총 21종 34책의 경전, 다라니, 후령통 등이 발견되었다. 중수발원문은 연대가 적혀있지 않아 언제 작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경전의 개관 연대를 바탕으로 1753년 이후에 중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장보살좌상은 신체에 비하여 큼직한 얼굴이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고, 넓직한 얼굴과 가늘고 긴 눈, 넓직한 코와 콧망울 등 시원스럽게 이목구비를 표현한 것은 조선 후기에 조성된 불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송림사 명부전 목조시왕상과제상(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60호)은 명부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시왕상구를 비롯해 협시보살상, 관관상, 사록상, 사자상, 외호신장상 모두 22구이다. 명부전 중앙의 삼장보살들의 좌우측면에 각 5구씩 10구의 목조시왕상이 모두 남아있다. 발원문에 17세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조각승인 수화원 승일(勝一)의 작품이다. 17세기 불상 조성과 관련된 자료로 복장에서 발견된 많은 경전류와 다라니 및 발원문 등은 조선 후기 불교사, 서지 및 서예사, 고인쇄 문화 등의 중요한 자료이다.

이상과 같이 송림사 대웅전은 주변의 문화재들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송림사 내에도 송림사오층전탑을 비롯한 다양한 유적이 자리하고 있고, 특히 송림사 내의 송림사오층전탑이나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등은 대웅전과 연계되어 역사문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2. 연혁·유래 및 특징

송림사와 관련된 역사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림사는 오래된 사찰로 알

14) 불상은 원래 극락전에 봉안되었으나 한국전쟁 이후 인근 사찰에 잠시 이안되었다가 현재는 삼천불전을 건립하여 모셨다고 한다.

려져 있지만 그 연혁은 분명하지 않다. 경내에 세워진 <송림사사적비(松林寺事蹟碑)>는 1980년에 세웠지만 구전으로 전해오던 사찰의 창건과 연혁을 정리한 것으로 이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신라 눌지왕대 묵호자(墨胡子)가 처음 불법을 전하면서 송림사(松林寺)라고 했다고 한다. 소지왕대에 본격적인 가람이 조성되었다고 전하나 확인하기 어렵다. 초창에 관련된 문헌적 근거는 없으나 신라시대 544년 진흥왕 때 중국 진(陳)나라에서 귀국한 명관(明觀)이 불경 2,700권과 불사리 중 일부를 오층전탑에 봉안하였다고 전하며 송림사 오층전탑 사리장엄구(보물 제325호)에 불사리가 있다. 송림사 경내의 삼성각 개축부지 일원의 최근 발굴조사에 따라 삼국시대의 막새기와와 통일신라시대의 와편 등이 발굴되었다.¹⁵⁾ 기와편을 통해 6세기 초반경에 이미 사찰 건립의 토대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림사 오층전탑의 상한 연대를 600년경으로 보는 경우, 전탑의 사리기를 통해 7세기 후반으로 보는 경우 그리고 경내에서 발굴된 음각 명문석을 통해 624년으로 보는 경우 등을 통해 송림사의 창건 시기는 신라 통일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44년에 초창되었어도 통일기에 중수가 이루어지고, 출토 유물을 통해 통일신라시대에는 여러 차례의 개보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도 송림사의 창건연대에 대하여 8세기 전반이나 9세기 등의 견해가 있다. 고려시대 1092년(선종 9)에 대각국사의천(1055~1101)이 중창했고, 1235년(고종 22)에 몽고군의 침입으로 전탑만 남고 모든 건물이 소실되었으나 이내 중창하였다. 1309년에 보감국사(寶鑑國師) 혼구(混丘, 1250-1322)가 주지로 부임하여 입적하였는데 이 때 사세가 번창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59년 전탑 내부에서 발견된 상감청자 원형합과 1342년 향완 등으로 고려시대에도 사세가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주장된다. 조선시대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때 왜군이 방화하고 전탑의 금동 상륜부를 끌어내리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전한다. 이후의 연혁은 1775년의 「대웅전중수기(大雄殿重修記)」와 1850년의 상량문을 통해 확인된다. 조선 전기까지의 연혁과 벽암당(碧巖堂) 조희대사(祖熙大師)에 의한 1649년 대웅전 중수 등이 있었고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중반경의 대웅전 중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대웅전과 명부전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들의 복장기문(腹藏記文)을 통해 17세기 중반에 송림사 재건불사가 확인된다. 17세기 전반에 불전에 승사를 갖추는 1차 중건을 하고, 17세기 후반에 2차 중건을 통해 왜란 이전의 사세를 회복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655년(효종 6)에 극락전에 봉안할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 제작되었고, 1657년에는 대웅전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을 봉안하였다. 1665년에는 명부전에 석조삼장보살좌상과 목조시왕상과 제상을 조성·봉안하였다. 숙종(재위 1674-1720)은 ‘大雄殿’ 현판을 하사하고 있다. 1775년에 대웅전이 크게 수리되었고, 1850년에 대웅전을 크게 수리한 상량문이 사중에 전해지고 있다. 1858년 영추(永樞)스님이 중창하였고 크고 작은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5) 칠곡 송림사 삼성각개축공사부지 내 유적, 嶺南文化財研究院, 2009, p.145

송림사 대웅전은 사찰의 남북 중심축선에 중심건물로 세워진 석가모니불과 문수·보현보살을 모신 주불전이다. 다포계 맞배집의 단층 불전이지만 크고 웅장한 건물로 2012년 2월 13일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34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정면과 측면의 평면비 약 2:1 정도로 세장한 편이다. 정면은 정칸 17영조척, 협칸 12영조척, 퇴칸 6영조척으로 구성된 정칸강조형이고, 측면은 동일형이다. 내진주의 고주는 후고주로 이주 없이 정치되어 있고 기둥 사이에 불벽을 형성하고 있다. 대웅전은 축대를 쌓고 기단을 형성하여 세우고 있다. 석축은 청석 계열의 장대석을 사용하여 네벌대로 쌓고 제일 위 마감돌은 내어쌓기 한 갑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전의 석축은 긴 자연석을 아래에는 춤이 큰 돌을 놓고 위로 갈수록 낮아지는 안정감을 주었다. 자연석으로 쌓은 장대석기단과 비슷한 형식이지만 중수 시에 규모의 변화가 있었다면 이전 건물의 전면 기단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대웅전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석축의 가운데 계단은 소맷돌 없는 5단의 장대석이었으나 현재는 소맷돌이 있다. 그 위의 기단은 축대 위에 화강석 외벌대장대석 기단이고 후면은 자연석기단으로 전면에는 안상이 새겨진 탑재도 보이고 있다. 기단 상부는 강회다짐으로 마감하고, 현재는 다듬은 화강암장대석으로 교체되었다. 초석은 자연석 초석과 주좌의 새김 없이 네모나게 다듬은 초석이 대부분이다.

기둥은 평주(520mm)보다 우주(600mm)가 크며, 내진주의 고주도 우주(540mm)가 가운데 두 고주(420mm)보다 커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다. 기둥은 민흘림이 있으며 도량주 형태도 있다. 기둥의 높이는 약 13영조척이고, 주고와 주간의 비는 정칸 1:1.3, 협칸 1:0.92, 퇴칸 1: 0.45 정도로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면서 정칸을 강조하고 있다. 창방(270mm×420mm 정도)은 단면비 1:1.56 정도로 평주의 기둥 사괘와 만나는 부분은 소매걸이를 한 후 장부를 내어 기둥과 결구되고 직절한 형태의 창방뿔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맞배집이지만 창방이 측면에도 같은 길이로 결구되지만 도리 방향의 창방 뿔목이 보 방향의 창방 뿔목보다 길게 처리하고 있다. 창방 위에 평방(540mm×245mm 정도)은 단면비 약 1:0.5 정도로 평주 위에서 이음이 있다. 정면 좌측 우주 상부에서는 도리 방향의 평방이 받을장, 보 방향의 평방은 업힐장으로 연귀반턱맞춤의 결구를 하였고 나머지 우주 위의 평방은 도리 방향 업힐장, 보 방향은 받을장으로 구성하여 정면 좌측 우주 위의 평방과 반대로 결구하고 있다. 평방은 600mm 이상의 원목이 필요하였으므로 구하기 어려워 계획된 폭의 반 정도 되는 부재를 길이 방향으로 맞댄 후 측면에서 산지를 박아 쪽대로 평방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방 위에 주상포와 주간포를 정면과 후면에 20구를 배치하고 있다.

주두는 첨차와 살미가 결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굽을 사절하였고 상부 폭 600mm, 하부 폭 500mm, 운두 500mm 정도이다. 주두 상부 폭이 평방의 폭보다 245mm 정도

더 크다. 재폭에 비해서 상부 폭은 6배, 하부 폭은 5배이며 출목수를 고려하거나 다른 다포계 불전들의 주두와 비교해 보았을 때 큰 편에 속하고 있다. 주간포는 정칸에 2구, 협칸에 1구, 퇴칸은 없으며 포간거리는 약 6영조척 정도로 배치하고 있다. 측면은 평주 위에 평방을 들렀으나 공포를 배치하지 않았다. 공포의 구조는 주상포와 주간포 모두 평신포로 출목수는 내3출목외 2출목이다. 소로는 사절한 빗굽으로 이갈소로, 외옆같이 갈소로, 사모대접소로, 외옆갈네갈소로 등이 사용되고 있다. 각 제공살미의 양단부는 외옆갈네갈소로, 주심침차의 양단부는 외옆같이갈소로, 출목침차의 양단부는 이갈소로, 주상포의 내3출목 소침차의 위는 사모대접소로가 결구되고 있다. 침차는 마구리 상부는 직절하고 하부는 교두형으로 주심과 출목에 사용된 침차 길이가 서로 다르며, 침차 길이는 주심대침, 출목대침, 주심소침, 출목소침의 순이다. 침차의 결구는 제공살미와 반턱맞춤 되어 있으며 살미가 업힐장, 침차가 받을장이다. 살미는 교두형 살미와 삼분두형 살미, 운공형 살미로 구성되었다. 공포의 제공살미 내외 단 구성은 주상포의 제공살미 외단은 1살미와 2살미는 교두형, 3살미는 삼분두형, 4살미의 위치에는 대보의 직절된 양두로 구성된다. 그리고 내단은 1살미와 2살미, 3살미 모두 교두형으로 해서 보를 받치고 있다. 주간포의 제공살미 외단은 1살미와 2살미는 교두형, 3살미는 삼분두형, 4살미는 구름모양의 운공형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내단은 1살미에서 3살미는 교두형, 4살미는 반원형의 초각형으로 구성되고 있다. 살미는 업힐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침차, 장여는 받을장으로 구성되어 반턱맞춤을 하고 있다. 배면 협칸과 측칸 사이에 있는 기둥의 주상포 살미 내단은 불벽 쪽으로 연장하여 내부 고주의 주상과 결구되며 그 위에 퇴보를 받치고 있다. 전체적인 살미 구성방법을 보면 내외단 모두 교두형 공포계열이며, 이 유형은 대구 팔공산 일대와 경북 청도 및 영천, 경남 산청에 분포하며 대구 팔공산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¹⁶⁾ 전후면 또는 측면 모두를 교두형 공포로 구성한 건물은 17C에 중건된 송림사 대웅전을 비롯하여 은혜사 백홍암 극락전(1643년 중건), 운문사 대웅전(1653년 중건), 율곡사 대웅전(1679년 중건), 대비사 대웅전(17C 중건), 동화사 봉황문(17C 창건), 동화사 금당암 수마제전(1702년 중건), 동화사 금당암 극락전(1712년 중건), 대둔사 범당(18C 중건), 운문사 관음전(18C 중건), 통도사 극락전(18C 중건) 등이다. 이 중에 전면을 제외한 배면 또는 측면을 교두형 공포로 구성한 건물은 복지장사 대웅전(1659년 재건), 환성사 대웅전(1635년 중창)이 있다. 이 지역의 불전은 조선 중기의 각원과 관련된 불전으로 같은 기술자에 의한 공통점과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구라고 판단된다.

도리는 굴도리의 7량가로 도리 받침장혀는 상면을 궁글린 형태이다. 가구형식은 측벽 가구와 내부 가구가 거의 유사한 형식 위에 지붕가구를 올려놓고 있다. 가구는 정칸, 협칸과 퇴칸 사이 그리고 측면 가구로 나누어 보면, 정칸의 가구는 후퇴 이중량 방식이

16) 오세덕, 조선후기 불전조영승려장인의 계보와 건축기법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p. 53-71. 이 지역의 불전은 조선 중기에 활약한 승려기술자인 각원(覺元)과 관련된 불전 건물들이 대다수이다.

고 협칸과 퇴칸 사이의 가구는 대보와 퇴보로 함보한 후퇴 이중량구조 방식 그리고 측벽 가구는 전후 평주 사이를 대보로 연결한 무퇴 이중량 구조방식이다. 이러한 가구형식은 팔작지붕의 가구형식과 유사한데 횡력에 저항해야 하는 맞배집으로서는 특이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보는 전후면 정칸 가구와 측벽 가구는 대들보가 건너지르고 전후면 협칸과 퇴칸 사이 가구는 대들보와 퇴보로 구성되어 있다. 대들보와 퇴보는 보뿔목을 외부로 돌출하게 하여 외목도리를 지지하고 있다. 대들보 위에는 대접받침 위에 결구된 화반형 동자주와 동자주형 동자주로 종보를 받치고 있다. 화반동자 위에는 작은 주두가 결구되고, 동자주형 동자주의 위에는 보 방향으로 교두형 보아지로 종보를 지지하고 있다. 화반 동자주 위 주두 밑에는 뜯창방을 두어 횡 방향으로 가구를 연결하고 동자주 위에는 뜯장혀를 사용하여 연결을 하고 있다. 종보 위에는 동자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용마루와 전후면의 내림마루로 구성되고 있다. 용마루는 착고 위에 부고를 놓고 7단의 적새와 솟마루장으로 마감하고 있다. 내림마루는 부고를 놓고 적새 5단을 쌓고 그 위에 솟마루장을 얹고 있고, 외부는 너새를 구성하고 있다. 처마는 겹처마이고, 장연은 마구리를 몸통보다 가늘게 훑어내려 치목하고 부연은 마구리를 사절하고 끝건기와 옆볼떼기를 하고 있다. 건물의 양측면에는 박공판과 방풍판을 설치하고 있다.

내부 천장은 우물천장과 빗천장의 형식을 조합하고 있다. 우물천장은 정칸에서 퇴칸까지 전후 중도리 아래 부분과 종보의 옆면 아래에 설치되어 있다. 빗반자는 정칸에서 퇴칸까지의 전후면 중도리 받침장여와 전후면 공포의 내3출목 장여 윗면에 장선을 건너지른 다음 그 위에 널판자를 도리 방향으로 설치하고 있다. 공포의 출목 사이는 침차 위 소로의 귀를 받침으로 삼아 주심과 외1출목 사이, 외1출목과 외2출목 사이 그리고 주심과 내1출목 사이는 제공 상부에 순각 반자를 설치하였고 내1출목과 내2출목 사이, 내2출목과 내3출목 사이는 사제공 상부에 설치하였다. 측면 박공 부분 처마의 천장은 정면의 내2출목과 배면 내2출목선 사이는 대보의 상면과 방풍판의 널에 붙인 방풍판틀을 이용해 널판을 도리방향으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외목도리와 내2출목 사이는 보 방향으로 짧은 판재를 이용해 출목 사이를 막았다.

창호는 정면 어칸에 네 짝, 협칸에 세 짝, 퇴칸에 한 짝 설치되었으며, 좌우측면은 전면 퇴칸에 한 짝 후면 퇴칸에 한 짝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배면 정칸에 두 짝의 문짝을 설치하였다. 문살은 정면 정칸의 가운데 두 짝은 빗살, 좌우 두 짝은 꽃살이고 협칸은 모두 빗살, 퇴칸은 정자살이다. 살을 통하여 위계를 표현하고 있고 정면의 창호 중 근래에 교체되지 않은 것은 궁판 밑막이가 두 단으로 되어있다.¹⁷⁾ 측면은 전면 퇴칸에는 빗살문과 빗살교창, 후면 퇴칸은 골판문, 배면 어칸의 창호는 궁판을 이단으로 된 정자살

17) 배면의 창호나 불벽 뒤에 있는 창호처럼 궁판이 이단 삼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어느 시기 중수 시 건물의 규모에 맞춰 창호의 하부를 잘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이다. 창호는 안여닫이 방식으로 정칸과 협칸의 가운데 창호는 하인방과 결구된 신방목¹⁸⁾에 축구멍을 파고 문얼굴의 상부에 설치된 둔테를 이용하여 내부로 여닫는 안여닫이 방식이다. 좌우측면 문짝과 퇴칸의 창호는 선대의 아랫부분에 장부를 내어 하인방의 윗면에 끼워넣어 고정된 불박이 창호이다.

외부 벽체는 인방 사이에 판재를 끼워 넣어 판벽으로 구성하고 있다. 판재를 인방의 외부면에 맞춰 마감하였고, 판재의 두께는 인방폭과 비슷하다. 하방과 중방 사이는 전부 판벽으로 구성하고, 배면 및 측면의 중방과 상방 사이는 심벽으로 마감한 것처럼 보이나 내부에서 보면 판벽마감이다. 판벽으로 처리한 후 단청을 위해 회벽 마감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후불벽은 외부 벽체처럼 판재를 이용한 판벽으로 구성하였다. 정칸 후불벽 배면은 고주 사이에 세 개의 인방을 설치한 후 아래 인방과 마루 귀틀 사이는 짧은 판벽으로 구성하고 중간은 창호 네 짝으로 마감하였으며 중간 인방과 동자주 상부에 설치된 인방 사이에는 판벽을 설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벽체를 3단으로 구성하고 협칸 후불벽은 인방 네 개를 설치하여 마루 귀틀부터 동자주 상단까지 4단의 판벽으로 구성하고 있다. 평주열 하인방의 하부와 기단면 사이는 고막이벽이고, 기둥 하부와 고막이벽 사이는 기와를 사용하여 기둥 하부와 고막이벽 사이에 환기구를 만들고 있다. 벽체는 습식공법보다 판재를 이용한 건식공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벽선은 문선과 주선으로 이루어지는데 평주에는 모두 주선을 설치하고 있다. 정면에는 주선과 문선을 겸하고, 측면은 창호 설치를 위해 전면 퇴칸에 두 개, 후면 퇴칸에 한 개의 문선을 설치하여 창호를 설치하고 있다. 배면의 정칸은 왼쪽은 주선이 없고 오른쪽은 주선이 있고 협칸과 퇴칸에는 모두 주선이 설치되어 있다.

송림사 대웅전은 1775년 중수기나 1850년의 상량문 그리고 공포 양식을 중심으로 볼 때 대웅전은 17세기 중반의 건축형식이며 현재의 모습은 1850년 중수 시에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웅전은 1850년 중수 시 대웅전 규모 및 건축형식에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측면 평주열 위에 공포가 놓이지 않았지만 창방과 평방을 모두 기둥 상부에 배치하였다는 것은 팔작지붕에서 맞배지붕으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1850년 중수 상량문에 따르면 터를 닦았고 초석의 배열로 보아 이전보다 작은 규모로 주방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측면 정칸 평방의 산지가 평방 마구리에 인접하여 구멍을 내어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대웅전에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간보다 길이가 긴 평방을 측면 정칸 주간에 맞춰 잘랐음을 추정할 수 있다. 셋째, 후불벽의 높이 2,890mm에서 3,540mm 규모의 창호가 중수 전의 창호라고 한다면 현재 전면의 창호 높이 2,850mm 정도보다 평주의 높이는 700mm 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창호의 궁판 밑막이가 2단인 것은 창호의 높이를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포

18) 하인방과 반턱맞춤으로 결구되고 있다. 동화사 극락전에는 후면에 설치되어 있고, 전면에 신방목을 사용한 경우는 드문 편이다.

계 건물들이 재폭에 대한 주두 상부 폭의 비 1:3-4정도인 것에 비하여 송림사 대웅전은 6배 정도로 큰 편이면서 공포대 높이에 커서 중수 전의 공포대의 높이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배면과 측면 외부 판벽은 일반적인 판벽의 판재 두께보다 두껍고 그 마감면이 수장의 외부면과 비슷하고, 판재의 폭이 장여나 수장재의 운두와 유사하다. 또한 공포의 삼제공 살미는 내부와 외부가 연결되지 않고 맞춤이 중수 이전의 결구법인 것 같지는 않으며 다른 공포의 세공 살미를 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좌측면 대들보의 후면 쪽과 우측면 대들보 후면 위에 결구홈이 보의 단면이 둥근 것은 기둥을 보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림사 대웅전의 건축사적 가치는 가구형식의 특수성, 팔공산 지역에 위치한 교두형 다포식 불전군의 구성원, 이전 건축의 다양한 흔적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가구형식의 특수성이 있다. 전면의 석축은 이전에 장대석기단과 비슷한 형식이지만 중수 시에 규모의 변화가 있었다면 이전 건물의 전면기단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대웅전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면과 측면의 평면비가 세장한 편으로 정칸, 협칸, 퇴칸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정칸강조형이고 내진주의 고주가 이주 없이 정치되어 있다. 전후 좌우면에 결구된 창방과 평방 위에 맞배지붕을 올려놓은 형식으로 측벽과 내부 가구를 동일하게 처리하여 일반적인 맞배지붕의 측벽 및 내부가구와는 다른 형식을 하고 있다. 송림사 대웅전은 중건 이전의 건축 부재를 사용하여 현재 모습을 담아낸 다포식 불전으로 창건, 중건할 때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환경을 반영하는 건축물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구부재를 사용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그에 따른 건축기법의 다양한 처리기법은 송림사 대웅전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 그리고 학술적 연구 자료로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둘째, 팔공산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교두형 다포식 불전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교두형 공포는 고대에서 중세까지 사용하던 형식이지만 그 이후에는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대구와 안동 일원, 경남의 일부 등의 지역에만 분포하는데 대구 일원에 주로 분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는 인물적으로 팔공산 일원에 분포하는 교두형 불전 건물들이 17세기 무렵 집중적으로 세워진 것은 승려 각원(覺元)과 연관되고 있다. 팔공산 지역, 각원과 관련 유파, 17세기라는 시대의 특징인 양식사적인 건축연구에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 지역 내외의 건물들의 비교에 의한 공통점과 차이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이전 건축의 다양한 흔적이 남아있는 불전이다. 1)후불벽의 창호가 중수 전의 창호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창호의 궁판 크기가 약 330mm 정도인데, 밑막이가 2단인 것은 3단의 창호 높이를 기둥 높이에 맞추기 위하여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 건물의 기둥 높이는 현재 건물보다 600-700mm 정도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 전의 규모를 알 수 있도록 궁판 3단의 창호를 남긴 것은 아닐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둥 높이를 기준으로 주간의 크기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송림사 대웅전의 현판

과 문의 크기는 화엄사 대웅전, 화엄사 각황전, 금산사 미륵전 현판, 무량사 극락전, 범주사 대웅보전 등과 같은 중층 불전의 크기와 비슷하다는 것은 규모를 추정하게 한다. 2)다포계 건물들 재폭에 대한 주두 상부 폭의 비가 1:3-4정도인 것에 비하여 송림사 대웅전은 6배 정도로 큰 편이면서 중수 전의 공포대의 높이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두 크기와 지붕가구에서 받침재로 사용하는 구 부재의 주두 등은 이전 건물에 공포수가 많았으며 측면 공포의 주두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포의 삼재공 살미가 다른 살미를 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좌측면 대들보의 후면 쪽과 우측면 대들보 후면 위에 결구홈이 보의 단면이 둥근 것은 기둥을 보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3)현재 인방과 하인방의 벽체는 인방재를 사이에 끼운 벽체인데 일반적으로 판재를 사용하지 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현재 대웅전은 좌우 측벽 약 12개, 배면 약 50개, 모두 80개 정도의 인방재를 사용하고 있어 이전 건물의 것으로 추정된다. 4)대들보의 결구홈 흔적들, 동자주의 결구 홈 흔적, 배면 양두 부분에 남아있는 결구 홈 흔적 등은 대들보가 길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이전 불전의 양통이 현재보다 더 길었다는 것을 추정하게 한다. 5)측면 정칸 평방의 산지가 평방 마구리에 인접하여 구멍을 내어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주간보다 길이가 긴 평방을 측면 정칸 주간에 맞춰 잘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창호, 대형주두, 많은 인방재, 양두 부분의 결구 홈 등의 이전 건축의 흔적들은 이전 건축물의 규모와 형식을 추정할 수 있는 학술적인 자료가 된다고 판단된다.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송림사 대웅전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는 다음과 같다. 창건 연대에 관련된 문헌적 근거는 없으나 6세기 초반, 7세기 후반, 624년 등 신라 통일기로 보거나 8세기 전반이나 9세기 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고려시대 몇 차례 중창이 있었고 1309년에 보감국사 혼구가 입적 후 사세가 번창하여 계속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는 벽암당 조희대사를 총책임자로 보승장씨 각원에 의해 1649년 대웅전 중수 등이 있었고,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중반경의 대웅전 중수가 있었던 것이 1775년의 「대웅전중수기(大雄殿重修記)」와 1850년의 상량문을 통해 확인된다. 1657년에는 대웅전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을 봉안하고, 숙종은 대웅전 현판을 하사 하였다. 그리고 1775년 대웅전이 크게 수리되고, 1850년에 대웅전을 크게 수리한 상량문이 사중에 전해지고 있다. 1858년 영추스님이 중창하였고 크고 작은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송림사 경내의 현판에 대웅전은 '1649년 보승장씨 각원이 중수했다'는 기록으로 정확한 조영 시기와 건립자를 알 수 있다. 송림사 대웅전을 조성한 각원은 17세기 대구 팔공산 일원의 교두형 공포의 건

물 조영을 주도하였다. 송림사 대웅전 이후 각원은 운문사 대웅보전, 복지장사 대웅전 등이 남아있다. 각원과 함께 계연(戒衍), 성탄(性坦) 등은 이후 은혜사 백홍암 극락전, 산청 율곡사 대웅전 등의 교두형 건물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이 송림사 대웅전은 각원이 지은 불전 중 먼저 건립된 불전으로 각원과 각원 계파의 건축의 비교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송림사 대웅전의 학술적인 가치는 중수 이전의 건축 흔적을 통해 변화 과정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1)가구는 정칸, 협칸, 퇴칸 사이와 측면 가구는 이중량 구조로 팔작지붕의 가구형식과 유사한데 횡력에 저항해야 하는 맞배집 으로서는 특이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측면 평주에 공포를 놓지 않았지만 모두 창방과 평방을 배치하고 있어 팔작지붕에서 맞배지붕으로 지붕형태의 변화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승장 각원과 그 계파의 불전은 팔작지붕을 선호하고 있어 팔작지붕으로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해체수리 과정에서 선자연과 선자연부연 그리고 귀한대와 측면 평방 상부에 주두 축 자리의 홈 등과 팔작지붕 측면 창방과 평방, 평방 상부 주두 축 흔적 등으로 17세기 조성 당시에는 맞배지붕이 아닌 팔작지붕으로 조성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중수 상량문(1850)에 터를 닦았고 초석의 배열로 보아 이전 보다 작은 규모로 기둥 간격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웅전 앞의 이전의 석축은 자연석 장대석기단과 비슷한 형식으로 중수 시에 규모의 변화가 있었다면 이전 건물의 전면 기단으로 추정할 수 있다. 측면 정칸 평방의 산지가 평방 마구리에 인접하여 구멍을 내어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대웅전에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간보다 길이가 긴 평방을 측면 정칸 주간에 맞춰 잘랐음을 추정할 수 있다. 대들보의 결구 홈 흔적들, 동자주의 결구 홈 흔적, 배면 양두 부분에 남아있는 결구 홈 흔적 등은 대들보가 길었을 것으로 추정하게 한다. 이상과 같이 기둥 간격의 변화, 평방 길이의 변화, 대들보 길이의 변화 등은 수평적인 규모 변화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3)후불벽에 있는 창호가 중수 전의 창호라면, 밑막이가 2단인 것은 3단의 창호 높이를 기둥 높이에 맞추기 위하여 줄이고 궁판 3단의 창호를 남긴 것은 아닐지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다포계 건물들 채폭에 대한 주두 상부 폭의 비보다 6배 정도로 큰 편이면서 중수 전의 공포대의 높이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두 크기와 지붕가구에서 받침재로 사용하는 구 부재의 주두 등은 이전 건물에 공포 수가 많았으며 측면 공포의 주두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창호 높이와 주두 크기 등은 수직적인 규모 변화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4) 현재 인방과 하인방의 벽체는 인방재를 사이에 끼운 벽체인데 80개 정도의 각재를 인방재로 사용하고 있어 이전 건물의 것으로 추정된다. 공포의 삼제공 살미가 다른 살미를 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좌측면 대들보의 후면 쪽과 우측면 대들보 후면 위에 결구홈이 보의 단면이 둥근 것은 기둥을 보로 사용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각재의 인방재, 살미 전용, 기둥을 보로 사용한 것 등은 이전의 부재를 전용하여 사용한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지붕의 변화, 기둥 간격·평방 길이·대들보 길이 등의 수평적인 변화, 창호 높이·석축기단·평방길이·대들보의 결구 홈 흔적 등의 수직적인 변화, 80개 정도의 인방재 각재·살미 전용·기둥을 보로 사용한 것 등 이전의 부재를 전용하여 사용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술적으로 이전 대웅전의 규모와 형식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송림사 대웅전의 구조와 조형적인 특징에서 예술적인 가치는 고식의 교두형 공포에서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제공 살미에 쇠서가 없는 교두형 공포는 고대에 많이 사용된 건축기법이지만 17세기의 건축에 흔하지 않은 기법이다. 살미 구성방법을 보면 내외단 모두 교두형 공포계열인 교두형 공포 형식은 팔공산 일대와 경북 청도 및 영천, 경남 산청에 분포하며 팔공산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전후면 또는 측면 모두를 교두형 공포로 구성한 건물은 17C에 중건된 송림사 대웅전을 비롯하여 은해사 백홍암 극락전, 운문사 대웅전, 율곡사 대웅전, 대비사 대웅전, 동화사 봉황문, 동화사 금당암 수마제전, 동화사 금당암 극락전, 대둔사 법당, 운문사 관음전, 통도사 극락전 등이다. 이 중에 전면은 제외한 배면 또는 측면을 교두형 공포로 구성한 건물은 북지장사 대웅전, 환성사 대웅전이 있다. 이 지역의 불전은 조선 중기의 승장 각원과 관련된 불전으로 같은 장인에 의한 공통점과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구라고 판단된다. 또한 17세기 팔공산 일원에서 활약했던 승장 각원과 그의 계파와 연관되어 있다. 운문사 관음전과 북지장사 대웅전, 운문사 대웅보전, 율곡사 대웅전, 송림사 대웅전과 경산 환성사 대웅전 등 팔작지붕집으로 조성되고, 운문사 대웅전을 필두로, 율곡사 대웅전, 북지장사 대웅전 등과 같이 층량이 없이 운공형 살미가 대량 위에서 평방형부재의 왕찌까지 올라가 측면 하중을 지탱해주는 역할하고 있다. 교두형 공포에서 살미와 첨차를 건물의 사방 내·외단 모두 사용하고 있어 일반적인 조선후기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식 주불전이 쇠서형의 살미를 사용하는 것과 대비된다. 고식 주심포 건물의 영향도 있겠지만 공포의 짜임은 이 지역의 각원과 그의 계파의 장인의 건축기법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시기의 빗천장에 비해 운문사 대웅보전과 율곡사 대웅보전과 같이 중앙 중도리의 상단에 우물반자 형식의 틀을 만들어 격자 내부에는 연꽃모양과 봉황 등 여러 가지 문양의 고색 단청이 칠해져 있고 반자 둘레로 소란으로 장식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외에도 신방목의 사용은 시대별 고식의 건축기법이 나타나고 있다. 신방목은 통일신라시대 감은사지, 사천왕사지, 불국사 등의 금당에 신방석으로 보이고 고려시대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강릉 임영관 삼문 등에 사용되고 있다. 송림사 대웅전 정칸

신방목은 원통에 연꽃문이 시문되어 있어 17C 건물에서는 보기 드문 고식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찰은 성격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중심불전이 있지만 조선후기 다포식 주불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조성하고 내부는 고주 2개를 세워 수미단을 만들고 불상을 안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송림사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형식으로 큰 규모로 조성하고 있다. 이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팔작지붕을 맞배지붕으로 조성하면서 평면과 규모를 축소하고 부재를 전용하여 조성된 것을 추정하게 한다. 임진왜란 이후 부산 범어사 대웅전(1658년)과 양산 신흥사 대웅전(1657년), 통도사 영산전(1725년) 등은 다포계 맞배지붕집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1649년 중건, 1775년 중수, 1850년 중수(평면과 지붕의 변화 추정) 등을 걸친 것을 보면 당시 상황에서 경상도 일원에서 가장 큰 다포계 맞배지붕집으로 이어져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각원과 그의 계파 장인들이 팔작지붕이 주를 이루는 것은 팔작지붕으로 조성된 후에 1850년 중수 때 평면과 지붕이 맞배지붕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추정하게 한다. 이와 같이 송림사 대웅전은 내외단 모두 교두형 공포계열 형식, 의장적 특성, 신방목의 사용,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맞배지붕집 등의 건물 기법을 통해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칠곡 송림사 대웅전은 1649년 보승장씨 각원이 중수했다는 건립시기와 건립자가 확인되고, 17C 팔공산 일원에 송림사 대웅전을 필두로 각원과 각원 계파의 교두형 공포로 구성된 건물들이 확산되는데 상호 비교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붕의 변화, 기둥 간격 · 평방 길이 · 대들보 길이 등의 수평적인 변화, 창호 높이 · 석축 기단 · 평방길이 · 대들보의 결구 홈 흔적 등의 수직적인 변화, 인방재 · 살미 전용 · 기둥을 보로 사용한 것 등 이전의 부재를 전용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변화와 변화의 흔적들을 잘 보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역사적, 학술적, 조형예술적인 측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6.23	대상문화재	칠곡 송림사 대웅전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칠곡 송림사 대웅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 년 4 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별첨자료>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 환경

1) 입지현황

칠곡군 동명면은 동쪽으로는 군위군 부계면, 남쪽은 대구광역시 북구, 서쪽은 지천면, 북쪽은 가산면과 접해 있어. 유학산(해발 893m)과 팔공산(1,119m)로 이어지는 팔공산맥의 남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송림사가 자리한 구덕리의 동남쪽은 도덕산(道德山, 해발 660m) 줄기에 둘러싸여 대구광역시와 격리되며, 서쪽으로는 희녀산(嬉女山)에서 동명면 금암리와 접한다. 북쪽으로는 가산(架山, 해발 901.6m) 산록을 타고 내린 구지천(九池川)은 송림사 아래 동명지(東明池)에서 집수되었다가 봉암리에서 팔거천(八莸川)에 합류된다.

송림사는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팔공산의 남쪽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천년 고찰로,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桐華寺)의 말사이다. 동명면 소재지에서 팔공산 방향으로 가는 지방도 79호선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동명면 저수지에서 동쪽 계곡을 따라 2km정도 오르면 해발 100m 가량 되는 가산 남쪽 허리 아래에 터를 잡아 사역을 조성한 평지사찰이다.

현 송림사 권역내의 지형적인 조건을 보면 일주문 앞으로 동쪽 골짜기 기성리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감아 돌아가는 구덕천이 흐르고 있으며 이 냇물은 송림사를 감아 돌아 송림사 서북편 남원리에서 내려오는 냇물과 만나 완만하게 동명읍내를 지나 금호강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남북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서쪽으로 탁 트인 조망과 넓고 평평한 구릉지에 평지와 산지가 만나는 경계지점에 있다. 동명면에서 송림사까지는 약 2km정도이다. 대웅전 서쪽 100여m 떨어진 곳에 당간지주가 서있고 대웅전 동쪽 50m 떨어진 민가 옆에 기성대사비와 4기의 부도가 있다. 모두 현재 송림사 원역 밖이다. 당간지주로부터 경내로 이어지는 진입부는 완만한 경사지로 동서로 넓게 터를 잡고 팔공산의 서쪽 진입부의 초입에 사찰이 조성되어 있다.

2) 역사문화환경

송림사 소재지는 조선시대에 칠곡군 하북면(下北面)에 속하였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구지, 송림, 덕산, 양지의 일부를 병합하여 구덕이라 하고 동명면에 편입하여 오늘에 이른다. 구덕리 지명은 구지(九池) 마을과 덕산(德山) 마을에서 첫 글자를 따서 '구덕'이라 이름 붙였다.

칠곡군은 예로부터 영남대로와 낙동강 수운의 교통 요충지인 동시에 군사면에서도 요충지였다. 신라시대 팔거리현(八居里縣)·사동화현(斯同火縣)·대목현(大木縣) 세 개 현

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통합되어 지금의 칠곡군을 이룬다. 송림사가 자리한 동명면은 신라시대 팔거리현에 연원을 두고 있는데 경덕왕은 팔리(八里)로 고쳐 수창군 관할 하의 현으로 만들었다. 고려 초에 팔거(八居)로 고쳤으며, 1018년 수창군에서 지경산부사에 소속시키면서 칠곡(七谷)으로 이름을 고쳤다. 1640년(인조 18)에는 가산에 성을 쌓고 칠곡도호부를 설치하였다가, 1895년에 대구에 붙였다가 뒤에 군으로 승격시켰다.

송림사의 역사적 환경을 보면 창건 당시 수도 경주에서 달구벌, 영남북부에서 한성으로 이어지는 영남로의 주요 길목에 자리잡고 있어, 통일신라의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⁹⁾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는 확장과 방어의 요충지이니 만큼 국토확장과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 마다 잦은 분쟁과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송림사의 사세와 건축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자연지리적 조건에 의한 풍수, 재해에 의한 손실보다는 지정학적 위치에 의한 역사적 환경, 즉 군사 정치적 환경에 의한 부침이 송림사의 변화에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²⁰⁾

현재 송림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의 말사(末寺)이다. 송림사의 현존하는 건물 현황을 보면 중심전각인 대웅전을 비롯하여 명부전 그리고 최근 조성된 삼천불전, 응진전, 삼성각, 산령각, 설법전이 있고, 종각과 요사로 선열당, 염화실 등 18동의 전각이 남아있어 비교적 규모가 있는 사찰이다. 송림사의 문화재현황은 지정문화재로 대웅전(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34호)과 그 앞에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벽돌탑인 송림사오층전탑(보물 제189호)이 있다. 동산 문화재로는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605호), 송림사 삼천불전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606호), 송림사 오층전탑사리 장엄구(보물 제325호), 송림사 명부전 석조삼장보살좌상(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71호)· 송림사 명부전 목조시왕상과 제상(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60호)· 송림사 북장전적(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66호) 등이 있다.

송림사 주변의 동명면 문화재로는 칠곡 기성리삼층석탑(보물 제510호)을 비롯하여, 칠곡가산산성(사적 제216호), 금암동돌덧널무덤, 천주사지, 기성동돌덧널무덤, 구덕동부도군, 도덕암, 봉암동고분군 등이 있다. 또한 도덕산 아래에는 한말천주교도들이 은거하다가 순교한 천주교의 성지인 한티마을 등이 산재해 있다.

2. 연혁 및 특징

1) 연혁

절의 연혁은 경내에 세워진 『송림사사적비松林寺事蹟碑』를 통해서 대체적인 역사적 윤곽을 알 수 있는데, 이 사적비는 비록 1980년에 세운 것이지만 옛부터 사찰에 구전으

19) 이상훈, 『칠곡 송림사의 입지조건과 창건배경』,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2014

20) 대한불교조계종 송림사, 「칠곡 송림사 대웅전 수리보고서」, 2014, 66쪽

로 내려오는 창건과 연혁을 정리한 것이다. 이 사적비에 따르면, 신라 눌지왕대(417~458년) 묵호자(墨胡子)가 처음 불법을 전하면서 ‘송림사(松林寺)’라 했다고 하며, 이후 소지왕대(479~500년) 본격적인 가람이 성립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신빙성있는 자료는 없다. 한편 문헌적 근거는 없으나 송림사의 초창에 대해서는 대개 신라시대인 544년(진흥왕5) 중국 진(陳)나라에서 귀국한 명관(明觀)이 불경 2,700권과 불사리를 이운해 왔는데,²⁸⁾ 그 가운데 일부를 오층전탑에 봉안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1959년 송림사 오층전탑을 해체 복원할 때 사리장엄구에서 불사리 4과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한편 최근 발굴조사 성과로서 송림사 경내의 삼성각 개축부지 일원에서 삼국시대의 막새기와와 통일신라시대의 와편 유물로 송림사의 사찰 건립이 이미 6세기 초반경에는 토대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현재 오층전탑의 상한 연대를 600년 경으로 보는 설과 전탑에서 발견된 사리기(舍利器)의 경우 7세기 후반설이 제기되었고, 또 경내에서 수습된 음각명문석의 경우 624년설 등을 종합해 볼 때 송림사의 창건 시기는 신라 통일기를 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544년을 초창 시기로 보더라도 통일기를 기점으로 해서 중수가 이뤄지고, 통일신라시대에는 여러 차례의 개보수가 더해졌던 것을 출토 유물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송림사의 창건 연대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경내에서 수습된 음각명문석을 통한 7세기 전반설 전탑(塼塔)에서 나온 사리장엄구에 의한 7세기 후반설, 8세기 전반설, 9세기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1092년(선종 9)에 대각국사 의천(1055~1101년)이 중창했으며, 1235년(고종 22)에는 몽고군의 침입으로 전탑만 남고 모든 건물이 소실되었으나 이내 중창되었다.

이후 중창한 스님은 보감국사(寶鑑國師) 혼구混丘(1250~1322년)로 알려지는데, 그는 말년에 송림사 주지로 부임한다. 1313년(충숙왕 5)에 왕사(王師)에 책봉되고, 입적 후에는 국사(國師)로 추증된 만큼 14세기 초에는 송림사의 사세가 번창했을 것으로 추정²¹⁾하지만 보감국사가 송림사의 중창주임을 방증해 줄만한 다른 사료는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1959년 전탑 내부에서 발견된 상감청자 원형합과 고려시대 지정2년명(1342) 향완, 전탑 1층 탑신에서 발견된 소형불상 등이 고려시대 송림사의 사세를 웅변적으로 전해주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의 역사는 대웅전에서 출토되어 사중에 보관 중인 1775년의 「대웅전 중수기(大雄殿重修記)」와 1850년의 건물 상량문(上樑文)을 통해 각각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중반경 대웅전의 중수 사실을 알 수 있다.

21) 허홍식,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86. 243, 432, 482, 521, 854쪽 참조

1649년에 대웅전을 중수하였는데 이는 1775년의 중수기에 그 내용이 있다. 여기에는 송림사에 대한 조선 전기까지의 연혁과 1649년 중수에 대한 사실도 간략하게 언급²²⁾하고 있다. 이때 공사의 총책임자는 벽암당 조희(碧巖堂 祖熙)대사였고, 공사조직인 도감(都監)을 지휘한 책임자인 총령(總領)은 판사(判事) 혜홍(惠弘)이었으며, 건축을 도맡은 사람(執繩匠氏라고 표현함)은 승려 각원(覺圓)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대웅전을 비롯한 명부전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들의 조성기나 복장기문(腹藏記文) 1655년 「아미타불상조성기문(阿彌陀佛像造成記文)」, 1657년 대웅전 「석가삼존불조성기(釋迦三尊佛造成記)」, 1665년 명부전 「십왕조성기(十王造成記)」, 1692년 아미타불상 대좌목서 등을 통해 17세기 중반에 행해진 송림사의 활발했던 재건 불사 내역을 살필 수 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17세기에는 전국적으로 사원들의 재건불사가 활발하였는데, 송림사는 17세기 전반에 불전과 승사를 갖추는 1차 중건을 마치고, 17세기 후반에 이를 보완하는 2차 중건공사를 시행하여 전란 이전의 사세를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숙종(재위, 1674년~1720년)은 ‘大雄殿’ 현판을 직접 써서 절에 내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후 1755년에 대웅전을 크게 수리하고 그 내용을 중수기에 남겼다. 여기에는 중수공사를 담당한 화주와 유공자의 명단도 있는데 중수 이유에 대해서는 “도리, 기둥, 판자, 난간 등이 모두 썩어 부러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²³⁾고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또한 조선후기에는 건물이름을 알 수 없는 한 건물에 대한 「도광십년명상량문(道光十年銘上樑文)」(1830년)과 「칠곡송림사대웅전중수상량문(柒谷松林寺大雄殿重修上樑文)」(1850년)이 있다.

1850년 대웅전 중수상량문에 따르면, “1월 28일에 집을 헐고, 2월 5일에 다시 터를 닦고, 2월 10일에 초석을 배열하고, 2월 14일에 기둥을 세우고 2월 27일에 상량을 하였다”고 하여 다시 한번 크게 수리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상량문의 내용을 보면 송림사의 내력과 중수사유, 중수과정과 참여자, 후원자 그리고 대웅전 해체에서 상량까지의 상세한 일정을 역순으로 기록하고 있다.²⁴⁾ 이 중수기에 당시 대웅전의 정황이 잘 드러나 있는데 “십여칸이나 되는 많은 방사는 모두 무너지고 대로 만들지 않았도다. 그러나 얼마나 다행인가? 네 불전이 구름위에 우뚝하고, 불탑은 뜰안에 홀로 서 있으니, 그 중 대웅전은 크고 훌륭하여 비록 만 사람의 존승을 받았으나 세월이오래 흘러 스스로 퇴락한 귀퉁이가 드러났다.”²⁵⁾ 하여 천여년이 지난 터에 범우와 탑만이 남아 있음을 말하

22) 1649년(順治7年 乙丑)에 중수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송림사의 연혁에 대한 언급은 없고 중수사실과 중수에 참여했던 주요 승려 3인을 적고 있을 뿐이다.

“而越在順治七年己丑之歲 碧巖堂祖熙大師則重修主也 而其時 總領都監則惠弘判事 執繩匠氏 厥号覺圓也”

23) 「乾隆四十年乙未四月初三日庚辰時上樑 大雄殿重修記」 “則棟楹板檻不無腐黑撓折者……”

24) 이강근, 「송림사의 재건과 대웅전 건축의 연구」, 『강좌미술사』 27,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6, 100쪽

25) “主創主之號曰惠炬師寶鑑師 錄寺紀錄之詳云何代立某年立千餘年基址久而否來泰往 十餘數房舍之多而有壞無成 何幸 四法宇之巍然雲端 一塔廟之獨立庭畔 其中大雄殿既狀而且大雖爲萬人之尊崇居者聞而咄歎大運將廻惜無一二歲久而年深自……”

고 대웅전 한쪽이 퇴락하여 중수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중수상량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평면과 입면구성에서 대웅전의 큰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새 나무를 구하려 해도 얻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옛 재목들 사용하여 이를 수 있었다. 동서의 대발은 줄이고 덜었으며, 앞뒤의 주춧돌은 좁고 촘촘히 세웠다. 널리 장엄되었던 옛 명성을, 우뚝하고 치밀하게 오늘에 되살리었다.”는 기록을 보아 부식되어 교체해야할 목재는 새로이 구입할 여건이 되지 않아 기존에 있던 부재를 사용하여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남아 있는 부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평면계획과 입면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²⁶⁾ 즉 정면과 측면 주칸 사이의 간격을 줄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면 현존하는 송림사 대웅전 건축물은 임란때 전소된 것으로 보이며²⁷⁾ 1649년에 중수 또는 중창하였고, 그 뒤 1775년에 다시 중수하였다. 그 후 1850년에 대웅전이 퇴락하여 건물을 헐고 중수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현재의 대웅전 건물은 그 이전의 모습에서 축소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원래의 위치에 건립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차후 논의과제로 둔다.

2) 배치상의 특징

대웅전은 일주문, 설법전으로 이어지는 남북 축선을 중심으로 세워졌으며, 대웅전의 전면 좌측에 명부전을 두었고 우측에 요사채를 두었다. 설법전과 대웅전 사이에 중심축에서 약간 벗어나 오층전탑이 있다. 전체적으로 오층전탑을 중심으로 튼口자형을 이루고 있다. 대웅전 뒤편 좌측에 대웅전과 인접하여 산령각이 있고 그 뒤에 응진전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웅전의 배면 우측이고 응진전과 동일 횡축선상에 심성각이 있다.

배치상의 특이점은 일반적으로 본전인 대웅전 중앙 전면에 탑이 위치하고 있으나, 송림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중심축에서 좌측으로 약간 벗어나 있어 여러 추측이 있을 수 있다. 즉, 대웅전의 원래 위치에 대한 의문이다. 1850년 대웅전 중수기에 따르면, “1월 28일에 집을 헐고, 2월 5일에 다시 터를 닦고, 2월 10일에 초석을 배열하고, 2월 14일에 기둥을 세우고 2월 27일에 상량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때 대웅전이 원래의 위치에서 지금의 위치로 이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현재 대웅전 서쪽으로 약 100m 떨어진 밭에 상부가 부러진 당간지주가 있는데 이는 송림사의 사세가 축소와 변형이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현재의 배치구조는 남북축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언제 형성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당간지주의 위치로 판단하면 원래의 가람배치는 동서축을 기본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경술년(1850) 중수기에 대웅전의 좌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6) 성윤제, 『철곡 송림사 대웅전의 원형과 변화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석사논문, 2016년, 20쪽

27) 왜란으로 인한 소실을 직접 언급한 직접적인 사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대웅전 건물을 비롯하여 대웅전내 목조 불상, 명부전내 시왕상, 설법전내 극락전 아미타삼존불상 등이 17세기 중엽에 한꺼번에 지어지고, 지금까지도 대웅전, 명부전 등이 사역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점으로 보아 7년간 지속된 왜란으로 송림사가 전소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어영차! 들보를 동쪽으로 던지니, 도덕산과 도덕암이 한 눈에 보인다.

어영차! 들보를 남쪽으로 던지니, 금호강의 물색이 푸르디 푸르다.

어영차! 들보를 서쪽으로 던지니, 담장너머에서 때때로 닭은 꼬꼬댁거리고 개는 킁킁 거린다. 녹천의 큰길 지나는 이 많은데, 말발굽에 인 먼지는 동풍이 씻어 낸다.

어영차! 들보를 북쪽으로 던지니, 천주산의 높은 봉우리 오르기 어렵다.

어영차! 들보를 위로 던지니, 넓고 넓어 막힘이 없다.”

현재 송림사 대웅전을 중심으로 보면 동쪽에 도덕산이 있고, 남쪽에 금호강이 있어 현재의 송림사가 남북축선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지형적인 여건과 현존 유구들을 볼 때 서쪽을 진입부로 삼고 동쪽 팔공산 방향으로 가람이 초창기에 조성되었다가 몇 번의 중수를 거치면서 송림사의 기본 가람축이 남북축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건축적 특징

대웅전의 평면은 정면5칸 측면 3칸으로, 정면의 주칸은 정칸에서 퇴칸으로 갈수록 차츰 줄어 나가는 형식으로서 영조법식에도 소개되는 기법이다. 정면과 측면의 평면비는 약 2:1정도로서 세장한 편으로 평지사찰의 모습이다. 내고주는 후고주로써 기둥이 위치는 정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둥사이에 불벽을 형성하고 있다. 대웅전 내부는 장방형의 커다란 수미단위에 거대하고 우람한 삼존불이 대좌위에 결가부좌한 자세로 봉안되어 있다. 대웅전 내부공간은 거대한 불단과 불상규모에 비해 매우 협소한 공간구조를 하고 있다. 원래 불상을 조성할 당시의 공간구조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기단은 한단으로 쌓은 외벌대로 낮게 처리하였는데 대웅전의 기단으로는 의외의 수법이다. 건물 전면에 장대석을 사용하여 축대를 턱단으로 쌓았으며, 제일 위 마감돌은 내어쌓기 하였다. 중심축선상에 4단의 계단을 두었는데 이중기단의 모습이다. 본 건물의 낮은 기단모습이 이해된다.

기둥은 모두 단면을 원형으로 가공하였으며 평주 16본, 고주 4본으로 구조를 짰다. 평주 직경은 520mm 내외, 우주는 600mm로 우주를 평주에 비해 다소 큰 부재를 사용하였다.

기둥 상부는 맞배집임에도 불구하고 창방과 평방을 측면에서 구조재로 설치함으로써 측면 구성은 일반적인 맞배집 구조, 입면과 차이를 보인다.

가구구조는 1고주 이중량으로 짰다. 4개는 통으로 전후면 공포사이를 건너지른 통보형식이며 퇴칸과 협칸사이의 2개 대들보는 내고주를 지난 부분에서 합보된 형식이다. 합보된 밑부분은 배면주상포의 3살미가 내고주 기둥 사괘 쪽으로 뻗어 나와 합보된 부분을 지지하면서 내고주와 연결해주는 계량 역할을 하고 있다. 내부는 우물천장과 빗천장을 혼용하였다. 처마는 겹처마루 구성하고 맞배지붕으로 덮었다.

공포는 내3출목 외2출목으로 짰는데 대웅전 전후에 각각 10조씩 배열하였다. 전후 모두

정칸에는 주간포를 2조 두었으나 나머지 칸은 주간포를 1조씩 짜 올렸다. 측면은 창·평방을 짚음에도 불구하고 공포는 설치하지 않은 다포계 맞배집 유형으로 분류된다.

살미는 전체적으로 교두형 살미와 삼분두형 살미, 운공형 살미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인 살미구성 방법을 보면 내외단 모두 교두형 공포 계열인데, 이 유형은 대구 팔공산 일대와 경북 청도 및 영천, 경남 산청에 분포하며 대구 팔공산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²⁸⁾ 이 지역의 건축적 특징으로도 볼 수 있으며 조선중기 승장 각원이 건축한 건물의 공통점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유구로 보여진다.

창호는 정면 어칸에 네짝, 협칸에 세짝, 뒷간에 한짝을 설치하고, 좌우측면은 전면 뒷간에 한짝, 후면 뒷간에 한짝씩 설치하였다. 배면에는 정칸에 두짝이 설치되어 있다. 창호 개폐방식은 실내로 열고 닫는 안여닫이 방식이다. 정·배면의 정칸 가운데 창호와 협칸의 가운데 창호는 하인방과 걸구된 신방목에 축구멍을 파고 문얼굴의 상부에 설치된 둔테를 이용하여 안으로 여닫는 방식이다. 신방목을 이용하여 안으로 여는 문짝 옆에 달린 문짝은 개폐되지 않는 고정식 불박이 창호라는 점도 특색이다. 전 시기 건물에 쓰였던 창호로 추정되는 실물이 후불벽, 배면 등에 남아 있다. 송림사 대웅전 정칸 하단에 있는 신방목은 원통에 연꽃문이 시문된 것으로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감은사지 금당, 사천왕사지 금당, 불국사 금당 등에서는 신방목이 아닌 신방석 형태로 등장하고 고려시대 조성된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강릉 임영관 삼문에서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송림사 대웅전 같은 조선후기 불전에서는 포항 보경사 천왕문(1686~1688년)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뿐 17세기 건물에서는 보기 드문 장엄요소이다.

외벽은 하부를 판벽으로 꾸몄는데 판재 두께가 인방 폭과 비슷한 두께여서 구부재를 재사용한 흔적으로 추정된다.

불전 후불벽에 있는 문은 송림사 대웅전 문보다 70cm 이상 큰 높이 3540mm의 규모이다. 대체로 조선후기 조성된 5칸형 불전이나 중층불전의 문의 크기는 불국사(문 높이 2.7m), 화엄사 대웅전(문 높이 2.9m), 화엄사 각황전(문 높이 3.1m), 금산사 미륵전(문 높이 2.9m), 무량사 극락전(문 높이 2.93m), 법주사 대웅전(문 높이 3.42m), 송광사 대웅전(m(기존 중층에서 단층으로 변형, 문 높이 3.14m)로 송림사 대웅전 후불벽 문의 크기가 조선후기 중층불전에 버금갈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송림사 대웅전은 이상의 여러 정황을 볼 때 현재의 건물높이 보다는 더 높은 건물로 추정된다. 대웅전의 지붕은 현재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으나 해체과정에서 나온 다수의 선자연과 선자부연, 귀한대 살미 그리고 측면 평방 상부의 공포이음 축자리 등으로 볼 때 당초 팔작지붕에서 맞배지붕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4) 승장 각원의 건축기법과 송림사 대웅전

28) 오세덕, 「조선후기 불전조영승려장인의 계보와 건축기법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14, 53-71쪽.

칠곡 송림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이후 1649년(順治七年) 중건된 건물이다. 이후 1775년(중수), 1850년(평면과 지붕의 변화 발생) 중수를 걸쳐 2013년 전면 해체수리가 이루어졌다. 송림사 대웅전은 1649년 팔공산 일원에서 활동했던 승려장인(이하 승장) 각원(覺元)과 그의 계파가 건립한 건물이다. 17세기 팔공산 일원에서 활약했던 승장 각원과 그의 계파는 송림사 대웅전을 필두로 운문사 대웅보전(1653년)과 북지장사 대웅전(1659)을 건립했고, 운문사에서 함께 작업했던 승장 계연(戒衍)과 상혜(尙慧)는 이후 환성사 대웅전(1663년) 都大木, 산청 율곡사 대웅전(1678년) 都大木 등의 중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인물들로 17세기 경상도 일원에 많은 건조물을 조영한 집단이다.

각원 계파 건축물의 특징²⁹⁾은 첫 번째로 팔작지붕의 선호와 함께 충량을 생략한 특수한 가구의 사용이다. 운문사 대웅전을 필두로, 율곡사 대웅전, 북지장사 대웅전 등은 모두 충량이 없으며 내벽의 운공형 살미가 대량 위에서 짜여진 평방형부재의 왕찌 위까지 뻗어 올라가 측면 하중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가구를 구성하고 있어 17세기 일반 불전의 충량으로 측면과 연결되는 가구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지붕은 17세기 임진왜란 이후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경상도 일원의 사찰 주불전이 다포계 맞배지붕집으로 조성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각원 계파 장인이 조성한 건물 대부분이 팔작지붕이라는 사실은 각원 계파가 팔작지붕을 선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공포의 구성에서 나타는 특수성으로 주로 교두형 살미와 첨차를 건물의 사방 내·외단 모두 사용하는 것이다. 조선후기 주불전은 대부분 다포계 법식을 사용하고 살미의 형태에 따라서 교두형, 쇠서형, 연화쇠서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체로 17세기 불전은 교두와 쇠서형의 살미를 사용하고, 18세기 연화쇠서형 살미를 사용하는 불전이 증가한다. 교두형 살미 불전은 주로 경상도 일원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 고식 중심포 건물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 경상도 일원의 교두형 살미 공포를 사용한 불전의 90% 이상이 각원과 그의 계파의 장인이 조성한 건물로 파악되고 있어, 교두형 살미 공포의 사용은 각원 계파 장인 불전의 건축적 특징을 볼 수 있다. 더욱이 교두형 살미를 불전의 정면과 측면을 포함한 사면과 내·외 출목 모두 동일한 간격으로 놓아 사용하고 있어 각원 계파 불전의 교두형 살미 공포 선호 현상은 분명하다.

세 번째, 천장의 장엄에서 일부 각원 계파 불전과 유사성이 확인된다. 송림사 대웅전 천장 중앙 중도리의 상단에 우물반자 형식의 틀을 만들어 격자 내부에는 연꽃모양과 봉황 등 여러 가지 문양의 고색 단청이 칠해져 있고 반자 둘레로 소란으로 장식되어 있어 전·후면의 격식 낮은 빗천장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반자 둘레의 소란을 장식하는 격식 있는 요소와 격자 내부의 연꽃모양의 단청은 운문사 대웅보전과 율곡사

29) 오세덕, 「조선후기 불전조영승려장인의 계보와 건축기법 연구」와 「17세기 僧匠의 건축적 연구 -각원을 중심으로-」에서 발췌함

대웅보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원 계과 불전의 천장 장엄과 일맥상통하는 요소이다.

3.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가. 역사적 가치

송림사 대웅전은 창건 연대에 관련된 문헌적 근거는 없으나 6세기 초반, 7세기 후반, 624년 등 신라 통일기로 보거나 8세기 전반이나 9세기 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고려 시대 몇 차례 중창이 있었고 1309년에 보감국사 훈구가 입적 후 사세가 번창하여 계속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는 벽암당 조희대사를 총책임자로 승려장인 각원에 의해 1649년 대웅전 중수 등이 있었고,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중반경의 대웅전 중수가 있었던 것이 1775년의 「대웅전중수기(大雄殿重修記)」와 1850년의 상량문을 통해 확인된다. 1657년에는 대웅전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을 봉안하고, 숙종은 대웅전 현판을 하사 하였다. 그리고 1775년 대웅전이 크게 수리되고, 1850년에 대웅전을 크게 수리한 상량문이 사중에 전해지고 있다. 1858년 영추스님이 중창하였고 크고 작은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1850년 중수상량문에는 현재 건물이 건립되어진 단서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상량문의 내용을 보면 송림사의 내력과 중수사유, 중수과정과 참여자, 후원자 그리고 대웅전 해체에서 상량까지의 상세한 일정을 기록하고 있으며, 평면과 입면구성에서 대웅전의 큰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이 언급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1649년 중수기에 의하면 정확한 조영 시기와 건립자를 알 수 있는데 각원이라는 승장의 활동이 언급되어 있다. 송림사 대웅전을 조성한 각원은 17세기 대구 팔공산 일원의 교두형 공포의 건물 조영을 주도하였다. 송림사 대웅전 이후 각원은 운문사 대웅보전, 북지장사 대웅전 등이 남아있다. 각원과 함께 계연(戒衍), 성탄(性坦) 등은 이후 은혜사 백홍암 극락전, 산청 율곡사 대웅전 등의 교두형 건물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이 송림사 대웅전은 각원이 지은 불전 중 먼저 건립된 불전으로 각원과 각원 계과의 건축의 비교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나. 학술적 가치

송림사 대웅전은 1649년 각원 계과에 의해서 건립된 이후 1850년 중수로 인해 전체적인 평면과 가구 등의 변화가 발생하였지만, 각원 계과가 사용했던 건축기법인 불전의 교두형 살미 공포를 사용하는 법식은 송림사 대웅전에 그대로 사용되어 정면의 주간포 4조와 주심포 6조, 후면의 주간포 4조와 주심포 6조를 포함한 총 20조 모두 내 3출목

의 2출목을 교두형 살미와 제공을 사용해서 쌓고 있어 공포부는 17세기 각원과의 건축 기법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

송림사 대웅전은 1649년 건축된 대웅전은 현재의 건물보다 큰 규모로 추정되며 그 후 1775년 중수기나 1850년의 상량문 그리고 공포양식을 중심으로 볼 때 대웅전은 17세기 중반의 건축형식이며 현재의 모습은 1850년 중수시에 규모와 형태가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

송림사 대웅전의 가치를 살펴보면,

첫째, 평면의 규모와 형식에서의 가치를 볼 수 있다.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는 임진왜란으로 전국의 사찰들이 전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뒤 17세기 이후에 들어서 재건하게 되었지만 이전의 규모를 회복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고려할 때, 송림사 대웅전 역시 이전의 규모를 회복하지 못하였지만 일반적인 사례보다는 큰 규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진고주의 정치법에 따른 실내 중앙에 불단을 둔 것은 17세기~18세기의 건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둘째, 부재의 고식수법이다. 대웅전에 나타나는 여러 치목수법이나 형태에서 17세기의 모습이나 그 이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정칸 출입문의 하인방에 사용된 신방목을 들 수 있으며, 불벽 배면에 2개의 창호가 불벽의 일부분으로 남아 있는데 3단의 굽널을 가진 정자살형식의 창호로 17세기의 모습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당시 건물의 높이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리고 건물배면 가운데칸에 두짝여닫이문의 존재는 19세기 이후로는 거의 채택하지 않는 수법으로 후불벽을 가진 기둥의 정치법과 관련이 있다.

셋째, 대구의 팔공산과 비슬산 일원에 집중된 교두형 다포식 불전 건축물의 일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교두형 다포식 불전 건축물은 대구 일원에 17세기에 집중적으로 건립³⁰⁾되었으며 이들 불전들은 각원이라는 승려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 지역과 특정 시기 및 특정 인물에 의해 건축된 건물들은 양식사적인 측면에서 그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양식사적 연구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종합의견

현재의 송림사 대웅전 건물은 1850년에 건립된 건물로 보여진다. 그러나 부재의 세부적인 모습에서 그 이전시기의 건축수법이 많이 보여지고 있으며, 기록을 볼 때 현재의 건

30)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고건축」 제15호, 24쪽

물이 규모나 형태면에서 변형이 된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즉, 평면의 규모가 줄어들었으며, 건물 높이가 낮아지고 지붕 형태가 팔작지붕에서 맞배지붕으로의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건물의 시기적인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진정성 또는 완전성이라는 가치는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규모가 임란 후에 건립한 건물로서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부재의 곳곳에 과거의 건축수법이 남아 있다. 특히 이 건물은 17세기 승려장인인 각원이 주도한 건물로 중수기를 통해 판명되었고 각원 계파가 팔공산 일대에 많은 불전건축에 참여하였음이 몇몇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그리고 각원 계파의 건축적 특성이 다른 건물과 비교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송림사 대웅전에 남겨놓은 각원 계파의 건물 기법이 잔존하고 있는 경상도 일원에서 건립된 가장 큰 규모의 불전중 하나이고 다양한 변화의 흔적들을 잘 보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사적 가치가 높은 건물이다. 그 외에도 현 건물과 그 이전의 건물에 관련된 기록이 잘 남아 있어 건축사 문헌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변형이 많은 점에서는 약간의 약점은 있지만 역사적, 학술적 측면이라는 큰 범주에서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대구 동화사 극락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대구 동구 소재 「대구 동화사 극락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1호 「동화사극락전」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21년 건축문화재분과 제5차 회의(2021.05.20.)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21.05.28.~'21.06.26.)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1호 「동화사극락전(桐華寺極樂殿)」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6
 - 지정일 : 1986. 12. 05.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대구 동화사 극락전(大邱 桐華寺 極樂殿)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6
 - 소유자(관리자) : 팔공총림 동화사(팔공총림 동화사)
 - 시대/연대 : 1622년(광해군 14) 중창/ 1702년(숙종 28) 중수
 - 수량 : 1동
 - 지정면적 : 74.85㎡(보호구역 11,958.15㎡)
 - 구조/형식/형태 : 다포계 한식목구조 팔작지붕
 - 재질 : 목재, 한식기와

라. 현지조사의견(2020.06.30.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6.30	대상문화재	대구 동화사 극락전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 ○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대구 동화사 극락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 년 4 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조 사 자 : ○○○, 한국건축사, ○○대학교, 교수
2. 신청종별 : 보물
3. 문화재명칭 : 대구 동화사 극락전(大邱 桐華寺 極樂殿)³¹⁾
4.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 1길1(도학동 36)

5. 연 혁 : 동화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로 2012년에 총림³²⁾으로 승격되었다. 493년(신라 소지왕 15) 극달화상(極達和尚)이 창건하여 ‘유가사(瑜伽寺)’라 부르다가 832년(흥덕왕 7)에 심지왕사(心地王師)가 중창할 때 절 주위에 오동나무³³⁾ 꽃이 만발하여 ‘동화사(桐華寺)’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이중환(李重煥, 1690~1756)의 『택리지(擇里志)』(1751년)에서도 “동화사는 신라 때 중인 진흥(振興)이 지팡이를 공중에 날렸더니 지팡이가 여기 떨어지므로 드디어 절을 세워 거주하였다. 지형이 둘러 겹쳤고 집들이 광장하여 예로부터 유명한 중과 계행을 닦는 자가 많았다.”라는 창건 연기와 규모에 대한 기록이 있다. 동화사의 창건연대와 관련 기록은 몇 가지 의문점을 갖게 한다. 먼저 493년 창건 연대는 신라가 불교를 공인(527년)하기 이전인 점, 두 번째는 중국에서 7세기 후반 성립한 법상종의 성격을 나타내는 유가사(瑜伽寺)라는 사명을 사용했음이고, 세 번째는 동화사 경내에서 5세기 대의 유구 및 유물은 찾아 볼 수 없고, 현재 극락전 영역에 금당암 3층석탑(9세기 후반), 비로암 3층석탑과 석조비로자나불(863년)이 남아 있음이다. 이로 보아 실증적 사료가 아닌 구전에 따른 단순 전래 기록임을 짐작할 수 있는바 5세기 창건으로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실질적인 창건 시기는 832년 심지왕사(心地王師)가 중창한 때로 봄이 옳다고 생각된다. 창건 이후 고려 1190년(명종 20) 보조국사 지눌(普照國師 知訥, 1158~1210)이 동화사 중창, 1294년(충렬왕 20) 홍진국사(弘眞國師, 1228~1305)가 입적하고 그의 유지를 받들어 1298년에 중창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가장 많은 불사가 이루어졌다. 1465년(세조 11) 금당(극락전) 중건과 수마제전 건립, 1591년(선조 24) 비로전 건립,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사명당 유정(泗溟堂 惟政, 1544~1610)이 동화사에 승군사령부 설치, 1600년(선조 33) 금당 중건, 1606년(선조 39) 대웅전 건립, 1608년(선조 41) 미륵전 중건, 1618년(광해군 10) 종각 건립, 1622년(광해군 14) 극락전 중창, 1629년(인조 7) 극락전 아미타삼존불상 조성, 1699년(숙종25) (대)금당의 후불탱과 사천왕탱 조성, 1702년(숙종 28) 극락전 중수와 금동불 조성하고 수마제전 중창, 1703년(숙종 29) 수마제전 후불탱화 조성 및 불상 개금, 1725년(영조 1) 대웅전 및 요사 화재, 1727~1732년 대웅전 중창(추정), 1852년(철종 3) 금당

31)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1호

32) 대한불교 조계종 총림 :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수덕사, 동화사, 범어사, 쌍계사. 백양사는 2019년 11월에 총림 해제됨.

33) 산신각 앞에 수령 200년 가량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동나무(일명 : 삼지대사 나무)가 있음.

암 서탑 중수, 1887년(고종 24) 금당 아미타극락회상도와 대웅전 신중도 조성하였다. 이후 1902년(고종 39) 금당암 동탑 수리, 1957년 금당암 서탑 해체수리, 1967년 금당암 서탑 수리, 1974년 금당암을 해체하고 1976년에 금당선원으로 증·개축, 1990년 설법전 중건·동화문 건립·동화지 조성, 1992년 통일약사여래대불 조성·통일기원대전 건립, 2005년 염화실 건립, 2012년 국제관광 선 체험관(현 불교문화관) 건립, 2014년 예경실 개축, 2015년 사찰음식체험관을 신축하였다.

극락전에 관한 기록을 <팔공산 동화사 사적기>에서 좀 더 살펴보면 임진왜란 이후 동화사의 중건은 1600년부터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서일(瑞一)은 제일 먼저 금당을 복구했는데, 금당은 지금의 극락전 일대로 (대)금당은 극락전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건금당(建金堂)’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건립 차원의 중창이라 여겨진다. 이곳은 심지왕사가 동화사를 개창했던 장소로 극락전을 가장 먼저 복구했으리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혁을 통하여 극락전의 창건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존 건물의 가구식 기단과 고목이 초석³⁴⁾ 등의 수법으로 보아 초창 시기는 통일신라시대까지 올려 볼 수 있고, 축부 이상은 늦어도 18세기 초의 건물로 판단된다. 1995년과 2009년³⁵⁾에 수리가 이루어져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6.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동화사는 ‘신라오악(新羅五嶽)’³⁶⁾ 중에서 중악인 팔공산(八公山)³⁷⁾의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팔공산은 한반도의 큰 지맥인 백두대간의 줄기가 남으로 뻗어 내린 태백산에서 곧장 남쪽으로 내려온 낙동정맥(洛東正脈)이 보현산(普賢山) 부근에서 서남쪽으로 달리면서 이어진 화산(華山)에서 뻗어 나온 장엄수려한 명산이다. 대구의 진산인 팔공산은 근교에서 가장 높은 산림청 선정 100대 명산으로 비로봉(毘盧峰)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로 16km에 걸친 능선 경관이 아름답다. 팔공산에는 남쪽 동화사를 중심으로 동쪽 은해사(銀海寺), 서쪽 파계사(把溪寺), 북쪽 군위삼존석굴(제2석굴암)을 비롯한 부인사(符仁寺), 송림사(松林寺), 관암사(冠岩寺) 등 이름난 사찰과 암자들이 산재해 있는 유명한 불교문화의 성지로 불국토를 이루고 있다.

동화사는 팔공산 남부지역의 완만한 경사 지형지세로 주능선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좌우로 뻗어 내린 내·외 청룡과 내·외 백호가 감싸 안고 있다. 동화사의 형국은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것 같다하여 금봉포란형(金鳳抱卵形), 봉황포란형(鳳凰抱卵形), 봉소포

34) 경주 불국사 대웅전(681년 창건, 보물 제 1744호)와 유사함

35) 1995년 : 번와 보수, 2009년 : 연목 이상 해체 보수

36) 신라의 산악숭배사상에 따라 다섯 山嶽(東嶽 吐含山, 北嶽 太白山, 中嶽(父嶽, 公山) 八公山, 西嶽 鷄龍山, 南嶽 智異山)을 대상으로 정하여 제사를 지낸 산으로 팔공산과 지리산은 고려시대에도 나라의 제사 대상이었음.

37) 경상북도립공원(1980년 5월 지정)

란형(鳳巢抱卵形)으로 불리어진다. 이런 연유로 일주문은 봉황문(鳳凰門), 대웅전 진입
누각은 봉서루(鳳棲樓)라 명명했다. 동화사는 현재 보물 14점, 등록문화재 1점, 시도문
화재 20점을 보유하고 있는 대구·경북 대표 사찰로 불교계를 선도하는 중심적인 역할
을 수행해왔다.

7. 건축현황 및 특징 :

팔공총림 동화사의 가람배치는 선원(금당선원 구역), 율원(비로암 구역), 강원(대웅전·
통일대불 구역)영역과 선체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성 시기는 금당선원·비로암·
대웅전·통일대불·선체험 순이다.

진출입로는 옛길과 1990년에 새로 신설한 두 길이 이용되고 있다. 옛길은 남편 멀리
있는 ‘팔공산 동화사 봉황문(八公山 桐華寺 鳳凰門)’이라 편액한 일주문을 지나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옹호문을 통하여 대웅전으로 이어진다. 새길은 차량 출입을 고려한 진입
로로 팔공산 도로를 따라 가다가 오른쪽으로 돌아들면 보이는 서편 동화문과 저수지를
지나서 대웅전 영역으로 이어진다.

현재의 중심 영역은 중정식 가람배치를 이루고 있는 대웅전 일원이며, 극락전은 금당
선원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금당영역은 옹호문 앞 마당의 우측길을 따라가다가 극락교
를 건너면 보이는 동쪽 산자락으로 난 길로 가면 작은 협문이 있다. 협문을 지나서 왼
쪽 편 계단을 오르면 극락전이 직면하고 그 좌우에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³⁸⁾이 있다.
우측 뒤편으로는 금당선원과 수마제전³⁹⁾이 있고, 금당선원 오른쪽에는 화선당·요사채
1·요사채 2가 서향하여 남쪽으로 줄지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요사채 두 채는 철거
(2018년)하고 금당선원(2020년)을 새로 지었다.

극락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형식 팔작지붕 건물이다. 정·배면의 주간은
정칸이 가장 넓고 협칸·퇴칸 순으로 좁다. 양측면의 정칸과 퇴칸은 정면 정칸과 퇴칸
의 간살과 거의 같다.

평면은 전·후에 내진고주를 세우고 외진 평주로 둘러싼 형식이다. 내부 바닥은 우물
마루가 깔려 있는데, 청판과 귀틀의 형식이 비정형적으로 짜 맞추어져 있다. 마루 바닥
밑에 옛 방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창건 당시에는 고식의 전바닥⁴⁰⁾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의 마루는 알 수 없는 시기에 바뀐 것이 분명하다.

불단은 배면의 후불벽을 정칸과 양·협칸 후열 고주선상에 일치시키고 주불 아미타불
과 좌·우에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을 봉안했다. 삼존상의 불단은 각기 독립되게 안
치하였는데, 현 건물 양식의 시기에서 나타나는 형상에 비해 격식이 낮다. 불단 위에는
단집이 꾸며져 있지 않다. 양협칸의 후불벽 좌·우뒷칸에 벽을 설치하여 별도의 독립된

38) 보물 제248호(1963. 01. 21 지정)

39) 대구광역시문화재자료 제16호

40) 봉정사 극락전 : 고려 후기, 국보 제15호, 화엄사 각황전 : 1702년 중건, 국보 제67호



< 마루 바닥 하부 전바닥 >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양측 벽체 인방의 부재 상태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후대에 설치한 것이라 짐작될 뿐 시기는 알 수 없다.

평면구성은 전후에 내진고주를 세우고 불단 배면을 고주선상에 놓은 정치형⁴¹⁾으로 18세기 이전 건물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유형이다.⁴²⁾

기단은 지대석과 면석, 갑석으로 구성된 가구식이다. 정면과 좌·우측면의 기단은 이중기단으로 정면은 장대석을 앞으로 내밀어 쌓고, 좌·우측면은 장대석 위에 지대석을 퇴물림으로 들여

쌓았다. 좌·우측면의 퇴물림 이중기단은 지대석 아래 석재가 모두 신재로 원래 것인지는 잘 알 수 없다. 쇠시리 한 구재의 정면 이중기단은 고대건축 미륵사지, 감은사지, 황룡사지 등과 삼국시대 성곽, 석총 등의 각종 육축에서 볼 수 있다. 모서리와 면석에 각각 우주와 탕주를 세운 모습은 대표적인 예로 불국사 대웅전과 극락전, 통도사 대웅전을 들 수 있으며, 기둥이 없는 예도⁴³⁾ 있다. 정면 기단 중앙과 우측면 좌·우측에는 장대석 계단을 두었다.

정면 기단 앞마당에는 전후로 긴 장방형 가운데 연화문양을 새긴 배례석이 있다. 흔치 않은 예로 설치연대 및 위치와 원래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석재의 풍화마모 정도와 조각 수법으로 보아 가구식 기단과 같은 시기까지 올려 볼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초석은 고맥이초석으로 주좌·운두·부좌·초반·고맥이석을 갖춘 고급초석이다. 정면과 배면에는 신방석이 있는데, 신방목은 정면은 없고 배면에는 있다. 가구식 이중기단, 고맥이초석,⁴⁴⁾ 신방석·신방목⁴⁵⁾은 고식에 속한다.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기단부의 조성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양식편년으로 보아 최소한 고려시대까지 올려 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41) 안대환·김성우, 「사찰 주불전에서 불단 위치와 마루기틀배열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2010,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6권 제6호(통산260호)

42)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 고려, 국보 제18호, 예산 수덕사 대웅전 : 고려, 국보 제49호,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 : 1624년, 보물 제 916호, 경주 불국사 대웅전 : 1765년 중창, 보물 제1744호,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 1785년 중창, 보물 제833호 등이 있음.

43)백제 미륵사지 동·서금당, 통일신라 감은사지 금당, 성주사지 금당, 거둔사지 금당,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화순 쌍봉사 대웅전 등

44)경주 감은사지 강당지, 포항 법광사지 금당지, 울주 간월사지 금당지, 합천 영암사지 금당지,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경주 불국사 대웅전·극락전·관음전, 포항 보경사 적광전

45)안동 봉정사 극락전, 경주 불국사 관음전·비로전·극락전, 포항 보경사 적광전

기둥은 모두 약한 민흘림을 둔 원주이다. 조선고적도보의 옛 사진을 보면 기단 네 모서리에 활주가 보인다. 활주가 언제 제거되었는지 원래부터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팔작지붕 건물은 건립 이후 추녀부가 처지면서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현상이 발생할 경우 활주를 설치하는 예가 많음에 비추어 볼 때 후설했을 가능성이 높다.

창호는 정면은 주간 모두에, 좌·우측면은 앞쪽 틈칸에, 배면은 정칸과 좌·우협칸에 설치되어 있다. 정면은 정칸에는 위계를 고려하여 3분합굽널교살 여단이문을 설치하고, 좌·우협칸과 좌·우뒷칸에는 각각 쌍여단이 굽널띠살문과 외여단이 굽널띠살문을 달았다. 좌·우측면 틈칸에는 외여단이 굽널띠살 문이, 배면의 정칸과 좌·우협칸에는 쌍여단이 굽널띠살 문이 나왔다. 지금의 창호는 조선고적도보의 사진과 다르다. 옛 창호를 보면 정칸은 현재처럼 격을 높인 3분합굽널빛솟을꽃살의 화려한 여단이문이고 좌·우협칸과 좌·우뒷칸은 각각 쌍여단이 굽널정살문과 외여단이 굽널정살문이다. 지금 창호보다 살 짜임새 문양이 고급스럽고 굽널이 비교적 높다. 일반적으로 후대로 오면서 굽널이 낮아지는 경향으로 보아 높은 굽널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모습이라 짐작된다.

공포는 시기적으로 앞선형인 내외출목수가 적고 같은 내외2출목 다포형식이다. 주간 포는 정·배면과 좌·우측면의 정칸은 2구씩, 나머지는 1구씩 배열되어 있다. 침차는 마구리 단부는 직절하고 그 밑면은 교두형으로 깎고 윗면에는 공안을 파지 않았다. 살미는 4제공으로 외·내부살미 모두 분리형이다. 외부살미는 1·2제공은 교두형이고 3제공은 삼분두이며, 4제공은 주간은 운공형이고 주상은 직절한 퇴량이 얹혀있다. 내부살미는 주간은 1·2제공을 교두형, 3·4제공을 각각 운공형과 삼분두로 하였으며, 주상은 1·2제공을 교두형, 3제공은 초각한 보아지로 퇴량을 받쳤다. 귀포의 구성은 1제공과 2제공의 좌우대가 도매침과 병침으로 이어져 있는데, 주심은 주장침차식으로 결속한 병침이 뒷칸 주간포와 주상포까지 설치되어 있다. 이 주장침차는 하중을 많이 받는 귀포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대개의 경우 주간 전체⁴⁶⁾에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유사한 귀포 짜임은 영천 은혜사 백홍암 극락전⁴⁷⁾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드문 예로 주목되는 특징이다. 다포계에서 내외출목수가 같고, 외부·내부·귀포가 교두형인 살미는 17~18세기의 건물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이다.

상부가구는 2고주 5량 가로 고주 뒷보와 종보로 구성된 2중량 구조다. 뒷보는 외단부는 공포의 3제공 위에서 외목도리를 받고 있으며, 내단부는 고주에 장부 맞춤되어 있다. 종보는 고주 주두 위에 짜 맞춘 고주 익공과 행공이 받도록 하고, 종보 위에는 제형판대공이 종도리를 지지토록 했다. 이런 내진고주, 뒷보, 종보 등의 상부 가구 구성도

46)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보물 제835호, 1653년 중건),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보물 제802호, 1813년 중건), 고흥 능가사 대웅전(보물 제1307호, 18세기 중반 중건)

47) 영천 은혜사 백홍암 극락전(보물 제790호, 1643년 중건)

앞에서 살펴본 18세기 이전 건물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내2출목 위로는 방형화반을 세워서 사방으로 내목 상벽을 설치하였다. 천장은 상벽 위의 내목도리와 고주 사이, 중도리 사이를 우물반자로 꾸민 층급반자이다. 우물반자의 꾸밈새는 화려한 조각형 소란의 본존불, 귀접이형 소란의 협시불, 직선형 소란의 텃칸 순으로 위계를 부여하였다.

8.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 동화사 극락전은 창건 시기인 통일신라시대까지 올려 볼 수 있는 가구식기단과 고맥이초석, 전바닥이 비교적 잘 남아 있으며, 17~18세기 다포 팔작건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평면구성, 공포 짜임 수법, 가구구성은 건축양식사적 가치가 크다.

동화사가 처음 자리 잡은 터에 지은 가장 오래된 건물로 기존의 보물 사찰 건축에 비추어 볼 때 지정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 6. 30.	대상문화재	대구 동화사 극락전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 ○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대구 동화사 극락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아래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아래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아래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아래 참조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아래 참조		
종합의견		아래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 환경

대구 동화사 극락전은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동화사1길 1)에 위치한 팔공산의 남쪽 중앙 양지바른 곳에 자리하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 9교구 본사이다. 대구광역시청에서 21.5km 거리에 있는데, 북동쪽 대구국제공항 방향으로 공항로교차로에서 팔공산IC 이시아폴리스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3.6km 가서 팔공로 동화사 갓바위 방면으로 좌회전 후 6.7km 이동한 후 다시 팔공로197길 좌회전 후 499m 이동 팔공산로 좌회전 하여 3.4km 이동 팔공산로 좌회전 후 1.1km 이동 동화사2길 통일대불 동화사 방면으로 우회전 후 697m 이동 좌회전하여 200여m 이동하여 위치한다. 다른 길은 팔공산로에서 동화사2길 통일대불 동화사 방면으로 가지 않고 직진하여 봉황문으로 거쳐 1.1km 거리에 위치한다. 동화사에 진입하는 길은 일주문을 지나 옹호문으로 이어지는 계곡의 오솔길과 서쪽의 팔공산 순환도로와 연결된 새 길로 접근할 수 있다. 일주문을 지나 옹호문에 이르는 오솔길이 주진입로이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참배객을 위해 새로 조성한 서쪽 길은 팔공산 순환도로에서 400~500m 오른 곳에 매표소와 신축한 일주문을 따라 왼쪽으로 돌아가면 봉서루 앞 마당으로 이어진다. 팔공산(1,193m)은 대구광역시의 북쪽에 병풍처럼 둘러있는 대구의 진산으로 대구·칠곡·군위·경산·영천에 걸쳐 있으며, 최고봉인 비로봉(毘盧峰)을 중심으로 동봉(東峰:1,155m)과 서봉(西峰:1,041m)의 양 날개를 펴고 있다. 남동쪽으로는 염불봉(念佛峰)·수봉(壽峰)·인봉(印峰)·노적봉(露積峰)·관봉(冠峰) 등이 이어져 있고, 서쪽으로는 파계봉(把溪峰)을 넘어 가산(架山)에 이른다.⁴⁸⁾ 수려한 산세를 배경으로 사시사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영남 지방의 최고 영산으로 불렸다. 팔공산은 공산(公山)·부악(父岳)·중악(中岳)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중악은 신라 왕실의 오악(五岳)의 하나로 정기적인 제사를 지낸 곳으로 붙여진 이름이며⁴⁹⁾, 조선시대까지는 ‘공산’이라고 불렸다. 동서로 병풍처럼 둘러싸인 팔공산의 봉우리에서 발원하는 청간수(淸澗水)가 많은 계곡을 형성하고 있다. 팔공산의 북쪽사면에는 남천(南川), 위천(渭川) 등이 발원하고 서쪽 한천(漢川), 동쪽으로 신녕천(新寧川) 등과 남쪽으로 문암천(門岩川)이 흘러 금호강(琴湖江)으로 흐른다. 동화사는 대구시 북구와 동구, 칠곡군 가산면과 동명면, 군위군 부계면, 경산시 하양읍, 영천시 와촌면에 걸쳐져 있다. 동화사는 영남 지역의 명산인 팔공산의 비로봉에서 동봉과 서봉으로 날개를 펼치고 있는데, 동봉에서 다시 남향하여 낙타봉 자락과 염불봉으로 갈라지며 염불봉에서 다시 1.4km 정도 맥이 이어지는데 가운데에서 주맥은 남서향으로 뺏어내리고 1.4km 거리에서 남서향으

48) 네이버 지식백과, 팔공산도립공원, 두산백과 참조

49) 삼국사기 권32. 제사지(祭祀志), 신라는 산악을 신격화하여 호국신군으로 받드는 산악숭배사상으로서 삼산(三山)과 오악(五岳)을 두었는데, 이를 대사와 중사로 표현하여 국가 최상의 제전으로 삼았고, 곧 신라의 대사삼산(大祀三山)과 중사오악(中祀五岳)은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동시에 확장되는 신라세력을 상징하는 신라 최고의 호국성신(護國聖神)이었다고 한다.

로 동화사의 좌청룡으로 감싸돌고, 비로봉에서 남쪽으로 뻗은 낙타봉 자락이 남쪽으로 흘러 우백호로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다. 맥은 팔공산 주능선이 험하고 거친 세를 보이지만 남으로 뻗은 맥은 기운을 정제하고 순환하여 동화사 대웅전 뒤까지 입수(入首)한 형국이다. 주맥에서 뻗어나간 좌우의 산들은 내외로 겹쳐져 단정한 자세로 명당 주위를 에워싸고 있으며, 터의 특성은 포근하여 단정하다고 한다. 동화사의 형국을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으로 비유하는데,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터는 대단히 상서로운 자리이다.⁵⁰⁾ 그리고 염불봉에서 샷갓봉까지를 맥을 보면 염불봉에서 1.4km 정도 거리의 남서쪽으로 힘차게 뻗은 맥을 주맥으로 보고 샷갓봉 자락을 좌청룡, 동화사 대웅전 자락을 우백호로 보는 형국도 상서로운 자리를 하고 있다. 동화사 대웅전 자리에 못지않은 좋은 형국을 하고 있어 현재의 동화사 이전에 자리로 추정된다. 동화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 9교구 본사로 일제강점기에 31본산의 하나였고 상당수의 말사와 주변에 부도암(浮屠庵), 양진암(養眞庵), 염불암(念佛庵) 등 여러 부속 암자를 거느리고 있다. 동화사의 첫 번째 산문인 ‘팔공산 동화사 봉황문’이라 편액한 일주문을 지나 대웅전의 정문인 옹호문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은 산세를 따라 길게 조성되어 있으며 많은 비석과 석탑들이 산재해 있다. 주진입로인 오솔길을 따라 가다가 당간지주와 비석을 지나 조금 올라가면 갈림길이 나온다.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돌다리를 건너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대웅전의 정문인 옹호문에 이른다.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접어들면 당간지주와 도학동 석조부도를 끼고 돌아가면 극락전 영역으로 이른다. 동화사의 가람배치는 현재의 중심영역인 대웅전 영역과 옛 중심영역인 금당암(金堂庵)으로 불리는 극락전(極樂殿)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극락전 영역은 금당(金堂)이 사찰의 중심영역이었던 창건 당시의 영역으로 추정된다. 대웅전 영역은 정문인 옹호문(擁護門)을 지나 들어서면 마당의 왼쪽 단 위에 요사채, 화장실 등이 있고, 오른쪽에 설법전, 원음각 등이 있다. 옹호문과 마주한 마당 앞쪽에는 봉서루(鳳棲樓)를 루하진입 하여 마당을 중심으로 정면에 대웅전이 있고, 좌측에 심검당과 법화당 등과 우측에 화엄당이 배치되어 중정형 사찰을 이루고 있다. 대웅전 후면으로 영산전, 조사전, 산신각(山神閣), 칠성각(七星閣) 등이 좌우로 배치되어 있다. 대웅전 영역의 배치 구조는 옹호문, 봉서루,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주축과 이에 직교하는 부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웅전은 주축의 중심깊은 곳에 자리한 중심전각으로 다른 전각을 배치하지 않고, 주축과 직교하는 부축 좌우에 심검당이나 화엄당 등을 배치하고 뒤로 산신각, 조사전, 칠성각 등을 배치하고 있다.

개울 건너에 있는 극락전 영역은 동화사 당간지주를 따라 우측으로 돌아가면 금당(金堂)인 극락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동서삼층석탑이 있고, 극락전의 북동쪽으로 수마제

50) 봉황은 길상스러운 새로 산세의 단정함과 수려함이 빼어나고 명당 주위의 청룡이나 백호가 여러 겹으로 명당을 감싸 안아 좋은 기운을 갈무리하고 있을 형국에 붙인다.

전(須摩堤殿)을 남향으로 배치하였고, 수마제전의 앞쪽에는 금당선원(金堂禪院), 그 좌측에는 좌선당, 요사채 2채, 화장실 등이 서향하여 배치하고 있다. 대웅전 영역의 극락교 건너편 동쪽에 자리한 극락전 영역의 배치구조는 극락전 아래 수평으로 긴 마당으로 형성된 진입공간, 극락전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동서삼층석탑을 배치한 금당 영역 그리고 그 뒤로 수마제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당 영역은 극락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주축은 극락전 영역이 되지만 지맥을 보면 수마제전이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조선고적도보의 사진과 비교해보면 대웅전 영역은 옹호문으로 들어서 넓은 마당이 조성된 것과 달리 전각이 배치되어 점차 공간이 확장되는 구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극락전 영역도 석축에 의한 단의 구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며 현재보다 배치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항공사진을 통해서 1969년도까지는 극락전 영역의 옛 가람배치가 잘 유지된 것으로 보이나 이후에 건물들의 배치에 변화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통일신라시대 863년에는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과 비로암 상층석탑 등이 모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의 자료들은 도굴로 인하여 거의 분실하였고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 이르기까지 도굴당한 유물의 양이 많다고 한다. 여러 차례 중창과 중건을 거듭하며 1732년 8번째 중건한 대웅전·1622년 중창한 극락전을 비롯하여 연경전, 천태각 등 20여 채의 큰 규모의 건물이 있다. 극락전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의 병화로 동화사가 소실된 후 1600년(선조 33) 금당암 영역에 다시 건립하였는데 당시에는‘금당’이라 칭했다. 1622년(광해군 14) 중창하고, 1699년에 아미타 후불탱화를 조성하고, 1702년(숙종 28) 이를 중수하였다. 극락전은 2중 기단을 하고 있는데 상단 축대 아래쪽 정면 중앙에는 연꽃이 양각된 방형의 배례석은 9세기경 신라시대의 조각 양식을 하고 있다. 기단구조는 가구식 기단이며 신라시대 것으로 극락전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 중 하나이다. 갑석의 모퉁이는 ㄱ자형으로 꺾이는 곳을 부드럽게 하여 곡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고, 현재 갑석의 일부는 없어졌으나 지대석, 면석 등은 남아있다. 기단 위에 놓인 초석들은 각형 바탕에 둥근 기둥받침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중으로 모양을 내기 위해 골을 낸 것으로 신라시대 양식을 따르고 있다.

문화재 현황을 보면 1732년 8번째 중건한 대웅전·극락전을 비롯하여 연경전, 천태각 등 20여 채의 큰 규모의 건물이 있고, 당간지주(보물 제254호), 비로암 3층석탑(보물 제247호), 동화사 입구 마애불좌상(보물 제243호),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244호),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보물 제248호), 도학동 승탑(보물 제601호), 동화사 대웅전(보물 제1563호)과 동산문화재로 사명당 유정 진영(보물 제1505호), 대구 동화사 목조약사여래좌상 복장전적(보물 제1607호), 대구 동화사 아미타회상도(보물 제1610호), 동화사 보조국사지눌진영(보물 제1639호), 동화사 삼장보살(보물 제1772호),

동화사 지장시왕도(보물 제1773호) 총 13점의 보물이 있으며, 동화사 극락전(유형문화재 제11호), 문화재 팔공산 마애약사 여래좌상(유형문화재 제3호), 동산문화재로 동화사 보조국사진영(유형문화재 제53호) 등 12개의 유형문화재와 동화사 수마제전(문화재자료 제16호)과 동산문화재로 동화사 대웅전 삼장탱(문화재자료 제37호), 동화사 죽암당대선사선찰진영(문화재자료 제39호) 등 7개의 문화재자료가 있다. 이밖에 1992년 높이 30m나 되는 석불인 약사대불을 조성하였다. 대웅전 및 극락전 영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산세에 맞지 않는 거대한 조성 등은 우리에게 반성을 하게 한다. 통일신라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2010년 통계로 6,153,293㎡ 면적에 30동의 한국 불교문화의 대표적 유산들이 산재해 있다.

2. 연혁·유래 및 특징

동화사의 연혁은 신라 493년(소지왕 15)에 극달화상이 창건하여 ‘유가사’라 부르다가 832년(흥덕왕 7) 심지왕사가 중창할 때 오동나무가 겨울에 상서롭게 꽃을 피웠다 하여 ‘동화사’라 불렀다고 한다. 863년(경문왕 3)에 동화사 금당 앞에 삼층석탑과 비로암 삼층석탑을 건립하여 민애왕의 명복을 빌었다고 한다. 875년(헌강왕 1) 삼강대사가 강당 남쪽에 있던 탑을 금당 앞으로 옮겼는데 이때 사리 181과가 나와 다시 봉인하였다. 934년(경순왕 4) 영조선사가 고려 태조의 도움으로 중창, 1190년(명종 20) 보조국사 중창하였다. 1298년(충렬왕 24) 흥진국사 동화사가 중창과 금당암 서탑 중수가 있었으나 이 해에 ‘흥진국존진응탑비’가 동화사에 세워졌으므로 중창 시기는 그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319년(충숙왕 6) 금당암 서탑을 중수하고 사리를 봉안하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중수기문을 작성하여 함께 봉안하였다. 1375년(우왕 원년) 동화사의 석가불골을 신호사로 옮겨 불사하였다. 조선시대 1544년(중종 39) 지조가 금당암 동서탑 중수, 1591년(선조 24) 서일이 비로전 창건하였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사명당 유정이 동화사에 승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승군 통솔하였고, 이 때 사용하던 일부 유물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으며, 왜군이 동화사에 영험이 있는 불화를 훔쳐갔는데 후에 유정이 이의 반환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다. 1600년(선조 33) 금당암 영역에 건립한 극락전을 금당이라고 칭하였다. 1606년(선조 39) 임란 소실되자 사명당 유정이 중창하였고, 유정은 해인사에 있던 학인, 찬령, 해진, 옥보 등을 보내어 중창을 돕게 하였다. 1608년(광해군 원년) 학인이 미륵당을 중건, 1620년(광해군 12) 의현이 괘불을 조성하여 봉안하였다. 1622년(광해군 14) 극락전 중창하고 1629년(인조 7) 극락전의 아미타삼존불상을 조성하여 봉안하였다. 1702년(숙종 28) 극락전 중수하고 금동불을 조성하여 봉안하고 수마제전을 건립하였다. 1703년(숙종 29) 극락전의 후불탱화(현재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를 조성하여 봉안하였다. 1709년(숙종 35) 상봉 정원대사가 부도탑 조성, 1725년(영조 1) 석덕이 미륵당을 대대적으로 중창하였으나 선당은 화재로 소실하였다. 1794년(영조 18) 대일, 영과 등이 금당암 동탑 중수하였다. 1808년(순조 8) 인악당의 첨대사비를 건립, 1838년(헌종 4) 퇴은, 무익이 금당을 중건하였다. 1852년(철종 3) 금당암 서탑을 중수하였다. 1902년 영산전이 수해를 입자 월송, 성파, 활허 등이 중건하고 금당암 동탑 수리하였다. 1957년 금당암 서탑을 해체 수리하는 과정 중 사리장치와 석탑 중수기문 등이 발견되었다. 1966년 금당암 동탑의 사리장치 도굴, 1967년 금당암 서탑 수리, 비로암 삼층석탑 해체 보수, 1968년 도난당했던 동탑의 삼층석탑 사리장치를 찾아 동국대에 기증하였다. 1974년 금당암 해체하였다. 1976년 금당선원 건립하였다. 1995년 극락전 지붕 번와 보수하였다.

정리하면, 동화사의 금당에 관련된 기록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의 병화로 동화사가 소실된 후 1600년(선조 33) 서일이 금당을 건립하고, 1622년(광해군14) 쌍순(雙淳)이 대금당 법전(法殿)을 중창하였다. 1629년(인조7)에는 금당의 불상 3위가 조성되었고, 1699년(숙종25) 대금당의 후불탱과 사천왕탱을 조성하였다. 1715년(숙종41)에는 의원(儀元)이 화주(化主)가 되어 금당과 향로전을 낙성하였다.⁵¹⁾ 금당암 영역에 건립한 극락전을 금당(金堂)이라 했고 임진왜란으로 희생된 수많은 영혼을 달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사명대사가 아미타불을 모신 수마제전과는 별도로 극락전을 크게 건립하였다. 이 때 이전의 수마제전을 ‘고금당(古金堂)’으로 기록한 것은 현재의 대웅전 영역이 중심인 것과 달리 창건한 이후 동화사의 중심은 금당암이었음이 확인된다.⁵²⁾ 극락전을 동탑과 서탑 사이에 배치한 것은 창건 때부터 전해온 석탑을 보존하고 수명이 무량하여 열반에 들지 않는 아미타불을 모신 전각 앞에 부처님의 무덤인 탑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극락전을 금당(金堂)⁵³⁾이라 하고 수마제전을 고금당(古金堂)이라고 한 것은 본존불을 안치하는 가람(伽藍)의 중심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전의 금당이 수마제전이고 그 이후 금당이 극락전이라는 것으로 추정된다.⁵⁴⁾ 극락전 불상 봉안은 1629년(인조 7)에, 극락전과 수마제전의 후불탱 봉안은 1699년(숙종 25)과 1703년(숙종 29)에 모두 이루어진다.⁵⁵⁾

51) 국립대구박물관, 『팔공산 동화사』, 그래픽네트, 2009, p. 58

52) 국립대구박물관, 『팔공산 동화사』, 그래픽네트, 2009년, p. 244. <팔공산 동화사 사적기>를 보면 임진왜란 이후 동화사의 중건은 1600년(선조 33)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때 서일(瑞一)은 제일 먼저 금당을 복구하고 있는데, 금당은 지금의 극락전 일대이니 금당은 극락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건금당(建金堂)이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 건립에 가까운 중창이 아닌가 한다. 이곳은 십지왕사가 동화사를 개창했던 장소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극락전을 가장 먼저 복구했으리라 생각된다.

53) 금당은 전각 안을 금색으로 칠한 데서 유래했다는 설과 금색의 본존불을 내부에 안치한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54) 이는 사적기에 나오는 「중창년대성공인원연록」에는 극락전과 수마제전이 언급되지 않지만 고금당(古金堂)과 (대)금당 관련된 중건이 기록되어 전하는데, 1699년과 1703년에 동화사 의균(義均)비구가 그린 아미타극락회도오 현진(玄眞)이 조각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미타삼존불상과 연과지어 볼 때 수마제전은 고금당이며, 극락전은 (대)금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팔공산 동화사와 연관된 스님 중 초기 창건주는 극달화상, 심지대사가 있고, 중기의 중창주는 영조선사, 보조국사 지눌(1158~1210)⁵⁶⁾, 흥진국사(1228~1305)⁵⁷⁾, 사명대사 유정(1544~1610)⁵⁸⁾, 인악대사(1746~1796)⁵⁹⁾ 등이 있다. 근세에는 초대 중정을 지낸 석우스님과 효봉선사 및 성철선사 등이 팔공산과 동화사와 연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화사는 심지, 지눌, 사명 등의 선사가 주석하였고, 근세에 들어와서 석우, 효봉, 성철 스님 등이 결사한 장소다. 이는 동화사는 다양한 종파가 종의 본산으로 삼았으므로 다양한 인물과 관련되고 동화사가 금당을 중심으로 하는 선찰이라는 것이다.

건축형식을 확인하기 위한 동화사 극락전과 관련된 자료는 조선고적도보, 동화사 실측보고서⁶⁰⁾, 1998년도 수리자료⁶¹⁾, 동화사 극락전 정밀실측보고서⁶²⁾ 등이 있다.

동화사 극락전은 다포식의 단층 팔작지붕 건물로서 평면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장방형의 건물이다. 정면과 측면비는 약 1.7:1 정도로서 각 주칸의 크기는 정면 정칸(3,070mm), 협칸(2,365mm), 측칸(1,797mm)으로 정칸에서 퇴칸으로 갈수록 줄여가는 정칸장조형이다. 평면은 내진주와 외진주로 구성되어 내진주는 이주 없이 정지한 고주를 세우고 불상 3구를 평면 중앙에 불좌를 놓고 배치하고 있다. 내진주의 후면 퇴칸은 칸막이벽을 설치하여 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연결된 통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은 우물마루이고 후퇴가 높이가 높게 되어있다. 내부에는 목조 아미타삼존불상과 후불탱화가 봉안되어 있다.⁶³⁾

55) 사적기에 나오는 「중창년대성공인원연록」 기록에는 극락전과 수마제전이란 명칭이 등장하지 않지만, 고금당(古金堂)과 (대)금당과 관련된 중건 사실이 전한다. 1699년과 1703년에 동화사 의균(義均)비구가 그린 아미타극락회도오 현진(玄眞)이 조각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미타삼존불상과 연관지어 볼 때, 수마제전은 고금당이며, 극락전은 (대)금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6)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은 동화사 사적비에 1190년(명종 20) 동화사의 사창 불사를 일으켰다는 기록을 통해 현재 조계종의 종조로 모셔지는 스님이 동화사에 10여 년을 주석하셨으며 그 이후에 송광사로 옮기신 것으로 추정된다.

57) 흥진국사 (1228~1305)는 동화사 사적비에 1298년(충렬왕 24) 오청하였다고 하는데, 팔공산 동쪽기슭의 영천 은해사(대 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도 1270년(원종 11)에 중창한 것으로 보아 당시 동화사와 은해사가 교구적 구분없이 팔공산의 사찰로서 한 집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나라에 들어가 만안사 당두의 청으로 「인완경」을 강의하여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으며, 1292년 고려의 국존에 봉해져 보자라는 법호를 받았고 동화사의 주지를 맡았다.

58) 사명대사 유정(1544~1610)은 동화사 사적비에 1606년(선조 39) 사명대사가 동화사를 육창하였다고 하다. 1578년부터 팔공산·금강산·청량산·태백산 등을 다니면서 선을 닦았다고 한다. 유정이 동화사에 주석한 것은 1606년으로 말년에 동화사의 중창을 위해 고군분투 하였는데, 이는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동화사를 중창하여 선종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며, 유정의 수행시절의 동화사와의 인연과도 연관되어 생각되어진다.

59) 인악대사(1746~1796)는 22세에 벽봉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고 비슬산, 계룡산, 황악산 등에서 강석을 열어 많은 후학을 지도하다가 동화사로 돌아왔다고 한다.

60) 대구직할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동화사 실측조사보고서, 대구직할시, 1993년

61) 1998년 동화사 극락전 관련 국가기록원 자료로는 동화사 극락전 보수사업 설계도서 검토의뢰(DA0212976), 동화사 극락전 보수공사 설계도서 검토 회신(DA0215976), 동화사 극락전 및 수마제전 보수공사 착공보고(DA0211608) 등이 있다.

62)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 극락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동구, 2009

63) 대한불교진흥원, 『한국의 명찰 시리즈8팔공산 동화사』, 대한불교진흥원, 2011, p.129. 전에는 1699년(숙종 25)에 조성한 아미타 후불탱화가 봉안되어 있었으나 부식이 심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기단은 가구식 기단으로 지대석을 놓고 면석을 두르고 동기둥을 세워 끼워 넣고 갑석을 올려놓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기단의 전면에는 하층기단이 설치되어 이중기단이고, 측면과 배면은 단일 기단이다. 이러한 이중기단은 고대건축의 면모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면석은 기둥을 양각으로 쇠시리하고 있고, 기단 갑석의 모퉁이들은 ㄱ자형으로 양각하여 마감하고 있다. 면석에 기둥을 양각한 사례는 불국사 대웅전 및 극락전 기단 등과 신라계 석탑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가구식 기단과 세부형식을 통해서 극락전의 초창은 목탑을 석탑으로 번안하는 과정에 사용되던 형식으로 최소 통일신라시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기단 위에 고막이초석과 초석과 초석 사이에 고막이석을 놓고 있다. 정면과 후면 정간에 신방석을 놓고, 배면 신방석 위에는 신방목을 설치하고 있다. 신방목은 고대건축에서 나타나는 형식으로 고석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각원과 그의 계과의 교두형 공포 건물에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고 추정된다. 계단은 소맷돌 없이 기단 정면 중앙 1개소와 우측면의 전후에 2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이중기단인 정면에 5단을 놓고 우측면은 지형에 따라 3단으로 되어 있다. 이는 내진주의 후면 퇴칸은 칸막이벽이 없는 연결된 통로를 추정하는 근거가 된다. 정면이나 측면으로 올라 정면 퇴칸에서 측면 퇴칸을 통해 후면 퇴칸으로 나가 후면 계단으로 내려가는 동선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신방석과 신방목은 입구성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모두 고대건축의 형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추정된다. 초석 위에 평주 16본과 내고주 8본의 약한 민흘림이 있는 330mm 정도의 두리기둥을 세우고 있다. 기둥머리를 결구한 창방은 외진평주창방, 내진고주창방, 대공창방 등이 있다. 외진창방은 평주에 기둥의 이갈 사괘 안에서 장부이음으로 결구되고, 우주에 단면 폭을 줄인 장부가 우주의 4갈 사괘 안에서 반턱맞춤되고 장부의 마구리를 초각으로 장식하여 우주 사괘 밖으로 돌출시키고 있다. 내진창방은 평주에 통장부 이음이고 우주에 반턱맞춤이다. 외진창방과 외진기둥의 결구는 기둥감싼형이고, 내진창방과 기둥의 결구는 통장부 맞춤이다. 외진창방의 형태는 단면의 모를 궁글려 처리하였고, 내진창방과 대공창방은 수장폭과 같고, 운두는 내진창방을 대공창방보다 크게 처리하고 있다. 창방의 단면은 하중에 따라 외진창방, 내진창방, 대공창방 순으로 되어 있다. 창방 위의 평방은 주간마다 설치되어 평주 위에서 이음하고 우주 위에서 반턱맞춤으로 결구되고 있다.

극락전의 공포는 다포식으로 내외 2출목 5포작이다. 주간포는 정배면의 좌우측면 정간에는 2구씩 배치하고 나머지 칸에는 1구씩 배치하고 있다. 사면의 내외 모두 교두형 공포로 사방동일형이고, 퇴칸의 주심대소첨차를 귀포와 주간포, 주상포를 연결하는 병첨으로 구성하고 있다. 병첨은 봉정사 대웅전,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은해사 백홍암 극락전, 청도 운문사 대웅전, 산청 울곡사 대웅전, 대구 동화사 봉황문 등에 나타나고 있다. 기둥 위에 놓인 주두는 외진주의 평주주두(주간포주두, 주상포주두)와 내진주의 고주 상부에 놓인 고주 주두를 사용하고 있다. 외진주의 귀포주두는 평주주두보다

약 45mm 정도 더 커서 추녀 방향에 대한 힘을 받도록 하면서 육갈 주두를 보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로는 윗(옆)갈을 기준으로 보면 이갈소로(무옆갈 이갈소로, 외옆갈 이갈소로, 양옆갈사갈소로 등)와 사갈소로(무옆갈사갈소로, 양옆갈 사갈소로, 외옆갈 사갈소로 등) 그리고 외옆갈 4모 접시소로가 사용되었다. 교두형 공포는 사면이 모두 동일한 사면 동일형으로 제공살미 외부의장을 사면과 내외부 모두 교두형으로 하고 있다. 주상포의 외부의장은 초제공과 이제공은 교두형, 삼제공은 삼분두, 사제공은 직절형이고, 주간포는 초제공과 이제공은 교두형, 삼제공은 삼분두, 사제공은 초각형으로 주상포와 초제공에서 삼제공까지는 동일한 형이지만 사제공을 주상포와 다르게 처리하였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하게 의장처리하고 있다. 공포 내부의장의 주상포를 보면 초제공과 이제공은 교두형이며, 삼제공은 초각형의 보아지이며, 사제공은 보가 놓여져 있고, 주간포는 주상포와 동일하게 초제공과 이제공은 교두형이며, 삼제공은 주먹코형의 초각, 사제공은 삼분두형이다. 공포의 외부와 내부의 의장은 제공 의장에서 외부에는 삼분두가 삼제공살미에 있고 내부에는 사제공 살미에 있는 차이가 있다. 전각포 외부의 귀한대 살미와 좌우대의 외출목 의장도 주간포와 같은 교두형으로 귀초제공, 귀이제공의 귀한대는 교두형이며, 귀삼제공의 귀한대는 삼분두형이고 귀사제공의 귀한대는 생략되어 있다. 외1출목은 귀이제공과 귀삼제공은 교두형, 귀사제공은 교두형이다. 전각포 내부의 귀한대는 초제공과 이제공은 교두형, 삼제공은 삼분두형, 사제공은 생략되어 있으나, 전각포 주심에는 초제공과 이제공에 교두형 좌우대를 주심소침과 주심대침과 같이 2단으로 설치한 뒤 그 위에 장여를 설치하고 있다. 초제공과 이제공의 주심 좌우대는 인접 주간포와 그 옆의 주상포까지 병침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병침은 봉정사 대웅전, 신륵사 조사당,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장곡사 하대웅전 등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귀포가 전각포인 건물에서 전각포와 인접 주간포를 외출목에서 병침으로 연결한 사례는 이 지역에서 영천 은혜사 백홍암 극락전(1643년 중건), 청도 운문사 대웅전(1654년 중건), 산청 율곡사 대웅전(1679년 중건), 대구 동화사 봉황문(17C 창건) 등에서 볼 수 있다. 은혜사 백홍암 극락전은 동화사 극락전과 유사하게 주심에서만 병침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세 건물은 각 외출목의 대침차 위치에서도 병침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외부 사면 교두형 공포의 불전은 팔공산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칠곡 송림사 대웅전을 건립한 각원과 그 계파와 연관된 것으로 분석되어 승장의 교류가 빈번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각포인 귀포와 평신포인 인접 주간포는 일반적으로 내1출목의 대침, 즉 삼제공 1출목 대침차 등에서 병침을 많이 사용하지만 극락전은 주심과 내1출목, 내2출목에서 모두 병침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귀2제공 내1출목의 좌우대는 도매침과 인접 주간포의 침차를 이은 병침형식이다. 내1출목에서도 교두형 침차는 모두 병침으로 처리하고, 내2출목은 귀삼제공에 교두형 병침을 사용하여 내목도리 장여를 받치고 있다. 극락전의 전각포 내부는 전체적으로 교두형의

병침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접한 수마제전의 전각포 의장과도 유사하다. 침차는 같은 길이의 주심침차와 출목침차의 단부형태가 같으며 단부의 상부는 직절형, 하부는 호형으로 처리하고 있다. 내외1출목을 대소침차 2단으로 구성하고 내외 2출목은 소침차 1단으로 구성하여 장여를 받치고 있다. 살미나 침차에 공간은 없다. 내고주 위의 침차는 보 방향의 살미재와 도리 방향으로 십자맞춤이고, 교두형인 내진우주 위의 보 방향 살미외에는 보 방향의 살미재는 화각된 보아지이다. 출목은 외2출목, 내2출목의 내외 동일형이고 내외 1출목(300mm)과 내외2출목(270mm)은 차이를 두고 있다.

극락전은 다포계 팔작집으로 평방을 사면 주상과 주간에 모두 배치하고 있다. 주간포는 사면의 정간에 2구, 정면 협칸과 퇴칸 그리고 측면 퇴칸에 각 1구씩을 배치하고 있다. 포간 거리는 정면 정칸(1,030mm), 협칸(1,170mm), 퇴칸(900mm)이고 측면은 정면의 정칸과 퇴칸과 같다. 같은 길이의 침차를 사용하면 포간 거리가 달라지므로 침차의 길이를 조절하기도 하지만 극락전은 모든 주간의 포간거리를 다르게 하고 있다. 내2출목 장혀와 내목도리 받침장혀 사이에 설치된 내목상벽은 흠벽과 방형화반으로 구성되었다. 방형화반은 각 공포의 내출2출목 장여 위에 하나씩 설치하였으며, 그 수는 공포수와 동일하게 하였다.

가구는 보를 2개의 종보과 12개의 퇴보를 2단으로 구성한 2중량구조이고 도리는 9개를 배치한 이중량 9량가 구조이다. 도리는 외목도리(300mm), 주심도리(300mm), 내목도리, 중도리(200mm), 종도리(240mm)로 구성되지만 내외목도리를 제외하면 극락전의 가구는 2고주 5량가라고 할 수 있다. 굴도리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내목도리는 납도리이다. 대공은 5단의 각재로 만든 사다리꼴형의 판대공 형식이고, 승두는 공포의 4제공 위에서 방형의 각재로 상단의 양쪽 모서리는 둥글리고 있다. 내부의 기둥배치는 내진과 외진의 평면에 맞는 이주나 감주 없이 각 기둥 간격에 따라 기둥을 배치한 정치법을 사용하고 있어 고식의 기법을 드러내고 있다. 가구식 기단, 신방목과 신방석, 계단의 위치, 기둥의 정치법 등 고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는 삼국시대에 창건 이후로 가구는 시대의 기법이나 형식에 따라 변화되어 왔지만 기단이나 기둥 배치는 원형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화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붕가구인 처마는 사면을 원형 서까래와 방형 부연을 사용한 겹처마 형식이다. 연목은 전후면에 장연과 단연으로 구성하고, 좌우 측면에 장연으로만 구성하고 있다. 지붕면은 평연이고 귀는 선자연으로 처리하고 있다. 측면의 장연은 공포의 외목도리와 주심도리 위에 얹고 내단부는 외기도리 상부에 얹어 있고, 측면 장연의 가운데 등부분에는 합각벽의 지방목을 얹고 있다. 단연의 상부 단부는 엇걸이이다. 단부와 마구리에는 약한 끝건기와 빗자르기 하고 있다. 부연은 끝단을 날렵하지 못한 끝건기와 옆볼떼기를 하였으며, 마구리는 빗자르기를 하였다. 1920년대에 촬영된 유리건판(국립중앙박물관 pan00114) 사진에는 부연의 끝건기를 내민 길이의 절반 정도에서 단부까지 끝건기를

하고, 마구리의 빗자르기는 뚜렷하며 옆볼때기도 두드러지는 것이 확인된다. 목기연은 단부를 끝걸기, 단부 빗각기, 옆볼때기를 역하게 하고 있다. 합각벽은 방풍판형으로 판재를 이어대고 그 이음매는 줄대를 박아 마감하고 있다. 양쪽의 합각이 다르며 배치가 균일하지 못한 것은 1920년과 1998년 사이에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920년 사진을 분석하여 추후 보수공사 시 원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극락전의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용마루는 착고와 부고 위에 적새 9단, 내림마루의 내측은 부고 위에 적새 5단, 외측은 착고막이 위에 적새 5단을 올리고 솟마루장을 덮어 마감하고 있다. 추녀마루는 양측면 모두 착고막이 위에 적새 5단을 올리고 그 위에 솟마루장을 덮어서 마감하였다. 기와골의 끝은 막새기와이고, 각 마루 기와의 단부는 망와를 올리고 있다.

마루는 우물마루로 외진주와 내진주, 내진주와 내진주 사이는 보방향으로 장귀틀을 걸고 장귀틀의 사이는 동귀틀을 걸고 동귀틀과 동귀틀의 사이는 청판을 끼워 넣었다. 좌면과 우면의 퇴칸은 동귀틀을 보방향으로 설치하여 청판을 끼우고 있고, 배면 퇴칸은 우물마루는 폭이 일정하지 않은 청판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마루를 설치한 시기가 다르다는 것이고 용도가 달라지면서 칸막이벽을 친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천장은 평반자형의 우물반자 형식으로 내진을 외진보다 높게 하고 내진의 가운데 칸을 더 높게 하여 위계에 따른 반자의 구성을 하고 있다. 가운데 부분은 조각형 소란을 사용한 우물천정, 협칸은 귀접이형 소란의 우물천정, 퇴칸은 직선형 소란으로 우물천정이 청판을 받치고 있다. 극락전의 천장은 기둥으로 나눈 외진과 내진의 위계와 더불어 우물천정 및 반자높이와 의장 등을 통해 주불공간과 협시불공간, 동선공간의 위계를 부여하고 있다.

창호는 전면 모든 칸에 설치되고 좌우측면은 전면 퇴칸과 배면은 정칸과 좌우협칸에 설치되어 있다. 정면은 정칸에 빗살의 세짝 여닫이문, 협칸에는 띠살의 두짝여닫이문, 퇴칸에는 띠살의 외짝여닫이 문을 설치하고 있다. 좌우측면 전면퇴칸은 외짝의 띠살문, 배면은 띠살의 두짝 여닫이문을 정칸과 좌우협칸에 설치하고 있다. 정칸에 빗살로 하여 위계를 부여하고 있다. 창호의 문울거미는 선대와 윗막이, 밑막이, 중간대, 살대, 궁판으로 구성된다. 중간대와 밑막이 사이에는 궁판을 끼워 넣었다. 수마제전과 달리 두 개로 구성되지 않고 하나로만 구성하여 한 개의 궁판만 끼워 넣은 단일궁판형이다. 조선고적도보와 유리건판사진과 비교하면 정면 정칸의 창호는 솟을빗꽃살, 좌우 협칸과 측칸은 정자살이고 궁판이 넓은 이단궁판형식의 창호가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추후 보수공사 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배면 정칸 하인방에 신방목⁶⁴⁾이 있고 그 아래에 신방석이 받치고 있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식을 보이고 있다. 신방목이 있는 경우 문장부의 축구멍을 설치하기 위한 경

64) 철곡 송림사 대웅전(정면 정칸 및 협칸, 배면 정칸)과 포항 보경사 적광전에 보이고 있다. 두 사찰 모두 신방석과 신방목이 설치되어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인데, 현재 창호 이전의 창호유형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리건판사진(1920)과 현재를 비교하여 기와, 창호, 활주, 세발부연 등이 차이가 있어서 보수공사 시 원형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기와는 용마루의 경우 마루 단부의 적새 단수가 가운데 보다 현저히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내림마루와 추녀마루도 망와가 있는 단부의 적새 수는 마루가 시작되는 부분의 적새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용마루의 머거불은 세워져 있고 내림마루와 추녀마루의 머거불은 3~4단으로 되어 있다. 처마양곡과 안허리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창호는 궁관이 넓고 아래 궁관이 큰 이단 궁관의 창호로 정간은 솟을꽃빛살, 협칸과 퇴칸은 정자살로 위계적인 의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추녀 머리 부분에 팔각형의 활주를 받치고 있다. 부연초장 옆에 세발부연을 확인할 수 있다. 부연평고대는 통평고대로 되어 있는 고식기법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부연의 마구리 끝건기 처리기법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된다. 정면의 주선들은 하인방의 등에 턱을 물리지 않고 맞춤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북지장사 대웅전과 같이 좌측면 기단 중앙부에 비석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변화는 1920년에서 1998년 사이 보수 시에 처마 양곡이나 처마 내밀기 그리고 안허리 등을 원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보수 공사 시에 원형을 복원해야 할 것이다.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대구 동화사 극락전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는 다음과 같다. 동화사는 팔공산에서 남으로 뻗은 맥이 대웅전 영역까지 입수한 형국으로 좌우의 산들은 내외로 겹쳐져 명당 주위를 에워싸고 있어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터라고 한다. 또한 염불봉에서 샷갯봉 사이에서 남서쪽으로 뻗은 자락의 극락전 영역을 중심으로 샷갯봉 자락과 동화사 대웅전 자락이 에워싸고 있는 자리에 좋은 형국을 하고 있다. 동화사의 가람배치는 현재의 중심영역인 대웅전 영역과 옛 중심영역인 금당암(金堂庵)으로 불리는 극락전(極樂殿)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극락전 영역은 금당(金堂)이 사찰의 중심영역이었던 창건 당시의 영역으로 추정된다. 금당 영역은 극락전을 중심으로 주축이 되지만 지맥을 보면 수마제전이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신라 493년(소지왕 15)에 극달화상이 창건하여 832년 심지왕사 중창, 863년에 동화사 금당 앞 삼층석탑과 비로암 삼층석탑 건립, 934년 영조선사 중창, 1190년 보조국사 중창, 1298년 ‘홍진국존진응탑비’ 건립, 1319년 금당암 서탑 중수와 사리, 조선시대 1544년 지조 금당암 동서탑 중수, 1591년 서일이 비로전 창건, 1600년 금당암 영역에 극락전(금당) 건립, 1606년 사명당 중창, 1622년 극락전 중창, 1629년 극락전의 아미타삼존불

상 조성 봉안, 1702년 극락전 중수(금동불 봉안)와 수마제전 건립, 1703년 극락전 후불탱화 봉안, 1794년대일, 영파 등이 금당암 동탑 중수, 1838년 퇴은, 무익이 금당 중건, 1852년 금당암 서탑 중수, 1902년 금당암 동탑 수리, 1957년 금당암 서탑 수리(사리장치와 석탑 중수기문 등 발견), 1966년 금당암 동탑의 사리장치 도굴, 1967년 금당암 서탑 수리, 비로암 삼층석탑 해체 보수, 1968년 도난당했던 동탑 삼층석탑 사리장치 동국대 기증, 1974년 금당암 해체, 1995년 극락전 지붕 번와 보수하였다. 동화사의 금당(극락전)은 1600년(선조 33) 서일이 금당을 건립하고, 1622년(광해군14) 쌍순(雙淳)이 중창한 후 1629년(인조 7)에는 불상 3위가 조성되고, 1699년(숙종 25) 후불탱과 사천왕탱을 조성하였다. 1715년(숙종 41)에는 의원(儀元)이 화주(化主)가 되어 극락전을 낙성하였다. 건립 당시부터 극락전을 금당(金堂)이라 했는데 수마제전을 ‘고금당(古金堂)’으로 기록한 것은 현재의 대웅전 영역이 중심인 것과 달리 창건한 이후 동화사의 중심은 금당암이었고 수마제전이 과거의 금당에 대하여 극락전은 건립한 것으로 확인된다. 동화사에는 극락전과 수마제전을 비롯한 13점의 보물, 12개의 유형문화재 그리고 7개의 문화재자료가 있어 문화적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동화사는 심지, 지눌, 사명 등의 선사가 주석하였고, 근세에 들어와서 석우, 효봉, 성철 스님 등이 결사한 장소다. 이는 동화사는 다양한 종파가 중의 본산으로 삼았으므로 다양한 인물과 관련되고 동화사가 금당을 중심으로 하는 선찰이다. 동화사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역사를 살필 수 있는 불교사적 위상을 살펴볼 수 있고, 불골 간자 봉안 그리고 미륵 신앙과 유식 사상이라는 사찰 전통 등을 지니고 있다.

대구 동화사 극락전에 대한 학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1600년(선조 33) 금당암 영역에 건립한 극락전을 금당(金堂)이라 했다. 이전의 수마제전을 ‘고금당(古金堂)’으로 기록한 것은 현재 대웅전 영역이 중심인 것과 달리 창건한 이후 동화사의 중심은 금당암이었다는 것이고, 극락전을 금당(金堂)이라 하고 수마제전을 고금당(古金堂)이라고 한 것은 이전의 금당이 수마제전이고 새로 건립한 금당이 극락전이라는 것이다. 극락전의 가구식 기단은 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고, 기단과 초석은 건물의 창건시기를 통일신라시대 이상으로 볼 수 있다. 정면과 후면 정간에 신방석을 놓고, 배면 신방석 위에는 신방목을 설치하고 있는데 고석을 나타내고 각원과 그의 계파의 교두형 공포 건물에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기둥 배치는 내진과 외진의 평면에 맞는 이주나 감주 없이 각 기둥 간격에 따라 기둥을 배치한 정치법을 사용하고 있어 고식의 기법을 드러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가구식 기단, 신방목과 신방석, 계단의 위치, 기둥의 정치법 등 고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는 삼국시대에 창건 이후로 가구는 시대의 기법이나 형식에 따라 변화되어 왔지만 기단이나 기둥 배치는 원형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화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공포는 교두형 계열로 출목수는 내외 2출목이고 사면동일형이다. 대구지역

팔공산 지역에는 교두형 건물이 집중되어 지역건축의 특성을 보여주는 있다. 그리고 전각포의 주심소침차와 대침차를 인접주간포와 주상포에 병침은 각원과 관련되는데 대구 동화사 봉황문, 청도 운문사 대웅전, 산청 율곡사 대웅전, 영천 은혜사 백홍암 극락전 등에서 볼 수 있다. 백홍암 극락전과 동화사 극락전은 주간의 주간포수에 따라 등간격으로 나누고 외출목 침차에서는 병침을 사용되지 않고 있다. 동화사 극락전의 주심병침은 퇴칸 주간의 공포 3구를 연결하는 병침으로 다른 건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형식이다. 극락전, 수마제전, 봉황문은 모두 교두형 건물로 조선 중기의 건물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팔공산 일대의 교두형 공포 건물의 비교를 통한 특성과 차이를 도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구 동화사 극락전의 구조와 조형적인 특징에서 예술적인 가치는 다음과 같다. 극락전은 정칸에서 퇴칸으로 갈수록 크기를 줄여가는 정칸강조형으로 기둥 배치를 이주나 감주 없이 정치법을 사용하고 있다. 갑석 모퉁이에 ㄱ자형으로 보강한 가구식 기단 위에 고막이초석과 초석과 초석 사이에 고막이석을 놓고 정칸의 고막이석은 신방목 초석인 신방석이 새겨져 있고 신방목도 설치되어 있다. 계단은 정면과 측면에 배치되어 있어 내부 공간구성과 동선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가구식 기단, 신방목과 신방석, 계단의 위치, 기둥의 정치법 등은 고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기단과 초석은 통일신라시대 이상으로 볼 수 있다. 세부와 의장을 살펴보면, 가구식 기단의 모퉁이 갑석에 ㄱ자형으로 곡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고, 초석들은 각형 바탕에 이중으로 모양을 낸 주좌가 신라시대 양식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법의 기둥배치와 고주법 다포계 건물로서 천장을 외진에 대한 내진의 위계와 우물천정 및 반자 높이와 의장 등을 통해 주불공간과 협시불공간, 동선공간의 위계를 부여하고 있다. 교두형 공포는 2출목의 내외동일형이고 사방동일형으로 퇴칸의 주심대소침차를 귀포와 주간포, 주상포를 연결하는 병침으로 구성하고 있다. 귀포가 전각포인 건물에서 전각포와 인접 주간포를 외출목에서 병침으로 연결한 사례는 많지 않으며 내외부 사면 교두형 공포의 불전은 팔공산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칠곡 송림사 대웅전을 건립한 각원과 그 계파와도 연관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가구식기단, 초석과 고막이석, 기둥 정치법, 통평고대 등에서 고석이 나타나고, 교두형의 공포의장과 귀포와 인접주간포의 처리기법 등에서 지역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극락전은 신라시대부터 조선 중기에 이르는 기법과 양식 등이 드러나며 이 지역의 특성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리건관사진(1920)과 비교하여 기와, 창호, 활주, 세발부연 등이 차이가 나고 있다. 기와는 용마루의 경우 마루 단부의 적새 단수가 가운데 보다 현저히 많고, 내림마루와 추녀마루도 망와가 있는 단부의 적새 수는 마루가 시작되는 부분의

적새수보다 2배 이상 많다. 용마루의 머거불이 세워져 있고 내림마루와 추녀마루의 머거불은 3~4단으로 되어 있다. 처마양곡과 안허리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창호는 궁관이 넓고 아래 궁관이 큰 이단 궁관의 창호로 정칸은 솟을꽃빗살, 협칸과 퇴칸은 정자살이다. 추녀 머리 부분에 팔각형의 활주를 받치고 있다. 부연초장 옆에 세발부연을 확인할 수 있다. 부연평고대는 통평고대로 되어 있고 부연의 마구리 끝건기 처리기법이 다르다. 정면의 주선들은 하인방의 등에 턱을 물리지 않고 맞춤되어 있다. 북지장사 대웅전과 같이 좌측면 기단 중앙부에 비석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20년에서 1998년 사이 보수 시에 처마 양곡이나 처마 내밀기 그리고 안허리 등을 원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보수 공사 시에 원형을 복원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대구 동화사 극락전은 역사적, 학술적, 조형예술적인 측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 06. 30	대상문화재	대구 동화사 극락전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부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동화사 극락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별지		
	연혁·유래 및 특징	별지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별지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별지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09월 28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 현황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동화사(桐華寺)는 대구의 진산(鎭山) 팔공산(八公山)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팔공산은 대구의 북쪽 끝에 위치하여 서·북쪽으로 칠곡군 동명면, 군위군 부계면, 동·남 쪽으로는 영천시 신녕면과 청통면, 경산시 와촌면으로 이어진다. 통일신라의 오악(五岳)⁶⁵⁾ 중 중앙에 해당하는 산으로, 당시에는 중악(中岳), 부악(父岳) 혹은 공산(公山)이라 불렀고 신라 영토의 중심으로 인식되었으며, 팔공산을 배경으로 하는 달구벌(達句伐) 일대는 신문왕이 689년(신문왕 9) 이곳으로 도읍을 옮기려고 시도할 정도로 중요시 한 지역이기도 했다.

팔공산은 통일신라 이래 국내 대표적인 불교 성지의 한 곳으로, 통일신라 9세기 무렵 창건 이래 고려시대까지 법상종(法相宗) 사찰로서 미륵신앙의 성지로 이어져 오다가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로 유명한 동화사, 고려 초조대장경(初彫大藏經) 봉안처로 유명한 부인사(符仁寺), 지장신앙 도량인 북지장사(北地藏寺), 그리고 은해사(銀海寺, 영천), 송림사(松林寺, 칠곡) 등의 유서 깊은 사찰이 남아있고, 현존하지는 않지만 의상(義湘)이 창건한 화엄십찰(華嚴十刹) 중의 하나인 미리사(美里寺)가 있었다. 또 이들 사찰에 부속된 암자로 동화사 소속의 비로암(毘盧庵), 부도암(浮屠庵), 양진암(養眞庵), 염불암(念佛庵), 내원암(內院庵)과 은해사에 딸린 거조암(居祖庵), 백흥암(白興庵), 운부암(雲浮庵), 묘봉암(妙峰庵), 중암암(中巖庵) 등이 있다. 이밖에 산 곳곳에 약사신앙의 대상이었던 약사, 미륵을 비롯한 여래상이 존재하며, 특히 세간에 ‘갓바위 불상’으로 알려진 관봉(冠峯) 정상에 통일신라시대 석조여래좌상이 있는 선본사는 국내 최고의 기도처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2. 동화사의 연혁과 역사문화환경

현존하는 팔공산 동화사의 창건 내력을 전하는 자료는 『삼국유사(三國遺事)』(卷4 「意解」 第5 「心地繼祖」)를 제외하면 모두 18세기 이후의 것들이다. 이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사료가 1992년 대웅전 실측조사 때 종도리 받침 장혀의 홈에 서 발견된 1727년(영조 3) 「대웅전 중창 상량문」(慶尙左道大丘都護府北八公山桐華寺大雄殿重搨上樑文)⁶⁶⁾으로, 여

65) 동쪽의 토함산, 남쪽의 지리산, 서쪽의 계룡산, 북쪽의 태백산, 중앙의 부악(父岳=팔공산)

66) 이 상량문은 1896년에 대웅전을 수리를 마치고 기문(「慶尙左道大丘都護府北八公山桐華寺大雄殿上樑改楫記文」)을 넣을 때, 기존의 1727년 중창 상량문을 새로 베껴 써서 함께 넣은 것이다. 1992년 실측조사 당시 이 두 개 외에도 1951년의 중수기문(「慶尙北道八公山桐華寺大雄殿重修記文」)까지 총 3개의 중창, 중수 기문이 발견 되었다.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동화사 실측조사보고서』, 대구직할시, 1993, p. 100.

기에는 중국 남조의 제(齊)나라 무제(武帝) 11년(493, 신라 소지마립간 15)에 신라의 보조 화상(普照和尚)이 처음으로 절을 짓고 유가사(瑜伽寺)라 불렀고, 이후 당(唐) 대력(大曆) 7년(772)에 헌덕왕(808-826 재위)의 셋째 아들 심지왕사(心地王師)가 두 번째로 중창하고 동화사(桐華寺)로 개칭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우선 창건 연대인 제나라 무제 11년, 즉 493년은 신라의 불교 공인(527년, 법흥왕 14) 이전으로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당시의 개산조라고 하는 보조화상 역시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인물이며, 아마도 고려 후기 1190년(명종 20)은 그가 공산(公山) 거조사(居祖寺), 즉 지금의 은해사(銀海寺) 거조암(居祖庵)에서 정혜결사(定慧結社) 발표하고 선종 부흥의 계기를 마련한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 1158-1210)에 가탁하여, 조선 후기에 작성된 사찰 연혁의 대부분이 그러하듯, 사찰의 존립 당위성과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 연원을 막연히 올려 잡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왕사가 두 번째로 가람을 중창하고 사명을 지금의 동화사로 고쳤다고 하는 당 대력 7년, 즉 772년(혜공왕 8)은, 그 뒤에 이어지는 심지왕사가 808년부터 826년까지 재위했던 헌덕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과 시기적으로 서로 모순되므로 이것 역시 신뢰성을 잃고 있다.

위와 같이 493년에 보조화상이 유가사를 창건하고, 이를 772년 심지왕사가 중창하고 동화사로 개칭했다고 하는 창건 내력은 1732년에 편집·간행된 『팔공산동화사사적(八公山桐華寺事蹟)』(규장각 소장)과 이후의 관련 기록에도 반복되고 있다. 그러다가 1931년 김정래(金鼎來)가 비문을 지은 「팔공산동화사사적비(八公山桐華寺事蹟碑)」에는 493년의 유가사를 창건한 인물이 이전의 보조화상에서 극달화상(極達和尚)으로 바뀌고, 이를 심지왕사가 중창해 동화사로 개칭한 해를 832년(흥덕왕 7)으로 되어 있는데, 여전히 493년에 극달화상이 절을 짓고 유가사로 불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비문에서는 불일(佛日) 보조국사, 즉 지눌이 1190년에 동화사를 네 번째로 중창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동화사 관련 현존 사료 중 가장 후대에 작성된 이 비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내용으로 더욱 신뢰성을 잃고 있다.

한편 『삼국유사』 67)에는 헌덕왕의 아들 심지가, 금산사(金山寺)의 진표율사(眞表律師)가 속리산의 영심(永深)에게 전한 불골간자(佛骨簡子)를 다시 전해 받아 팔공산에 절을 세우고 봉안했는데 이 정리 동화사라고 한다. 즉, 신라 하대에 금산사 진표에서 비롯되는 법상종(法相宗) 법맥이 속리산 법주사(法住寺) 영심을 거쳐 팔공산의 심지에게 전해졌고, 심지가 동화사를 짓고 이 법맥 전수를 상징하는 진표 이래의 불골간사를 봉안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동화사 창건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며, 현 시점에서 『삼국유사』에 기록된 바에 따라 헌덕왕의 아들 심지가 9세기 무렵에 창건한 진표 계통의 법상종 사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현존 유구와 관련 사료를 종합해 보면, 심지가 창건한 가람의 당초 위치는 현재 대웅전을 중심으로 하는 동화사 영역이 아니라 그 동편 계곡 건너편에 위치한 금

67) 『三國遺事』 卷4 「意解」 第5 「眞表傳簡」, 「關東楓嶽鉢淵藪石記」, 「心地繼祖」

당암 일대로 추정된다. 현재의 대응전 일곽에 관한 역사적 기록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확인되는 것이 전혀 없다.

한편 심지가 동화사를 창건하고 가람을 경영하던 시기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금당암 서남쪽에 위치한 비로암(毘盧庵) 삼층석탑(보물 제247호)에서 발견된 납석제 사리호.(보물 제741호)에 새겨진 「민애대왕석탑사리호기(敏哀大王石塔舍利壺記)」가 그것이다. 이 기문에는 경문왕(861-875 재위)이 839년에 살해된 민애왕(838-839 재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사후 24년 되는 해인 863년(경문왕 3)에 ‘동수(桐藪=桐華寺) 원당(願堂) 앞에 석탑을 세웠다(桐藪願堂之前, 創立石塔)’고 했다. 그리고 기문 말미에 건탑 공역에 관여한 승속의 직위와 이름이 적혀있고, 그중에서 나열된 승려들 이름 맨 앞에 ‘전지대덕(專知大德) 심지(心智)’가 나오는데, 학계에서는 이 심지를 창건주 심지(心地)와 동일 인물로 보고 있다⁶⁸). 현재 비로암에는 이 삼층석탑과 그 북쪽에 통일신라시대 양식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244호)을 봉안하고 있는 대적광전(大寂光殿, 18세기)이 남북축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는데, 이 대적광전 자리가 경문왕이 탑과 함께 건립한 원당이 있던 곳으로 판단된다. 즉, 지금의 비로암은 심지가 동화사를 창건해 주석하고 있는 동안, 경문왕의 발원으로 민애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863년에 건립한 원당 영역이다.

이상의 정황 종합해 보면 심지가 동화사를 개창한 시기는 9세기 전반 무렵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가 헌덕왕의 아들이었다는 점과, 동화사 창건 이후에도 경문왕이 발원하여 원당을 조성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화사는 창건 이래 신라 왕실로부터 지원을 받는 유력한 사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창건 이래 동화사는 고려시대까지 금산사, 범주사와 더불어 국내 불교계에서 범상종의 주요 사찰로 인식되고 있었던 듯하다. 위의 『삼국유사』에서 보듯, 진표계 범상종은 미륵과 지장을 모셨고, 미륵을 금당에 안치하는 주존불로 삼았다⁶⁹. 진표가 창건한 금산사나 영심이 창건한 범주사의 주존불이 모두 미륵불이었으며, 나아가 이 진표계 범상종의 법맥을 이어 받아 심지가 창건한 팔공산 동화사의 주존불도 역시 미륵불이었을 것이다⁷⁰.

이와 관련하여 『동문선(東文選)』(卷64 「記」)에 전하는 최치원(崔致遠)의 글 「신라수창군호국성팔각등루기(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에는 창건 직후 동화사의 미륵신앙을 추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908년(효공왕 12)에 중알찬(重闕瓘) 이재

68) 김창겸, 「신라 승려 心地 연구 - 『삼국유사』 「心地繼祖」,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3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3. 4., p. 230. 그리고, 헌덕왕의 아들인 심지는 민애왕과 사촌 형제 사이이고, 석탑 건립을 발원한 경문왕(861-874 재위)은 민애왕에게 죽임을 당한 희강왕(836-838 재위)의 손자이다. 즉, 경문왕이 분열된 진골 귀족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민애왕의 원당을 발원했다는 평가가 있다. 국립대구박물관, 『팔공산 동화사』, 그래픽네트, 2009, p. 40.

69) 문명대, 「신라 범상종(유가종)의 성립문제와 그 미술(하) - 감산사 미륵보살상 및 아미타상과 그 명문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63, 역사학회, 1974. 9., p159.

70) 민병찬, 「동화사 비로암 석조여래좌상 연구」, 『팔공산 동화사』, 그래픽네트, p. 221.

(異才)라는 이가 불상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7구의 미륵상이 어깨를 밝고 몸을 포개고 북쪽을 향해 하늘로 높이 솟고(有七彌勒像, 累體蹈肩, 面北而立, 其高挂空), 또 나한이 현신하여 예언을 전하는 꿈을 꾸고 나서, 국가를 위해 불법이 널리 퍼지고 병화를 막는 염원을 담아 수창군(壽昌郡: 지금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대) 남령(南嶺)에 팔각등루(八角燈樓)를 세우고, 공산(公山: 팔공산) 동사(桐寺: 동화사)의 홍순대덕(弘順大德)을 초청해 좌주(座主)로 삼아 재를 베풀고 경찬했다(慶讚齋)를 베풀었다(建燈樓已, 至十一月四日, 邀請公山桐寺弘順大德爲座主, 設齋慶讚)고 한다. 동화사의 미륵불을 직접 다루는 내용은 아니지만, 미륵불 연기(緣起)의 누각을 완성하고 이를 기념하는 경찬 의례에 동화사 소속 홍순대덕이 의식을 주관하는 좌주로 초청되었다는 것은, 당시 동화사가 미륵을 주된 신앙대상으로 하는 법상종 사원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사적비(1931)에는 고려 초 934년에 영조(靈照) 선사가 가람을 확장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같은 사적비에 나오는 1190년 보조국사 지눌의 가람 중창설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고려 초 영조 선사의 가람 확장에 관한 설은, 『고려사(高麗史)』(卷第1「世家」第1, 太祖 10년), 『삼국사기(三國史記)』(卷第50「列傳」第10, 甄萱), 『삼국유사』(2卷「紀異」第2, 後百濟甄萱) 등에 나오는 927년(고려 태조 10) 지금의 팔공산 일대에서 고려의 태조 왕건과 후백제 견훤의 군대 사이에서 벌인 공산전투(公山戰鬪, 일명 公山桐藪戰鬪)에 관한 사실에 더해, 당시 왕건이 견훤에게 대패하고 몸을 피할 때 동화사의 사리탑에서 나온 빛을 따라 피신해 선사를 만나 화를 면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934년에 왕건의 도움을 받아 영조가 동화사의 가람을 확장했다는 이야기가 덧붙은 것이 요지이다. 공산전투를 기록하고 있는 『고려사』 등의 사서에는 영조라는 인물은 물론, 왕건의 도움으로 동화사 가람을 확장했다는 기록도 없다. 다만, 이 영조를 신라 출신으로 당(唐) 말에 중국에 건너가 설봉의존(雪峰義存, 827-908)으로부터 선법을 인가받은 진각대사(眞覺大師) 영조(靈照, 870-947)이며, 그가 유학을 마치고 신라로 돌아와 동화사를 중건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⁷¹⁾. 그러나 『송고승전(宋高僧傳)』(卷第13「習禪篇」3-6「晉永興永安院善靜傳13(附)靈照」)과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卷第18「杭州龍華寺眞覺大師靈照」)에 따르면, 진각대사 영조는 설봉으로부터 법을 인가받은 후 신라로 귀국하지 않고, 오월(吳越)의 충헌왕(忠獻王) 전씨(錢氏)가 항주(杭州) 창건한 용화사(龍華寺)에 머물다가 그곳에서 입적했다. 따라서 사적기의 고려 초 영조 선사 가람 확장설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영조라는 인물의 가람 확장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고려시대에 동화사는 유력 법상종 사원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정종(1035-1046 재위)은 1036년(정종 2)에 명을 내려, 아들 네 명을 둔 자는 그 중 한 명은 출가를 허락하되, 영통사(靈通寺), 숭법사(崇法寺), 보원사(普願寺), 동화사(桐華寺) 등 계단(戒壇)에서 소속 종파의 경률(經律)을 시험하

71) 강삼혜, 「팔공산 동화사 연혁」, 『팔공산 동화사』, 그래픽네트, 2009., pp. 205-206.

게 했다⁷²⁾. 고려시대 동화사에는 계단(戒壇)이 설치되어 관단(官壇) 사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고려시대의 법상종은 유가종(瑜伽宗, 혹은 유가업瑜伽業)으로도 불렸고, 초기에는 화엄종에 비해 활동이 두드러지지 못했으나, 목종(997-1009 재위)이 1000년(목종 3)에 자신의 원찰로 개경에 숭교사(崇敎寺)를 창건하면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출가해 숭교사에서 수행하던 현종(1009-1031 재위)이 즉위하여 부모를 위해 현화사(玄化寺)를 창건하고 법상종 승려로 왕사에 책봉한 법경(法鏡)을 주지로 임명하는 등 왕실 지원 토대로 고려 중기의 법상종은 화엄종과 더불어 교종의 핵심 종파로 지위를 다졌다. 이후 법상종 승려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 칠장사(七丈寺)의 혜소국사(慧炤國師) 정현(鼎賢, 972-1057)과 법천사(法天寺)의 지광국사(智光國師) 해린(海麟, 984-1067) 등은 모두 현화사 주지를 역임하며 왕사나 국사가 되어 교단을 이끌었다. 또한 고려 최고의 문벌가문인 전주 이씨 이자연(李子淵, 1003-1061)의 아들 혜덕왕사(慧德王師) 소현(韶顯, 1038-1096)이 법천사의 해린에게 출가고, 문종(1046-1084 재위)의 다섯째 왕자가 소현에게 출가하는 등 왕실과 귀족 세력을 후원을 받으며 교세를 크게 떨치는 한편 귀족불교로 되어갔다⁷³⁾.

그러나 고려 후기의 법상종은 이자겸(李資謙, ?-1126)의 난(1126) 이후 중세가 위축되었고, 귀족세력과 결탁해 있던 교종불교를 탄압하고 선종을 중심으로 불교계를 재편하고자 했던 무신정권기(1170-1270)를 거치면서 더욱 위축되어 갔다. 그러다가 원 간섭기(1259-1356)에 들어와 원의 요청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사경승(寫經僧)의 파견을 법상종 승려들이 주도했고, 이를 계기로 원 조정 및 부원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시 불교계의 주류로 부각했다.⁷⁴⁾

당시 사경승을 이끌었던 법상종의 대표적인 승려로 홍진국존(弘眞國尊) 혜영(惠永, 1228-1294)은, 1290년(충렬왕 16) 사경승 1백 명을 이끌고 원나라 수도로 가서 금자(金字) 『법화경(法華經)』을 사경하고, 훌륭한 사경과 뛰어난 설법으로 원 세조를 감동시키고 이듬해 고려로 돌아와, 1292년 국존(國尊)에 봉해지고 이어서 오교도승통(五敎都僧統)이 되어 동화사 주지에 임명되어 왔다가 1294년에 입적하고, 이후 왕명으로 동화사에 부도와 비가 건립되었다⁷⁵⁾. 그리고 현전하는 18세기 이후의 사료⁷⁶⁾에는 동화사에 혜영의 탑비가 건

72) 『高麗史』 卷6 「世家」 靖宗 2年(1036) 5月 신묘일 기사.

73) 정병삼, 『한국불교사』, 푸른역사, 2020., pp. 286-287.

74) 정병삼, 위의 책, p. 357.

75) 「桐華寺弘眞國尊碑」(1298). 현재는 비문만 탁본으로만 전한다. 한편 지금 금당암 남측에 위치한 '대구 도학동 승탑'(보물 제601호)은, 원래 이곳에서 1km 남짓 떨어진 도학동 내학마을에 쓰러진 상태로 있던 것을 근래에 현 위치로 옮겨온 것인데, 1976년 이 승탑이 원위치에 쓰러진 상태로 있던 당시에 이를 조사했던 정영호는 양식상 이 승탑의 제작 시기를 9세기 후반으로 추정했으며, 더불어 『朝鮮古蹟圖譜』(第六冊)에 온전한 형태로 서 있는 이 탑의 사진일 신희 「桐華寺弘眞大師塔」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양식과 조각수법상 고려 말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이것을 홍진대사탑이라 볼 수 있는 근거도 없

립되던 해(1298)에 가람 중창이 있었다고 한다. 한편 사후에 자정국존(慈淨國尊)에 추증되었던 법상종의 미수(彌授, 1240~1327)는, 1308년 오교도승통(五敎都僧統), 1313년(충선왕 5) 양가도승통(兩街都僧統)에 각각 임명되었고, 1321년(충숙왕 8) 법주사를 하산소(下山所)로 정하고 개경을 떠나 내려가다가 동화사로 옮겨 주석했고, 얼마 후 1325년 법주사로 이석해 이듬해에 입적했다⁷⁷⁾. 이처럼 원 간섭기에 법상종의 부흥을 이끌었던 주요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만년을 동화사에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가람 조영 활동은 확인되지 않지만, 적어도 동화사가 고려시대를 통하여 법상종의 주요 사찰로 인정받고 있었던 것은 추정할 수 있다. 이밖에 고려사에는 1375년(우왕 1) 우왕이 동화사에 있던 석가의 불골을 충렬왕 이래 왕실의 원당으로 중시되던 신호사(神孝寺)로 옮겨 불사를 벌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⁷⁸⁾.

한편, 동화사 인근 계곡에서 조사된 고려시대 기와가마터에서 ‘桐藪彌勒堂’명 명문와가 수습되었는데, 이를 통해 동화사에는 창건 이래 고려시대까지 주존불로 미륵불을 봉안하는 미륵당(彌勒堂)이라는 전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⁹⁾.

조선시대 동화사에 관한 기록은 임진왜란 이후의 가람 재건부터 확인된다. 그리고 지금의 대응전 영역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 역시 이때부터이다. 임진왜란 당시 팔공산은 영남지역 항전의 거점이 되었다. 전쟁이 발발한 1592년(선조 25) 대구부사(大丘府使) 윤현(尹峴, 1536-1597)은 병영을 동화사로 옮겨 관군을 주둔시켰고, 사족들이 주축이 된 의병부대인 공산의진군(公山義陳軍)은 부인사에 의병소(義兵所)를 설치하고 동화사의 관군과 연락 연대에 대해 활동하였다⁸⁰⁾. 더불어 사명(四溟) 유정(惟政, 1544-1610)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동화사에 영남승군(嶺南僧軍)의 사령부를 설치하고 영남도총섭(嶺南都摠攝)이 되어 의승군을 지휘하고,⁸¹⁾ 일본과 강화교섭기 동안 1595년부터 이듬해에 걸쳐 팔공산 정상에 공산산

76) 「慶尙左道大丘都護府北八公山桐華寺大雄殿重勑上樑文」(1727), 『八公山桐華寺事蹟』(1732)에 수록된 이의현(李宜顯, 1669-1745)의 「八公山桐華寺事蹟記」(1727)과 「心地王師行蹟」, 「八公山桐華寺蹟碑」(1931). 한편, 이들 사료에는 모두 1298년에 혜영이 가람을 중창했다고 적고 있는데, 이는 혜영의 생몰연대와 맞지 않아 신뢰성이 의심되지만, 왕명에 의한 탐비 건립을 계기로 가람이 중창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77) 「法住寺慈淨國尊碑」(1342)

78) 『高麗史』卷133「列傳」卷第46「辛禡」1：迎桐華寺釋迦佛骨，置神孝寺作佛事.

79) 국립대구박물관, 위의 책, p. 49.

80) 김진수, 「임진왜란 시기 팔공산 전투와 역사적 의의」, 『군사연구』 제142집, 육군군사연구소, 2016, pp. 47-48.

81) 이와 관련하여 현재 동화사에는 당시 영남 승군의 사령부 격인 ‘영남치영아문(嶺南緝營牙門)’의 현판(일제강점기 제작)과, 유정이 사용했다고 전하는 ‘영남도총섭(嶺南都摠攝)’ 인장이 남아있다. 강삼혜, 위의 책, pp. 207-208.

성(公山山城)을 쌓아 왜적의 재침에 대비하였다⁸²⁾. 그러나 관군이 주둔했던 동화사는 임진왜란 이듬해 1593년 1월에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불탔고, 공산산성도 정유재란이 발발한 해(1597)에 침략을 받아 성내의 곡식과 창고 등 시설들이 소실되어 버렸다.⁸³⁾

전란 중에 유정이 동화사를 거점으로 의승군을 지휘했던 인연이 계기가 되어⁸⁴⁾, 전란 후 가람의 복구는 유정 문도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대웅전 중창 상량문」(1727)에는 1606년(선조 39) 당시 해인사(海印寺)에 주석하고 있던 송운대사(松雲大師), 즉 사명당 유정이 문인 학인(學仁)을 시켜 법전(法殿), 즉 대웅전을 ‘중창(重創)’했다고 되어 있다(至(萬曆)三十四年丙午, 松雲大師駐錫於海印, 使門人學仁重創法殿). 이것이 곧 현재 동화사 대웅전의 전신이며, 당시 유정 문도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 된다. 한편 ‘중창’에 대해서는, 상량문상의 글자 의미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상량문에 적힌 연혁을 보면, 구체적으로 대웅전에 관한 내용은 1606년 학인의 중창이 가장 이르며, 그 이전의 연혁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신뢰할 수 없는 신라, 고려시대의 가람 중창에 이어, 조선 전기의 내용은 전혀 없이 바로 임진왜란 때 병화로 가람이 소실된 사실과 학인의 대웅전 중창을 적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 대웅전과 이 일대의 가람에 대해서는 조선 전기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다른 사료와 이 일대에 현존하는 가람의 유구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⁸⁵⁾.

정리하면, 상량문에 적힌 1606년의 대웅전 중창은, 사실인 전란 뒤에 가람을 복구 하면서 현재의 대웅전 일대에 새로 터를 닦아 가람을 확장하고 대웅전을 창건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량문에는 신라 이래의 연혁을 적은 다음, 당시의 대웅전 건립 공사를 중창으로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⁸⁶⁾. 또한 현재 대웅전 일곽 영역은 임진왜란 당시 관군과 의승군이 주둔하며 어느 정도 터를 닦아 둔 곳일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전란 직후에 바로 이곳에 가람을 조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팔공산동화사사적』(1732)에 수록된 「중창년대성공인원별록(重創年代成功人員別

82) 김진수, 위의 논문, pp. 51-52.

83) 김진수, 위의 논문, p. 49, p. 56.

84) 현재 동화사에는 18세기에 제작된 ‘대구 동화사 사명당 유정 진영(大丘桐華寺四溟堂惟政眞影, 보물 제1505)’이 전해오고 있다.

85) 일례로 현재 대웅전 동편에 통일신라시대 양식의 삼층석탑 한 기가 위치하고 있으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가람 전경 사진에는 이 위치에 석탑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 이곳으로 옮겨진 것임을 알 수 있다.

86) 이와 비슷한 사례로, 임진왜란 이후 1620년대에 새 터에 창건된 완주 송광사(松廣寺)의 대웅전에 대하여, 1857년(철종 8)에 작성된 「松廣寺大雄殿重建上樑文」에는, 이 사찰이 신라 때 보조선사(普照禪師)가 창건했다고 한 다음, 바로 조선 후기로 넘어와서 대웅전을 天啓 壬戌(1622, 광해 14)에 ‘중건(重建)’했다고 적고 있다(天啓壬戌之仲秋, 又有禪伯德琳之重建). 더불어 동화사에 전하고 있는 내력과 마찬가지로 이 송광사도 신라 때 보조선사의 창건이라고 하는 점 또한 흥미롭다.

錄)」에 의하면, 1605년에 요사 심검당(尋劔堂)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어서 1606년에 대웅전이 지어졌다. 뒤이어 1608년 미륵전(彌勒殿), 1614년 강생원(降生院), 1615년 약사전(藥師殿), 1617년 종각(鐘閣), 1633년 일주문(一柱門), 1634년 호법문(護法門), 1636년 두월료(斗月寮), 1640년 관욕당(灌浴堂), 1644년 침계료(枕溪寮), 1648년 원통전(圓通殿), 1649년 향적전(香積殿), 1656년 화우당(花雨堂), 1666년 향로전(香爐殿)과 서상실(西上室), 1669년 영산전(靈山殿), 1670년 칠불전(七佛殿)과 연경전(蓮經殿)이 차례로 건립되면서, 60여 년에 걸쳐 대웅전 일곽의 건축 조영이 일단락되었다. 당초 법상종 사찰의 주존불로서 미륵불은 금당암 영역의 주불로 봉안되어 있었으나, 전란 이후 가람 재건과정에서 미륵전이 대웅전 영역에 재건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즉, 전후 가람 재건을 계기로 동화사의 중심이 기존의 금당암 영역에서 지금의 대웅전 영역으로 재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웅전 중창 상량문」에는 1677년(숙종 3)에 상은(尙崑)이 대웅전을 수리했다고 하며, 또한 「중창년대성공인원별록」에는 이 무렵부터 기존에 건립되었던 다른 전각들의 수리와 일부 당우의 신축이 확인된다. 즉, 1680년 일주문과 두월료 수리, 1681년 약사전 이건, 1684년 침계료 수리, 1692년 원통전 수리(1716년 재차 수리), 1709년 강생원과 종각 수리, 1717년 관욕당 수리(1722년에 재차 수리), 1718년 화우당을 수리 및 서별당(西別堂)으로 개칭, 1722년 향적전 수리 등이 이루어졌다. 추가로 건립된 전각으로는 1680년 명월료(明月寮, 1706년 수리), 1694년 자음당(慈蔭堂)과 중료(衆寮), 1718년 지장원불전(地藏願佛殿) 등이 확인된다. 이렇게 해서 왜란 이후 동화사는 100여 년에 걸친 재건 및 확장 공역을 통해, 현재의 대웅전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가람의 구성을 보면, 미륵전의 존재를 통해 법상종의 흔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전체적으로는 조선 후기 통불교 사원의 보편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의 불교계는 전란 때 의승군을 규합해 이끌었던 청허(淸虛) 휴정(休靜, 1520-1604)과 부휴(浮休) 선수(善修, 1543-1615) 문도로 크게 재편되었다. 전란 극복 과정에서 보였던 의승군의 적극적인 활약으로, 불교계는 이전까지의 억압을 극복하고 국가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⁸⁷⁾, 이를 토대로 폐허된 가람을 복구하고 교단을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청허 계통은 편양(鞭羊) 언기(彦機, 1581-1644), 사명 유정, 소요(逍遙) 태능(太能, 1562-1649), 정관(靜觀) 일선(一禪, 1533-1608)의 네 문파로 나뉘었고, 이 중에서 편양파가 최대의 세력을 형성했으며, 부휴의 계통은 청허계보다 작은 규모의 단일 문파로 정체성을 유지해 갔다⁸⁸⁾.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후 동화사의 법맥은 부휴계의 문도도 일부 확인되지만, 대체로 청허계 문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유정의 지원으로 가람 재건이 시작되었고, 18세기 전반까지의 가람 재건과 이후의 법맥 상

87) 정병삼, 위의 책, p. 495.

88) 정병삼, 위의 책, p. 523.

전은 주로 언기의 손제자 상봉(霜峯) 정원(淨源, 1627-1709) 계통이 주도하였다⁸⁹⁾.

그러나 1700년대 초반에 완성된 대웅전 일곽은, 얼마 후 1725년(영조 1)에 화재로 재차 소실되고 말았다. 「대웅전 중창 상량문」에는 당시의 화재로 대웅전과 누각(樓閣), 정문(正門), 불공장(佛公藏), 향적전, 서상실, 미륵전, 선당(禪堂), 승당(僧堂)의 9동이 일시에 소실되었다고 했다⁹⁰⁾. 기록으로 보아 당시의 화재는 대웅전 일곽에만 그쳤던 듯하며, 인근의 금당암, 비로암과 일주문은 화재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 상량문에는 이 해에 바로 가람 재건 공역이 이루어져 서상실, 미륵전이 재건되고, 1726년에 승당, 1727년에 선당과 대웅전이 재건되었다고 했다. 「중창년대성공인원별록」에는 이것 외에도 1726년에 심검당과 강생원, 1727년에 향로전, 1730년에 종각과 호법문이 재건되었다.

이후 대웅전은 1896년(건양 1)에 한 차례 더 중수가 이루어졌고⁹¹⁾, 「팔공산동화사적비(八公山桐華寺蹟碑)」(1931)에는 1902년(광무 6) 영산전이 수해를 입어 1905년에 재건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1930년에 승려 만오생(晩悟生, 1880~1965, 속명 安震湖) 사적 조사를 위해 동화사를 방문조사하고 발표한 글⁹²⁾에 「영산전중건기(靈山殿重建記)」의 내용을 요약해 소개하고 있다. 즉, 壬寅(1902) 8월에 태풍이 몰아쳐 칠불전, 영산전, 약사전, 관음전의 네 불전과, 두월료, 수확(水確, 물레방아) 등 모두 2백여 칸이 일시에 유실되어 버렸고, 월송(月松)이 화주(化主)가 되어 영산전을 재건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대웅전 영역을 이루고 있는 전각은 대웅전을 제외하면 대부분 20세기 이후에 조영된 것이다. 한편 1725년 소실 후 바로 재건되었던 미륵전은 20세기 이후의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02년 수해 때 피해를 입었다가 재건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임진왜란 이후 까지 이어지던 법상종 가람의 흔적도 미륵전과 함께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1992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의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 당시 대웅전 영역의 목조건축물 중에서 20세기 이전 유구로는 대웅전(1727년 중건), 강생원(1726년 중건)⁹³⁾, 천태각

89) 국립대구박물관, 위의 책, p. 159.

90) 「慶尙左道大丘都護府北八公山桐華寺大雄殿重創上樑文」: 乙巳(1725)之晩春, 回祿睚眦, 朱雀生齒, 法堂與三世如來及樓閣正門佛公藏香爐殿西上室彌勒殿禪僧兩堂, 并爲九架一時間消滅. 여기서 누각(樓閣)은 앞서 「重創年代成功人員別錄」에 나오는 1617년에 건립(1709년 수리)된 종각(鐘閣)으로 보이며, 정문(正門)은 대웅전 맞은편 지금의 봉서루(鳳棲樓) 위치에 있었던 문루로 보이는데, 「중창년대성공인원별록」에서는 그 명칭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불공장(佛公藏)은 경전을 보관하는 경장(經藏)으로 1670년에 건립된 연경전(蓮經殿)에 해당하며, 선당(禪堂)과 승당(僧堂)은 대웅전 앞마당 좌우의 요사로 「중창년대성공인원별록」에 다양한 요사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중에서 어느 요사가 이들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는 없다.

91) 「慶尙左道大丘都護府北八公山桐華寺大雄殿上樑改楫記文」(1896)

92) 晩悟生, 「桐華寺의 一週日(續)」, 『佛敎』 제75호, 불교사, 1930. 9., pp. 32-37.

93) 1992년 조사 당시 강생원은 대웅전 앞 마당 동편에 마당에 면해 위치한 정면 6칸, 측면 1칸의 5량가 규모의 一자형 평면 요사였는데, 이후 철거되어 현재는 이 자리에 대형 화엄당을 지어 승가대학 강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天台閣, 18세기), 칠성각(七星閣, 1857년), 산신각(山神閣, 1857년), 조사당(祖師堂, 18세기), 영산전 객사의 7동이며, 20세기 이후에 조영된 전각으로는 봉서루(1964년 중건), 심검당(1978년 중건), 주지실(住持室, 20세기), 서별당(1962년 이건), 원음각(圓音閣, 1964년), 영산전(1902년 중건), 옹호문(擁護門, 1962년 이건)⁹⁴⁾ 등이 있었다⁹⁵⁾.

3. 금당암 일곽의 연혁

지금의 대웅전 영역의 동편 계곡 너머에 위치한 금당암 일곽은, 9세기 전반에 심지왕사가 가람을 창건한 이래 조선 전기까지 동화사의 중심 영역이었으며, 적어도 고려시대 말까지는 법상종의 법맥이 이어지고 있었다. 『삼국유사』(卷4「意解」第5「心地繼祖」)에 나오는 동화사의 창건 연기에는, 심지가 속리산의 영심으로부터 진표에게 전수받은 불골간자를 얻어 팔공산으로 돌아와 산신과 함께 간자를 던져 절 지을 자리를 점치니, 숲속의 샘에서 간자를 찾아 그 곳에 당(堂)을 짓고 간자를 봉안했다고 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금당암 일대로 전한다. 또 일연은 창건 연기 말미에 당시의 동화사 참당(籤堂) 북쪽의 작은 우물이 간자를 찾은 샘 자리라고 했다⁹⁶⁾. 그리고 현재 동화사에 남아있는 석조 유구 중에서 9세 무렵으로 편년되는 것이 사찰 입구의 마애여래좌상, 비로암의 석조여래좌상과 삼층석탑을 제외하면, 모두 금당암 일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입구의 당간지주, 극락전의 가구식 기단과 동·서삼층석탑 등이 바로 그것으로, 이것을 통해서도 이곳이 동화사의 창건 가람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금당암 일곽은 완만한 남향의 경사지에 축대를 쌓아 평평하게 조성한 대지 위에, 중심 전각인 극락전(極樂殿)이 남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 동·서 양쪽으로 삼층석탑이 위치하며, 극락전 북쪽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수마재전이 남향하며, 극락전과 수마제전 사이의 동쪽으로 1976년에 신축한 금당선원과 부속 전각들이 위치한다. 그리고 금당암 남서측 초입에 통일신라시대 당간지주가 서있다.

이중에서 당간지주와 더불어 창건 당시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유구는 통일신

94) 옹호문은 사천왕상을 봉안한 천왕문으로 20세기 초까지는 봉서루 바로 앞에 있었고, 「중창년대성공인원별록」(1727)에 나오는 1730년 재건 호법문(護法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옹호문은 1962년에 현 위치인 봉서루 전면의 광장 동남쪽으로 이건되었다.

9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동화사 실측조사보고서』, 대구직할시, 1993., p. 32. 또한 이 보고서에도 동화사의 초기 사역은 현재의 금당암 영역을 중심으로 조성되었고, 나중에 지금의 대웅전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 나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pp. 34-35).

96) 『三國遺事』卷4「意解」第5「心地繼祖」: 地頂戴故山, 岳神率一仙子, 迎至山椒, 引地坐於岳上, 故伏崑下, 謹受正戒. 地曰“今將擇地, 奉安聖簡, 非吾輩所能指定, 請與三君, 憑高擲簡以下之.”乃與神等陟峰巔, 向西擲之, 簡乃風颺而飛. 時神作歌曰, …(中略)… 旣唱而得簡於林泉中, 卽其地構堂安之. 今桐華寺籤堂北有小井是也.

라시대 양식의 기단 일부와 초석을 남기고 있는 극락전과 서탑이며, 동탑은 서탑보다 먼저 건립되었으나 창건 직후 가람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한 차례 위치가 옮겨진 것이며, 수마제전은 적어도 고려 후기 이후에 현 위치에 새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1969년 동탑을 해체할 때 발견된 3매의 탑지(塔誌) 중에서 1544년(중종 39)의 중수 때 제작된 제일지석(第一誌石)⁹⁷⁾에는, 원래 이 탑은 창건 당시에는 강당(講堂) 남쪽에 있었으나, 건부(乾符) 2년, 즉 875년(신라 경문왕 15, 헌강왕 1) 9월에 금당(金堂)아래에 새로운 탑을 조성하면서 금당 위로 옮겼다(若夫三層石塔者, 從迦藍治成, 到於乾符二季乙未九月, 任於講堂南. 然而於金堂下建新塔已, 不獲已故塔傳在於堂上.)고 했다.

여기서 금당 지금의 극락전 자리에 있던 주불전이고, 875년 금당 아래에 새로 건립한 탑은 지금의 서탑이다⁹⁸⁾. 고대 가람에서 강당은 금당의 후방에 위치하여 가람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것이 보편적인 가람배치였는데, 현존하는 금당암 일대의 대지 상황을 보더라도, 창건 당시 이곳에 조성된 동화사의 초기 모습도 금당과 강당이 남북축선상에 배치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창건 당시에는 지금의 동탑이 강당 남쪽에 있다고 했는데, 다르게 말하면 탑을 중심에 두고 그 남쪽에 금당, 북쪽에 강당이 배치되는 독특한 가람 형태였다고 추정이 된다.

창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875년 9월에 지금의 서탑 자리인 금당 아래(下)에 탑을 새로 건립하면서, 기존에 강당 앞의 탑을 지금의 동탑 자리인 금당 위(上)로 옮겼다고 했으니, 제1탑지에 나오는 탑의 위치를 묘사한 금당 아래(下)와 위(上)는 각각 서쪽과 동쪽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화사의 가람 배치는 875년 서탑 건립을 계기로 현재와 같이 금당 동·서 양측에 탑을 두는 쌍탑식 가람의 한 형태로 완성되었다. 다만, 7세기 이후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해 간 금당 전면의 좌우에 탑을 두는 정형적인 쌍탑식 가람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다. 이는 금당 전면에 쌍탑을 세울 여지가 충분하지 않은 대지 여건상의 이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불어 9세기 이후의 사찰에서 볼 수 있는, 7세기 이후에 유행한 금당 앞 좌우에 탑을 세우는 정형적인 가람구성의 규범을 벗어나는 경향⁹⁹⁾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동탑에서 발견된 제이지석(第二誌石)은 1794년(정조 18), 제삼목제지판(第三木製誌板) 1897년(광무 1)의 수리 내력을 적고 있다. 그리고 1910년(순종 4)에 간행된 방산(舫山) 허훈(許薰, 1836-1907)의 문집 『방산선생문집(舫山先生文集)』에 수록된 「팔공산동

97) 임진왜란으로 가람이 소실되기 이전의 자료로서 당시까지 사찰에 전해오던 사적에 기초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18세기 이후에 작성된 사적이 등보다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98) 참고로 경문왕은 서탑이 건립되기 12년 전인 863년에 지금의 비로암 자리에 민애왕의 명복을 비는 원당을 조성하고 삼층석탑을 세웠는데, 이러한 선후 관계를 보더라도 금당암 동서석탑의 조성 내력을 적은 동탑 제1탑지 내용의 신빙성은 물론, 심지왕사가 9세기 전반에 동화사를 창건했다는 사실 역시 간접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99)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7, pp. 101-105.

화사중수석가여래사리탑비명서(八公山桐華寺重修釋迦如來舍利塔碑銘并序)」에는, 재차 탑이 기울어 광무5년(1901)에 수리를 시작해 이듬해에 마쳤는데, 이와 더불어 금강계단(金剛戒壇)을 만들어 탑과 상대(相對)하도록 했고, 탑의 둘레에 울타리를 둘러 장엄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일제강점기 동화사 일원의 모습을 촬영한 유리건판 사진을 보면, 동탑 둘레에 주철제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금강계단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¹⁰⁰⁾.

서탑에서는 1957년 해체수리 과정에서 1852년(철종 3) 수리 때 두루마리 장지(壯紙)에 기록해 놓은 「탑중수기(塔重修記)」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고려시대의 1319년(충숙왕 6)의 중수 기록과, 조선 전기 1544년에 동탑과 더불어 이루어진 중수 기록이 함께 필사되어 있었다¹⁰¹⁾. 이중에서 고려시대 중수 기록은 ‘大元延祐六年八月十九日 高麗國桐華寺重修石塔(이하 同願人名目)’으로 끝나며, 그 내용 중에는 당시 가람 구성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 더욱 중요한데, 대요는 다음과 같다.

1316년(충숙왕 3) 현변(玄昇) 스님이 왕명을 받아 연경(燕京)에 갔다가, 이듬해 1317년 3월부터 동화사에 주석했는데, 1318년 3월 왕이 내린 어향(御香)을 받들고 하산, 이듬해 1319년 3월 통도사(通度寺)에 가서 향을 사르고 축원한 결과 사리 5매를 얻었다. 산으로 돌아와 4월에 대회(大會)를 베풀고, 8월 14일에 수원승(隨院僧)을 시켜 탑을 허물어 보니 안에 사리가 없었다. 5일 째 되는 날 아침, 이전에 통도사에서 얻은 사리 5매를 무량수전(無量壽殿)에 봉안하고 도제(徒弟)와 역부승(役夫僧) 다수가 염불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분신사리 20매를 얻었다. 이를 경축하며, 다음날 15일에 분신사리를 탑에 안치했다¹⁰²⁾.

100) 『舫山先生文集』 卷19 「碑銘」·「八公山桐華寺重修釋迦如來舍利塔碑銘并序」: 近又傾壞, 貧道之師應晦上人, 資檀越力, 募工新之. 築金剛戒壇, 與塔相對, 設供禮拜. 四面繚以牆, 位置莊嚴. 始役於聖上光武五年辛丑(1901), 明年壬寅正月某日, 安舍利函. 이 탑명에는 신라 진흥왕 10년 己巳(549)에 양(梁) 소제(蕭帝, 양 무제)가 보내온 사리 1함(函)을 궁궐로 맞이했다가, 진평왕 4년 壬寅(582)에 원효(元曉)선사로 하여금 사리 1천이백 여 과를 본사(의 탑)에 봉안하도록 명했고, 현강왕 원년 乙未(875)에 승려 삼강(三剛)이(사리가 봉안된 본사의) 탑을 부속 암자의 금담으로 옮겼으며, 이후 조선 중종 28년(1533) 甲辰(1544, 중종 39)에 종관(宗觀)과 해달(解達)이, 숙종 원년 甲寅(1674)에 도수(道修)가, 그리고 철종 4년 壬子(1852)에 만혜(晩慧)가 각각 탑을 수리했다고 하는데, 동탑에서 발견된 탑지 내용에 비추어 이상과 같은 1901년 이전의 수리 연혁과 창건 내력은 모두 신뢰할 수 없다. 한편, 팔공산동화사적비(1931)에는 1901년에 탑을 수리하고 둘레에 쇠난간을 둘러었다고 한다.

101) 이홍직, 「동화사 금당암 서탑 사리장치」, 『아세아연구』 1(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58. 12, pp. 85-106.

102) 歲在丙辰(1316)孟夏, 比丘玄昇承王命赴燕京, 次年丁巳(1317)三月得住茲寺. 越戊午(1318)三月奉御香下山, 次年己未(1319)三月, 到通度寺燒香祝, 乞得舍利五枚, 還山四月設大會焉. 是年八月十四日, 使隨院僧起役, 壞而見之, 塔中無安舍利. 至第五日朝, 奉持向者舍利五枚, 置于無量壽殿, 而徒弟及役夫僧許多人念釋迦, 六七百聲懇禱, 至得分身二十枚. 雖曰末運, 佛法靈驗, 有如是也, 猶自慶哉, 至翌日安于此塔. 大元延祐六年(1319)八月十九日, 高麗國桐華寺重修石塔, 원문은 이홍직, 위의 글(1958)에서 재인용하고 번역문도 이 글을 참고했다. 이하 서탑 중수기 내용 인용의 전거는 모두 이와 같다.

위의 고려시대에 서탑의 중수가 이루어진 1319년 무렵은, 무신집권기를 지나면서 침체되었던 법상종이 불교계의 주류로 회복된 원 간섭기로, 고려 말 법상종 부흥을 주도한 흥진국존 혜영이 동화사에 주석하다가 입적(1294)한 직후이며, 자정국존 미수가 주석(1321)하기 직전으로, 동화사가 고려 법상종의 거점 사찰로 존재하던 시기였다. 이를 반영하듯 중수기록에는 왕명으로 원의 수도에 다녀온 현변이라는 스님이 동화사에 주석하다가 왕이 내린 어향을 받들어 통도사로 가서 축원을 올리는 등 당시 동화사와 고려 왕실 간의 긴밀했던 관계가 나타난다. 핵심은 통도사에서 구해온 사리 5매를 무량수전에 봉안하고 염불기도 끝에 분신사리 20매를 얻어 서탑에 봉안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통도사에서 구해 온 사리 5매를 봉안했다는 무량수전의 존재이다. 당시 동화사의 주불전은 미륵당이였으므로, 이 무량수전은 주불전이 아닌 그 인근에 배치된 부불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무량수전은 조선 전기의 1544년 중수 기록에도 나타난다. 즉, 당시 무량수전의 기단(階築)도 무너져 있어서 동·서 두 탑과 아울러 수리했다는 것이다¹⁰³).

이상의 동·서탑 연혁을 정리하면, 지금의 동탑은 9세기 전반 동화사 창건 당시 강당 앞에 있었는데, 875년 금당 서쪽에 지금의 서탑을 건립하면서 현재의 금당 동쪽으로 옮겼다. 고려시대에는 1319년에는 서탑을 수리하고 사리를 봉안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1544년에 동·서 두 탑을 함께 수리했고, 1794년에 동탑, 1852년에 서탑이 각각 수리되었고, 이후로 동탑은 1897년, 1902년에 재차 중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서탑에서 발견된 중수 기록을 통해, 고려시대 후기부터 조선시대 전기에 걸쳐 부불전으로 무량수전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재의 극락전 자리에 있었던 금당은, 당초의 모습을 일부 유지하고 있는 기단의 규모와 초석의 배치로 보아, 현존 건물과 마찬가지로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내부에 봉안된 본존은 지금과 같은 아미타삼존이 아니라 법상종 사찰의 주불인 미륵불이며, 건물의 규모가 정면 5칸인 점에 비추어 삼존불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금당의 형태는, 이후 여러 차례 중수를 거치며 고려시대에는 미륵당으로 불리다가,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기 이전까지 존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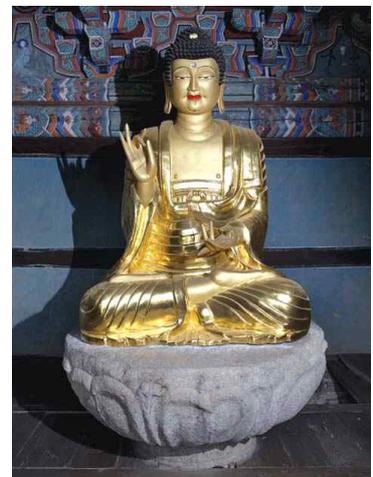
「중창년대성공인원별록」(1732)에 의하면 임진왜란 뒤 금당암 일곽의 재건은 1600년(선조 33) ‘建金堂衆寮’, 즉 금당암의 요사인 중료(衆寮) 건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전란 후에 이루어진 동화사 전체 복구 공역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으로, 가람 재건을 위해 승려들의 거처를 먼저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1622년(광해군 14)에 대금당법전(大金堂法殿)을 중창하고, 1629년(인조 7)에 금당의 삼존불을 조성했으며, 1699년(숙종 25)에 대금당의 후불탱과 사천왕탱을 완성했다고 한다. 여기서 대금당법전, 금당, 대금당은 지금의 극락전을 가리키는 것인데, 원래 이 자리에 금당이 있었기 때

103) 嘉靖二十三年甲辰(1544)孟夏初六日始, 仲夏十二日畢役. … (중략) … 何幸智祖比丘如干鳩財, 而其時無量壽殿階築破落, 故兩塔重新焉.

문에 그렇게 불린 것이며, 이후 이 이곳을 금당암으로 지칭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한다. 1629년에 조성한 삼존불은 현재 극락전에 봉안된 목조 아미타삼존상으로 17세기에 활동한 유명한 조각승으로 한 유파를 이루었던 현진(玄眞)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1699년에 조성된 후불탱화는 당시 동화사 소속 화승(畵僧) 의균(義均)의 작품(아미타극락회도, 보물 제1610호)으로 현재는 동화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¹⁰⁴. 지금 극락전 안에 걸려있는 「금당극락전중수의연방명록(金堂極樂殿重修義捐芳名錄)」을 통해 1937년에 중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74년부터 금당암 일대의 구 요사를 철거하고 지금의 금당선원을 신축(1976)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1995년에 지붕 변화 보수가 있었다.

전후의 가람 재건이 일단락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725년에 발생하여 대웅전 일곽을 다시 잿더미로 만든 화재는 다행히 금당암으로 넘어오지는 않았다. 따라서 전란 뒤에 재건된 극락전을 비롯한 금당암 일곽의 전각 구성은 광복 이전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극락전 동북쪽에는 높이 177cm의 아미타불좌상¹⁰⁵이 본존으로 봉안된 수마제전(須摩提殿)이 있다. 須摩提는 아미타여래가 주재하는 극락정토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sukhāvati*의 한자 음역으로, 수마제전은 아미타여래를 모신 전각이라는 뜻이다. 9세기 창건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양련형 석조 대좌 위에 놓인 불상의 제작 시기는 고려시대¹⁰⁶ 혹은 조선시대 전기¹⁰⁷로 추정되고 있다. 「중창년대성공인원별록」에는 이 건물을 고금당(古金堂)으로 적고 있는데, 조선 전기 1465년(세종 11)에 건립되었고, 전란 뒤 1702년(숙종 28)에 중창되었으며¹⁰⁸, 이듬해 1703년에 후불탱화¹⁰⁹를 조성하고 불상을 개금하면서¹¹⁰, 재건을 일단락지은 것이 확인된다.



수마제전 아미타여래좌상
(출처 : 『한국의 사찰문화재-대구광역시·경상북도 I』
구광역시·경상북도 I)

104) 강삼혜, 위의 책, pp. 208. 참조.

105) 도금이 되어있어 금동불로 알려져 있으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 촬영 유리건판 사진에는 철불좌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106) 국립대구박물관, 『팔공산 동화사』, 그래픽네트, 2009., p. 55.;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문화유산 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I』, 문화재청, 2007., p. 30.

10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화사수마제전금동불좌상’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4667&cid=46659&categoryId=46659>

108) 大明憲宗成化元年乙酉(1465)建古金堂, 康熙四十一年壬午(1702)重棚, 化主清允.

109) 이 후불탱화는 아미타극락회도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것 역시 1699년 극락전의 후불탱화(아미타극락회도)를 그렸던 동화사 소속 화승 의균(義均)의 작품이다.

110) 康熙四十二年癸未(1703)古金堂後佛幀及佛像改金, 化主勝卞.

수마제전 본존불의 대좌가 창건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불상의 제작 시기를 고려 시대까지 올려 잡을 수 있는 점, 그리고 현 위치의 불전이 1465년에 건립되었다고 하는 점을 아울러 생각하면, 창건 당시부터 금당 북쪽 일대에 불상을 봉안하는 전각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전각에는 적어도 조선 전기 이전부터 아미타여래가 본존으로 봉안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이것과 위의 서탑 중수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에 걸쳐 지금의 금당암 일곽에 무량수전이 부불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즉, 늦어도 고려시대 후기부터 지금의 극락전 북쪽 수마제전 일대에 아미타여래를 봉안한 무량수전이 부불전으로서 존재하고 있었고, 이것이 조선 전기 1465년에 한 차례 중창 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전후 가람 복구 과정에서 1702년 현 위치에 재건되고 수마제전으로 개칭되었다는 것이다.

주불전 후방에 아미타여래를 봉안하는 전각을 두는 가람 구성은, 통일신라시대 이래 법상종 사원의 가람 특성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만한 여지가 있다.

먼저, 삼국통일 이후 화엄과 함께 신라 교학불교의 주류를 이루었던 유식(唯識)사상은 모든 인식과 존재의 출발점을 마음의 작용으로 보는 사상으로, 8세기에 들어와 대현(大賢)과 진표의 두 가지 흐름을 이루며 법상종 교단을 형성하였다¹¹¹⁾. 이 중에서 대현 계통의 법상종은 왕경을 중심으로 왕실과 귀족의 후원을 받으며 교학 연구 위주로 활동하며 미륵과 미타정도를 체계화 했고, 진표 계통에서는 참회(懺悔)와 점찰법(占察法)이라는 실천행 을 바탕으로 미륵과 지장보살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여 주로 지방에서 민중을 대상으로 교화를 폈다¹¹²⁾. 점찰법은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에 의거해 나무바퀴[木輪]를 던져 과거생의 선악 업보와 현세의 길흉을 점치고, 그 결과에 따라 참회 수행하는 것인데, 진표는 바닥에 몸을 내던지는 오체투지(五體投地)의 투철한 참회 수행인 망신참법(亡身懺法)을 행했다¹¹³⁾. 두 계통 모두 법상종 소의경론¹¹⁴⁾의 설주(說主)인 미륵을 받들어 도솔천(兜率天) 왕생을 염원하는 미륵상생신앙(彌勒上生信仰)을 주로 하며, 부차적 신앙대상은 각각 아미타와 지장으로 상이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둘 다 망자 구제를 위한 내세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같다¹¹⁵⁾.

111) 정병삼, 위의 책, p. 132.

112) 김남윤, 「신라중대 법상종의 성립과 신앙」, 『한국사론』 1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4. 6., p. 147.

113) 최복희, 「진표의 망신참과 탐참법」, 『역사민속학』 54, 한국역사민속학회, 2018., pp. 112-116.; 정병삼, 위의 책, p. 169.

114) 법상종의 소의경론에는 6경(經) 11론(論)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요한 것은 『해심밀경(解深密經)』, 『화엄경(화엄經)』, 『능가경(楞伽經)』과, 미륵(彌勒)의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무착(無著)의 『섭대승론(攝大乘論)』, 미륵과 세친(世親)의 『중변분별론(中邊分別論)』, 무착의 『현양성교론(顯揚聖教論)』, 호법(護法)의 『성유식론(成唯識論)』 등이다. 김남윤, 위의 논문, p. 102.

115) 김남윤, 위 논문, p. 140.

이러한 신앙형태가 가람으로 구현되는 방식에서, 대현계통의 법상종 사찰에서는 주불전인 금당에 미륵을 안치하고 강당에는 아미타를 봉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¹⁶⁾. 이와 관련하여 『삼국유사』에 나오는 다음의 두 기록이 유명하다. 하나는 감산사(甘山寺)의 불상조성기(佛像造成記)로, 719년(성덕왕 18)에 중아찬(重阿漉) 전지성(全志誠)이 죽은 모친을 위해 감산사의 금당에 미륵존상을 만들어 모시고 또 죽은 부친을 위해서는 아미타상을 조성해 봉안했다는 이야기이다¹¹⁷⁾. 다른 하나는, 노힐부득(努矜夫得)과 달달박박(怛怛朴朴)이 구사군(仇史郡: 지금의 경남 창원) 북쪽의 백월산(白月山)에서 미륵과 미타를 염원하며 수행 정진한 끝에 성도(成道)하여 각기 미륵불과 무량수불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덕왕이 757년(경덕왕 16)에 사자를 보내서 백월산남사(白月山南寺)를 짓고, 764년 절이 완성되자 다시 미륵존상을 만들어 금당에 모시고, 또 아미타불상을 만들어 강당에 봉안했다는 기록이다¹¹⁸⁾. 문명대는 이 백월산남사의 예에 비추어 앞서 전지성이 조성한 감산사의 아미타불 역시 강당에 봉안되었을 것으로 보았다¹¹⁹⁾.

반면 동화사의 심지에게 전수된 진표계 법상종의 경우, 당시 부차적 신앙대상이었던 지장보살이 사찰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신앙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다. 그런데 심지는 헌덕왕의 아들로 왕족 출신인 점, 863년 경문왕이 비명에 죽은 민애왕의 명복을 위해 현재의 비로암 영역에 원당을 조성하고 탑을 세웠다는 점, 그리고 이곳이 왕경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지가 진표계통의 법을 잇기는 했으나, 실제 사찰을 조영하는 과정에서는 왕경 중심으로 왕실과 귀족계층의 후원을 받으며 교단을 형성한 대현계 법상종 사찰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동화사의 경우 창건 당시 강당에 아미타불상이 봉안되어 있었고, 현재 수

116) 문명대, 「신라 법상종(유가종)의 성립문제와 그 미술(하) - 감산사 미륵보살상 및 아미타상과 그 명문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63, 역사학회, 1974. 9., p. 158.; 김남윤, 위의 논문, p. 106.

117) 『三國遺事』 卷3 「塔像」 第4 「南月山<亦名甘山寺>」 條 : 절은 서울 동남쪽으로 20리 가량 되는 곳에 있다. 금당주(金堂主) 미륵존상(彌勒尊像)의 화광(火光) 후기(後記)에 이르기를, ‘개원(開元) 7년 乙未(719) 2월 15일에 중아찬(重阿漉) 전망성(全忘誠, 즉 全志誠)이 그의 죽은 아버지 인장(仁章) 일길간(一吉干)과 죽은 어머니 관초리(觀肖里) 부인을 위해서 공손하게 감산사(甘山寺)와 석미륵(石彌勒) 하나를 만들고, …’ (중략)… 미타불(彌陀佛) 화광 후기에 이르기를, ‘…(중략)… 또 석미타(石彌陀) 하나를 만들어 죽은 아버지 인장 일길간을 위하여 모셨다…’(하략)…(寺在京城東南二十許里. 金堂主彌勒尊像火光後記云, 開元七年乙未二月十五日, 重阿漉全忘(志)誠, 爲亡考仁章一吉干, 亡妣觀肖里夫人, 敬造甘山寺一寺石彌勒一軀, …’ (중략)… 彌陀佛光後記云, ‘…(중략)… 仍造石彌陀一軀, 奉爲爲亡考仁章一吉干. …’(하략)…). 이 감산사 미륵보살과 아미타불상(국보 제81호, 82호)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두 불상의 광배 뒤에 새겨진 불상조성기 명문의 일부가 위의 『삼국유사』에 인용되어 있다.

118) 『三國遺事』 卷3 「塔像」 第4 「南白月二聖 努矜夫得 怛怛朴朴」 條 : 以丁酉歲(757), 遣使創大伽藍, 號曰白月山南寺. 廣德二年甲辰(764)七月十五日, 寺成, 更塑彌勒尊像, 安於金堂, 額曰現身成道彌勒之殿, 又塑彌陀像, 安於講堂, …(중략)… 額曰現身成道無量壽殿.)

119) 문명대, 위의 논문, p. 158.

마제전 본존의 석조 좌대가 그 흔적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불교사학계에서는 법상종이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대현과 진표의 두 계통이 하나로 합쳐진 것으로 본다¹²⁰⁾. 특히 법상종이 크게 융성했던 고려 중기에 들어와서는 미륵이 주불로서 신앙되는 것은 변함이 없었지만, 공통적으로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해 아미타정토가 신앙되었고, 아미타정토를 회구하는 신앙에서도 진표 계통의 점찰회(占察會)가 널리 베풀어졌다¹²¹⁾. 또한 불교미술사학계에서도 현존하는 유물이나 금석문을 통해 고려 중기 법상종 미술에서는 진표계 법상종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동화사 염불암의 마애아미타불상과 미륵보살상은 진표계 법상종 사찰에서 미륵존상과 더불어 아미타불을 조성한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¹²²⁾.

이상과 같은 고려시대 법상종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서탑 중수기에 나오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전기의 무량수전은 현재 수마제전에 봉안된 아미타여래좌상이 봉안된 불전이었을 것이다. 나아가 동화사를 창건한 심지의 출신과 가람조영의 지원 세력, 팔공산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수마제전 석조 불대좌의 존재 등을 종합해 보면, 9세기 동화사 창건 당시부터 금당 후방에 아미타불을 봉안한 강당이 건립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동화사 극락암 일곽의 가람 구성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기 전까지 법상종 사찰로서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후의 재건 과정에서 기존의 주불전이었던 미륵당은 새로 조성된 대웅전 일곽에 지어졌고, 원래 자리에는 아미타삼존상을 봉안하는 극락전이 건립되었다. 그 결과 조선 후기 동화사는 대웅전 일곽에 새로 조영한 미륵전의 존재를 통해 통불교 가람의 틀 속에서 법상종 사찰의 흔적을 일부 남기게 되었지만, 당초 사찰의 중심영역이었던 금당암 일대는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하는 불전만 2동이 있는 아미타신앙 도량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전후에 재건된 극락암 일곽이 아미타신앙 전수 도량으로 변모하게 된 것은, 조선 후기 불교계의 사상 및 신앙의 경향과 전란 중에 팔공산 동화사가 관군과 의승군 및 의병의 활동 거점으로 이용되었던 사실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조선 후기 불교계를 이끌었던 휴정의 사상은 선 중심의 교선일치에 염불을 더해 선·교·염불의 삼학일치론이었다. 휴정은 마음으로 불국정토를 생각하고 입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 염불이라 하여 자성미타(自性彌陀)의 정토관을 제창했다¹²³⁾. 그 결과 사찰에서는 선·교의 수행과 더불어 염불수행의 대상으로 아미타신앙이 성행하여, 다수의 미타탱(彌陀幀)이 조성되고, 아미타를 지송하는 염불회가 지속되고 만일회(萬日會)가 성행했다¹²⁴⁾. 이러한 경향 속에서 17-18세기 동안 특히

120) 김남훈, 위원 논문, p. 148.

121) 김남훈, 「고려중기 불교와 법상종」, 『한국사론』 28,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2. 2., pp. 148.

122) 최성은, 「고려 중기 법상종 사원의 불교조각」, 『미술자료』 제194호, 국립중앙박물관, 2018., p. 50.

123) 정병삼, 위의 책, pp. 489-490.

124) 정병삼, 위의 책, p. 580.

동화사를 비롯한 팔공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남지역에서 아미타신앙이 크게 유행하였고, 현존하는 이 시기에 제작된 아미타불화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영남지역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 배경으로 임진왜란 당시 팔공산 동화사가 관군과 의승군, 의병이 왜적에 대항했던 거점이었고, 전후의 동화사 재건을 의승군을 지휘했던 유정을 비롯한 휴정 계통의 문도들이 주도하면서 동화사에 전쟁에서 죽어간 고혼(孤魂)의 명복을 빌고 극락왕생을 염원하기 위한 도량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²⁵⁾.



일제강점기 동화사 극락암 일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사진)

「중창년대성공인원별록」에 따르면 전후의 금당암 일곽 재건은 1715년(숙종 41) 향로전(香爐殿) 건립¹²⁶⁾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일제강점기 동화사 전경 사진에는 극락전 동남쪽에 정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이 보이는데 이것이 향로전으로 추정되며, 다시 그 동편으로 ㄷ자형의 배치를 갖는 요사가 위치해 했다. 기록상으로 금당암 일곽은 전라 뒤에 복구된 후로 가람이 소실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진에 보이는 가람이 18세기 전반에 복구된 금당암 일곽의 모습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후로 향로전을 비롯한 요사채 일곽의 전각들은 모두 철거되고 1976년에 금당선원이 신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극락전의 건축적 특징

동화사 금당암 극락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단포계 팔작지붕 불전으로, 통일신라시대

125) 17-18세기 동화사와 팔공산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영남지역의 아미타신앙과 미술 및 배경에 대해서는 유경희, 「동화사 <아미타불회도>를 통해 본 18세기 팔공산 지역 아미타불화의 조성배경」, 『얼린정신 인문학연구』 15(1), 2014. 6., pp. 235-258 참조.

126) 康熙五十四年乙未(1715) 成金堂香爐殿, 化主 儀元.

9세기 전반 동화사 창건 이래 금당이 있던 자리에 위치한다. 현재의 극락전은 임진왜란 발발 이듬해인 1593년(선조 26) 왜적의 병화로 소실된 불전의 기초를 이용해 1622년(광해군 14)에 건립되었다. 이후 일제강점기 1937년의 중수가 확인되고, 해방 후 1974년에서 1976년 사이의 금당암 일곽의 요사를 해체하고 금당선원을 신축 할 때 일부 보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1995년의 지붕 변화 보수 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기단은 화강석을 다음은 지대석과 면석, 갑석으로 마감한 가구식 기단으로, 면석에는 기둥을 돌을새김하였는데, 현존하는 통일신라시대 당탑의 기단과 동일한 양식으로, 9세기 전반 동화사 창건 당시의 유구로 판단된다. 전면에는 지대석 외곽으로 다시 장대석 모양으로 가공한 석재를 두르고 내부에 흙과 자갈을 채워 낙수받이 시설처럼 만들어 두었는데, 둘레의 석재 가공 상태가 일정하지 않고, 쇠시리를 정교하게 새긴 부재도 많이 섞여 있어, 당초의 시설이나 이중기단의 흔적으로는 보기 어렵고, 다른 전각의 해체 부재를 재사용해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단은 정면 중앙에 한 곳, 동측면에 두 곳 설치되어 있는데, 모두 소맷돌은 없고 장대석만 쌓아 만들었고, 후면과 서측면에는 없다.



극락전 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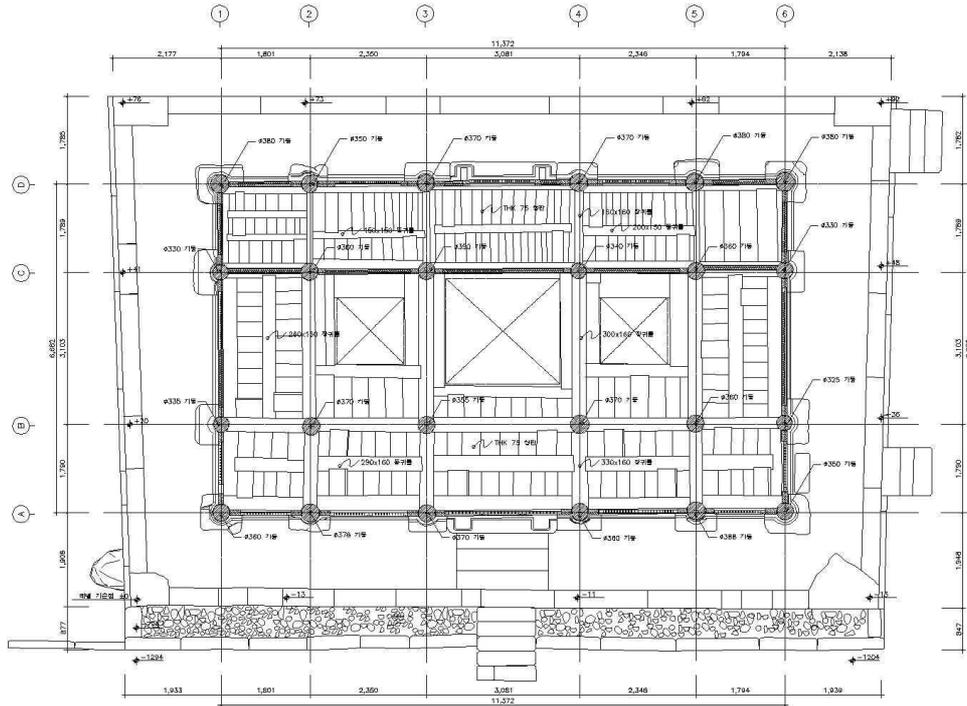
극락전 초석과 신방석을 새김한 고맥이석

초석은 방형으로 다듬은 초석 위에 원형의 주좌와 고맥이좌를 돌을새김했고, 기둥 사이에도 모두 고맥이석이 가 잘 남아있으며, 정면과 배면 어칸의 고맥이석에는 신방석을 돌을새김했는데, 역시 모두 통일신라시대 창건 당시의 유구로 판단된다.

기단과 초석의 잔존 상태로 보아, 현재의 극락전은 통일신라시대 9세기 전반에 창건된 불전의 기단과 초석을 그대로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현재 건물의 규모와 기둥 배치는 창건 당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다. 신방석의 위치로 보아 9세기 전반 창건 당시에는 정면과 배면 어칸에만 신방석 위에 신방목을 놓고 판문을 달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현 건물의 배면 어칸에는 신방목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임진왜란 뒤에 극락전이 지어졌을 때에도 배면 어칸의 문은 판문으로 되어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평면은 3×1칸의 내진 사방 둘레로 동일한 간살이를 갖는 퇴칸을 구성하여 정면 5칸, 측면 3칸의 주당을 구성하였다. 간살이의 구성은 정면 어칸은 3,070mm, 양협칸은 2,365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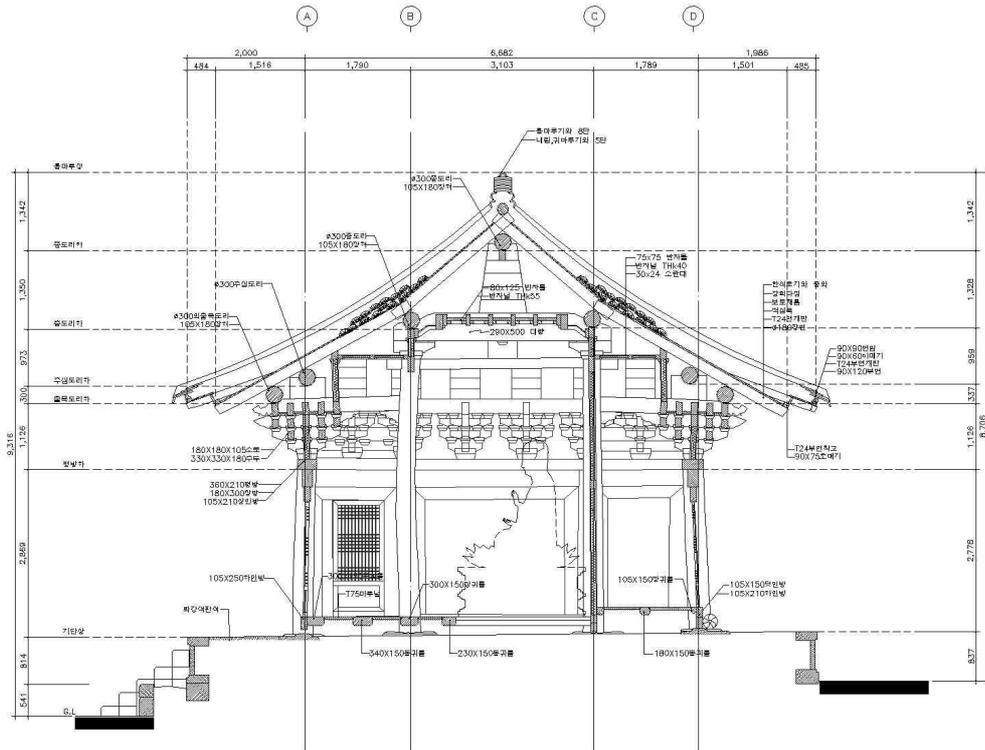
퇴칸은 1,797mm로 중앙에서 좌우로 가면서 점차 간살이를 줄였고, 측면의 어칸과 퇴칸의 간살이는 각각 정면의 어칸, 퇴칸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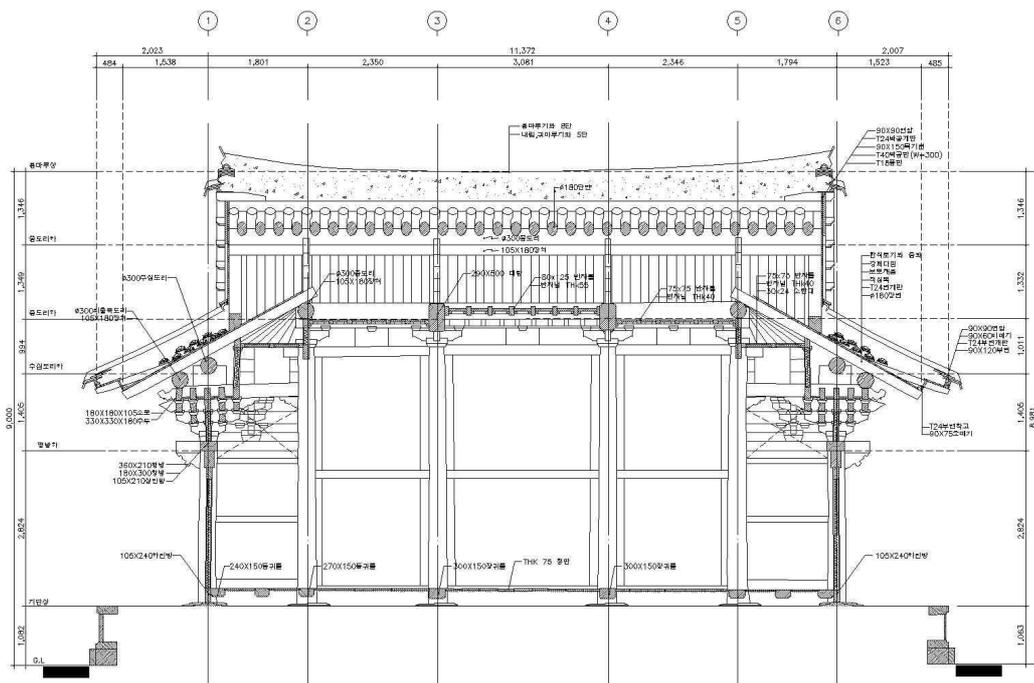
극락전 평면도

내부의 기둥배치는 이주나 감주가 없는 정치법으로 되어 있고, 고주로 둘러싸인 내진 3칸에는 아미타삼존의 불보살상을 각 칸마다 한 구씩 배치했다. 그 결과 불전 내부의 예불 공간은 조선시대 여타 불전에 비해 매우 좁게 되었다. 이러한 주방구성과 불단의 구성은 고대의 불전에서 볼 수 있는 평면 형식인데, 통일신라시대 창건 당시의 기단과 초석을 그대로 이용한 결과이다. 불단 뒤의 후불벽은 5칸 전체에 걸쳐 설치해 내부공간을 완전히 구획하여 후면 퇴칸 공간은 수납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탕화가 없는 좌우 끝 퇴칸의 벽은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를 짚는데, 후불벽을 기준으로 앞쪽과 뒤쪽 퇴칸 부분의 마루 바닥 높이가 다르고, 귀틀과 청판을 짜는 방식도 다른 점, 그리고 목재의 상태를 보더라도 마루의 후대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마루 하부에는 방전이 깔려있는데, 이 방전은 임진왜란으로 가람이 소실되기 이전부터 바닥에 깔려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으로 9세기 전반 창건 당시의 기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현재의 불단 하부에 창건 당시 금당의 본존불이었던 미륵존상을 봉안했던 기초가 남았을 가능성도 크므로, 향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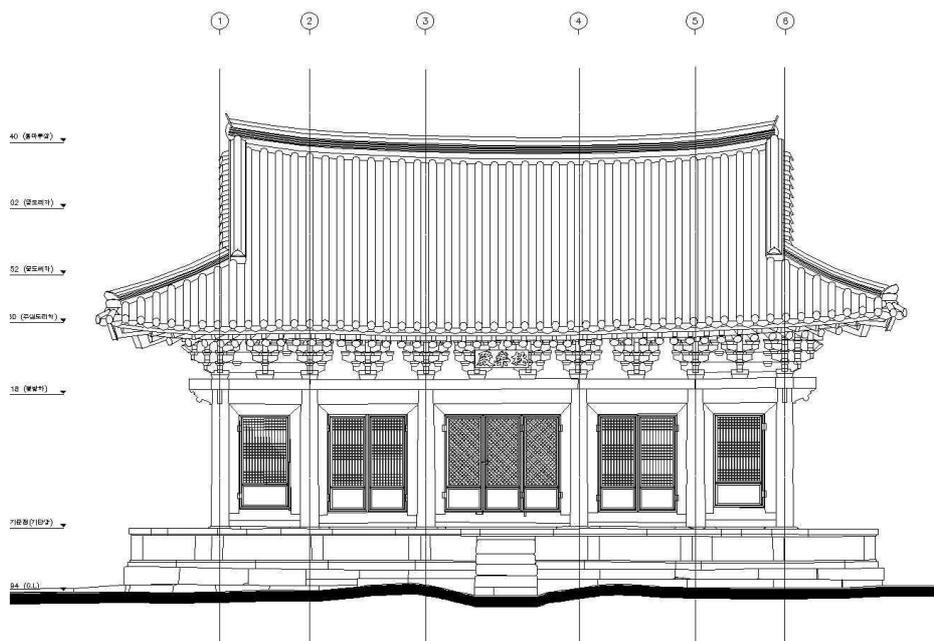
극락전 종단면도



극락전 횡단면도

기둥은 모두 약한 민흘림을 갖는 원기둥인데, 내진 부분에는 고주를 세우고 수장폭 단면의 창방으로 고정된 다음, 주두와 보아지를 짜올리고 대들보를 걸어 삼량가를 구성했다. 이 둘레로 외진 평주를 세워 퇴칸을 구성하고, 외진 평주와 내진 고주 사이를 뒷보로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오량가 가구를 완성했다. 사면 둘레의 퇴칸 크기가 모두 같아 모서리칸의 평면이 정방형을 이루기 때문에, 외기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내진의 좌우 양단의 전후 고주를 연결하는 보를 굴도리 단면으로 만들어 걸고, 그 위에 추녀와 측면서까래를 걸었다. 이것 역시 고식의 가구법으로, 통일신라시대 창건 당시 건물의 기단과 초석 배치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외진 평주 상부에는 창방을 결구해 축부를 고정하고, 위에 평방을 놓고 주두를 올려 다포식 공포를 구성했다. 포작의 배열은 기둥 상부에 주상포를 놓고, 주간포는 정면과 배면, 양측면의 어칸에만 2구씩 놓고, 나머지 칸에는 모두 1구씩 배치했다. 그 결과 정면의 어칸과 협칸, 퇴칸, 그리고 측면의 어칸과 퇴칸의 포작 간격이 조금씩 다르게 되었다. 고대 건축의 기둥 간격에 17세기 다포식 공포를 구성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면상의 공포대 구성 의장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주칸마다 포작의 폭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주상포에서 행공첩차의 길이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처리가 보인다. 이 건물을 조영한 목수의 치밀한 설계 솜씨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극락전 정면도

공포의 내·외부 의장은 네 면 모두 동일하다. 내·외2출목으로 내·외부 모두 초제공과 이제공의 끝을 양서나 초각 등의 장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교두형으로 간략하게 만든 점이 특징적이다. 나머지 제공의 외부 처리를 보면, 주상포에서는 교두형 이제공 위에 삼

분두형 삼제공을 놓고 부재폭 그대로 내밀어 끝을 직절한 보머리를 받고, 주간포에서는 삼분두형 삼제공 위에 초각한 운공을 올려 처마도리를 받았다. 내부 처리는, 주상포에서는 삼제공을 초각한 보아지 형태로 하고 뒷보를 받았고, 주간포에서는 끝을 초각한 삼제공 위에 삼분두로 처리한 운공을 올리고 내목상벽을 받았다.

이 건물의 공포에서 또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귀포를 포함해 네 모서리 퇴칸 8곳에서, 주상포, 주간포, 귀포의 초제공과 이제공의 주심첨차가 각각 단일 부재로 된 병첨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지붕에서도 선자연과 추녀가 구성되어 가장 큰 하중이 걸리는 모서리칸 부분의 주상포, 주간포, 귀포가 일체화 되어 수직·수평 하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이처럼 공포와 같이 제공의 끝을 교두형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본 건물 외에도 동화사 일주문(1680), 동화사 금당암 수마제전(1702), 대구 동구 팔공산 복지장사 대웅전(1659), 경산의 환성사 대웅전(1635), 영천의 은혜사 백흥암 극락전(1643), 청도 운문사 비로전(구 대웅전, 1653)과 관음전(18세기), 칠곡의 송림사 대웅전(17세기)과 대둔사 법당(18세기), 경남 산청의 율곡사 대웅전(1679), 양산의 통도사 극락전(18세기) 등 17-18세기에 걸쳐 팔공산 인근 및 영남 지역에 조영된 불전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건립시기로 보면 1622년에 지어진 본 건물이 가장 빠르다. 그리고 이중에서 귀포와 인접한 주간포의 주심첨차, 혹은 주심첨차와 출목첨차에 병첨을 사용해 일체화 시킨 방식은 은혜사 백흥암 극락전, 동화사 일주문, 율곡사 대웅전, 운문사 대웅전 등에서도 볼 수 있는 기법이다. 당시 특정 계보의 승장 집단에 의해 조영되어 뚜렷한 지역성을 구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극락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고적도보』제12책, 1932 수록)

지붕의 처마는 사면 모두 겹처마로 되어 있는데, 특히 처마 부분은 창호와 더불어 일체

강점기 이후 큰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1932년에 간행된 『조선고적도보』 제12책에 실린 사진을 보면, 부연 평고대와 착고가 한몸으로 된 통평고대의 고식 기법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평고대와 착고가 별재로 되어 있다. 사진의 부연 단부는 길게 소매걸이가 되어 있어 경쾌한 맛을 내고 있는데, 현재는 끝부분에만 소매걸이 처리가 되어있어 본래의 맛을 잃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사진에는 처마의 양곡과 안허리곡이 현저하고, 네 귀에서 길게 뻗어 나온 추녀를 활주로 받치고 있으며, 부연의 초장과 이장 사이에 새발부연이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현재는 새발부연이 없고, 사례 길어도 짧아진 것으로 보이며, 추녀도 제거되어 있다. 그 결과 현재의 처마는 전체적으로 양곡과 안허리곡은 이전에 비해 약해진 상태이다.

창호 부분의 변화도 큰데, 현재는 정면의 전체 칸, 측면의 전면 퇴칸, 배면의 어칸과 양협칸에 문이 설치되어 있다. 정면 어칸에는 세 짝 빗살청판분합문, 양협칸에는 두 짝 세살청판분합문, 퇴칸과 측면의 전퇴칸에는 외짝 세살청판문이 설치되어 있고, 배면에는 어칸과 양협칸의 세 칸 모두 두 짝 세살청판분합문이 달려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면의 창호 구성은 현재와 사뭇 다르다. 우선 모든 문 하부의 청판 구성이 한 단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것과 다르게 두 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살의 형태도 이전의 형태를 보면 어칸에는 꽃살, 나머지 칸에는 만살로 되어있어, 이후에 문이 완전히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87년 촬영 극락전(김연삼 촬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상과 같이 처마와 창호에서 확인되는 일제강점기 이후의 변화는 1987년에 촬영된 사

진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는 1937년의 중수 혹은 1974년에서 1976년 사이의 금당암 일곽의 정비 및 금당선원 건립 때로 추정할 수 있겠으나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내부 천장은 전체적으로 우물반자로 되어있는데, 공간의 위계에 따라 천장의 위치와 의장을 달리 하였다. 먼저 외진보다 내진 부분의 천장 높이가 더 높게 했고, 내진 중에서도 본존 아미타불이 위치하는 어칸부분의 천장을 협시불이 봉안되는 양협칸보다 더 높게 만들었으며, 단집은 따로 만들지 않았다. 반자의 소란 형태도 차등을 두었는데, 내진의 어칸에는 초각한 소란을 사용했고, 협칸에는 귀접이형 소란으로 우물을 꾸몄고, 둘레의 퇴칸 부분에는 장식의 없는 단순한 소란으로 청판을 받도록 했다.

5. 종합의견

동화사 금당암 극락전은 통일신라시대의 9세기 전반에 심지왕사가 가람을 창건한 당시의 위치에, 당시의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는 기단과 초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부에 17세기 전반의 목조건축을 현재에 전하고 있다. 창건 당시의 기단과 초석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감주나 이주 없이 내외진으로 이루어진 평면의 구성과, 내진의 사방 둘레에 동인한 기둥 간격의 퇴칸을 둘러 공간을 확장하는 방식의 상부 목조가구의 기본 틀 역시 고대의 기법이 남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마루바닥 하부에도 방전이 깔려 있는 등 고식의 기법이 많이 남아있다. **(1 역사적 가치- 시대성), (3 학술적 가치- 특이성)**

기단부의 잔존 상태로 보아, 아미타삼존상이 안치된 현재의 불단 아래에는 9세기 전반 창건 당시 금당의 주존불이었던 미륵존상을 봉안했던 기초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통일신라시대 법상종 사원의 가람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단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3 학술적 가치- 연구 기여도)**

현존하는 상부의 목조건축은 문헌기록을 통해 건립연대가 1622년으로 명확히 확인된다. **(3 학술적 가치- 명확성)** 현존하는 임진왜란 이후에 재건된 조선후기 불전 중에서는 건립 시기가 빠른 편에 속하며, 처마와 창호, 단청 등에서 일제강점기 이후의 개변이 확인되지만, 전체적인 구조와 의장은 건립 당시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고, 건물을 이루는 부재간 및 전체적인 비례가 미려함을 잃지 않고 있다. **(3 예술적 가치- 우수성)**

극락전의 공포 의장과 구조 역시 주목할 만하다. 먼저 고대의 기둥 간격 위에 17세기의 다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침차 길이의 조정을 통해 공포대 구성의 의장적 통일성을 확보한 점에서 이 건물을 조영한 목수의 탁월한 실력을 엿볼 수 있다. **(3 예술적 가치- 우수성)** 그리고 제공의 내외부 끝을 교두형으로 처리하고, 추녀와 선자연이 걸리는 모서리 부분 퇴칸의 공포에 병침을 사용하는 방식은, 17-18세기 팔공산을 중심으로 영남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기법으로, 특정 지역에서 활동했던 기술자 집단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어 학술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다. (3 학술적 가치- 대표성, 지역성, 연구 기여도)

이상과 같이 동화사 극락전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승격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평가함.

3.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대구 동구 소재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6호 「동화사수마제전」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21년 건축문화재분과 제5차 회의(2021.05.20.)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21.05.28.~'21.06.26.)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6호 「동화사수마제전(桐華寺須摩提殿)」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6
 - 지정일 : 1986. 12. 05.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大邱 桐華寺 須摩提殿)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6
 - 소유자(관리자) : 팔공총림 동화사(팔공총림 동화사)
 - 시대/연대 : 1465년(세조11) 건립 / 1702년(숙종 28) 중창
 - 수 량 : 1동
 - 지정면적 : 18,748㎡(보호구역 12,014.25㎡)
 - 구조/형식/형태 : 다포계 한식목구조 맞배지붕
 - 재 질 : 목재, 한식기와

라. 현지조사의견(2020.06.30.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06.30	대상문화재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 ○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대구 동화사 극락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 년 4 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조 사 자 : ○○○, 한국건축사, ○○대학교, 교수
2. 신청종별 : 보물
3. 문화재명칭 :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大邱 桐華寺 須摩提殿)¹²⁷⁾
4.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 1길1(도학동 36)

5. 연 혁 : 동화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로 2012년에 총림¹²⁸⁾으로 승격되었다. 493년(신라 소지왕 15) 극달화상(極達和尚)이 창건하여 ‘유가사(瑜伽寺)’라 부르다가 832년(흥덕왕 7)에 심지왕사(心地王師)가 중창할 때 절 주위에 오동나무¹²⁹⁾ 꽃이 만발하여 ‘동화사(桐華寺)’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이중환(李重煥, 1690~1756)의 『택리지(擇里志)』(1751년)에서도 “동화사는 신라 때 중인 진흥(振興)이 지팡이를 공중에 날렸더니 지팡이가 여기 떨어지므로 드디어 절을 세워 거주하였다. 지형이 둘러 겹쳤고 집들이 광장하여 예로부터 유명한 중과 계행을 닦는 자가 많았다.”라는 창건 연기와 규모에 대한 기록이 있다. 동화사의 창건연대와 관련 기록은 몇 가지 의문점을 갖게 한다. 먼저 493년 창건 연대는 신라가 불교를 공인(527년)하기 이전인 점, 두 번째는 중국에서 7세기 후반 성립한 법상종의 성격을 나타내는 유가사(瑜伽寺)라는 사명을 사용했음이고, 세 번째는 동화사 경내에서 5세기 대의 유구 및 유물은 찾아 볼 수 없고, 현재 극락전 영역에 금당암 3층석탑(9세기 후반), 비로암 3층석탑과 석조비로자나불(863년)이 남아 있음이다. 이로 보아 실증적 사료가 아닌 구전에 따른 단순 전래 기록임을 짐작할 수 있는바 5세기 창건으로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실질적인 창건 시기는 832년 심지왕사(心地王師)가 중창한 때로 봄이 옳다고 생각된다. 창건 이후 고려 1190년(명종 20) 보조국사 지눌(普照國師 知訥, 1158~1210)이 동화사 중창, 1294년(충렬왕 20) 홍진국사(弘眞國師, 1228~1305)가 입적하고 그의 유지를 받들어 1298년에 중창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가장 많은 불사가 이루어졌다. 1465년(세조 11) 금당(극락전)중건과 수마제전 건립, 1591년(선조 24) 비로전 건립,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사명당 유정(泗溟堂 惟政, 1544~1610)이 동화사에 승군사령부 설치, 1600년(선조 33) 금당 중건, 1606년(선조 39) 대웅전 건립, 1608년(선조 41) 미륵전 중건, 1618년(광해군 10) 종각 건립, 1622년(광해군 14) 극락전 중창, 1629년(인조 7) 극락전 아미타삼존불상 조성, 1699년(숙종25) (대)금당의 후불탱과 사천왕탱 조성, 1702년(숙종 28) 극락전 중수와 금동불 조성하고 수마제전 중창, 1703년(숙종 29) 수마제전 후불탱화 조성 및 불상 개금, 1725년(영조 1) 대웅전 및 요사 화재, 1727~1732년 대웅전 중창(추정), 1852년(철종 3) 금당

127)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6호

128) 대한불교 조계종 총림 :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수덕사, 동화사, 범어사, 쌍계사. 백양사는 2019년 11월에 총림 해제됨.

129) 산신각 앞에 수령 200년 가량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동나무(일명 : 삼지대사 나무)가 있음.

암 서탑 중수, 1887년(고종 24) 금당 아미타극락회상도와 대웅전 신중도 조성하였다. 이후 1902년(고종 39) 금당암 동탑 수리, 1957년 금당암 서탑 해체수리, 1967년 금당암 서탑 수리, 1974년 금당암을 해체하고 1976년에 금당선원으로 증·개축, 1990년 설법전 중건·동화문 건립·동화지 조성, 1992년 통일약사여래대불 조성·통일기원대전 건립, 2005년 염화실 건립, 2012년 국제관광 선 체험관(현 불교문화관) 건립, 2014년 예경실 개축, 2015년 사찰음식체험관을 신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혁을 통하여 수마제전은 1465년 건립된 후 1702년에 중창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 후 연혁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1998년¹³⁰⁾에 수리가 이루어져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6.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동화사는 ‘신라오악(新羅五嶽)’¹³¹⁾ 중에서 중악인 팔공산(八公山)¹³²⁾의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팔공산은 한반도의 큰 지맥인 백두대간의 줄기가 남으로 뻗어 내린 태백산에서 곧장 남쪽으로 내려온 낙동정맥(洛東正脈)이 보현산(普賢山) 부근에서 서남쪽으로 달리면서 이어진 화산(華山)에서 뻗어 나온 장엄수려한 명산이다. 대구의 진산인 팔공산은 근교에서 가장 높은 산림청 선정 100대 명산으로 비로봉(毘盧峰)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로 16km에 걸친 능선 경관이 아름답다. 팔공산에는 남쪽 동화사를 중심으로 동쪽 은해사(銀海寺), 서쪽 파계사(把溪寺), 북쪽 군위삼존석굴(제2석굴암)을 비롯한 부인사(符仁寺), 송림사(松林寺), 관암사(冠岩寺) 등 이름난 사찰과 암자들이 산재해 있는 유명한 불교문화의 성지로 불국토를 이루고 있다.

동화사는 팔공산 남부지역의 완만한 경사 지형지세로 주능선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좌우로 뻗어 내린 내·외 청룡과 내·외 백호가 감싸 안고 있다. 동화사의 형국은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것 같다하여 금봉포란형(金鳳抱卵形), 봉황포란형(鳳凰抱卵形), 봉소포란형(鳳巢抱卵形)으로 불리어진다. 이런 연유로 일주문은 봉황문(鳳凰門), 대웅전 진입누각은 봉서루(鳳棲樓)라 명명했다. 동화사는 현재 보물 14점, 등록문화재 1점, 시도문화재 20점을 보유하고 있는 대구·경북 대표 사찰로 불교계를 선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7. 건축현황 및 특징 :

팔공총림 동화사의 가람배치는 선원(금당선원 구역), 율원(비로암 구역), 강원(대웅전·통일대불 구역)영역과 선체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성 시기는 금당선원·비로암·대웅전·통일대불·선체험 순이다.

130) 변화보수 : 연목 일부 교체

131) 신라의 산악숭배사상에 따라 다섯 山嶽(東嶽 吐含山, 北嶽 太白山, 中嶽(父嶽, 公山) 八公山, 西嶽 鷄龍山, 南嶽 智異山)을 대상으로 정하여 제사를 지낸 산으로 팔공산과 지리산은 고려시대에도 나라의 제사 대상이었음.

132) 경상북도립공원(1980년 5월 지정)

진출입로는 옛길과 1990년에 새로 신설한 두 길이 이용되고 있다. 옛길은 남편 멀리 있는 ‘팔공산 동화사 봉황문(八公山 桐華寺 鳳凰門)’이라 편액한 일주문을 지나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옹호문을 통하여 대웅전으로 이어진다. 새길은 차량 출입을 고려한 진입 도로로 팔공산 도로를 따라 가다가 오른쪽으로 돌아들면 보이는 서편 동화문과 저수지를 지나서 대웅전 영역으로 이어진다.

현재의 중심 영역은 중정식 가람배치를 이루고 있는 대웅전 일원이며, 수마제전은 금당선원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금당영역은 옹호문 앞 마당의 우측길을 따라가다가 극락교를 건너면 보이는 동쪽 산자락으로 난 길로 가면 작은 협문이 있다. 협문을 지나서 왼쪽 편 계단을 오르면 극락전이 직면하고 그 좌우에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¹³³⁾이 있다. 수마제전¹³⁴⁾은 극락전 우측 뒤편 제일 깊은 곳에 있고, 바로 앞 오른쪽에 금당선원이 있고 그 앞으로는 화선당·요사채 1·요사채 2가 서향하여 남쪽으로 줄지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요사채 두 채는 철거(2018년)하고 금당선원(2020년)을 새로 지었다.

수마제전은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의 다포형식 건물이다. 정면과 측면의 간살이 같은 정방형으로 양측면과 배면에는 간주가 있다.

내부는 간주열 조금 뒤쪽에는 원형에 가까운 팔각형 석조대좌 위에 아미타불을 봉안하고 우물마루를 깔았다. 불상 위쪽만 천장을 조금 밀어 넣고 그 앞에 간략한 운궁형 단집으로 꾸몄다. 현재 마루는 귀틀 구성과 청판의 짜임과 부재 상태로 볼 때 오래된 것 같지는 않다.

기단은 자연석을 약한 전저후고의 지형에 따라 쌓은 모습이 바른층에 가까우며, 초석은 덩벙주초다.

기둥은 모두 약한 민흘림을 둔 원주로 간주의 직경이 본주보다 반 정도 작다. 간주머리가 창방에 턱맞춤 되어 있는데 맞춤부가 정교하지 못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아 후대에 세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창호는 정면에만 4분합급널교살 여단이문이 달려 있고 나머지는 창호를 설치하지 않았다. 창호틀을 구성하고 있는 부재의 풍화마모 상태와 교살의 평밀이 등으로 보아 후대에 개체한 것으로 짐작된다.

공포는 내외2출목 다포형식으로 내외출목수가 적고 같다. 주간포는 정·배면에 각각 2구씩 배열되어 있다. 첨차는 마구리 단부는 직절하고 그 밑면은 교두형으로 깎았다. 출목 첨차에 공안을 두었는데, 이는 흔치 않은 고식¹³⁵⁾에 속한다. 살미는 4제공으로 외·내

133) 보물 제248호(1963. 01. 21 지정)

134) 대구광역시문화재자료 제16호

135) 서울 숭례문(국보 제1호), 영천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국보 제14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8호), 영주 부석사 조사당(국보 제19호), 예산 수덕사 대웅전(국보 제49호),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보물 제1995호) 등

부살미 모두 분리형이다. 외부살미는 1·2제공은 교두형이고 3제공은 삼분두이며, 4제공은 운공형이다. 내부살미는 정면과 배면을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정면은 외부와 동일하게 하고, 배면은 1·2제공은 교두형으로 하고 3·4제공은 직절형으로 하였다. 귀포는 좌우대가 병침과 도매침으로 짜져 있는데, 내부는 주간포까지 이어 건설하게 한 점이 돋보인다. 다포계에서 내외출목수가 적으며 같고, 외부·내부·귀포가 교두형인 살미는 17~18세기의 건물¹³⁶⁾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다포계 맞배집은 귀포를 평주포와 같이 구성하는데, 이 건물은 평주와 달리 귀한대를 사용한 특이한 예로 주목된다.

상부가구는 2중량 5량 가 구조로 일반적인 도리 구성과 달리 내목도리 위치상에 중도리가 있다. 측면이 단칸이거나 간살이 작은 다포계 건물에서 내목도리를 둘 경우 중도리와 근접하게 되어 상호 간섭으로 인한 수평적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도리가 내목도리 위치에서 이중적 역할을 하게한 복합가구법이라 생각된다. 이런 모습은 안성 석남사 영산전, 영주 성혈사 나한전, 해남 미황사 대웅전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¹³⁷⁾ 한편 중도리를 내목도리로 보고 3량 가로 볼 수도 있으나 이 경우는 종보에 결구된 중도리가 내목도리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5량 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량 위에 방형동자주를 2단으로 중첩된 종보의 겹친 위치에 세워 받치고 종보 위에는 판대공을 놓았다. 판대공 상단에 얹힌 삼각형 소슬 받침재가 솥을합장과 중도리를 받고 있다. 주심도리 뺄목 부분에는 아래를 초각한 승두가 보인다. 솥을합장은 뿌리가 중도리 옆면에 결구되어 있고 솥을재가 직선형이다. 솥을합장은 고려와 조선 전기의 주심포계 건물¹³⁸⁾에서 주로 나타나며, 다포계 건물¹³⁹⁾에서도 조선 전기 건물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천장은 내목상벽 위에 보와 도리 방향으로 부재를 결구하고 층단으로 구성한 우물반자다. 불상 위쪽은 위계를 고려하여 특별히 화려하게 장식하고 운공형 달집을 설치하였다.

옥개부는 겹처마 맞배지붕으로 양측면에 풍관이 설치되어 있다.

8.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 동화사 수마제전은 고려시대와 조선전기의 주심포계와 조선전기 다포계 건물에서 나타나고 있는 솥을합장과 공안 첨차, 17~18세기 다포 건물의

136) 부안 개암사 대웅전(보물 제292호, 17~18세기), 구례 화엄사 대웅전(보물 제299호, 17~18세기) 등이 유사하다.

137) 안성 석남사 영산전(1565년 중건, 보물 제823호), 영주 성혈사 나한전(1634년 중창, 보물 제832호), 해남 미황사 대웅전(1754년 중수, 보물 제947호)

138)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조사당, 예산 수덕사 대웅전, 영천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 강릉 임영관 삼문, 황주 성불사 극락전 등

139) 안동 봉정사 대웅전, 서산 개심사 대웅전, 서울 숭례문, 황주 성불사 응진전, 황주 심원사 보광전, 평양 보통문 등

내외 동일 2출목과 교두형 첨차, 귀포 구성과 단칸 건물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내목도리와 중도리의 복합구조 가구법 등이 양식적 특징이다.

이런 양식은 보물로 지정된 기존 단칸 건물¹⁴⁰⁾과는 또 다른 특이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물로서 손색이 없다고 판단된다.

140) 창녕 관룡사 약사전(보물 제146호, 1609년 중창, 주심포 맞배지붕), 순천 송광사 약사전(보물 제302호, 1636년 중건, 다포 팔작지붕),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 6. 30.	대상문화재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아래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아래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아래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아래 참조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아래 참조		
종합의견		아래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 환경

동화사 극락전은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동화사1길 1)에 위치한 팔공산의 남쪽 중앙 양지바른 곳에 자리하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 9교구 본사이다. 대구광역시청에서 21.5km 거리에 있는데, 북동쪽 대구국제공항 방향으로 공항로교차로에서 팔공산IC 이시아폴리스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3.6km 가서 팔공로 동화사 갓바위 방면으로 좌회전 후 6.7km 이동한 후 다시 팔공로197길 좌회전 후 499m 이동 팔공산로 좌회전 하여 3.4km 이동 팔공산로 좌회전 후 1.1km 이동 동화사2길 통일대불 동화사 방면으로 우회전 후 697m 이동 좌회전하여 200여m 이동하여 위치한다. 다른 길은 팔공산로에서 동화사2길 통일대불 동화사 방면으로 가지 않고 직진하여 봉황문으로 거쳐 1.1km 거리에 위치한다. 동화사에 진입하는 길은 일주문을 지나 옹호문으로 이어지는 계곡의 오솔길과 서쪽의 팔공산 순환도로와 연결된 새 길로 접근할 수 있다. 일주문을 지나 옹호문에 이르는 오솔길이 주진입로이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참배객을 위해 새로 조성한 서쪽 길은 팔공산 순환도로에서 400~500m 오른 곳에 매표소와 신축한 일주문을 따라 왼쪽으로 돌아가면 봉서루 앞 마당으로 이어진다.

팔공산(1,193m)은 대구광역시의 북쪽에 병풍처럼 둘러있는 대구의 진산으로 대구·칠곡·군위·경산·영천에 걸쳐 있으며, 최고봉인 비로봉(毘盧峰)을 중심으로 동봉(東峰:1,155m)과 서봉(西峰:1,041m)의 양 날개를 펴고 있다. 남동쪽으로는 염불봉(念佛峰)·수봉(壽峰)·인봉(印峰)·노적봉(露積峰)·관봉(冠峰) 등이 이어져 있고, 서쪽으로는 파계봉(把溪峰)을 넘어 가산(架山)에 이른다.¹⁴¹⁾ 수려한 산세를 배경으로 사시사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영남 지방의 최고 영산으로 불렸다. 팔공산은 공산(公山)·부악((父岳)·중악(中岳)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중악은 신라 왕실의 오악(五岳)의 하나로 정기적인 제사를 지낸 곳으로 붙여진 이름이며¹⁴²⁾, 조선시대까지는 ‘공산’이라고 불렸다. 동서로 병풍처럼 둘러싸인 팔공산의 봉우리에서 발원하는 청간수(淸澗水)가 많은 계곡을 형성하고 있다. 팔공산의 북쪽사면에는 남천(南川), 위천(渭川) 등이 발원하고 서쪽 한천(漢川), 동쪽으로 신녕천(新寧川) 등과 남쪽으로 문암천(門岩川)이 흘러 금호강(琴湖江)으로 흐른다. 동화사는 대구시 북구와 동구, 칠곡군 가산면과 동명면, 군위군 부계면, 경산시 하양읍, 영천시 와촌면에 걸쳐져 있다. 동화사는 영남 지역의 명산인 팔공산의 비로봉에서 동봉과 서봉으로 날개를 펼치고 있는데, 동봉에서 다시 남향하여 낙타봉 자락과 염불봉으로 갈라지며 염불봉에서 다시 1.4km 정도 맥이 이어지는데 가운데에서 주맥은 남서향으로 뻗어내리고 1.4km 거리에서 남서향으로 동화사의 좌청룡으로 감싸

141) 네이버 지식백과, 팔공산도립공원, 두산백과 참조

142) 삼국사기 권32. 제사지(祭祀志), 신라는 산악을 신격화하여 호국신군으로 받드는 산악숭배사상으로서 삼산(三山)과 오악(五岳)을 두었는데, 이를 대사와 중사로 표현하여 국가 최상의 제전으로 삼았고, 곧 신라의 대사삼산(大祀三山)과 중사오악(中祀五岳)은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동시에 확장되는 신라세력을 상징하는 신라 최고의 호국성신(護國聖神)이었다고 한다.

돌고, 비로봉에서 남쪽으로 뺀 낙타봉 자락이 남쪽으로 흘러 우백호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 맥은 팔공산 주능선이 험하고 거친 세를 보이지만 남으로 뺀 맥은 기운을 정제하고 순환하여 동화사 대웅전 뒤까지 입수(入首)한 형국이다. 주맥에서 뺀어나간 좌우의 산들은 내외로 겹쳐져 단정한 자세로 명당 주위를 에워싸고 있으며, 터의 특성은 포근하여 단정하다고 한다. 동화사의 형국을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으로 비유하는데,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터는 대단히 상서로운 자리이다.¹⁴³⁾ 그리고 염불봉에서 샷갓봉까지를 맥을 보면 염불봉에서 1.4km 정도 거리의 남서쪽으로 힘차게 뺀 맥을 주맥으로 보고 샷갓봉 자락을 좌청룡, 동화사 대웅전 자락을 우백호로 보는 형국도 상서로운 자리를 하고 있다. 동화사 대웅전 자리에 못지않은 좋은 형국을 하고 있어 현재의 동화사 이전에 자리로 추정된다. 동화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 9교구 본사로 일제강점기에 31본산의 하나였고 상당수의 말사와 주변에 부도암(浮屠庵), 양진암(養眞庵), 염불암(念佛庵) 등 여러 부속 암자를 거느리고 있다.

동화사의 첫 번째 산문인 ‘팔공산 동화사 봉황문’이라 편액한 일주문을 지나 대웅전의 정문인 옹호문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은 산세를 따라 길게 조성되어 있으며 많은 비석과 석탑들이 산재해 있다. 주진입로인 오솔길을 따라 가다가 당간지주와 비석을 지나 조금 올라가면 갈림길이 나온다.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돌다리를 건너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대웅전의 정문인 옹호문에 이른다.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접어들면 당간지주와 도학동 석조부도를 끼고 돌아가면 극락전 영역으로 이른다. 동화사의 가람배치는 현재의 중심 영역인 대웅전 영역과 옛 중심영역인 금당암(金堂庵)으로 불리는 극락전(極樂殿)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극락전 영역은 금당(金堂)이 사찰의 중심영역이었던 창건 당시의 영역으로 추정된다. 대웅전 영역은 정문인 옹호문(擁護門)을 지나 들어서면 마당의 왼쪽 단 위에 요사채, 화장실 등이 있고, 오른쪽에 설법전, 원음각 등이 있다. 옹호문과 마주한 마당 앞쪽에는 봉서루(鳳棲樓)를 루하진입 하여 마당을 중심으로 정면에 대웅전이 있고, 좌측에 심검당과 법화당 등과 우측에 화엄당이 배치되어 중정형 사찰을 이루고 있다. 대웅전 후면으로 영산전, 조사전, 산신각(山神閣), 칠성각(七星閣) 등이 좌우로 배치되어 있다. 대웅전 영역의 배치구조는 옹호문, 봉서루,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주축과 이에 직교하는 부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웅전은 주축의 중심깊은 곳에 자리한 중심전각으로 다른 전각을 배치하지 않고, 주축과 직교하는 부축 좌우에 심검당이나 화엄당 등을 배치하고 뒤로 산신각, 조사전, 칠성각 등을 배치하고 있다. 개울 건너에 있는 극락전 영역은 동화사 당간지주를 따라 우측으로 돌아가면 금당(金堂)인 극락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동서삼층석탑이 있고, 극락전의 북동쪽으로 수마제전(須摩堤殿)을 남향으로 배치하였고, 수마제전의 앞쪽에는 금당선원(金堂禪院), 그 좌측에는 좌선당, 요사채 2채,

143) 봉황은 길상스러운 새로 산세의 단정함과 수려함이 빼어나고 명당 주위의 청룡이나 백호가 여러 겹으로 명당을 감싸 안아 좋은 기운을 갈무리하고 있을 형국에 붙인다.

화장실 등이 서향하여 배치하고 있다. 대웅전 영역의 극락교 건너편 동쪽에 자리한 극락전 영역의 배치구조는 극락전 아래 수평으로 긴 마당으로 형성된 진입공간, 극락전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동서삼층석탑을 배치한 금당영역 그리고 그 뒤로 수마제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당 영역은 극락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주축은 극락전 영역이 되지만 지맥을 보면 수마제전이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조선고적도보의 사진과 비교해보면 대웅전 영역은 옹호문으로 들어서 넓은 마당이 조성된 것과 달리 전각이 배치되어 점차 공간이 확장되는 구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극락전 영역도 석축에 의한 단의 구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며 현재보다 배치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항공사진을 통해서 1969년도까지는 극락전 영역의 옛 가람배치가 잘 유지된 것으로 보이나 이후에 건물들의 배치에 변화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통일신라시대 863년에는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과 비로암 상층석탑 등이 모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의 자료들은 도굴로 인하여 거의 분실하였고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 이르기까지 도굴당한 유물의 양이 많다고 한다. 여러 차례 중창과 중건을 거듭하며 대웅전·극락전을 비롯하여 연경전, 천태각 등 20여 채의 큰 규모의 건물이 있다. 동화사 수마제전은 <팔공산 동화사 사적기>에 「중창년대성공인원연록」 기록에 과거 고금당이라고 불리워졌으며, 1465년(세조 11) 건립되었고, 1702년(숙종 28) 중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수마제전 내부에는 금동아미타불상이 봉안되어 있는데, 대좌는 팔각으로 된 석조대좌이며, 건물의 규모에 비해 아미타불상은 대형에 속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상호는 다소 살이 오른 듯하며 단정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허리가 길게 표현된 것이 형식화 된 모습이다. 수인은 아미타불의 중품하생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조선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현황을 보면 1732년 8번째 중건한 대웅전·극락전을 비롯하여 연경전, 천태각 등 20여 채의 큰 규모의 건물이 있고, 당간지주(보물 제254호), 비로암 3층석탑(보물 제247호), 동화사 입구 마애불좌상(보물 제243호),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244호),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보물 제248호), 도학동 승탑(보물 제601호), 동화사 대웅전(보물 제1563호)과 동산문화재로 사명당 유정 진영(보물 제1505호), 대구 동화사 목조약사여래좌상 복장전적(보물 제1607호), 대구 동화사 아미타회상도(보물 제1610호), 동화사 보조국사지눌진영(보물 제1639호), 동화사 삼장보살(보물 제1772호), 동화사 지장시왕도(보물 제1773호) 총 13점의 보물이 있으며, 동화사 극락전(유형문화재 제11호), 문화재 팔공산 마애약사여래좌상(유형문화재 제3호), 동산문화재로 동화사 보조국사진영(유형문화재 제53호) 등 12개의 유형문화재와 동화사 수마제전(문화재자료 제16호)과 동산문화재로 동화사 대웅전 삼장탱(문화재자료 제37호), 동화사 죽암당대선사선찰진영(문화재자료 제39호) 등 7개의 문화재자료가 있다. 이밖에 1992년 높이 30m나 되는 석불인 약사대불을 조성하였다. 대웅전 및 극락전 영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산세에 맞지

얇는 거대한 조성 등은 우리에게 반성을 하게 한다. 통일신라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2010년 통계로 6,153,293㎡ 면적에 30동의 한국 불교문화의 대표적 유산들이 산재해 있다.

2. 연혁·유래 및 특징

동화사는 493년(신라 소지왕 15) 극달화상이 창건하여 ‘유가사’라 부르다가 832년(흥덕왕 7) 심지대사가 중창할 때 오동나무가 겨울에 상서롭게 꽃을 피웠다 하여 ‘동화사’라 불렀다고 한다. 863년(경문왕 3)에 동화사 금당 앞에 삼층석탑과 비로암 삼층석탑을 건립하여 민애왕의 명복을 빌었다고 한다. 신라 말 934년 영조선사, 고려 1190년(명종 20) 보조국사, 1298년(고려 충렬왕 24) 홍진국사에 의해 각각 동화사가 중창과 금당암 서탑 중수 등이 있었다. 조선시대 1465년(세조 11)에 수마제전 건립, 1544년(중종 39) 지조의 금당암 동·서탑 중수하였다. 1600년(선조 33) 금당암 영역에 건립한 극락전을 금당이라고 칭하고 서일이 제일 먼저 금당을 복구하고 있다. 1606년(선조 39)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유정이 해인사에 있던 학인·천령·해진·옥보 등을 보내 중창을 돕게 하였다. 1622년(광해군 14) 극락전을 중창하고 1629년(인조 7) 극락전의 아미타삼존불상을 조성하여 봉안한다. 1699년(숙종 25)에는 극락전과 수마제전의 후불탱을 봉안한다. 이후 1702년(숙종 28) 극락전을 중수하고 금동불을 조성하여 봉안하고, 청운이 화주가 되어 수마제전을 중창한다. 1703년(숙종 29) 극락전의 후불탱화를 조성하여 봉안한다. 1794년(정조 18) 대일, 영파 등이 금당암 동탑 중수하고, 1838년(헌종 4) 퇴은, 무익이 금당을 중건하였다. 그리고 1852년(철종 3) 금당암 서탑을 중수하였다. 1902년 금당암 동탑 수리, 1957년 금당암 서탑에서 사리장치와 석탑 중수기문 등 발견, 1966년 금당암 동탑의 사리장치 도굴, 1967년 금당암 서탑을 수리, 1968년 도난당했던 동탑의 삼층석탑 사리장치 동국대에 기증, 1974년 금당암 해체, 1995년 금당암 지붕 변화 등이 있었다. 사적기에 나오는 「중창년대성공인원연록」에는 극락전과 수마제전이 언급되지 않지만 고금당(古金堂)과 (대)금당 관련된 중건이 기록되어 전한다. 1699년과 1703년에 동화사 의균(義均)비구가 그린 아미타극락회도오 현진(玄眞)이 조각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미타삼존불상과 연가지어 불 때 수마제전은 고금당이며, 극락전은 (대)금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수마제전(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16호)은 1465년에 건립되고 1702년에 중창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수마제전은 극락전의 다른 이름으로 금당선원에는 2개의 극락전이 있는 형국이다. 이는 금당선원의 신앙이 아미타신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알려준다.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얼핏 보면 산신각으로 보일 정도로

작고 단출한 모습이다. 그러나 겹처마를 채택하고 내외 2출목의 다포식 공포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처님을 모신 전각으로서의 격을 살필 수 있다. 수마제전 내부에는 금동아미타불상이 봉안되어 있는데, 대좌는 팔각으로 된 석조대좌이다. 건물의 규모는 작는데 아미타불상은 대형에 속해 대조적이다. 상호는 다소 살이 오른 듯하며 단정하게 묘사되어 있다. 허리가 길게 표현된 것이 형식화된 모습이다. 오른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중품하생인의 수인을 하고 있는데 조선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팔공산 동화사 사적기>를 보면 임진왜란 이후 동화사의 중건은 1600년(선조 33)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때 서일(瑞一)은 제일 먼저 금당을 복구하고 있는데, 금당은 지금의 극락전 일대이니 금당은 극락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건금당(建金堂)’이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 건립에 가까운 중창이 아닌가 한다. 이곳은 심지왕사가 동화사를 개창했던 장소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극락전을 가장 먼저 복구했으리라 생각된다.¹⁴⁴⁾ 극락전 불상 봉안은 1629년(인조 7)에, 극락전과 수마제전의 후불탱 봉안은 1699년(숙종 25)과 1703년(숙종 29)에 모두 이루어진다. 사적기에 나오는 「중창년대성공인원연록」 기록에는 극락전과 수마제전이란 명칭이 등장하지 않지만, 고금당(古金堂)과 (대)금당과 관련된 중건 사실이 전한다. 1699년과 1703년에 동화사 의균(義均)비구가 그린 아미타극락회도오 현진(玄眞)이 조각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미타삼존불상과 연과지어 볼 때, 수마제전은 고금당이며, 극락전은 (대)금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금당, 즉 수마제전은 1465년(세조11)에 건립되어 1702년(숙종28) 청윤(淸允)이 화주가 되어 중창하였다고 전한다. 1703년에는 승변(勝卞)이 고금당의 후불탱을 조성하고 불상을 개금하였다. 수마제전 자리는 심지(心地)가 던진 불골 간자가 떨어진 창건 당시의 자리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고금당’이라는 명칭과 부합된다.

다음으로 (대)금당, 즉 극락전과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 직후인 1600년(선조 33) 서일(瑞一)이 금당을 건립하고, 1622년(광해군 14) 쌍순(雙淳)이 대금당 법전(法殿)을 중창하였다. 1629년(인조 7)에는 금당의 불상 3위가 조성되었고, 1699년(숙종 25) 대금당의 후불탱과 사천왕탱을 조성하였다. 1715년(숙종 41)에는 의원(儀元)이 화주(化主)가 되어 금당과 향로전을 낙성하였다.¹⁴⁵⁾

팔공산 동화사와 연관된 스님 중 초기 창건주는 극달화상, 심지대사가 있고, 중기의 중창주는 영조선사, 보조국사 지눌(1158~1210)¹⁴⁶⁾, 흥진국사(1228~1305)¹⁴⁷⁾, 사명대사 유정

144) 국립대구박물관, 『팔공산 동화사』, 그래픽네트, 2009년, p. 244

145) 같은 책, p. 58

146)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은 동화사 사적비에 1190년(명종 20) 동화사의 사찰 불사를 일으켰다는 기록을 통해 현재 조계종의 종조로 모셔지는 스님이 동화사에 10여 년을 주석하셨으며 그 이후에 승광사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147) 흥진국사 (1228~1305)는 동화사 사적비에 1298년(충렬왕 24) 오청하였다고 하는데, 팔공산 동쪽기슭의 영천 은해사(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도 1270년(원종 11)에 중창한 것으로 보아 당시 동화사와 은해사가 교구적 구분없이 팔공산의 사찰로서 한 집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나라에 들어가 만안사 당두의 청으로 「인완경」을 강의하여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으며, 1292년 고려의 국존에 봉해져 보자라는 법호를 받았고 동화사의 주지를 맡았다.

(1544~1610)¹⁴⁸), 인악대사(1746~1796)¹⁴⁹) 등이 있다. 근세에는 초대 종정을 지낸 석우스님과 효봉선사 및 성철선사 등이 팔공산과 동화사와 연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화사는 심지, 지눌, 사명 등의 선사가 주석하였고, 근세에 들어와서 석우, 효봉, 성철 스님 등이 결사한 장소다. 이는 동화사는 다양한 종파가 종의 본산으로 삼았으므로 다양한 인물과 관련되고 동화사가 금당을 중심으로 하는 선찰이라는 것이다.

건축형식을 확인하기 위한 동화사 극락전과 관련된 자료는 조선고적도보, 동화사 실측보고서¹⁵⁰), 1998년도 수리자료¹⁵¹), 동화사 극락전 정밀실측보고서¹⁵²) 등이 있다.

동화사 수마제전은 다포식의 단층 맞배지붕 건물로서 평면은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의 정방형 평면의 건물이다. 내부에는 정면(4,300mm)과 측면(4,360mm)비는 1:1 정도로서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동일형으로 보여진다. 내부에는 우물마루이고 중앙에서 약간 뒤로 물러 불좌를 배치하고 있다. 평면에서 특징적인 것은 정면을 제외한 측면과 후면에 직경 240mm 정도의 간주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간주 머리는 창방 배 부분에 조금 물려 있고 머리와 허리 뿌리 부분에는 인방 부재들의 단부가 결구되어 있다.¹⁵³) 간주를 세운 정확한 원인은 알기 어려우나 간주가 없어도 하중을 견디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보의 춤을 키우면 간주가 없이도 하중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간주를 세우고 있는 것은 이전 형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단은 자연석 허튼층쌓기 기단으로 정면은 세벌대, 측면과 후면은 이벌대 정도이고 기단상면은 강회다짐으로 마감하고 있다. 기단의 형성은 지형에 맞추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단 위에 각 기둥 마다 자연석 초석을 놓고 있다. 초석 위에 우주 4본과 간주 3본의 민흘림이 있는 두리기둥을 세우고 있다. 기둥의 직경은 우주는 500mm 정도이고 간주는 1/2인 240mm 정도이다. 기둥머리 사괘에 장부로 결구한 창방은 정면과 측면

148) 사명대사 유정(1544~1610)은 동화사 사적비에 1606년(선조 39) 사명대사가 동화사를 육창하였다고 하다. 1578년부터 팔공산·금강산·청량산·태백산 등을 다니면서 선을 닦았다고 한다. 유정이 동화사에 주석한 것은 1606년으로 말년에 동화사의 중창을 위해 고군분투 하였는데, 이는 전쟁으로 폐쇄해진 동화사를 중창하여 선종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며, 유정의 수행시절의 동화사와의 인연과도 연관되어 생각되어진다.

149) 인악대사(1746~1796)는 22세에 벽봉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고 비슬산, 계룡산, 황악산 등에서 강석을 열어 많은 후학을 지도하다가 동화사로 돌아왔다고 한다.

150) 대구직할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동화사 실측조사보고서, 대구직할시, 1993년

151) 1998년 동화사 극락전 관련 국가기록원 자료로는 동화사 극락전 보수사업 설계도서 검토의뢰(DA0212976), 동화사 극락전 보수공사 설계도서 검토 회신(DA0215976), 동화사 극락전 및 수마제전 보수공사 착공보고(DA0211608) 등이 있다.

152)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 극락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동구, 2009

153) 정·측면 1칸 형식의 복지장사 지장전(구대웅전)이 유사한 기법을 보이고 있다. 정면과 배면은 두 개의 방형 간주를 설치하고 이 간주의 뿌리에는 하인방을 설치한 뒤 옆면에 주선을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좌·우측면에는 한 개의 원형 간주를 설치하였으며, 인방의 결구기법은 정배면과 동일하다.

좌·우측면의 간주 머리 부분은 창방의 장부와 결구되어 있으며, 정면과 배면의 방형 간주는 창방 밑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결구형태이다. 수마제전의 좌우측면과 배면의 간주의 결구는 복지장사 지장전의 정배면 간주 결구와 유사하며 차이점은 간주 머리에 짧은 사괘를 만들어 창방의 배에 조금만(약 2치 정도) 물려 있다는 점이다.

주간에 4개가 사용되고 있다. 창방의 단부는 폭을 줄여 뿔목을 만든 뒤 마구리에 초각을 하고 있다. 창방의 단면은 사방을 모두 둥글게 굴러진 형태이고, 기둥과는 기둥감싼형으로 결구하고 컷기둥의 사괘 안에서 반턱맞춤으로 결구하고 있다. 창방 위의 평방은 정면과 측면의 주간마다 4개가 사용되고 있다. 컷기둥 위에서 반턱맞춤으로 결구되고, 도리방향 평방이 받을장, 보방향 평방이 업힐장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측면에 공포를 놓지 않으면 평방이 없거나 단평방으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수마제전은 전후면 우주에 평방을 걸고 있다. 정면과 측면의 평방은 통부재로 되어 있으나 후면의 평방은 단면이 적은 두 개의 부재를 길이 방향으로 맞대어 놓고 직각으로 사각형의 산지를 쳐서 두 개의 부재를 하나의 부재처럼 만든 평방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평방은 북지장사, 송림사 대응전, 동화사 봉황문 등에 나타나고 있다. 사례들은 각원과 그 계파에서 건립한 불전에 해당하는 건물이다. 보 방향과 도리 방향 평방 뿔목의 상단을 가로질러 설치된 이방은 귀제공의 귀한대 외단을 아래에서 받치고 있다. 도리 방향으로 상부 하중을 효율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맞배지붕 형식 중에 귀포를 전각포로 설치하고 이방을 설치한 사례는 김천 직지사 일주문, 보은 법주사 일주문(1972년 개축되기 전) 등이 있다.

수마제전의 공포는 다포식으로 내외 2출목 5포작이다. 주상포는 정면과 배면에 각 2구씩 4구를 놓고 있다. 주간포는 정배면에는 2구씩 4구의 공포가 모두 배치되어 있으나 좌우측면에는 주간포를 놓지 않고 있다. 공포의 내외부 의장은 전후면 동일형으로 구성하고 있다. 공포의 특징은 다포계 맞배집에서 정배면의 우주 위에 있는 귀포는 일반적으로 평신포¹⁵⁴⁾를 놓는데 수마제전에서는 전각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기둥 위에 놓인 주두는 평주주두와 귀포주두는 같으므로 귀포주두와 간포주두를 사용하고 있다. 주두는 윗갈을 보와 도리 양방향으로 낸 네갈주두와 도리 및 보 그리고 대각선 양방향으로 같이 파져있는 육갈주두를 사용하고 있다. 귀포주두는 귀포가 전각포일 경우 보 방향, 도리 방향, 대각선 방향으로 육갈을 내야 하므로 보강하기 위하여 주간포나 평주주두보다 약간 크게 하기도 하지만 수마제전에서는 주두의 크기가 같다. 소로는 무옆갈 이갈소로, 외옆갈 이갈소로¹⁵⁵⁾, 외옆갈 사갈소로, 외옆갈 4모 접시소로를 사용하고 있다. 외옆갈 4모접시소로는 다른 소로보다 폭이 크며 귀 부분이 없다.

수마제전의 공포 의장은 정면과 후면이 동일한 전후면 동일형으로 제공살미 외부 의장을 사면과 내외부 모두 교두형으로 하고 있다. 정면 공포에서 주간포의 내외부 제공 구성은 모두 초제공과 이제공은 교두형, 삼제공은 삼분두, 사제공은 초각형이다. 주상포는

154) 주심포나 주상포, 주간포, 귀포 등은 공포의 위치에 따른 명칭이며, 평신포라 함은 공포의 형태에 따른 명칭이라 할 수 있으며, 살미와 첩차로 짜인 제공을 겹겹이 쌓아올려 만든 공포로 주상포나 주간포에 사용되며 살미와 첩차의 결구각도는 90도이다. 정대열, 「다포계 일주문의 건축형식에 관한 연구」, 박는, 대구대, 2014, pp.16.

공포의 결구형태를 기준으로 평신포와 전각포로 구분한 개념은 배병선의 「다포계맞배집에 관한 연구」, 박는, 서울대, 1993 연구에서도 사용되었다. 맞배집의 귀포가 평신포인가 전각포인가에 따라 구분하여 의장에 대해서 논하였다.

155) 주심 대소첩차, 전각포 초제공과 이제공의 주심 좌·우대의 첩차 쪽 단부에 사용하고 있다.

주간포와 외부의장은 동일하지만, 내부에서 다른데 주상포 4제공 위치에 제공이 아니라 보를 얹어 놓은 구성이기 때문에 주간포 내단부와는 차이가 있다. 배면 공포에서 외부는 정면과 동일한 교두형으로 내부도 정면 내부와 동일한 교두형 공포이다. 배면 공포도 정면 공포의 구성이 같지만 주간포 내단의 삼제공과 사제공이 직절형으로 되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불상이 바라보는 정면 내부는 삼분두와 초각으로 의장하고 불상의 뒷면인 배면 내부 쪽은 전면에 비해 의장을 간단하게 하고 있다. 전각포 외부의 귀한대 살미와 좌우대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주간포와 동일한 교두형이다. 귀한대에는 귀초제공, 귀이제공의 귀한대는 교두형이며 귀삼제공의 귀한대는 삼분두형으로 구성되고, 귀사제공의 귀한대는 생략되어 있다. 주심은 귀초제공과 귀이제공은 교두형, 삼제공은 삼분두형, 사제공은 초각형으로 주간포의 구성과 같으며, 귀한대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1출목은 귀이제공과 귀삼제공은 교두형, 귀사제공은 생략하고 있다. 전각포 내부의 귀한대와 각 출목은 교두형이다. 귀한대에는 초제공과 이제공은 교두형, 삼제공은 삼분두형, 사제공은 생략되어 있다. 보 방향과 도리 방향의 좌대와 우대는 동일한 형태와 결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수마제전은 도리 방향과 보 방향 좌대와 우대의 결구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은 컷기둥 위에 설치된 전각포 위에 보가 설치되기 때문이다. 전각포 주심의 도리 방향은 초제공과 이제공에 교두형 좌우대를 주심소침과 주심대침과 같이 2단으로 설치한 뒤 그 위에 장여를 놓고 있다. 반면 보 방향은 좌우대를 초제공과 이제공은 교두형을, 삼제공은 삼분두를 설치하고 그 위에 보를 설치하고 있다. 귀이제공의 외1출목은 도리 방향과 보 방향이 모두 도매침, 귀삼제공의 외1출목 열은 도리방향은 병침, 보 방향은 좌우대가 생략되어 있다. 내2출목은 보 방향이 도매침, 도리 방향은 인접 주간포와 병침으로 연결되어 있다. 수마제전의 전각포는 전체적으로 교두형의 병침을 사용하고 있으며 극락전의 전각포 의장과도 유사하다. 이는 팔공산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칠곡 송림사 대응전을 건립한 각원과 그 계파와 연관된 것으로 분석되어 승장의 교류가 빈번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마제전은 전각포 내외부의 좌대와 우대의 길이 및 결구 기법, 부재의 유무 등을 다르게 하여 전각포를 구성하는 특수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출목은 내외부 2출목의 내외 동일형이고, 출목간격은 내외 1출목(360mm)과 내외2출목(360mm 정도)로 내외출목간격을 같게 하고 있다. 침차는 주심침차와 출목침차의 단부 형태가 같으며 단부의 상부는 직절형, 하부는 호형으로 처리하고 있다. 침차의 구성은 주심과 내외 1출목을 대·소침차 2단으로 구성하고, 내외 2출목은 소침차 1단으로 장혀를 받치고 있다. 출목침차와 주심침차의 출목 길이는 주심침차가 출목침차 보다 약 100mm 정도 더 길게 처리하고 있다. 침차의 공간은 평신포의 주심 대소침에 공간을 새기지 않았고, 전각포 주심 좌우대에도 공간을 새기지 않고 있다. 평신포인 주간포 출목침차에는 모두 공간이 새겨져 있고, 컷기둥의 주상포인 전각포에는 좌우대 부재의 침차 부분에만 공간이 새겨져 있다. 이는 고

식의 기법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마제전은 다포계 맞배집으로 평방을 사면 주상과 주간에 모두 배치하고 있다. 주간이 정측면 한 칸이므로 주상포를 1구씩 배치하고, 정면과 배면 주간에는 주간포 2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좌우측면에는 평방이 배치되어 있지만 주간포를 놓지 않고, 우주상의 귀포를 전각포를 사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내2출목 장혀와 내목도리 받침장혀 사이에 설치된 내목상벽은 흠벽과 방형화반으로 구성되고 있다. 방형화반은 정배면 주간에 4개를 설치하고, 가운데 2개는 주간 지지요소로 정배면 주간포 위에 설치되고 있다. 주간의 양단부에 설치된 화반은 종량을 받치는 동자주를 겸하고 있다. 주간포 위의 내목상벽에는 제공의 중첩 없이 벽체만으로 천장과 공포대를 구분하고 있다.

가구는 2개의 대들보와 2개의 종보를 2단으로 구성한 2중량구조이다. 도리는 7개를 배치한 이중량 7량가 구조이다. 도리는 모두 굴도리의 외목도리(195mm), 주심도리(195mm), 내목도리(240mm), 종도리(240mm)로 구성되지만 내외목도리를 제외하면 극락전의 가구는 3량가이고 내목도리를 종도리로 사용하는 2중량구조이므로 5량가 계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내목도리를 종도리로 사용하는 가구기법의 다양성을 보여 주고 있다. 대들보 위에 놓인 종량의 종보를 상·하단 2단의 부재를 겹쳐서 종보를 만들고 있고, 종보의 동자주를 2개로 구성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종보의 상하단 부재의 구성방법은 폭이 제공폭과 동일한 하단부재는 내목도리 받침장여와 십자맞춤되고 내측으로 길게 빠져나와 상단 부재 단부의 아랫부분을 받치고 있다. 하단 부재의 아래 부분은 동자주와 같이 방형 화반으로 지지하고, 상단 부재는 하단 부재의 내측 단부 위에 놓여 대공을 받치고 부재 폭은 하단보다 크게 하고 있다. 또한 종보는 상단과 하단 2단으로 하단과 내목도리가 결구된 부분은 도리 방향으로 설치된 방형화반으로 지지하고, 상단과 하단이 위아래로 맞대어져 있는 부분은 보 방향으로 설치된 방형화반으로 지지하고 있다. 대들보 위에 놓여 있는데 화반형 동자주는 보 방향과 도리 방향으로 분리되어 지지하고 있다. 도리 방향 화반형 동자주는 내목도리를 받치고 있고, 보 방향의 화반형 동자주는 대들보 위에 위치하여 초방과 그 위의 종보를 받치고 있다. 종보 위의 대공은 3단의 각재로 만든 당초문을 양각한 방형 판대공 형식이다. 3단 판대공의 하단은 도리방향의 받침재 길이가 중단보다 짧으며 결구 부분의 하단 면은 소로 크기의 대접받침으로 받치고 있다. 중단은 하단과 같이 결구되어 있고 교두형의 단부를 가진 침차형의 부재와 십자맞춤을 하고 맞춤면의 아래는 상단과 마찬가지로 소로를 받치고 있다. 상단은 삼각형의 형태로 종도리 받침장혀와 직교맞춤을 하고 하단은 소로와 결구되고 있다. 대공의 보 방향과 도리 방향의 부재가 십자맞춤이 되는 부분의 하면은 특징적으로 상단, 중단, 하단 모두 소로를 결구하고 있다. 승두는 주심도리 뺄목 부분에 침차¹⁵⁶⁾ 형태로 나타나는데, 전면 우측 전각포의 승두는 아랫부분에 초각이 되어 있는

156) 건물의 이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부재인 것으로 판단된다.

것이 특징이다. 종도리와 내목도리 사이에 솥을합장은 상부는 종도리 옆면에 결구되고 뿌리는 내목도리 옆면에 결구되어 있다. 고려시대나 조선전기의 주심포계 건물¹⁵⁷⁾에서 주로 나타나고 조선 전기의 다포계 건물¹⁵⁸⁾에 보이고 있어 고식의 기법이 드러난다고 판단된다. 솥을합장의 뿌리가 내목도리 옆면에 결구되어 봉정사 극락전이나, 수덕사 대웅전의 솥을합장 결구기법과 같은 특징을 보이며, 솥을재가 직선형인 것이 다르다.¹⁵⁹⁾ 이러한 솥을재가 직선이고 솥을재의 뿌리가 내목도리 옆면에 결구된 것은 연한을 최소 조선 전기까지 올려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된다.

지붕가구인 처마는 전·후 2면으로 정면과 배면을 원형 서까래와 방형 부연을 사용한 겹처마 형식이다. 좌우측면은 도리뿔목 단부에 박공과 방풍판을 설치하고 있다. 연목은 모두 평서까래인 장연으로 이루어졌으며 장연은 종도리 위에서 엇걸이로 교차되고 단부와 마구리에는 끝건기와 빗자르기가 되어 있다. 연목 단부에 평고대를 걸고 부연을 올리고, 부연과 부연 사이 연골에는 부연 옆면에 홈을 파서 부연착고를 끼우고 부연개판을 덮고 있다. 부연은 끝단을 약한 끝건기와 옆볼떼기를 하였고, 마구리는 빗자르기를 하고 있다. 박공의 끝은 사절되어 있으며, 등 부분은 목기연, 박공개판과 결구되어 있다. 박공 폭은 상단부 폭이 하단부의 폭보다 좁은 편이다. 목기연은 단부를 끝건기와 옆볼떼기, 마구리 빗자르기가 되어 있다. 박공하단부의 목기연은 평고대 양단부를 박공면 밖으로 돌출 시킨 후 목기연처럼 마무리 하였다. 풍판은 판재를 도리뿔목과 도리뿔목 마구리 사이에 설치된 띠장에 여러 조각을 붙여서 상부는 지붕물매를 딸 형태를 잡고 하부는 중간 부분을 직선, 양단부는 직선에 가까운 약한 곡선으로 방풍판 하단부를 마감하고 있다. 수마제전의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용마루는 착고와 부고 위에 적새 7단, 내림마루는 내측은 부고 위에 적새 5단, 외측은 착고막이 위에 적새 5단을 올리고 솥마루장을 덮어 마감하고 있다. 기와골의 끝은 막새기와이고, 각 마루 기와의 단부는 망와를 올리고 있다. 망와 아래에는 용마루에 횡방향 머거불 1단, 내림마루는 횡방향 머거불 2단으로 마감하고 있다.

마루는 우물마루로 동귀틀 4개를 도리 방향으로 설치하여 청판을 끼워 넣었다. 귀틀은 변귀틀을 설치하지 않고 보 방향 하인방 옆면에 동귀틀의 단부를 결구하고 홈을 파서 청판을 끼워 넣었다. 동귀틀은 일반적인 폭보다 작아 변형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 천장은 우물반자 형식으로 내목상벽에 설치된 중앙 2개의 화반 상단에 방재를 보 방향으로 걸고 이 부재에 도리방향으로 전후 면에 두 개의 방재를 걸어 반자들을 구성하고

157)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성불사 극락전, 거조암 영산전, 부석사 조사당 등

158) 성불사 응진전, 심원사 보광전, 봉정사 대웅전, 개심사 대웅전, 서울 숭례문(흔적), 평양 보통문 등

159) 봉정사 극락전은 종도리와 중도리 중도리와 중도리 사이에도 솥을재가 결구되어 도리 간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영조법식에서는 ‘탁각(托脚)’이라고 한다. 수덕사 대웅전은 종도리와 중도리 사이에는 솥을재가 결구되어 있고, 중도리와 중도리 사이는 초방 즉 홍예초방으로 도리간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두 건물과 수마제전은 솥을대공의 결구기법에서 상당한 유사점을 보이고 있으며, 영조법식에서의 차수(叉手)와 탁각이라는 부재와 비슷하지만 결구기법에서는 차이가 있다.

있다. 가운데 부분은 함입시켜 높이 차이를 두고 반자대를 격자형으로 꾸미고 있다. 함입된 부분의 전면에는 염우판과 적첩판을 건너지른 운궁형 단집을 설치하고 있다. 수마제전은 불상의 위치를 기준으로 반자의 높이, 구성하는 우물의 열수, 크기 등을 조정하여 공간의 깊이감과 위계를 부여하고 있다.

창호는 전면에만 네짝 분합문을 설치되고 좌우측면과 후면에는 창호를 설치하고 있지 않고 있다. 네짝 분합문은 여단이문으로 빗살창이고, 문울거미는 윗막이, 문선, 아랫막이, 2단의 중간막이로 구성되는 2단 궁판으로 되어 있다. 극락전의 창호의 원형을 찾는 데 참조가 될 것이다. 정면의 인방과 문선 머리는 상인방과 반턱연귀맞춤, 뿌리는 하인방과 장부맞춤으로 되어 있다. 주선은 문선과는 옆면을 맞대고 기둥에는 옆면을 기둥의 흘림에 맞춰 그랭이를 떼서 상인방과 하인방 사이에 양단부를 장부맞춤 하고 있다. 양측면과 배면의 인방은 우주의 사이에 있는 간주를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고 우주와 간주를 결구하고 있다.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는 다음과 같다. 동화사는 팔공산에서 남으로 뻗은 맥이 대웅전 영역까지 입수한 형국으로 좌우의 산들은 내외로 겹쳐져 명당 주위를 에워싸고 있어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터라고 한다. 또한 염불봉에서 샷갓봉 사이에서 남서쪽으로 뻗은 자락의 극락전 영역을 중심으로 샷갓봉 자락과 동화사 대웅전 자락이 에워싸고 있는 자리에 좋은 형국을 하고 있다. 동화사의 가람배치는 현재의 중심영역인 대웅전 영역과 옛 중심영역인 금당암(金堂庵)으로 불리는 극락전(極樂殿)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극락전 영역은 금당(金堂)이 사찰의 중심영역이었던 창건 당시의 영역으로 추정된다. 금당 영역은 극락전을 중심으로 주축이 되지만 지맥을 보면 수마제전이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신라 493년(소지왕 15)에 극달화상이 창건하여 832년 심지왕사 중창, 863년에 동화사 금당 앞 삼층석탑과 비로암 삼층석탑 건립, 934년 영조선사 중창, 1190년 보조국사 중창, 1298년 ‘홍진국존진응탑비’건립, 1319년 금당암 서탑 중수와 사리, 조선시대 1544년 지조 금당암 동서탑 중수, 1591년 서일이 비로전 창건, 1600년 금당암 영역에 극락전(금당) 건립, 1606년 사명당 중창, 1622년 극락전 중창, 1629년 극락전의 아미타삼존불상 조성 봉안, 1702년 극락전 중수(금동불 봉안)와 수마제전 건립, 1703년 극락전 후불탱화 봉안, 1794년대일, 영파 등이 금당암 동탑 중수, 1838년 퇴은, 무익이 금당 중건, 1852년 금당암 서탑 중수, 1902년 금당암 동탑 수리, 1957년 금당암 서탑 수리(사리장치와 석탑 중수기문 등 발견), 1966년 금당암 동탑의 사리장치 도굴, 1967년 금당암 서

탑 수리, 비로암 삼층석탑 해체 보수, 1968년 도난당했던 동탑 삼층석탑 사리장치 동국대 기증, 1974년 금당암 해체, 1995년 극락전 지붕 변화 보수하였다. 동화사의 금당(극락전)은 1600년(선조 33) 서일이 금당을 건립하고, 1622년(광해군14) 쌍순(雙淳)이 중창한 후 1629년(인조 7)에는 불상 3위가 조성되고, 1699년(숙종 25) 후불탱과 사천왕탱을 조성하였다. 1715년(숙종 41)에는 의원(儀元)이 화주(化主)가 되어 극락전을 낙성하였다. 건립 당시부터 극락전을 금당(金堂)이라 했는데 수마제전을 ‘고금당(古金堂)’으로 기록한 것은 현재의 대웅전 영역이 중심인 것과 달리 창건한 이후 동화사의 중심은 금당암이었고 수마제전이 과거의 금당에 대하여 극락전은 건립한 것으로 확인된다. 동화사에는 극락전과 수마제전을 비롯한 13점의 보물, 12개의 유형문화재 그리고 7개의 문화재자료가 있어 문화적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동화사는 심지, 지눌, 사명 등의 선사가 주석하였고, 근세에 들어와서 석우, 효봉, 성철 스님 등이 결사한 장소다. 이는 동화사는 다양한 종파가 종의 본산으로 삼았으므로 다양한 인물과 관련되고 동화사가 금당을 중심으로 하는 선찰이다. 동화사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역사를 살필 수 있는 불교사적 위상을 살펴볼 수 있고, 불골 간자 봉안 그리고 미륵 신앙과 유식 사상이라는 사찰 전통 등을 지니고 있다.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에 대한 학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팔공산 동화사 사적기>에 나오는 「중창년대성공인원연록」에서 기록된 수마제전은 고금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1456(세조 11)년에 건립되어 1702(숙종 28)년에 중창하였다고 표기되어 있다. 이와 같이 1456년에 건립되고 1702년에 중창하고 있다. 수마제전을 ‘고금당(古金堂)’으로 기록한 것은 현재 대웅전 영역이 중심인 것과 달리 창건한 이후 동화사의 중심은 금당암이었다는 것이고, 극락전을 금당(金堂)이라 하고 수마제전을 고금당(古金堂)이라고 한 것은 이전의 금당이 수마제전이고 새로 건립한 금당이 극락전이라는 것이다. 수마제전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겹처마이며, 내외2출목의 다포식 공포이다. 내부에는 건물의 규모에 비하면 조선 초기에 제작된 금동아미타불상이 봉안되어 있어 특이하다. 교두형 공포의 사용, 솟을합장재의 사용, 대공 구성의 주심포 건축과의 유사성 등에서 고식기법이 잘 드러나고 있고, 정측면 1칸형 다포계 맞배집의 유일한 사례, 맞배형식에 귀포는 전각포 사용, 도리와 보의 지붕가구법 등에서 수마제전만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건축형식이나 사적기 등을 미루어 봤을 때 조선 중기 이전의 고식기법이 남아 있는 건물이므로 그 건축적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가구법이나 평면은 일반 다포계 불전건물들과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의 구조와 조형적인 특징에서 학술적인 가치는 다음과 같다. 수마제전은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의 교두형 계열의 내외2출목으로 팔공산 일대의 지역건

축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마제전에는 조선 초기에 제작된 금동 아미타불상을 팔각 석조대좌 위에 안치하고 있고 허리가 길게 표현하고 있다. 평면에서 정면을 제외한 측면과 후면에 간주를 세우고 있어 원인은 알기 어려우나 이전 형식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후면의 평방은 단면이 적은 두 개의 부재를 길이 방향으로 맞대어 놓고 직각으로 사각형의 산지를 쳐서 두 개의 부재를 하나의 부재처럼 만들고 있어 같은 형식이 북지장사, 송림사 대웅전, 동화사 봉황문 등에 나타나고 있다. 수마제전은 맞배지붕인데도 다른 건물에서는 볼 수 없는 귀포에 이방을 설치한 전각포를 사용하는 의장 및 구조적 역할의 독자성이 있다. 공포 의장은 정면과 후면이 동일한 전후면 동일형으로 제공살미 외부 의장을 사면과 내외부 모두 교두형이다. 킷기둥 위에 설치된 전각포 위에 보가 설치되기 때문에 도리 방향과 보 방향 좌대와 우대의 결구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각포 내외부의 좌대와 우대의 길이 및 결구 기법, 부재의 유무 등을 다르게 하여 전각포를 구성하는 특수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평신포인 주간포 출목첨차와 킷기둥의 주상포인 전각포에는 좌우대 부재의 첨차 부분에 공간이 새겨져 있어 고식의 기법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붕가구에서 중도리와 내목도리 사이의 솟을합장은 상부를 중도리 옆면에 결구되고 뿌리는 내목도리 옆면에 결구되어 조선 전기의 다포계 건물의 고식기법이 드러나고 있다. 솟을합장의 뿌리가 내목도리 옆면에 결구되고 직선재인 것은 최소 조선 전기까지 올려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지붕가구는 내목도리를 종보 양단부에 거는 중도리로 사용하고 있다. 대공 또한 판대공 형식에 당초문을 양각한 형태이지만 최상단재는 솟을합장재의 내반부를 받치고 있고, 장여 및 첨차, 소로의 결구기법은 주심포계 건축의 대공에서 볼 수 있는 결구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정·측면 1칸의 평면이므로 불상의 위치를 기준으로 반자의 높이, 구성하는 우물의 열수, 크기 등을 조정하여 공간의 깊이감과 위계를 부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은 역사적, 학술적, 조형예술적인 측면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 06. 30	대상문화재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 속	○ ○ 대학교	직위(직책)	부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별지		
	연혁·유래 및 특징	별지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별지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별지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09월 29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 현황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동화사(桐華寺)는 대구의 진산(鎭山) 팔공산(八公山)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팔공산은 대구의 북쪽 끝에 위치하여 서·북쪽으로 칠곡군 동명면, 군위군 부계면, 동·남 쪽으로는 영천시 신녕면과 청통면, 경산시 와촌면으로 이어진다. 통일신라의 오악(五岳)¹⁶⁰⁾ 중 중앙에 해당하는 산으로, 당시에는 중악(中岳), 부악(父岳) 혹은 공산(公山)이라 불렀고 신라 영토의 중심으로 인식되었으며, 팔공산을 배경으로 하는 달구벌(達句伐) 일대는 신문왕이 689년(신문왕 9) 이곳으로 도읍을 옮기려고 시도할 정도로 중요시 한 지역이기도 했다.

팔공산은 통일신라 이래 국내 대표적인 불교 성지의 한 곳으로, 통일신라 9세기 무렵 창건 이래 고려시대까지 법상종(法相宗) 사찰로서 미륵신앙의 성지로 이어져 오다가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로 유명한 동화사, 고려 초조대장경(初彫大藏經) 봉안처로 유명한 부인사(符仁寺), 지장신앙 도량인 북지장사(北地藏寺), 그리고 은해사(銀海寺, 영천), 송림사(松林寺, 칠곡) 등의 유서 깊은 사찰이 남아있고, 현존하지는 않지만 의상(義湘)이 창건한 화엄십찰(華嚴十刹) 중의 하나인 미리사(美里寺)가 있었다. 또 이들 사찰에 부속된 암자로 동화사 소속의 비로암(毘盧庵), 부도암(浮屠庵), 양진암(養眞庵), 염불암(念佛庵), 내원암(內院庵)과 은해사에 딸린 거조암(居祖庵), 백흥암(白興庵), 운부암(雲浮庵), 묘봉암(妙峰庵), 중암암(中巖庵) 등이 있다. 이밖에 산 곳곳에 약사신앙의 대상이었던 약사, 미륵을 비롯한 여래상이 존재하며, 특히 세간에 ‘갓바위 불상’으로 알려진 관봉(冠峯) 정상에 통일신라시대 석조여래좌상이 있는 선본사는 국내 최고의 기도처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2. 동화사의 연혁과 역사문화환경

현존하는 팔공산 동화사의 창건 내력을 전하는 자료는 『삼국유사(三國遺事)』(卷4 「意解」 第5 「心地繼祖」)를 제외하면 모두 18세기 이후의 것들이다. 이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사료가 1992년 대웅전 실측조사 때 종도리 받침 장혀의 홈에 서 발견된 1727년(영조 3) 「대웅전 중창 상량문」(慶尙左道大丘都護府北八公山桐華寺大雄殿重勑上樑文)¹⁶¹⁾으로, 여

160) 동쪽의 토함산, 남쪽의 지리산, 서쪽의 계룡산, 북쪽의 태백산, 중앙의 부악(父岳=팔공산)

161) 이 상량문은 1896년에 대웅전을 수리를 마치고 기문(「慶尙左道大丘都護府北八公山桐華寺大雄殿上樑改楫記文」)을 넣을 때, 기존의 1727년 중창 상량문을 새로 베껴 써서 함께 넣은 것이다. 1992년 실측조사 당시 이 두 개 외에도 1951년의 중수기문(「慶尙北道八公山桐華寺大雄殿重修記文」)까지 총 3개의 중창, 중수 기문이 발견 되었다.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동화사 실측조사보고서』, 대구직할시, 1993, p. 100.

기에는 중국 남조의 제(齊)나라 무제(武帝) 11년(493, 신라 소지마립간 15)에 신라의 보조화상(普照和尚)이 처음으로 절을 짓고 유가사(瑜伽寺)라 불렀고, 이후 당(唐) 대력(大曆) 7년(772)에 헌덕왕(808-826 재위)의 셋째 아들 심지왕사(心地王師)가 두 번째로 중창하고 동화사(桐華寺)로 개칭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우선 창건 연대인 제나라 무제 11년, 즉 493년은 신라의 불교 공인(527년, 법흥왕 14) 이전으로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당시의 개산조라고 하는 보조화상 역시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인물이며, 아마도 고려 후기 1190년(명종 20)은 그가 공산(公山) 거조사(居祖寺), 즉 지금의 은해사(銀海寺) 거조암(居祖庵)에서 정혜결사(定慧結社) 발표하고 선종 부흥의 계기를 마련한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 1158-1210)에 가탁하여, 조선 후기에 작성된 사찰 연혁의 대부분이 그러하듯, 사찰의 존립 당위성과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 연원을 막연히 올려 잡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왕사가 두 번째로 가람을 중창하고 사명을 지금의 동화사로 고쳤다고 하는 당 대력 7년, 즉 772년(혜공왕 8)은, 그 뒤에 이어지는 심지왕사가 808년부터 826년까지 재위했던 헌덕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과 시기적으로 서로 모순되므로 이것 역시 신뢰성을 잃고 있다.

위와 같이 493년에 보조화상이 유가사를 창건하고, 이를 772년 심지왕사가 중창하고 동화사로 개칭했다고 하는 창건 내력은 1732년에 편집·간행된 『팔공산동화사사적(八公山桐華寺事蹟)』(규장각 소장)과 이후의 관련 기록에도 반복되고 있다. 그러다가 1931년 김정래(金鼎來)가 비문을 지은 「팔공산동화사사적비(八公山桐華寺事蹟碑)」에는 493년의 유가사를 창건한 인물이 이전의 보조화상에서 극달화상(極達和尚)으로 바뀌고, 이를 심지왕사가 중창해 동화사로 개칭한 해를 832년(흥덕왕 7)으로 되어 있는데, 여전히 493년에 극달화상이 절을 짓고 유가사로 불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비문에서는 불일(佛日) 보조국사, 즉 지눌이 1190년에 동화사를 네 번째로 중창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동화사 관련 현존 사료 중 가장 후대에 작성된 이 비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내용으로 더욱 신뢰성을 잃고 있다.

한편 『삼국유사』 162)에는 헌덕왕의 아들 심지가, 금산사(金山寺)의 진표율사(眞表律師)가 속리산의 영심(永深)에게 전한 불골간자(佛骨簡子)를 다시 전해 받아 팔공산에 절을 세우고 봉안했는데 이 정리 동화사라고 한다. 즉, 신라 하대에 금산사 진표에서 비롯되는 법상종(法相宗) 법맥이 속리산 법주사(法住寺) 영심을 거쳐 팔공산의 심지에게 전해졌고, 심지가 동화사를 짓고 이 법맥 전수를 상징하는 진표 이래의 불골간사를 봉안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동화사 창건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며, 현 시점에서 『삼국유사』에 기록된 바에 따라 헌덕왕의 아들 심지가 9세기 무렵에 창건한 진표 계통의 법상종 사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현존 유구와 관련 사료를 종합해 보면, 심지가 창건한 가람의 당초 위치는 현재 대웅전을 중심으로 하는 동화사 영역이 아니라 그 동편 계곡 건너편에 위치

162) 『三國遺事』 卷4 「意解」 第5 「眞表傳簡」, 「關東楓嶽鉢淵藪石記」, 「心地繼祖」

한 금당암 일대로 추정된다. 현재의 대웅전 일곽에 관한 역사적 기록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확인되는 것이 전혀 없다.

한편 심지가 동화사를 창건하고 가람을 경영하던 시기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금당암 서남쪽에 위치한 비로암(毘盧庵) 삼층석탑(보물 제247호)에서 발견된 납석제 사리호.(보물 제741호)에 새겨진 「민애대왕석탑사리호기(敏哀大王石塔舍利壺記)」가 그것이다. 이 기문에는 경문왕(861-875 재위)이 839년에 살해된 민애왕(838-839 재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사후 24년 되는 해인 863년(경문왕 3)에 ‘동수(桐藪=桐華寺) 원당(願堂) 앞에 석탑을 세웠다(桐藪願堂之前, 創立石塔)’고 했다. 그리고 기문 말미에 건탑 공역에 관여한 승속의 직위와 이름이 적혀있고, 그중에서 나열된 승려들 이름 맨 앞에 ‘전지대덕(專知大德) 심지(心智)’가 나오는데, 학계에서는 이 심지를 창건주 심지(心地)와 동일 인물로 보고 있다¹⁶³. 현재 비로암에는 이 삼층석탑과 그 북쪽에 통일신라시대 양식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244호)을 봉안하고 있는 대적광전(大寂光殿, 18세기)이 남북축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는데, 이 대적광전 자리가 경문왕이 탑과 함께 건립한 원당이 있던 곳으로 판단된다. 즉, 지금의 비로암은 심지가 동화사를 창건해 주석하고 있는 동안, 경문왕의 발원으로 민애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863년에 건립한 원당 영역이다.

이상의 정황 종합해 보면 심지가 동화사를 개창한 시기는 9세기 전반 무렵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가 헌덕왕의 아들이었다는 점과, 동화사 창건 이후에도 경문왕이 발원하여 원당을 조성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화사는 창건 이래 신라 왕실로부터 지원을 받는 유력한 사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창건 이래 동화사는 고려시대까지 금산사, 범주사와 더불어 국내 불교계에서 범상종의 주요 사찰로 인식되고 있었던 듯하다. 위의 『삼국유사』에서 보듯, 진표계 범상종은 미륵과 지장을 모셨고, 미륵을 금당에 안치하는 주존불로 삼았다¹⁶⁴. 진표가 창건한 금산사나 영심이 창건한 범주사의 주존불이 모두 미륵불이었으며, 나아가 이 진표계 범상종의 법맥을 이어 받아 심지가 창건한 팔공산 동화사의 주존불도 역시 미륵불이었을 것이다¹⁶⁵.

이와 관련하여 『동문선(東文選)』(卷64 「記」)에 전하는 최치원(崔致遠)의 글 「신라수창군호국성팔각동루기(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에는 창건 직후 동화사의 미륵신앙을 추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908년(효공왕 12)에 중알찬(重闕絜) 이재

163) 김창겸, 「신라 승려 心地 연구 - 『삼국유사』 「心地繼祖」,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3. 4., p. 230. 그리고, 헌덕왕의 아들인 심지는 민애왕과 사촌 형제 사이이고, 석탑 건립을 발원한 경문왕(861-874 재위)은 민애왕에게 죽임을 당한 희강왕(836-838 재위)의 손자이다. 즉, 경문왕이 분열된 진골 귀족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민애왕의 원당을 발원했다는 평가가 있다. 국립대구박물관, 『팔공산 동화사』, 그래픽네트, 2009, p. 40.

164) 문명대, 「신라 범상종(유가종)의 성립문제와 그 미술(하) - 감산사 미륵보살상 및 아미타상과 그 명문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63, 역사학회, 1974. 9., p159.

165) 민병찬, 「동화사 비로암 석조여래좌상 연구」, 『팔공산 동화사』, 그래픽네트, p. 221.

(異才)라는 이가 불상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7구의 미륵상이 어깨를 밝고 몸을 포개고 북쪽을 향해 하늘로 높이 솟고(有七彌勒像, 累體蹈肩, 面北而立, 其高挂空), 또 나한이 현신하여 예언을 전하는 꿈을 꾸고 나서, 국가를 위해 불법이 널리 퍼지고 병화를 막는 염원을 담아 수창군(壽昌郡: 지금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대) 남령(南嶺)에 팔각등루(八角燈樓)를 세우고, 공산(公山: 팔공산) 동사(桐寺: 동화사)의 홍순대덕(弘順大德)을 초청해 좌주(座主)로 삼아 재를 베풀고 경찬했다(慶讚齋)를 베풀었다(建燈樓已, 至十一月四日, 邀請公山桐寺弘順大德爲座主, 設齋慶讚)고 한다. 동화사의 미륵불을 직접 다루는 내용은 아니지만, 미륵불 연기(緣起)의 누각을 완성하고 이를 기념하는 경찬 의례에 동화사 소속 홍순대덕이 의식을 주관하는 좌주로 초청되었다는 것은, 당시 동화사가 미륵을 주된 신앙대상으로 하는 법상종 사원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사적비(1931)에는 고려 초 934년에 영조(靈照) 선사가 가람을 확장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같은 사적비에 나오는 1190년 보조국사 지눌의 가람 중창설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고려 초 영조 선사의 가람 확장에 관한 설은, 『고려사(高麗史)』(卷第1「世家」第1, 太祖 10년), 『삼국사기(三國史記)』(卷第50「列傳」第10, 甄萱), 『삼국유사』(2卷「紀異」第2, 後百濟甄萱) 등에 나오는 927년(고려 태조 10) 지금의 팔공산 일대에서 고려의 태조 왕건과 후백제 견훤의 군대 사이에서 벌인 공산전투(公山戰鬪, 일명 公山桐藪戰鬪)에 관한 사실에 더해, 당시 왕건이 견훤에게 대패하고 몸을 피할 때 동화사의 사리탑에서 나온 빛을 따라 피신해 선사를 만나 화를 면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934년에 왕건의 도움을 받아 영조가 동화사의 가람을 확장했다는 이야기가 덧붙은 것이 요지이다. 공산전투를 기록하고 있는 『고려사』 등의 사서에는 영조라는 인물은 물론, 왕건의 도움으로 동화사 가람을 확장했다는 기록도 없다. 다만, 이 영조를 신라 출신으로 당(唐) 말에 중국에 건너가 설봉의존(雪峰義存, 827-908)으로부터 선법을 인가받은 진각대사(眞覺大師) 영조(靈照, 870-947)이며, 그가 유학을 마치고 신라로 돌아와 동화사를 중건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¹⁶⁶). 그러나 『송고승전(宋高僧傳)』(卷第13「習禪篇」3-6「晉永興永安院善靜傳13(附)靈照」)과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卷第18「杭州龍華寺眞覺大師靈照」)에 따르면, 진각대사 영조는 설봉으로부터 법을 인가받은 후 신라로 귀국하지 않고, 오월(吳越)의 충헌왕(忠獻王) 전씨(錢氏)가 항주(杭州) 창건한 용화사(龍華寺)에 머물다가 그곳에서 입적했다. 따라서 사적기의 고려 초 영조 선사 가람 확장설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영조라는 인물의 가람 확장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고려시대에 동화사는 유력 법상종 사원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정종(1035-1046 재위)은 1036년(정종 2)에 명을 내려, 아들 네 명을 둔 자는 그 중 한 명은 출가를 허락하되, 영통사(靈通寺), 숭법사(崇法寺), 보원사(普願寺), 동화사(桐華寺) 등 계단(戒壇)에서 소속 종파의 경률(經律)을 시험하

166) 강삼혜, 「팔공산 동화사 연혁」, 『팔공산 동화사』, 그래픽네트, 2009., pp. 205-206.

게 했다¹⁶⁷⁾. 고려시대 동화사에는 계단(戒壇)이 설치되어 관단(官壇) 사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고려시대의 법상종은 유가종(瑜伽宗, 혹은 유가업瑜伽業)으로도 불렸고, 초기에는 화엄종에 비해 활동이 두드러지지 못했으나, 목종(997-1009 재위)이 1000년(목종 3)에 자신의 원찰로 개경에 숭교사(崇敎寺)를 창건하면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출가해 숭교사에서 수행하던 현종(1009-1031 재위)이 즉위하여 부모를 위해 현화사(玄化寺)를 창건하고 법상종 승려로 왕사에 책봉한 법경(法鏡)을 주지로 임명하는 등 왕실 지원 토대로 고려 중기의 법상종은 화엄종과 더불어 교종의 핵심 종파로 지위를 다졌다. 이후 법상종 승려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 칠장사(七丈寺)의 혜소국사(慧炤國師) 정현(鼎賢, 972-1057)과 법천사(法天寺)의 지광국사(智光國師) 해린(海麟, 984-1067) 등은 모두 현화사 주지를 역임하며 왕사나 국사가 되어 교단을 이끌었다. 또한 고려 최고의 문벌가문인 전주 이씨 이자연(李子淵, 1003-1061)의 아들 혜덕왕사(慧德王師) 소현(韶顯, 1038-1096)이 법천사의 해린에게 출가고, 문종(1046-1084 재위)의 다섯째 왕자가 소현에게 출가하는 등 왕실과 귀족 세력을 후원을 받으며 교세를 크게 떨치는 한편 귀족불교로 되어갔다¹⁶⁸⁾.

그러나 고려 후기의 법상종은 이자겸(李資謙, ?-1126)의 난(1126) 이후 중세가 위축되었고, 귀족세력과 결탁해 있던 교종불교를 탄압하고 선종을 중심으로 불교계를 재편하고자 했던 무신정권기(1170-1270)를 거치면서 더욱 위축되어 갔다. 그러다가 원 간섭기(1259-1356)에 들어와 원의 요청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사경승(寫經僧)의 파견을 법상종 승려들이 주도했고, 이를 계기로 원 조정 및 부원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시 불교계의 주류로 부각했다.¹⁶⁹⁾

당시 사경승을 이끌었던 법상종의 대표적인 승려로 홍진국존(弘眞國尊) 혜영(惠永, 1228-1294)은, 1290년(충렬왕 16) 사경승 1백 명을 이끌고 원나라 수도로 가서 금자(金字) 『법화경(法華經)』을 사경하고, 훌륭한 사경과 뛰어난 설법으로 원 세조를 감동시키고 이듬해 고려로 돌아와, 1292년 국존(國尊)에 봉해지고 이어서 오교도승통(五敎都僧統)이 되어 동화사 주지에 임명되어 왔다가 1294년에 입적하고, 이후 왕명으로 동화사에 부도와 비가 건립되었다¹⁷⁰⁾. 그리고 현전하는 18세기 이후의 사료¹⁷¹⁾에는 동화사에 혜영의 탑비가

167) 『高麗史』 卷6 「世家」 靖宗 2年(1036) 5月 신묘일 기사.

168) 정병삼, 『한국불교사』, 푸른역사, 2020., pp. 286-287.

169) 정병삼, 위의 책, p. 357.

170) 「桐華寺弘眞國尊碑」(1298). 현재는 비문만 탁본으로만 전한다. 한편 지금 금당암 남측에 위치한 '대구 도학동 승탑'(보물 제601호)은, 원래 이곳에서 1km 남짓 떨어진 도학동 내학마을에 쓰러진 상태로 있던 것을 근래에 현 위치로 옮겨온 것인데, 1976년 이 승탑이 원위치에 쓰러진 상태로 있던 당시에 이를 조사했던 정영호는 양식상 이 승탑의 제작 시기를 9세기 후반으로 추정했으며, 더불어 『朝鮮古蹟圖譜』(第六冊)에 온전한 형태로 서 있는 이 탑의 사진일 신희 「桐華寺弘眞大師塔」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양식과 조각수법상 고려 말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이것을 홍진대사탑이라 볼 수 있는 근거도 없

건립되던 해(1298)에 가람 중창이 있었다고 한다. 한편 사후에 자정국존(慈淨國尊)에 추증되었던 법상종의 미수(彌授, 1240~1327)는, 1308년 오교도승통(五敎都僧統), 1313년(충선왕 5) 양가도승통(兩街都僧統)에 각각 임명되었고, 1321년(충숙왕8) 법주사를 하산소(下山所)로 정하고 개경을 떠나 내려가다가 동화사로 옮겨 주석했고, 얼마 후 1325년 법주사로 이석해 이듬해에 입적했다¹⁷²⁾. 이처럼 원 간섭기에 법상종의 부흥을 이끌었던 주요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만년을 동화사에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가람 조영 활동은 확인되지 않지만, 적어도 동화사가 고려시대를 통하여 법상종의 주요 사찰로 인정받고 있었던 것은 추정할 수 있다. 이밖에 고려사에는 1375년(우왕 1) 우왕이 동화사에 있던 석가의 불골을 충렬왕 이래 왕실의 원당으로 중시되던 신희사(神孝寺)로 옮겨 불사를 벌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¹⁷³⁾.

한편, 동화사 인근 계곡에서 조사된 고려시대 기와가마터에서 ‘桐藪彌勒堂’명 명문와가 수습되었는데, 이를 통해 동화사에는 창건 이래 고려시대까지 주존불로 미륵불을 봉안하는 미륵당(彌勒堂)이라는 전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⁷⁴⁾.

조선시대 동화사에 관한 기록은 임진왜란 이후의 가람 재건부터 확인된다. 그리고 지금의 대응전 영역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 역시 이때부터이다. 임진왜란 당시 팔공산은 영남지역 항전의 거점이 되었다. 전쟁이 발발한 1592년(선조 25) 대구부사(大丘府使) 윤현(尹峴, 1536-1597)은 병영을 동화사로 옮겨 관군을 주둔시켰고, 사족들이 주축이 된 의병부대인 공산의진군(公山義陳軍)은 부인사에 의병소(義兵所)를 설치하고 동화사의 관군과 연락 연대해 활동하였다¹⁷⁵⁾. 더불어 사명(四溟) 유정(惟政, 1544-1610)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동화사에 영남승군(嶺南僧軍)의 사령부를 설치하고 영남도총섭(嶺南都摠攝)이 되어 의승군을 지휘하고,¹⁷⁶⁾ 일본과 강화교섭기 동안 1595년부터 이듬해에 걸쳐 팔공산 정상에 공산산

171) 「慶尙左道大丘都護府北八公山桐華寺大雄殿重剎上樑文」(1727), 『八公山桐華寺事蹟』(1732)에 수록된 이의현(李宜顯, 1669-1745)의 「八公山桐華寺事蹟記」(1727)과 「心地王師行蹟」, 「八公山桐華寺蹟碑」(1931). 한편, 이들 사료에는 모두 1298년에 혜영이 가람을 중창했다고 적고 있는데, 이는 혜영의 생몰연대와 맞지 않아 신뢰성이 의심되지만, 왕명에 의한 탐비 건립을 계기로 가람이 중창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172) 「法住寺慈淨國尊碑」(1342)

173) 『高麗史』卷133「列傳」卷第46「辛禡」1：迎桐華寺釋迦佛骨，置神孝寺作佛事.

174) 국립대구박물관, 위의 책, p. 49.

175) 김진수, 「임진왜란 시기 팔공산 전투와 역사적 의의」, 『군사연구』 제142집, 육군군사연구소, 2016., pp. 47-48.

176) 이와 관련하여 현재 동화사에는 당시 영남 승군의 사령부 격인 ‘영남치영아문(嶺南緝營牙門)’의 현판(일제강점기 제작)과, 유정이 사용했다고 전하는 ‘영남도총섭(嶺南都摠攝)’ 인장이 남아있다. 강삼혜, 위의 책, pp. 207-208.

성(公山山城)을 쌓아 왜적의 재침에 대비하였다¹⁷⁷⁾. 그러나 관군이 주둔했던 동화사는 임진왜란 이듬해 1593년 1월에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불탔고, 공산산성도 정유재란이 발발한 해(1597)에 침략을 받아 성내의 곡식과 창고 등 시설들이 소실되어 버렸다.¹⁷⁸⁾

전란 중에 유정이 동화사를 거점으로 의승군을 지휘했던 인연이 계기가 되어¹⁷⁹⁾, 전란 후 가람의 복구는 유정 문도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대웅전 중창 상량문」(1727)에는 1606년(선조 39) 당시 해인사(海印寺)에 주석하고 있던 송운대사(松雲大師), 즉 사명당 유정이 문인 학인(學仁)을 시켜 법전(法殿), 즉 대웅전을 ‘중창(重創)’했다고 되어 있다(至(萬曆)三十四年丙午, 松雲大師駐錫於海印, 使門人學仁重創法殿). 이것이 곧 현재 동화사 대웅전의 전신이며, 당시 유정 문도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 된다. 한편 ‘중창’에 대해서는, 상량문상의 글자 의미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상량문에 적힌 연혁을 보면, 구체적으로 대웅전에 관한 내용은 1606년 학인의 중창이 가장 이르며, 그 이전의 연혁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신뢰할 수 없는 신라, 고려시대의 가람 중창에 이어, 조선 전기의 내용은 전혀 없이 바로 임진왜란 때 병화로 가람이 소실된 사실과 학인의 대웅전 중창을 적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 대웅전과 이 일대의 가람에 대해서는 조선 전기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다른 사료와 이 일대에 현존하는 가람의 유구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¹⁸⁰⁾.

정리하면, 상량문에 적힌 1606년의 대웅전 중창은, 사실인 전란 뒤에 가람을 복구 하면서 현재의 대웅전 일대에 새로 터를 닦아 가람을 확장하고 대웅전을 창건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량문에는 신라 이래의 연혁을 적은 다음, 당시의 대웅전 건립 공사를 중창으로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⁸¹⁾. 또한 현재 대웅전 일곽 영역은 임진왜란 당시 관군과 의승군이 주둔하며 어느 정도 터를 닦아 둔 곳일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전란 직후에 바로 이곳에 가람을 조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팔공산동화사사적』(1732)에 수록된 「중창년대성공인원별록(重創年代成功人員別

177) 김진수, 위의 논문, pp. 51-52.

178) 김진수, 위의 논문, p. 49, p. 56.

179) 현재 동화사에는 18세기에 제작된 ‘대구 동화사 사명당 유정 진영(大丘桐華寺四溟堂惟政眞影, 보물 제1505)’이 전해오고 있다.

180) 일례로 현재 대웅전 동편에 통일신라시대 양식의 삼층석탑 한 기가 위치하고 있으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가람 전경 사진에는 이 위치에 석탑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 이곳으로 옮겨진 것임을 알 수 있다.

181) 이와 비슷한 사례로, 임진왜란 이후 1620년대에 새 터에 창건된 완주 송광사(松廣寺)의 대웅전에 대하여, 1857년(철종 8)에 작성된 「松廣寺大雄殿重建上樑文」에는, 이 사찰이 신라 때 보조선사(普照禪師)가 창건했다고 한 다음, 바로 조선 후기로 넘어와서 대웅전을 天啓 壬戌(1622, 광해 14)에 ‘중건(重建)’했다고 적고 있다(天啓壬戌之仲秋, 又有禪伯德琳之重建). 더불어 동화사에 전하고 있는 내력과 마찬가지로 이 송광사도 신라 때 보조선사의 창건이라고 하는 점 또한 흥미롭다.

錄)」에 의하면, 1605년에 요사 심검당(尋劔堂)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어서 1606년에 대웅전이 지어졌다. 뒤이어 1608년 미륵전(彌勒殿), 1614년 강생원(降生院), 1615년 약사전(藥師殿), 1617년 종각(鐘閣), 1633년 일주문(一柱門), 1634년 호법문(護法門), 1636년 두월료(斗月寮), 1640년 관욕당(灌浴堂), 1644년 침계료(枕溪寮), 1648년 원통전(圓通殿), 1649년 향적전(香積殿), 1656년 화우당(花雨堂), 1666년 향로전(香爐殿)과 서상실(西上室), 1669년 영산전(靈山殿), 1670년 칠불전(七佛殿)과 연경전(蓮經殿)이 차례로 건립되면서, 60여 년에 걸쳐 대웅전 일곽의 건축 조영이 일단락되었다. 당초 법상종 사찰의 주존불로서 미륵불은 금당암 영역의 주불로 봉안되어 있었으나, 전란 이후 가람 재건과정에서 미륵전이 대웅전 영역에 재건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즉, 전후 가람 재건을 계기로 동화사의 중심이 기존의 금당암 영역에서 지금의 대웅전 영역으로 재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웅전 중창 상량문」에는 1677년(숙종 3)에 상은(尙崙)이 대웅전을 수리했다고 하며, 또한 「중창년대성공인원별록」에는 이 무렵부터 기존에 건립되었던 다른 전각들의 수리와 일부 당우의 신축이 확인된다. 즉, 1680년 일주문과 두월료 수리, 1681년 약사전 이건, 1684년 침계료 수리, 1692년 원통전 수리(1716년 재차 수리), 1709년 강생원과 종각 수리, 1717년 관욕당 수리(1722년에 재차 수리), 1718년 화우당을 수리 및 서별당(西別堂)으로 개칭, 1722년 향적전 수리 등이 이루어졌다. 추가로 건립된 전각으로는 1680년 명월료(明月寮, 1706년 수리), 1694년 자음당(慈音堂)과 중료(衆寮), 1718년地藏원불전(地藏願佛殿) 등이 확인된다. 이렇게 해서 왜란 이후 동화사는 100여 년에 걸친 재건 및 확장 공역을 통해, 현재의 대웅전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가람의 구성을 보면, 미륵전의 존재를 통해 법상종의 흔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전체적으로는 조선 후기 통불교 사원의 보편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의 불교계는 전란 때 의승군을 규합해 이끌었던 청허(淸虛) 휴정(休靜, 1520-1604)과 부휴(浮休) 선수(善修, 1543-1615) 문도로 크게 재편되었다. 전란 극복 과정에서 보였던 의승군의 적극적인 활약으로, 불교계는 이전까지의 억압을 극복하고 국가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¹⁸²⁾, 이를 토대로 폐허된 가람을 복구하고 교단을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청허 계통은 편양(鞭羊) 언기(彦機, 1581-1644), 사명 유정, 소요(逍遙) 태능(太能, 1562-1649), 정관(靜觀) 일선(一禪, 1533-1608)의 네 문파로 나뉘었고, 이 중에서 편양파가 최대의 세력을 형성했으며, 부휴의 계통은 청허계보다 작은 규모의 단일 문파로 정체성을 유지해 갔다¹⁸³⁾.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후 동화사의 법맥은 부휴계의 문도도 일부 확인되지만, 대체로 청허계 문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유정의 지원으로 가람 재건이 시작되었고, 18세기 전반까지의 가람 재건

182) 정병삼, 위의 책, p. 495.

183) 정병삼, 위의 책, p. 523.

과 이후의 법맥 상전은 주로 언기의 손제자 상봉(霜峯) 정원(淨源, 1627-1709) 계통이 주도하였다¹⁸⁴).

그러나 1700년대 초반에 완성된 대웅전 일곽은, 얼마 후 1725년(영조 1)에 화재로 재차 소실되고 말았다. 「대웅전 중창 상량문」에는 당시의 화재로 대웅전과 누각(樓閣), 정문(正門), 불공장(佛公藏), 향적전, 서상실, 미륵전, 선당(禪堂), 승당(僧堂)의 9동이 일시에 소실되었다고 했다¹⁸⁵. 기록으로 보아 당시의 화재는 대웅전 일곽에만 그쳤던 듯하며, 인근의 금당암, 비로암과 일주문은 화재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 상량문에는 이 해에 바로 가람 재건 공역이 이루어져 서상실, 미륵전이 재건되고, 1726년에 승당, 1727년에 선당과 대웅전이 재건되었다고 했다. 「중창년대성공인원별록」에는 이것 외에도 1726년에 심검당과 강생원, 1727년에 향로전, 1730년에 종각과 호법문이 재건되었다.

이후 대웅전은 1896년(건양 1)에 한 차례 더 중수가 이루어졌고¹⁸⁶, 「팔공산동화사적비(八公山桐華寺蹟碑)」(1931)에는 1902년(광무 6) 영산전이 수해를 입어 1905년에 재건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1930년에 승려 만오생(晩悟生, 1880~1965, 속명 安震湖) 사적 조사를 위해 동화사를 방문조사하고 발표한 글¹⁸⁷에 「영산전중건기(靈山殿重建記)」의 내용을 요약해 소개하고 있다. 즉, 壬寅(1902) 8월에 태풍이 몰아쳐 칠불전, 영산전, 약사전, 관음전의 네 불전과, 두월료, 수확(水確, 물레방아) 등 모두 2백여 칸이 일시에 유실되어 버렸고, 월송(月松)이 화주(化主)가 되어 영산전을 재건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대웅전 영역을 이루고 있는 전각은 대웅전을 제외하면 대부분 20세기 이후에 조영된 것이다. 한편 1725년 소실 후 바로 재건되었던 미륵전은 20세기 이후의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02년 수해 때 피해를 입었다가 재건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임진왜란 이후 까지 이어지던 법상종 가람의 흔적도 미륵전과 함께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1992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의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 당시 대웅전 영역의 목조건축물 중에서 20세기 이전 유구로는 대웅전(1727년 중건), 강생원(1726년 중건)¹⁸⁸, 천태

184) 국립대구박물관, 위의 책, p. 159.

185) 「慶尙左道大丘都護府北八公山桐華寺大雄殿重創上樑文」: 乙巳(1725)之晩春, 回祿睢盱, 朱雀生齒, 法堂與三世如來及樓閣正門佛公藏香爐殿西上室彌勒殿禪僧兩堂, 并爲九架一時間消滅. 여기서 누각(樓閣)은 앞서 「重創年代成功人員別錄」에 나오는 1617년에 건립(1709년 수리)된 종각(鐘閣)으로 보이며, 정문(正門)은 대웅전 맞은편 지금의 봉서루(鳳棲樓) 위치에 있었던 문루로 보이는데, 「중창년대성공인원별록」에서는 그 명칭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불공장(佛公藏)은 경전을 보관하는 경장(經藏)으로 1670년에 건립된 연경전(蓮經殿)에 해당하며, 선당(禪堂)과 승당(僧堂)은 대웅전 앞마당 좌우의 요사로 「중창년대성공인원별록」에 다양한 요사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중에서 어느 요사가 이들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는 없다.

186) 「慶尙左道大丘都護府北八公山桐華寺大雄殿上樑改楫記文」(1896)

187) 晩悟生, 「桐華寺의 一週日(續)」, 『佛敎』 제75호, 불교사, 1930. 9., pp. 32-37.

188) 1992년 조사 당시 강생원은 대웅전 앞 마당 동편에 마당에 면해 위치한 정면 6칸, 측면 1칸의 5량

각(天台閣, 18세기), 칠성각(七星閣, 1857년), 산신각(山神閣, 1857년), 조사당(祖師堂, 18세기), 영산전 객사의 7동이며, 20세기 이후에 조영된 전각으로는 봉서루(1964년 중건), 심검당(1978년 중건), 주지실(住持室, 20세기), 서별당(1962년 이건), 원음각(圓音閣, 1964년), 영산전(1902년 중건), 옹호문(擁護門, 1962년 이건)¹⁸⁹⁾ 등이 있었다¹⁹⁰⁾.

3. 금당암 일곽의 연혁

지금의 대웅전 영역의 동편 계곡 너머에 위치한 금당암 일곽은, 9세기 전반에 심지왕사가 가람을 창건한 이래 조선 전기까지 동화사의 중심 영역이었으며, 적어도 고려시대 말까지는 법상종의 법맥이 이어지고 있었다. 『삼국유사』(卷4「意解」第5「心地繼祖」)에 나오는 동화사의 창건 연기에는, 심지가 속리산의 영심으로부터 진표에게 전수받은 불골간자를 얻어 팔공산으로 돌아와 산신과 함께 간자를 던져 절 지을 자리를 점치니, 숲속의 샘에서 간자를 찾아 그 곳에 당(堂)을 짓고 간자를 봉안했다고 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금당암 일대로 전한다. 또 일연은 창건 연기 말미에 당시의 동화사 참당(籤堂) 북쪽의 작은 우물이 간자를 찾은 샘 자리라고 했다¹⁹¹⁾. 그리고 현재 동화사에 남아있는 석조 유구 중에서 9세 무렵으로 편년되는 것이 사찰 입구의 마애여래좌상, 비로암의 석조여래좌상과 삼층석탑을 제외하면, 모두 금당암 일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입구의 당간지주, 극락전의 가구식 기단과 동·서삼층석탑 등이 바로 그것으로, 이것을 통해서도 이곳이 동화사의 창건 가람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금당암 일곽은 완만한 남향의 경사지에 축대를 쌓아 평평하게 조성한 대지 위에, 중심 전각인 극락전(極樂殿)이 남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 동·서 양쪽으로 삼층석탑이 위치하며, 극락전 북쪽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수마재전이 남향하며, 극락전과 수마재전 사이의 동쪽으로 1976년에 신축한 금당선원과 부속 전각들이 위치한다. 그리고 금당암 남서

가 규모의 一자형 평면 요사였는데, 이후 철거되어 현재는 이 자리에 대형 화엄당을 지어 승가대학 강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189) 옹호문은 사천왕상을 봉안한 천왕문으로 20세기 초까지는 봉서루 바로 앞에 있었고, 「중창년대성공인원별록」(1727)에 나오는 1730년 재건 호법문(護法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옹호문은 1962년에 현 위치인 봉서루 전편의 광장 동남쪽으로 이건되었다.

19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동화사 실측조사보고서』, 대구직할시, 1993., p. 32. 또한 이 보고서에도 동화사의 초기 사역은 현재의 금당암 영역을 중심으로 조성되었고, 나중에 지금의 대웅전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 나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pp. 34-35).

191) 『三國遺事』卷4「意解」第5「心地繼祖」: 地頂戴故山, 岳神率一仙子, 迎至山椒, 引地坐於岳上, 故伏崑下, 謹受正戒. 地曰“今將擇地, 奉安聖簡, 非吾輩所能指定, 請與三君, 憑高擲簡以下之.”乃與神等陟峰巔, 向西擲之, 簡乃風颺而飛. 時神作歌曰, …(中略)… 旣唱而得簡於林泉中, 卽其地構堂安之. 今桐華寺籤堂北有小井是也.

측 초입에 통일신라시대 당간지주가 서있다.

이중에서 당간지주와 더불어 창건 당시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유구는 통일신라시대 양식의 기단 일부와 초석을 남기고 있는 극락전과 서탑이며, 동탑은 서탑보다 먼저 건립되었으나 창건 직후 가람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한 차례 위치가 옮겨진 것이며, 수마제전은 적어도 고려 후기 이후에 현 위치에 새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1969년 동탑을 해체할 때 발견된 3매의 탑지(塔誌) 중에서 1544년(중종 39)의 중수 때 제작된 제일지석(第一誌石)¹⁹²⁾에는, 원래 이 탑은 창건 당시에는 강당(講堂) 남쪽에 있었으나, 건부(乾符) 2년, 즉 875년(신라 경문왕 15, 헌강왕 1) 9월에 금당(金堂)아래에 새로운 탑을 조성하면서 금당 위로 옮겼다(若夫三層石塔者, 從迦藍治成, 到於乾符二季乙未九月, 任於講堂南. 然而於金堂下建新塔已, 不獲已故塔傳在於堂上.)고 했다.

여기서 금당 지금의 극락전 자리에 있던 주불전이고, 875년 금당 아래에 새로 건립한 탑은 지금의 서탑이다¹⁹³⁾. 고대 가람에서 강당은 금당의 후방에 위치하여 가람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것이 보편적인 가람배치였는데, 현존하는 금당암 일대의 대지 상황을 보더라도, 창건 당시 이곳에 조성된 동화사의 초기 모습도 금당과 강당이 남북축선상에 배치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창건 당시에는 지금의 동탑이 강당 남쪽에 있다고 했는데, 다르게 말하면 탑을 중심에 두고 그 남쪽에 금당, 북쪽에 강당이 배치되는 독특한 가람 형태였다고 추정이 된다.

창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875년 9월에 지금의 서탑 자리인 금당 아래(下)에 탑을 새로 건립하면서, 기존에 강당 앞의 탑을 지금의 동탑 자리인 금당 위(上)로 옮겼다고 했으니, 제1탑지에 나오는 탑의 위치를 묘사한 금당 아래(下)와 위(上)는 각각 서쪽과 동쪽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화사의 가람 배치는 875년 서탑 건립을 계기로 현재와 같이 금당 동·서 양측에 탑을 두는 쌍탑식 가람의 한 형태로 완성되었다. 다만, 7세기 이후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해 간 금당 전면의 좌우에 탑을 두는 정형적인 쌍탑식 가람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다. 이는 금당 전면에 쌍탑을 세울 여지가 충분하지 않은 대지 여건상의 이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불어 9세기 이후의 사찰에서 볼 수 있는, 7세기 이후에 유행한 금당 앞 좌우에 탑을 세우는 정형적인 가람구성의 규범을 벗어나는 경향¹⁹⁴⁾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동탑에서 발견된 제이지석(第二誌石)은 1794년(정조 18), 제삼목제지판(第三木製

192) 임진왜란으로 가람이 소실되기 이전의 자료로서 당시까지 사찰에 전해오던 사적에 기초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18세기 이후에 작성된 사적기 등보다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193) 참고로 경문왕은 서탑이 건립되기 12년 전인 863년에 지금의 비로암 자리에 민애왕의 명복을 비는 원당을 조성하고 삼층석탑을 세웠는데, 이러한 선후 관계를 보더라도 금당암 동서석탑의 조성 내력을 적은 동탑 제1탑지 내용의 신빙성은 물론, 심지왕사가 9세기 전반에 동화사를 창건했다는 사실 역시 간접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194)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7, pp. 101-105.

誌板) 1897년(광무 1)의 수리 내력을 적고 있다. 그리고 1910년(순종 4)에 간행된 방산(舫山) 허훈(許薰, 1836-1907)의 문집 『방산선생문집(舫山先生文集)』에 수록된 「팔공산동화사중수석가여래사리탑비명서(八公山桐華寺重修釋迦如來舍利塔碑銘并序)」에는, 재차 탑이 기울어 광무5년(1901)에 수리를 시작해 이듬해에 마쳤는데, 이와 더불어 금강계단(金剛戒壇)을 만들어 탑과 상대(相對)하도록 했고, 탑의 둘레에 울타리를 둘러 장엄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일제강점기 동화사 일원의 모습을 촬영한 유리건판 사진을 보면, 동탑 둘레에 주철제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금강계단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¹⁹⁵⁾.

서탑에서는 1957년 해체수리 과정에서 1852년(철종 3) 수리 때 두루마리 장지(壯紙)에 기록해 넣은 「탑중수기(塔重修記)」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고려시대의 1319년(충숙왕 6)의 중수 기록과, 조선 전기 1544년에 동탑과 더불어 이루어진 중수 기록이 함께 필사되어 있었다¹⁹⁶⁾. 이 중에서 고려시대 중수 기록은 ‘大元延祐六年八月十九日 高麗國桐華寺重修石塔(이하 同願人名目)’으로 끝나며, 그 내용 중에는 당시 가람 구성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 더욱 중요한데, 대요는 다음과 같다.

1316년(충숙왕 3) 현변(玄昇) 스님이 왕명을 받아 연경(燕京)에 갔다가, 이듬해 1317년 3월부터 동화사에 주석했는데, 1318년 3월 왕이 내린 어향(御香)을 받들고 하산, 이듬해 1319년 3월 통도사(通度寺)에 가서 향을 사르고 축원한 결과 사리 5매를 얻었다. 산으로 돌아와 4월에 대회(大會)를 베풀고, 8월 14일에 수원승(隨院僧)을 시켜 탑을 허물어 보니 안에 사리가 없었다. 5일 째 되는 날 아침, 이전에 통도사에서 얻은 사리 5매를 무량수전(無量壽殿)에 봉안하고 도제(徒弟)와 역부승(役夫僧) 다수가 염불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분신사리 20매를 얻었다. 이를 경축하며, 다음날 15일에 분신사리를 탑에 안치했다¹⁹⁷⁾.

195) 『舫山先生文集』 卷19 「碑銘」·「八公山桐華寺重修釋迦如來舍利塔碑銘并序」: 近又傾壞, 貧道之師應晦上人, 資檀越力, 募工新之. 築金剛戒壇, 與塔相對, 設供禮拜. 四面繚以牆, 位置莊嚴. 始役於聖上光武五年辛丑(1901), 明年壬寅正月某日, 安舍利函. 이 탑명에는 신라 진흥왕 10년 己巳(549)에 양(梁) 소제(蕭帝, 양 무제)가 보내온 사리 1함(函)을 궁궐로 맞이했다가, 진평왕 4년 壬寅(582)에 원효(元曉)선사로 하여금 사리 1천이백 여 과를 본사(의 탑)에 봉안하도록 명했고, 현강왕 원년 乙未(875)에 승려 삼강(三剛)이 (사리가 봉안된 본사의) 탑을 부속 암자의 금담으로 옮겼으며, 이후 조선 중종 28년(1533) 甲辰(1544, 중종 39)에 종관(宗觀)과 해달(解達)이, 숙종 원년 甲寅(1674)에 도수(道修)가, 그리고 철종 4년 壬子(1852)에 만혜(晩慧)가 각각 탑을 수리했다고 하는데, 동탑에서 발견된 탑지 내용에 비추어 이상과 같은 1901년 이전의 수리 연혁과 창건 내력은 모두 신뢰할 수 없다. 한편, 팔공산동화사적비(1931)에는 1901년에 탑을 수리하고 둘레에 쇠난간을 둘러었다고 한다.

196) 이홍직, 「동화사 금당암 서탑 사리장치」, 『아세아연구』 1(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58. 12, pp. 85-106.

197) 歲在丙辰(1316)孟夏, 比丘玄昇承王命赴燕京, 次年丁巳(1317)三月得住茲寺. 越戊午(1318)三月奉御香下山, 次年己未(1319)三月, 到通度寺燒香祝, 乞得舍利五枚, 還山四月設大會焉. 是年八月十四日, 使隨院僧起役, 壞而見之, 塔中無安舍利. 至第五日朝, 奉持向者舍利五枚, 置于無量壽殿, 而徒弟及役夫僧許多人念釋迦,

위의 고려시대에 서탑의 중수가 이루어진 1319년 무렵은, 무신집권기를 지나면서 침체되었던 법상종이 불교계의 주류로 회복된 원 간섭기로, 고려 말 법상종 부흥을 주도한 흥진국존 혜영이 동화사에 주석하다가 입적(1294)한 직후이며, 자정국존 미수가 주석(1321)하기 직전으로, 동화사가 고려 법상종의 거점 사찰로 존재하던 시기였다. 이를 반영하듯 중수기록에는 왕명으로 원의 수도에 다녀온 현변이라는 스님이 동화사에 주석하다가 왕이 내린 어향을 받들어 통도사로 가서 축원을 올리는 등 당시 동화사와 고려 왕실 간의 긴밀했던 관계가 나타난다. 핵심은 통도사에서 구해온 사리 5매를 무량수전에 봉안하고 염불기도 끝에 분신사리 20매를 얻어 서탑에 봉안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통도사에서 구해 온 사리 5매를 봉안했다는 무량수전의 존재이다. 당시 동화사의 주불전은 미륵당이였으므로, 이 무량수전은 주불전이 아닌 그 인근에 배치된 부불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무량수전은 조선 전기의 1544년 중수 기록에도 나타난다. 즉, 당시 무량수전의 기단(階築)도 무너져 있어서 동·서 두 탑과 아울러 수리했다는 것이다¹⁹⁸).

이상의 동·서탑 연혁을 정리하면, 지금의 동탑은 9세기 전반 동화사 창건 당시 강당 앞에 있었는데, 875년 금당 서쪽에 지금의 서탑을 건립하면서 현재의 금당 동쪽으로 옮겼다. 고려시대에는 1319년에는 서탑을 수리하고 사리를 봉안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1544년에 동·서 두 탑을 함께 수리했고, 1794년에 동탑, 1852년에 서탑이 각각 수리되었고, 이후로 동탑은 1897년, 1902년에 재차 중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서탑에서 발견된 중수 기록을 통해, 고려시대 후기부터 조선시대 전기에 걸쳐 부불전으로 무량수전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재의 극락전 자리에 있었던 금당은, 당초의 모습을 일부 유지하고 있는 기단의 규모와 초석의 배치로 보아, 현존 건물과 마찬가지로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내부에 봉안된 본존은 지금과 같은 아미타삼존이 아니라 법상종 사찰의 주불인 미륵불이며, 건물의 규모가 정면 5칸인 점에 비추어 삼존불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금당의 형태는, 이후 여러 차례 중수를 거치며 고려시대에는 미륵당으로 불리다가,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기 이전까지 존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창년대성공인원별록」(1732)에 의하면 임진왜란 뒤 금당암 일곽의 재건은 1600년(선조 33) ‘建金堂衆寮’, 즉 금당암의 요사인 중료(衆寮) 건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전란 후에 이루어진 동화사 전체 복구 공역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으로, 가람 재건을 위해 승려들의 거처를 먼저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1622년(광해군 14)에 대금당법전(大金堂法殿)을 중창하고, 1629년(인조 7)에 금당의 삼존불을 조성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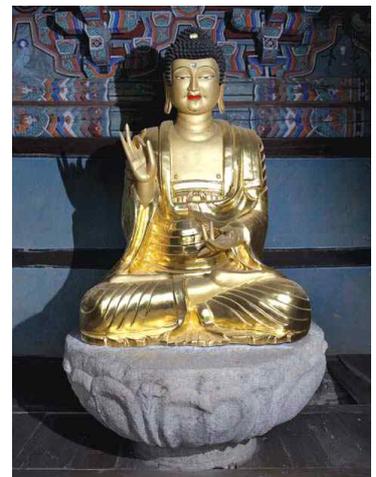
六七百聲懇禱，至得分身二十枚。雖曰未運，佛法靈驗，有如是也，猶自慶哉，至翌日安于此塔。大元延祐六年(1319)八月十九日，高麗國桐華寺重修石塔， 원문은 이흥직, 위의 글(1958)에서 재인용하고 번역문도 이 글을 참고했다. 이하 서탑 중수기 내용 인용의 전거는 모두 이와 같다.

198) 嘉靖二十三年甲辰(1544)孟夏初六日始，仲夏十二日畢役。… (중략) … 何幸智祖比丘如干鳩財，而其時無量壽殿階築破落，故兩塔重新焉。

으며, 1699년(숙종 25)에 대금당의 후불탱과 사천왕탱을 완성했다고 한다. 여기서 대금당 법전, 금당, 대금당은 지금의 극락전을 가리키는 것인데, 원래 이 자리에 금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 것이며, 이후 이 이곳을 금당암으로 지칭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한다. 1629년에 조성한 삼존불은 현재 극락전에 봉안된 목조 아미타삼존상으로 17세기에 활동한 유명한 조각승으로 한 유파를 이루었던 현진(玄眞)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1699년에 조성된 후불탱화는 당시 동화사 소속 화승(畵僧) 의균(義均)의 작품(아미타극락회도, 보물 제1610호)으로 현재는 동화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¹⁹⁹⁾. 지금 극락전 안에 걸려있는 「금당극락전중수의연방명록(金堂極樂殿重修義捐芳名錄)」을 통해 1937년에 중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74년부터 금당암 일대의 구 요사를 철거하고 지금의 금당선원을 신축(1976)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1995년에 지붕 번와 보수가 있었다.

전후의 가람 재건이 일단락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725년에 발생하여 대웅전 일곽을 다시 잿더미로 만든 화재는 다행히 금당암으로 넘어오지는 않았다. 따라서 전란 뒤에 재건된 극락전을 비롯한 금당암 일곽의 전각 구성은 광복 이전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극락전 동북쪽에는 높이 177cm의 아미타불좌상²⁰⁰⁾이 본존으로 봉안된 수마제전(須摩提殿)이 있다. 須摩提는 아미타여래가 주재하는 극락정토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sukhāvati*의 한자 음역으로, 수마제전은 아미타여래를 모신 전각이라는 뜻이다. 9세기 창건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양련형 석조 대좌 위에 놓인 불상의 제작 시기는 고려시대²⁰¹⁾ 혹은 조선시대 전기²⁰²⁾로 추정되고 있다. 「중창년대성공인원별록」에는 이 건물을 고금당(古金堂)으로 적고 있는데, 조선 전기 1465년(세종 11)에 건립되었고, 전란 뒤 1702년(숙종 28)에 중창되었으며²⁰³⁾, 이듬해 1703년에 후불탱화²⁰⁴⁾를 조성하고 불상을 개금하면



수마제전 아미타여래좌상
(출처 : 『한국의 사찰문화재-대구광역시·경상북도 I』)

199) 강삼혜, 위의 책, pp. 208. 참조.

200) 도금이 되어있어 금동불로 알려져 있으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 촬영 유리건판 사진에는 철불좌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 국립대구박물관, 『팔공산 동화사』, 그래픽네트, 2009., p. 55.;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문화유산 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I』, 문화재청, 2007., p. 30.

20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화사수마제전금동불좌상’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4667&cid=46659&categoryId=46659>

203) 大明憲宗成化元年乙酉(1465)建古金堂, 康熙四十一年壬午(1702)重棚, 化主清允.

204) 이 후불탱화는 아미타극락회도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것 역시 1699년 극락전의 후불탱화(아미타극락회도)를 그렸던 동화사 소속 화승 의균(義均)의 작품이다.

서²⁰⁵⁾, 재건을 일단락지은 것이 확인된다.

수마제전 본존불의 대좌가 창건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불상의 제작 시기를 고려 시대까지 올려 잡을 수 있는 점, 그리고 현 위치의 불전이 1465년에 건립되었다고 하는 점을 아울러 생각하면, 창건 당시부터 금당 북쪽 일대에 불상을 봉안하는 전각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전각에는 적어도 조선 전기 이전부터 아미타여래가 본존으로 봉안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이것과 위의 서탑 중수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에 걸쳐 지금의 금당암 일곽에 무량수전이 부불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즉, 늦어도 고려시대 후기부터 지금의 극락전 북쪽 수마제전 일대에 아미타여래를 봉안한 무량수전이 부불전으로서 존재하고 있었고, 이것이 조선 전기 1465년에 한 차례 중창 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전후 가람 복구 과정에서 1702년 현 위치에 재건되고 수마제전으로 개칭되었다는 것이다.

주불전 후방에 아미타여래를 봉안하는 전각을 두는 가람 구성은, 통일신라시대 이래 법상종 사원의 가람 특성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만한 여지가 있다.

먼저, 삼국통일 이후 화엄과 함께 신라 교학불교의 주류를 이루었던 유식(唯識)사상은 모든 인식과 존재의 출발점을 마음의 작용으로 보는 사상으로, 8세기에 들어와 대현(大賢)과 진표의 두 가지 흐름을 이루며 법상종 교단을 형성하였다²⁰⁶⁾. 이 중에서 대현 계통의 법상종은 왕경을 중심으로 왕실과 귀족의 후원을 받으며 교학 연구 위주로 활동하며 미륵과 미타정토를 체계화 했고, 진표 계통에서는 참회(懺悔)와 점찰법(占察法)이라는 실천행 을 바탕으로 미륵과 지장보살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여 주로 지방에서 민중을 대상으로 교화를 폈다²⁰⁷⁾. 점찰법은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에 의거해 나무바퀴[木輪]를 던져 과거생의 선악 업보와 현세의 길흉을 점치고, 그 결과에 따라 참회 수행하는 것인데, 진표는 바닥에 몸을 내던지는 오체투지(五體投地)의 투철한 참회 수행인 망신참법(亡身懺法)을 행했다²⁰⁸⁾. 두 계통 모두 법상종 소의경론²⁰⁹⁾의 설주(說主)인 미륵을 받들어 도솔천(兜率天) 왕생을 염원하는 미륵상생신앙(彌勒上生信仰)을 주로 하며, 부차적 신앙대상은 각각 아미타와 지장으로 상이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둘 다 망자 구제를 위한 내세적 성격

205) 康熙四十二年癸未(1703)古金堂後佛幀及佛像改金, 化主勝卞.

206) 정병삼, 위의 책, p. 132.

207) 김남윤, 「신라중대 법상종의 성립과 신앙」, 『한국사론』 1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4. 6., p. 147.

208) 최복희, 「진표의 망신참과 탑참법」, 『역사민속학』 54, 한국역사민속학회, 2018., pp. 112-116.; 정병삼, 위의 책, p. 169.

209) 법상종의 소의경론에는 6경(經) 11론(論)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요한 것은 『해심밀경(解深密經)』, 『화엄경(화엄經)』, 『능가경(楞伽經)』과, 미륵(彌勒)의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무착(無著)의 『섭대승론(攝大乘論)』, 미륵과 세친(世親)의 『중변분별론(中邊分別論)』, 무착의 『현양성교론(顯揚聖教論)』, 호법(護法)의 『성유식론(成唯識論)』 등이다. 김남윤, 위의 논문, p. 102.

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같다²¹⁰⁾.

이러한 신앙형태가 가람으로 구현되는 방식에서, 대현계통의 법상종 사찰에서는 주불전인 금당에 미륵을 안치하고 강당에는 아미타를 봉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¹¹⁾. 이와 관련하여 『삼국유사』에 나오는 다음의 두 기록이 유명하다. 하나는 감산사(甘山寺)의 불상조성기(佛像造成記)로, 719년(성덕왕 18)에 중아찬(重阿漉) 전지성(全志誠)이 죽은 모친을 위해 감산사의 금당에 미륵존상을 만들어 모시고 또 죽은 부친을 위해서는 아미타상을 조성해 봉안했다는 이야기이다²¹²⁾. 다른 하나는, 노힐부득(努盼夫得)과 달달박박(怛怛朴朴)이 구사군(仇史郡: 지금의 경남 창원) 북쪽의 백월산(白月山)에서 미륵과 미타를 염원하며 수행 정진한 끝에 성도(成道)하여 각기 미륵불과 무량수불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덕왕이 757년(경덕왕 16)에 사자를 보내서 백월산남사(白月山南寺)를 짓고, 764년 절이 완성되자 다시 미륵존상을 만들어 금당에 모시고, 또 아미타불상을 만들어 강당에 봉안했다는 기록이다²¹³⁾. 문명대는 이 백월산남사의 예에 비추어 앞서 전지성이 조성한 감산사의 아미타불 역시 강당에 봉안되었을 것으로 보았다²¹⁴⁾.

반면 동화사의 심지에게 전수된 진표계 법상종의 경우, 당시 부차적 신앙대상이었던 지장보살이 사찰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신앙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다. 그런데 심지는 헌덕왕의 아들로 왕족 출신인 점, 863년 경문왕이 비명에 죽은 민애왕의 명복을 위해 현재의 비로암 영역에 원당을 조성하고 탑을 세웠다는 점, 그리고 이곳이 왕경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지가 진표계통의 법을 잇기는 했으나, 실제 사찰을 조영하는 과정에서는 왕경 중심으로 왕실과 귀족계층의

210) 김남윤, 위인 논문, p. 140.

211) 문명대, 「신라 법상종(유가종)의 성립문제와 그 미술(하) - 감산사 미륵보살상 및 아미타상과 그 명문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63, 역사학회, 1974. 9., p. 158.; 김남윤, 위의 논문, p. 106.

212) 『三國遺事』卷3「塔像」第4「南月山<亦名甘山寺>」條: 절은 서울 동남쪽으로 20리 가량 되는 곳에 있다. 금당주(金堂主) 미륵존상(彌勒尊像)의 화광(火光) 후기(後記)에 이르기를, ‘개원(開元) 7년 乙未(719) 2월 15일에 중아찬(重阿漉) 전망성(全忘誠, 즉 全志誠)이 그의 죽은 아버지 인장(仁章) 일길간(一吉干)과 죽은 어머니 관초리(觀肖里) 부인을 위해서 공손하게 감산사(甘山寺)와 석미륵(石彌勒) 하나를 만들고, …’ (중략)… 미타불(彌陀佛) 화광 후기에 이르기를, ‘…(중략)… 또 석미타(石彌陀) 하나를 만들어 죽은 아버지 인장 일길간을 위하여 모셨다…’ (하략)… (寺在京城東南二十許里. 金堂主彌勒尊像火光後記云, 開元七年乙未二月十五日, 重阿漉全忘(志)誠, 爲亡考仁章一吉干, 亡妣觀肖里夫人, 敬造甘山寺一寺石彌勒一軀, …) (중략)… 彌陀佛光後記云, ‘…(중략)… 仍造石彌陀一軀, 奉爲爲亡考仁章一吉干. …’ (하략)… 이 감산사 미륵보살과 아미타불상(국보 제81호, 82호)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두 불상의 광배 뒤에 새겨진 불상조성기 명문의 일부가 위의 『삼국유사』에 인용되어 있다.

213) 『三國遺事』卷3「塔像」第4「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條: 以丁酉歲(757), 遣使創大伽藍, 號曰白月山南寺. 廣德二年甲辰(764)七月十五日, 寺成, 更塑彌勒尊像, 安於金堂, 額曰現身成道彌勒之殿, 又塑彌陀像, 安於講堂, …(중략)… 額曰現身成道無量壽殿.)

214) 문명대, 위의 논문, p. 158.

후원을 받으며 교단을 형성한 대현계 법상종 사찰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동화사의 경우 창건 당시 강당에 아미타불상이 봉안되어 있었고, 현재 수마제전 본존의 석조 좌대가 그 흔적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불교사학계에서는 법상종이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대현과 진표의 두 계통이 하나로 합쳐진 것으로 본다²¹⁵⁾. 특히 법상종이 크게 융성했던 고려 중기에 들어와서는 미륵이 주불로서 신앙되는 것은 변함이 없었지만, 공통적으로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해 아미타정토가 신앙되었고, 아미타정토를 회구하는 신앙에서도 진표 계통의 점찰회(占察會)가 널리 베풀어졌다²¹⁶⁾. 또한 불교미술사학계에서도 현존하는 유물이나 금석문을 통해 고려 중기 법상종 미술에서는 진표계 법상종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동화사 염불암의 마애아미타불상과 미륵보살상은 진표계 법상종 사찰에서 미륵존상과 더불어 아미타불을 조성한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²¹⁷⁾.

이상과 같은 고려시대 법상종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서탑 중수기에 나오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전기의 무량수전은 현재 수마제전에 봉안된 아미타여래좌상이 봉안된 불전이었을 것이다. 나아가 동화사를 창건한 심지의 출신과 가람조영의 지원 세력, 팔공산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수마제전 석조 불대좌의 존재 등을 종합해 보면, 9세기 동화사 창건 당시부터 금당 후방에 아미타불을 봉안한 강당이 건립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동화사 극락암 일곽의 가람 구성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기 전까지 법상종 사찰로서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후의 재건 과정에서 기존의 주불전이었던 미륵당은 새로 조성된 대웅전 일곽에 지어졌고, 원래 자리에는 아미타삼존상을 봉안하는 극락전이 건립되었다. 그 결과 조선 후기 동화사는 대웅전 일곽에 새로 조영한 미륵전의 존재를 통해 통불교 가람의 틀 속에서 법상종 사찰의 흔적을 일부 남기게 되었지만, 당초 사찰의 중심영역이었던 금당암 일대는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하는 불전만 2동이 있는 아미타신앙 도량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전후에 재건된 극락암 일곽이 아미타신앙 전수 도량으로 변모하게 된 것은, 조선 후기 불교계의 사상 및 신앙의 경향과 전란 중에 팔공산 동화사가 관군과 의승군 및 의병의 활동 거점으로 이용되었던 사실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조선 후기 불교계를 이끌었던 휴정의 사상은 선 중심의 교선일치에 염불을 더해 선·교·염불의 삼학일치론이었다. 휴정은 마음으로 불국정토를 생각하고 입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 염불이라 하여 자성미타(自性彌陀)의 정토관을 제창했다²¹⁸⁾. 그 결과 사찰에서는 선·교의 수행과 더불어 염불수행의 대상으로 아미타신앙이 성행하여, 다수의 미타탱(彌陀幀)이 조성되고, 아미타를 지송하는 염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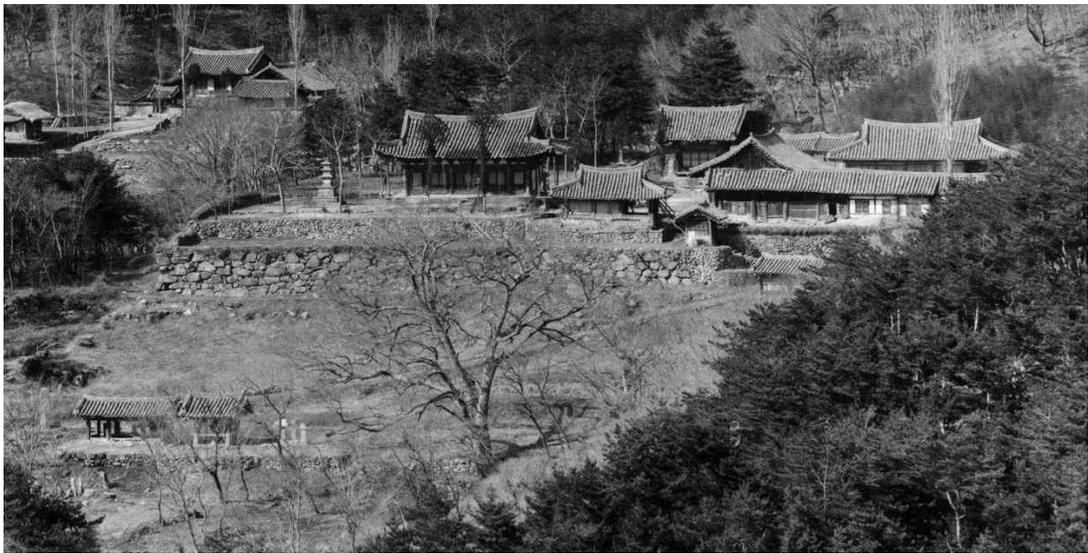
215) 김남훈, 위원 논문, p. 148.

216) 김남훈, 「고려중기 불교와 법상종」, 『한국사론』 28,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2. 2., pp. 148.

217) 최성은, 「고려 중기 법상종 사원의 불교조각」, 『미술자료』 제194호, 국립중앙박물관, 2018., p. 50.

218) 정병삼, 위의 책, pp. 489-490.

회가 지속되고 만일회(萬日會)가 성행했다²¹⁹). 이러한 경향 속에서 17-18세기 동안 특히 동화사를 비롯한 팔공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남지역에서 아미타신앙이 크게 유행하였고, 현존하는 이 시기에 제작된 아미타불화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영남지역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 배경으로 임진왜란 당시 팔공산 동화사가 관군과 의승군, 의병이 왜적에 대항했던 거점이었고, 전후의 동화사 재건을 의승군을 지휘했던 유정을 비롯한 휴정 계통의 문도들이 주도하면서 동화사에 전쟁에서 죽어간 고혼(孤魂)의 명복을 빌고 극락왕생을 염원하기 위한 도량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²⁰).



일제강점기 동화사 극락암 일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사진)

「중창년대성공인원별록」에 따르면 전후의 금당암 일곽 재건은 1715년(숙종 41) 향로전(香爐殿) 건립²²¹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일제강점기 동화사 전경 사진에는 극락전 동남쪽에 정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이 보이는데 이것이 향로전으로 추정되며, 다시 그 동편으로 ㄷ자형의 배치를 갖는 요사가 위치해 했다. 기록상으로 금당암 일곽은 전라 뒤에 복구된 후로 가람이 소실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진에 보이는 가람이 18세기 전반에 복구된 금당암 일곽의 모습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후로 향로전을 비롯한 요사채 일곽의 전각들은 모두 철거되고 1976년에 금당선원이 신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19) 정병삼, 위의 책, p. 5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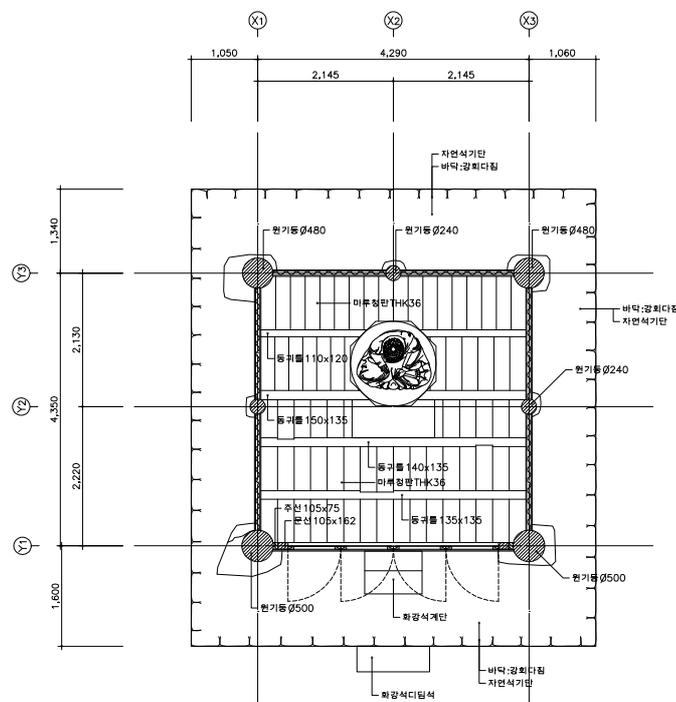
220) 17-18세기 동화사와 팔공산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영남지역의 아미타신앙과 미술 및 배경에 대해서는 유경희, 「동화사 <아미타불회도>를 통해 본 18세기 팔공산 지역 아미타불화의 조성배경」,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5(1), 2014. 6., pp. 235-258 참조.

221) 康熙五十四年乙未(1715) 成金堂香爐殿, 化主 儀元.

4. 수마제전의 건축적 특징

임진왜란 이후 동화사 가람 재건의 연혁을 충실히 기록한 「중창년대성공인원별록」에 의하면 금당암 수마제전은 1465년(세종 11)에 건립되었고, 전란 뒤 1702년(숙종 28)에 중창되었다고 한다. 「중창년대성공인원별록」의 내용 중에서 임진왜란 이전의 건물 연혁을 기록한 것은 수마제전이 유일한 예이고, 봉안되어 있는 본존 아미타여래좌상이 조선 전기 혹은 고려시대로 편년되고 있는 점, 그리고 현재 건물의 목조 가구 일부에 고식의 기법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진왜란 때 치명적인 피해는 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건물의 대부분은 17세기 이후의 기법으로 되어 있어서, 1702년에 이루어진 중창은 재건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수마제전은 사방 1칸에 다포계 공포를 올린 맞배지붕 불전이다. 사방 1칸 규모의 불전으로 다포계 맞배지붕으로 된 사례로는 이 수마제전이 국내에서 유일하다.



수마제전 평면도

기단은 자연석 허튼층쌓기로 되어 있는데, 후대에 잦은 개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단 윗면은 강희다짐으로 마감하고, 자연석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웠다. 평면의 기둥 간격은 정면이 4,300mm, 측면이 4,360mm로 가로 세로 비가 거의 1:1에 가까운 정방형을 이룬다. 내부 중앙에서 뒤로 조금 물려 본존을 안치했다. 정면을 제외한 양측면과 배면 칸의 중앙에는 모두 간주를 세워 축부를 보강했다. 기둥의 형태는 모두 민흘림을 둔 원기둥이며, 직경은 우주가 약 500mm, 간주는 그 절반인 240mm 정도로 되어있다.

창방은 뺨목을 수장폭으로 줄이고 초각을 했는데, 이러한 창방뺨목의 처리 수법과 의장은 극락전과 같다. 창방 위에는 평방을 올렸는데, 보통 다포계 맞배집에서는 공포가 놓이지 않는 양측면칸에는 평방을 구성하지 않거나 단평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마제전에서는 측면칸에 공포가 구성되지 않는데도 칸 전체에 걸쳐 평방을 놓은 점이 특징적이다. 배면의 평방은 통재가 아니고 폭이 절반 정도의 부재 두 개를 가로로 맞대고 산지를 밖아 고정해 만들었다.

평방 위에 다포식 공포를 짜올렸는데, 주간포는 정면과 배면에만 구성하고 측면에는 두지 않았다. 내·외 2출목이고, 제공 단부에 쇠서나 양서를 장식하지 않고 교두형으로 처리한 점은 극락전과 같다. 두 건물의 조영 시기는 다르지만 17-18세기에 팔공산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지역에서 활동했던 동일한 계보의 기술자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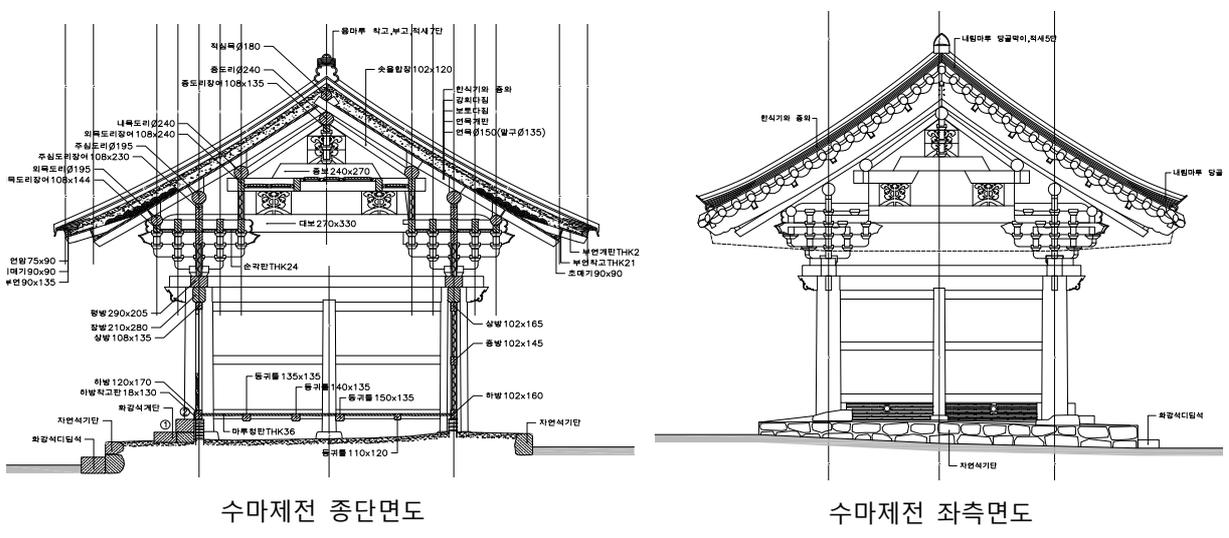
공포의 세부 의장을 보면, 우선 정면의 경우 내외부 모두 주상포와 주간포의 의장이 통일되어 있다. 외부부터 보면, 초제공과 이제공은 교두형, 삼제공은 삼분두형, 사제공은 초각으로 처리했고, 내부 역시 초제공과 이제공은 교두형, 삼제공은 삼분두형, 사제공의 경우 보가 올라가지 않는 주간포에만 초각으로 처리했다. 배면의 공포 의장은 외부는 정면과 동일하지만, 내부의 경우 주간포의 삼제공과 사제공을 단순한 직절형태로 마감한 점이 정면과 차이나는 부분이다. 이것은 내부의 본존이 바라보는 정면 공포의 내부 의장을 더욱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행공첨차는 정면과 배면의 내외부 모두 출목첨차에만 양 어깨에 공안을 새기고, 주심첨차는 단순한 직선형으로 처리했다.



수마제전 귀포

수마제전의 공포의 다른 특징으로 우주 상부에 놓이는 귀포의 형태를 들 수 있다. 즉, 맞배집임에도 불구하고 귀포를 귀한대와 좌우대로 구성된 전각포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귀포에 전각포가 있는 것은 팔작지붕과 관련이 있는데, 배병선은 그의 학위논문에서 이 건물을 다포팔작계 부재사용형, 즉 기존의 다포계 팔작집을 해체한 부재를 이용해 다포계 맞배집을 새로 건립한 유형으로 분류했다²²²⁾.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측면에도 평방을 사용한 점을 생각하면 이전의 건물이 다포계 팔작집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건물이 「중창년대성공인원별록」에 기록된 바와 같이 1465년에 건립된 것이고, 임진왜란 때 일부 피해를 입은 것을 해체하고 그 부재를 일부 이용하여 1702년에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재건축 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평방뿔목 위에는 귀방을 놓아 귀한대 초제공의 외단을 받도록 했다. 반면 다포계 팔작집인 극락전 귀포에는 귀방이 사용되지 않아 수마제전과 차이를 보인다.



수마제전 중단면도

수마제전 좌측면도

수마제전은 지붕가구 구성도 매우 독특하다. 먼저 도리 구성은 종도리와 기둥 위의 공포대 범위 내에 구성되는 주심도리와 내·외목도리로 되어있고, 그 위의 지붕 면에 각각 장연과 단연의 구분 없이 한 본의 서까래만 건 삼량가에 해당한다. 보통 삼량가라면 보는 하나만 걸면 되는데, 수마제전의 경우 대들보와 종보의 이중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종보의 구성이 매우 독특한데, 위치로 보면 종보의 머리가 내목도리를 받고, 중앙에 판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종보는 단일의 부재가 아니라 세 개의 부재가 좌우로 이어지고 상하로 쌓여 하나의 보처럼 보일뿐이다. 내목도리는 외목도리와 대칭되는 내2출목선상에 위치하며, 이 선상에서 출목장여와 보에 걸쳐 판대공을 도리 방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보방향으로 수장폭의 부재폭을 갖는 승두를 결구한 다음 내목도리를 받았다. 승두의 외단은 직절했고, 내단부는 상부의 지붕면과 같은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잘랐는데, 이 승두의 내단부는 아래의 대들보 위에 판대공을 세워서 받았다. 전후 승두

222) 배병선, 「다포계 맞배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pp. 167-176.

의 내단부 위에 대들보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단면을 갖는 종보를 올리고, 종보 중앙에 보 방향의 판대공과 도리방향의 이출목 공포를 조합한 종대공을 구성해 종도리를 받았다. 그리고 종도리와 내목도리 사이에 고식의 기법인 솟을합장이 설치되어있다. 이러한 삼량가 구성은 수마제전에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기법으로 전통 목조건축의 지붕가구 구성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처리한 결과 전체적으로 지붕가구의 수평적 일체성이 강화되어 횡력에 더욱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고, 더불어 고식의 솟을합장재 사용은 이러한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삼량가 건물에서 보방향 간살이를 4m로 크게 잡으면, 종보를 받기 위해 대들보 중앙에 설치하는 종대공의 높이가 과도하게 높아져 구조적으로 불안해 지는 약점이 생기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대들보와 종대공 사이의 삼각형 공간 전체를, 종대공의 하중을 아래의 대들보로 전달하는 삼각형의 구조체로 구성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방식으로 종도리를 지지하도록 고안한 방식으로도 볼 수 있다.

내부의 마루는 우물마루로 되어있는데, 귀틀의 구성을 보면 내부에서 외벽의 기둥열을 따라 두르는 변귀틀을 설치하지 않고, 보방향 하인방에 바로 도리방향의 동귀틀을 결구해 청판을 끼웠으며, 전·후면의 하인방에는 직접 흙을 파서 청판을 끼워 넣었다. 이러한 귀틀의 구성과 마루의 현재 상태로 보아 지금의 우물마루는 후대에 개수된 것으로 판단된다.

천장은 전체적으로 우물천장을 달았는데, 본존이 위치한 일부를 한 단 높게 구성하고 초각한 소란대를 설치해 부처의 공간에 대한 장엄을 차별화 했고, 그 앞쪽에 적첩판으로 된 간단한 형태의 운궁형 단집을 매달아 장엄을 완성했다.

5. 종합의견

동화사 금당암 수마제전은 1465년(세종 11)에 건립되었고, 임진왜란 뒤 1702년(숙종 28)에 중창되었다는 연혁 기록이 전하며, 현재의 유구도 17세기 이후의 기법과 고식의 기법이 공존해 연혁과 부합하는 등 그 조영 시기가 명확히 확인되는 문화재이다. **(1 역사적 가치 - 시대성 / 학술적 가치- 명확성)**

수마제전은 사방 1칸 규모로, 다포식 공포를 가지며 맞배지붕으로 된 불전인데, 이처럼 사방 1칸의 다포계 맞배지붕 불전은 현재 국내에서 수마제전이 유일한 유구이다. **(4 공통 사항- 희소성)**. 맞배지붕 불전으로 측면에 공포를 구성하지 않았지만 평방을 구성하고, 귀포에는 전각포를 구성하여 이전에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이었던 것을 해체해 일부 부재를 재사용해 다시 지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드문 사례이다. **(3 학술적 가치- 특이성)** 이는 곧 본 건물의 연혁을, 1465년에 다포계 팔작지붕 불전으로 건립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일부 피해를 입자 1702년에 해체한 후 부재 일부를 사용해 다시 지은 것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마제전의 공포 의장은 극락전과 마찬가지로 전·후면, 그리고 내·외 모두 제공의 단부에 수서나, 양서를 만들지 않은 교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포 의장 기법은 17-18세기에 걸쳐 팔공산을 중심으로 영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으로서, 당시 이 일대에서 주로 활동했던 동일한 계보의 기술자 집단에 의해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 학술적 가치- 지역성, 특이성)**

본 건물의 지붕가구 기법 역시 특기할 만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삼량가 구성이나, 내목도리를 받는 승두의 내단부를 안쪽으로 늘이고 그 아래에 판대공을 세워 지지한 위에, 종보를 올리고 종도리를 받는, 즉 오량가의 이중량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도리 없이 하나의 서까래만 걸친 삼량가인,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있다. 그 결과 전후 도리간의 수평적 일체성이 강화되고, 더욱 안정적인 방식으로 종도리를 받을 수 있는 독창적인 구조가 되었다. 이러한 지붕가구 기법은 다른 문화재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전통 목조건축 지붕가구 기법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종도리와 내목도리 사이에 설치한 고식의 솟을합장재가 남아있는 것도 중요한 특징으로 언급할 만하다.

(1. 역사적 가치- 시대성 / 예술적 가치- 창의성 / 3 학술적 가치- 특이성)

이상과 같이 동화사 수마제전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승격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평가함.

4. 사천 흥사리 매향비 주변 축사 신축(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남 사천시 소재 보물 「사천 흥사리 매향비」 주변에 축사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5m(1층) 이하” 등에 해당됨.
- ※ ‘21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1.06.17.)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사천 흥사리 매향비
 - 소재지 : 경남 사천시 곤양면 흥사리 산48-2번지
 - 지정일 : 1978. 03. 0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사천시 곤양면 흥사리 105, 107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400m
 - 사업내용 : 축사(우사) 2동 신축
 - 대지면적 : 3399.0㎡
 - 건축면적 : 729.0㎡(퇴비사 포함/주1동 364.5㎡, 주2동 364.5㎡)
 - 층수/최고높이 : 1층/6.9m
 - 구조 : 강파이프구조/강판

라. 현지조사의견(2021.07.05.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신청부지는 매항비에서 산 능선에 가려 보이지 않으므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축사의 오폐수 처리에 대한 시설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의 색채는 무채색 계열로 하는 것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오폐수 처리에 대한 시설 보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5. 사천 홍사리 매향비 주변 공장 신축(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남 사천시 소재 보물 「사천 홍사리 매향비」 주변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3구역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m 이상 법면 및 옹벽 발생하는 경우 개별심의”에 해당됨
- ※ ‘21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1.06.17.)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사천 홍사리 매향비
 - 소재지 : 경남 사천시 곤양면 홍사리 산48-2번지
 - 지정일 : 1978. 03. 0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사천시 곤양면 홍사리 산23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92m
 - 사업내용 : 공장(자동차 부품 제조업) 부지조성 및 신축
 - 부지면적 : 19,568㎡

- 부지구성
 - 보강토옹벽(H=0.75~5.0m) 221m / 전석쌓기(H=0.6~3.0m) 85m
 - 수로관부설 511m / 파형강관 48m / L형측구 575m / U형측구 62m / 집수정 19개
 - 콘크리트포장 7,200㎡ / 아스콘포장 2,162㎡
 - 조경수(이팝나무) 150주 식재 등
- 공장신축(4동)
 - 가동 : 면적 1,010.0㎡ / 1층 13.2m / 철골조 / 공장
 - 나동 : 면적 757.5㎡ / 1층 12.5m / 철골조 / 공장
 - 다동 : 면적 457.5㎡ / 1층 12.5m / 철골조 / 공장
 - 부속 : 면적 222.5㎡ / 1층 5.1m / 철골조 / 사무동

라. 현지조사의견(2021.07.05.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신청부지는 매향비에서 산 능선에 가려 일부 보이지 않으나 건축물의 높이가 약10~12m로 높아 신청건물이 들어설 경우 대규모 건물이 보일 우려가 큼.
- 또한 산 정상까지 절토가 이루어져 절·성토의 규모가 크므로 절·성토를 축소 하고, 건물의 배치를 조정함이 좋겠음.

마. 참고사항

- 2009.07.10. 사천시 공장 신축 건축허가
 - 토목공사 일부 시행 후 사업자 사정으로 중단
- 2010.11.03. 사천 흥사리 매향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 2021.05.04. 공장 신축 허가 신규신청(문화재청 접수)
 - 법령 등 현 여건에 맞추어 2009년 건축허가 당시 계획 수정

바. 의결사항

- 부결
 - 역사 문화 경관 저해(건물의 규모 축소, 위치 조정, 성·절토 최소화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9명, 조건부가결 1명

6.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주변 농지(전) 조성(2차, 재심의)

가. 제안사항

강원 철원군 소재 보물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주변에 농지(전)를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농지(전) 조성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21년 문화재위원회 제4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1.04.15.)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 ‘21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1.06.17.)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 소재지 : 강원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423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산96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356m

○ 사업내용

- 지적면적: 12,475m²
- 농지(전) 조성 및 배수정비

구분	부결안 (’21.4차 위원회)	보류안 (’21.6차 위원회)	검토안 (현지조사 후 수정)
대상면적	8,218m ²	8,218m ²	4,143m ²
토공	절토(8,832m ³), 성토(2,539m ³)	절토(7,470m ³), 성토(3,309m ³)	-
구조물공	식생용벽블록(67.5m ²), 자연석쌓기(277.5m ²)	-	-
배수공	집수정(11EA), U형측구(234m), 떼수로(198m), PE이중벽관(41.5m)	집수정(6EA), U형측구(186m), 떼수로(225m)	집수정(3EA) PE관(36.0m)
기타	코아네트(1,235m ²), 차폐수목(H=2m이상)	코아네트(757m ²), 차폐수목(H=2m이상)	-

라. 현지조사의견(2021.07.08.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신청부지는 도피안사에서 보이지 않으나 진입부에 해당하므로, 전면도로와 인접한 경사지는 개간을 제외하여 현 수목 등 경관을 유지함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7.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주변 농사용 창고 설치

가. 제안사항

경기 파주시 소재 보물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주변 농사용 창고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농사용 창고 설치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 소재지 : 경기 파주시 탄현면 오금2리 산19
 - 지정일 : 2001. 09.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49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44m
 - 사업내용 : 농업용 창고 설치(컨테이너)
 - 면적 : 18㎡ (W=6m × L=3m × H=2.6m)
 - 구조 : 컨테이너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3년후 재허가 받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8. 순천 송광사 하사당 주변 진입로 개설공사(재심의)

가. 제안사항

전남 순천시 소재 보물 「순천 송광사 하사당」 주변 진입로 개설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진입로 개설 공사를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문화재구역에 해당됨.
- ※ ‘21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1.06.17.)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순천 송광사 하사당
 - 소재지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 인접

○ 사업내용 : 하사당 진입로 개설

구 분	보류('21.6차)	금회
불이문	불이문 해체	변경없음
하사당 진입로	○경사로 설치(L=7.0m, H≒0.625m) ○석축설치(L=5.1m, H≒1.25m) ○자연석 계단(W=2.1m, H=0.45m)	○석축설치(L=7.2m, H≒0.75m) ○자연석 계단(W=2.1m, H=0.45m) ○자연석 계단(W=3.0m, H=0.51m)
석축 및 담장, 배수로 정비	○기존 석축 담장 해체 후 이설 (L=17.3m, H=0.9m/L=16.2m, H=0.45m) ○하사당 좌측면 담장 일부해체 (L=15.4m, H=0.75m) ○하사당 앞마당 석축 일부해체 (L=3.0m, H=1.0m)	○하사당 배면 석축담장 해체 후 이설 (석축 L : 16.24m / H : 0.9m) ○하사당 배면 배수로 설치 (배수로 L : 14.5m / H : 0.25m) ○불이문 정면 담장 해체 후 계단 및 담장 설치 (담장 L : 2.2m / H : 1.5m) (계단 L : 2.1m / H : 0.45m) ○하사당 좌측면 담장 해체 후 담장 기와 설치 (기와 L : 11.5m / H : 0.4m) ○하사당 정면 석축 일부 해체 후 석축, 배수로 설치 (석축 L : 1.53m / H : 1.0m) (배수로 L : 2.2m / H : 0.25m)
기타	-	하사당 구들 굴뚝 이설 지반 성토

라. 현지조사의견(2021.06.22.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신청사업은 하사당의 진입동선과 주변 석축, 담장 등을 변경코자하는 사항으로 옛사진과 사찰 전언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후면진입이 아니고 설법전 쪽으로 진입하였으며, 담장은 없거나 위치가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하사당 주변의 동선과 지형 회복을 위해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경사로 설치하는 하부 석축구조와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단으로 변경하고 안전시설을 고려함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받아 추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9. 완주 안심사 금강계단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전북 완주군 소재 보물 「완주 안심사 금강계단」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완주 안심사 금강계단
 - 소재지 : 전북 완주군 운주면 안심길 372
 - 지정일 : 2005. 06. 13.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북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30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300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 건축면적 : 79.89㎡(1동 지상1층)
 - 최고높이 : 5.1m
 - 구조 : 경량철골조(판넬)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보류 10명

10.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 주변 도로건설공사

가. 제안사항

충북 청주시 소재 보물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 주변 도로건설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도로건설공사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4·5구역에 해당됨
(제1구역 : 개별심의 / 제4구역 : 평지붕(5m이하), 경사지붕(7.5m이하) / 제5구역 : 국토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계산리 산46-3
 - 지정일 : 1969. 07. 1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계산리 산44-1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70m
 - 사업내용 : 도로건설공사
 - 통과연장 : 730m(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총연장 11.4km
 - 토공 : 깎기(92,240^m³), 쌓기(18,295^m³), 터널암(19,330^m³)
 - 구조물공 : 터널(L=255m), 교량(L=35m, B=11.4m)

- 배수공 : 수로BOX 2개소, 횡배수관 2개소
- 포장공 : 아스콘 3,740m²

※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검토 결과

- 소음 : 53.5dB (기준 65dB)
- 진동 : 0.001cm/sec (기준 0.2cm/sec)

라. 의결사항

- 부결
 - 굴착 등 세부 시공 계획 자료 보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10명

11.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북 울진군 소재 보물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단독주택 신축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21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1.06.17.) : 보류
 - 기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지 확인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1494-1번지
 - 지정일 : 1968. 12. 19.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1267-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220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사업면적 : 305m²
 - 건축면적 : 60m²
 - 높이 : 5.2m

- 층수 : 1층
- 구조 : 경량철골조

라. 참고사항

○ 사업신청부지 기존 건축물 인허가 여부(울진군청 보완서류 회신/‘21.06.30.)

관련법	확인사항	비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인허가 여부 확인불가	
건축법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2006.05.09.이전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건물로 신축당시 건축법 적용대상 아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산지형질변경허가증을 근거로 1995년 12월 등록전환 및 지목 변경됨	
산지관리법	1995.11.20. 산지형질변경 허가됨	

○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등 허가 현황 비교

구 분	기 허가				금회신청
	2011.10.24.	2014.5.19.	2017.4.19.	2019.3.14.	
통지일자	2011.10.24.	2014.5.19.	2017.4.19.	2019.3.14.	-
통지내용	조건부허가 (석축높이 조정)	조건부허가 (터파기 시 입회)	허가	허가	-
사업위치	구산리 1269번지	구산리 1491번지 6호	구산리 산 179번지 15호	구산리 1464번지 1호	구산리 1267-1번지
이격거리	260m	140m	483m	365m	220m
용도	단독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건축면적 (연면적)	97.1㎡ (78.5㎡)	67.59㎡ (67.59㎡)	50.26㎡ (50.26㎡)	73㎡ (73㎡) A동 : 25㎡ B동 : 48㎡	60㎡ (60㎡)
구조	경량철골조	경량목구조	경량철골조	한식목구조 /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층수	지상 1층	지상 1층	지상 1층	지상 1층	지상 1층
높이	5.65m	5.52m	3.8m	5.24m/4.45m	5.2m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12.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 주변 야영장 조성(2차)

가. 제안사항

경북 포항시 소재 보물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 주변에 야영장을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야영장 조성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 제3구역 “평지붕(8m), 경사지붕(12m)”에 해당됨.
- ※ ‘21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1.05.20.)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 지정일 : 1963. 01. 21.
 - 포항 보경사 승탑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 지정일 : 1965. 09. 01.
 - 포항 보경사 적광전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 지정일 : 2015. 03. 30.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569-2번지 외 2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00m
- 사업내용 : 중산리일원 야영장 조성사업

구분	부결안('21.5월)	신청안
규모	관리실 및 휴게실 3동, 숙박시설 29동, 총 32동	관리동(A동), 숙박시설(B,C,D동), 총 15동
대지면적	8,571m ²	4,983m ²
건축면적	1,194.76m ²	704.9m ²
연면적	1,370.58m ²	704.9m ²
구조	철근콘크리트, 경량철골조, 목조	경량철골
주차장	옥외자주식주차16대(A=200.00m ²)	옥외자주식주차20대(A=250.00m ²)
최고높이	최대7.2m(A동),평균4.3m	4.2m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보류 10명

13. 의성 만취당 주변 점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가. 제안사항

경북 의성군 소재 보물 「의성 만취당」 주변 점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 제5구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의성 만취당
 - 소재지 :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207
 - 지정일 : 2014. 06. 05.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 인접(점곡 건강쉼터, 선비진입로)
 - 사업내용 : 점곡건강쉼터, 선비진입로 조성
 - 1) 점곡건강쉼터
 - 면적 : 1,362㎡
 - 내용 : 사각정자, 화장실, 화강석블록·경화토포장, 조경식재 등
 - 2) 진입로 조성 : 보행안내 등 및 수목조명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보류 10명

14. 여수 흥국사 대웅전 및 흥교 주변 허용기준 조정(안)

가. 제안사항

전남 여수시 소재 보물 「여수 흥국사 대웅전」 및 「여수 흥국사 흥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물 「여수 흥국사 대웅전」 및 「여수 흥국사 흥교」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기간(2021.06.24.~2021.07.13.(20일)) 동안 별도 의견이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라남도 여수시장
- (2) 대상문화재

명칭	소재지	지정일
여수 흥국사 대웅전	전남 여수시 중흥동 17	1963.09.02.
여수 흥국사 흥교	전남 여수시 중흥동 산191-1	1972.03.02.

- (3) 신청내용 : 「여수 흥국사 대웅전」 및 「여수 흥국사 흥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붙임 참조)

(4) 신청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함
- 전라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이내 지역

(5) 주요내용 : (당초) 1구역 → (변경) 일부 제외(여수국가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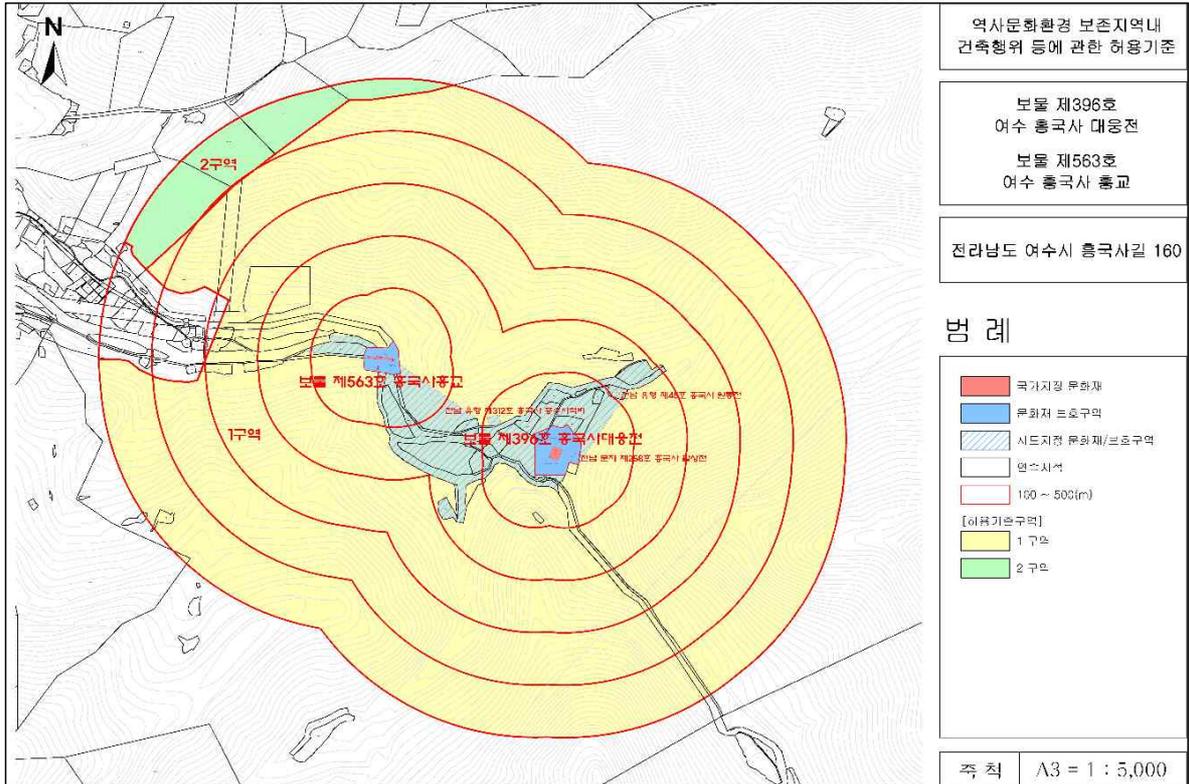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의 색상 관련 사항 삭제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1부.

▣ 보물 “여수 흥국사 대웅전” 및 “여수 흥국사 홍교”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도면 】



【 범례 표 】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 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5.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주변 허용기준 제정(안)

가. 제안사항

전남 구례군 소재 보물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물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기간(2021.06.24.~2021.07.13.(20일)) 동안 별도 의견이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전라남도 구례군수
- (2) 대상문화재 :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 소 재 지 : 전남 구례군 노고단로 209
 - 지 정 일 : 2019. 05. 23.
- (3) 신청내용 :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안(붙임 참조)
- (4) 주요내용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에 따른 허용기준 제정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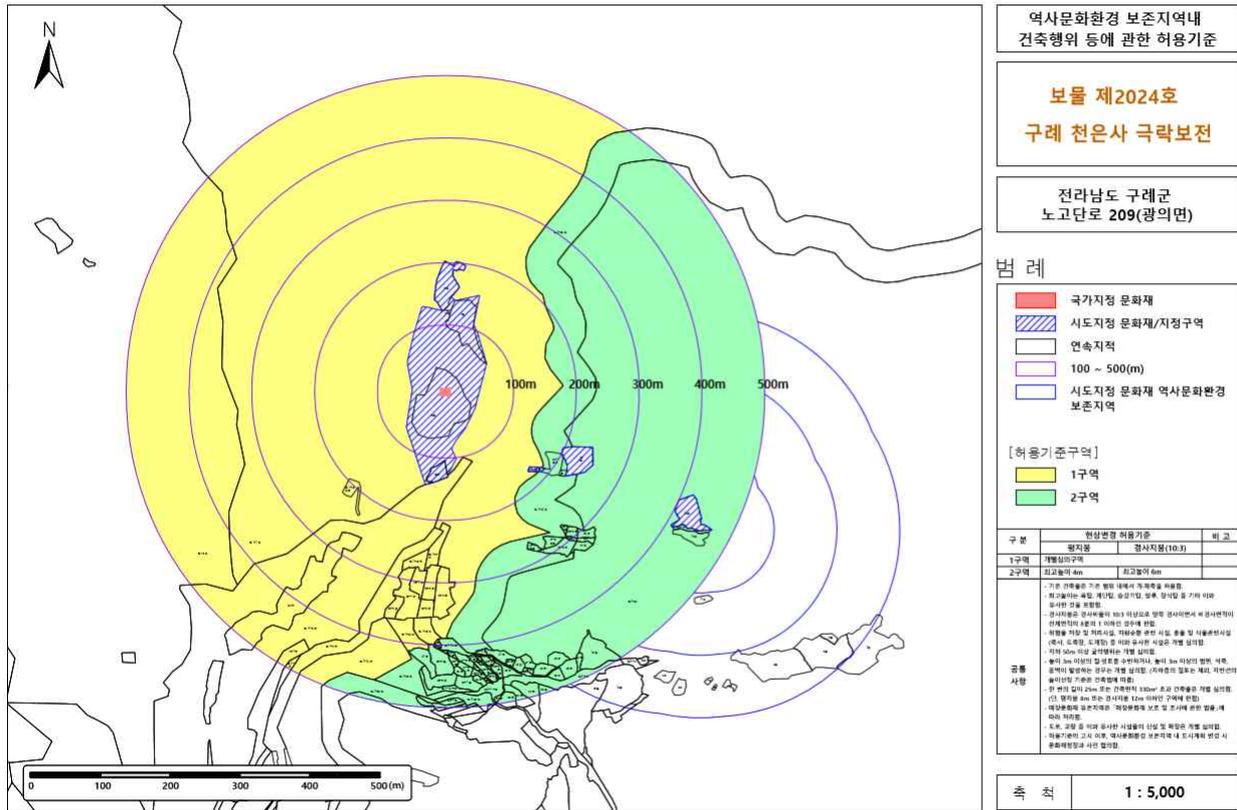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1부.

☐ 보물 “구례 천은사 극락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도면 】



【 범례 표 】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16. 안성향교 대성전 및 안성향교 풍화루 주변 허용기준 제정(안)

가. 제안사항

경기 안성시 소재 보물 「안성향교 대성전」 및 「안성향교 풍화루」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안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물 「안성향교 대성전」 및 「안성향교 풍화루」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기간(2021.05.24.~2021.06.20.(28일)) 동안 별도 의견이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기도 안성시장
- (2) 대상문화재 : 안성향교 대성전, 안성향교 풍화루
 - 소재지 : 경기 안성시 명륜동 118 안성향교
 - 지정일 : 2020. 12. 28.
- (3) 신청내용 : 「안성향교 대성정」 및 「안성향교 풍화루」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안(붙임 참조)
- (4) 주요내용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에 따른 허용기준 제정

라.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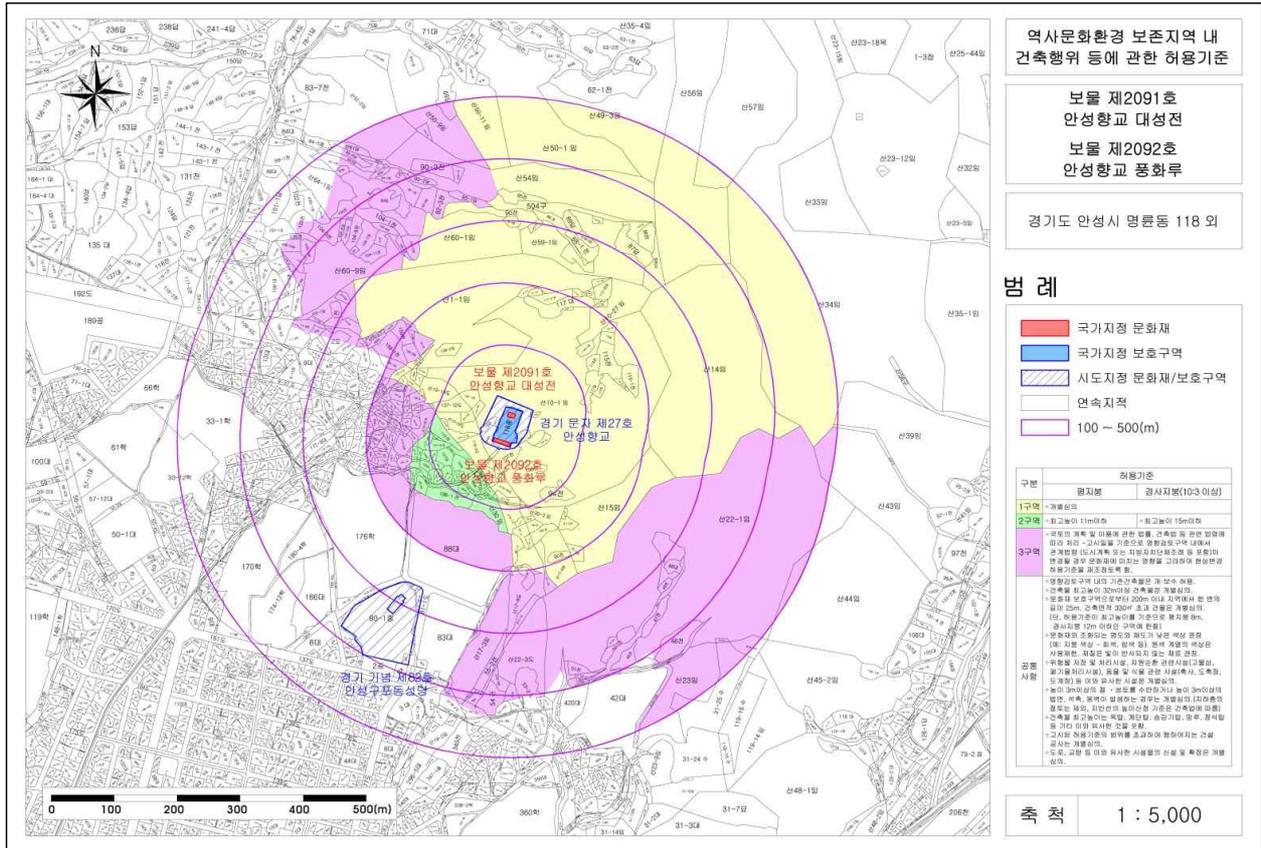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의 색상 관련 사항 삭제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1부.

☐ 보물 “안성향교 대성전” 및 “안성향교 풍화루”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도면 】



【 범례 표 】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흰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1-07-017

17.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지정명칭 변경 검토

가. 제안사항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신청을 다음과 같이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시굴조사(2020.10~11월) 출토기와 및 사찰 소장기와 조합을 통해 현재 내원사가 덕산사 사지임을 확인한 점, 내원사가 1959년 원경스님이 창건한 사찰인 점 등을 사유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을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에서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으로 변경하고자 경상남도지사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내원로 256(대포리)
 - 지정일 : 1992. 01. 15.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당초 명칭	변경 신청 명칭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山淸 內院寺 三層石塔)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 (山淸 德山寺 三層石塔)

라. 검토의견(세부의견 붙임 검토의견서 참고)

- 문화재위원 ○○○ : 명칭 변경 타당함.
- 문화재전문위원 ○○○ : 명칭 변경 타당함.
- ○○대학교 ○○○ : 명칭 변경 타당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붙임)검토의견서

의견서

□ 자문개요

- 자문대상 : 보물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 자문내용 : 보물 지정명칭 변경신청
 - (지정명칭)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 (변경신청명칭)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

□ 검토의견

산청 내원사는 1959년 원경스님에 의해 옛 사찰 터에 창건된 사찰이다. 경내에 있는 삼층석탑은 탑신과 지붕의 구성 및 수법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어 1992년 1월 15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113호로 지정되면서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으로 명명되었다.

산청 내원사의 자리가 옛 덕산사 터라는 설은 주변 지역이 ‘덕산’이라는 지명으로 불려왔고 통일신라시대 삼층석탑이 자리하기 때문에 주지의 사실로 인정되어 왔지만 확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2020.10.26.~2020.11.6.)에서 덕산사의 존재가 입증되면서 새로운 계기를 맞았다.

발굴조사에서는 현재 대웅전 아래 옛 사찰의 기단부가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명나라 연호명 기와편 2점이 발굴되어 조선시대의 중건공사를 증명했다. 특히 소장된 명문기와편을 조합하여 “成化二十一年德山寺造瓦”라는 문구를 복원한 결과, 정확한 사찰의 명칭인 ‘덕산사’와 1485년의 중건 사업을 확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당 사찰에 소장된 연화문 수막새가 통일신라시대 후기양식을 보여주는 점, 새로 발굴된 명문기와에 “萬曆四十年”이 기록되어 1612년의 중건사업을 대표하는 점, 그리고 1853년으로 추정되는 계축(癸丑)년의 조선후기 명문 암막새가 확인된 점 등으로 미루어 덕산사가 조선시대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던 사찰임을 확인했다.

이처럼 덕산사의 실체가 입증됨으로써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2021년 3월 12일 사찰명을 내원사에서 덕산사로 변경 처리했다. 그러므로 경내의 삼층석탑은 원래 덕산사에 속하는 유물이라는 점과 더 이상 내원사라는 사찰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으로 문화재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021. 7. 5.
문화재위원 ○○○

의견서

□ 자문개요

- 자문대상 : 보물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 자문내용 : 보물 지정명칭 변경신청
 - (지정명칭)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 (변경신청명칭)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

□ 검토의견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이 위치한 산청 덕산사는 본래 신라 말기에 무염국사(無染國師)가 창건하여 덕산사(德山寺)라 하였고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되었다. 이후 1959년 중건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내원암자를 본 따 내원사로 고쳐 부르다 2020년 11월 실시한 내원사 대웅전 위치고증을 위한 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명문기와와 내원사 소장품 등에서 현재 내원사가 덕산사 옛 사지에 창건된 사찰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덕산사로 사찰명이 변경처리되어 문화재명 역시 2021년 3월 덕산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은 현재 대웅전 서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석탑의 위치는 대체로 현재 자리로 확인되고 있다. 석탑은 2단의 기단 위에 옥개석과 탑신석을 3층으로 쌓아 탑신부를 구성한 통일신라시대탑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시굴조사를 시행한 결과, 트렌치 내에서 현재 대웅전 기단 석 아래에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는 ‘덕산사’와 관련된 기단부가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명나라 연호명 기와편 2점을 수습하여 덕산사의 사적(史蹟)을 밝히는 고고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내원사 소장품 기와에서도 통일신라시대 늦은 시기로 추정되는 연화문수막새 3점과 명문와편이 확인되는 등 덕산사 사역시기와 내원사 삼층석탑이 유사한 시기에 조성되었음을 추론케 하는 여러 증거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종 기록과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와 명문, 내원사 삼층석탑의 조성시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현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은 본래부터 덕산사 경내에 위치한 석탑으로 판단되며, 특히 내원사라는 사명(寺名)이 1959년부터 갑자기 사용된 점과 현재 덕산사로 변경된 것을 감안하면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의 문화재명을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021. 06. 16. 문화재전문위원 ○○○

의견서

□ 자문개요

- 자문대상 : 보물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 자문내용 : 보물 지정명칭 변경신청
 - (지정명칭)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 (변경신청명칭)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

□ 검토의견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은 현 대응전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삼층석탑은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구성된 삼층석탑으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단부는 이중기단으로 지대석, 하층기단 면석 및 갑석, 상층기단 면석 및 갑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하층기단 면석은 4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면과 배면은 긴 장대석으로 하고, 좌우측면은 짧은 장대석으로 결구시켜 놓았다. 하부에 수평의 하대괴임이 조출되어 있고, 각각의 모서리에는 우주(隅柱)와 가운데 탕주(撐柱)가 모각되어 있다. 갑석은 2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사진 낙수면과 호형의 2단 하층기단 받침이 조출되어 있다. 상층기단은 면석과 갑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석은 4매의 장방형 판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면과 배면에는 긴 장방형 면석으로 모서리에는 우주(隅柱)와 가운데 탕주(撐柱)가 모각되어 있다. 짧은 정방형 면석은 좌우측면에 긴 장방형 면석 안쪽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주가 나타난다. 따라서 가운데만 탕주(撐柱)가 모각되어 있다. 갑석은 4개의 판석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 위에는 재질에서 약간 차이 있는 2단의 탑신받침이 덧붙여 있다.

탑신부는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층마다 탑신석과 옥개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 탑신석은 통석의 정방형으로 각각의 모서리에는 우주(隅柱)가 모각되어 있으며, 1층 옥개석의 하부는 4단 옥개받침이 조출되어 있고, 낙수면은 상·하단선이 평행을 이루다가 전각 부분에서 하단선은 약간의 반전이 나타난다. 2층 탑신석은 1층 탑신석과 같이 통석의 정방형으로 각각의 모서리에는 우주(隅柱)가 모각되어 있으며, 2층 옥개석의 하부는 4단 옥개받침이 조출되어 있고, 낙수면은 상·하단선이 평행을 이루다가 전각 부분에서 하단선은 약간의 반전이 나타난다. 3층 탑신석은 1·2층 탑신석과 같이 통석의 정방형으로 각각의 모서리에는 우주(隅柱)가 모각되어 있으며, 3층 옥개석의 하부는 4단 옥개받침이 조출되어 있고, 낙수면은 상·하단선이 평행을 이루다가 전각 부분에서 하단선은 약간의 반전이 나타난다. 상륜부는 거의 다 소실되어 종형의 보주 정도만 남아 있다.

이상과 같이 삼층석탑에 대한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통일신라의 일반양식을 따르고 있고, 주변 지역의 통일신라 삼층석탑과도 어느 정도 유사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로 인정받아 보물 제1113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현 문화재명인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에서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으로의 명칭변경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당초 내원사(內院寺)는 1959년에 흥원경스님에 의하여 이 삼층석탑을 기반으로 폐사지 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인 해인사의 말사로 2021년 3월 26일자로 ‘내원사(內院寺)’에서 ‘덕산사(德山寺)’로 공식 명칭이 바뀌었다. 명칭이 바뀐 것은 2020년 10월 대응전의 위치를 고증하기 위한 시굴 조사에서 덕산사(德山寺)라고 적힌 명문기와가 출토되면서이다. 덕산사(德山寺)는 신라 무열왕 4년(657년) 원효대사가 ‘덕산사(德山寺)’의 사찰명으로 창건하였다고 전해져 왔으며, 조선중기인 숙종대 전후로 멸실되어 폐사지로 방치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²³⁾ 그러나 이 사찰이 있는 삼장면, 시천면 등의 지역명이 ‘덕산(德山)’이라는 별칭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역에서 사용되어 왔다. 즉 ‘덕산(德山)’이라는 지명은 덕산사(德山寺)에서 유래한 것으로 조선지도(18세기) 진주목 지도상²²⁴⁾에서 보면, 절의 아랫마을을 일컫는 덕산동(德山洞)과 덕산(德山) 등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찰명이 바뀐 것과 같이 이 문화재의 명칭을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명칭변경은 타당하다.



조선지도(18세기) 진주목 지도상의 덕산지명
출처:서울대학교 규장각

둘째, 이 삼층석탑의 형식은 2층 기단과 면석에 탕주와 우주가 조각되어 있고, 4단의 옥개석 받침 등이 조각되어 있다. 그런데 통일신라계 일반형 석탑은 8세기 중엽에서 9세기 후반으로 넘어 오면서 옥개석의 받침이 5단이었던 것이 4~3단으로 줄어들거나, 옥개석 정상면의 탑신 괴임도 2단에서 1단으로 작아지고 각형에서 호형으로 변하였으며, 전체적인 규모도 거대하였던 것이 중형, 소형 탑으로 바뀌는 변형을 보이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 삼층석탑에서도 이와 같은 9세기 후반의 특징적 변화를 감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삼층석탑은 신라시대에 창건된 덕산사(德山寺)에서 축조된 통일신라 석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명칭변경은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금번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을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으로 문화재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1. 6. 28

○○대학 교수 ○○○

223) 1722년 쓰여진 <백우수필>에서 승려 명안(明安, 1645-1710)은 지리산 덕산사 성각(性覺)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언급과 함께, 1719년에 쓰여진 <유두류일록>에서 불장암 골짜기를 출발해 2리쯤 가니 덕산사가 있었다. 절터와 계담 암석이 볼 만했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이 당시 덕산사는 폐사지였음을 알 수 있다.

224) 조선지도는 보물 제158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전국 군현지도책으로 1750년에서 1768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덕산사는 현재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가 소재지 이나, 조선시대에는 진주목에 속해 있었다.

18.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주변 법당 개축 검토

가. 제안사항

'20, '21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북 예천군 소재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주변 법당 개축 설계(안)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 '21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북 예천군 소재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주변 법당 개축 설계(안)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선리 521 외 1필지(520-2)
 - 지정일 : 1965. 07. 16.
- (2) 사업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선리 521 외 2필지(520-1, 520-2)
 - 사업예산
 - '20년 : 80,000천원(국비 56,000천원, 지방비 24,000천원)
 - '21년 : 428,571천원(국비 300,000천원, 지방비 128,571천원)
 - 사업지침 : ('21년) '20년 계속 사업으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법당 개축 및 주변 석축을 정비한다.

- 주요내용 : 법당 개축, 주변 석축 정비
- 법당 개축

배치	
평면	
면적	72.81m ²
층수	지상1층
양식	정면3칸, 측면2칸, 내,외2출목, 다포식, 팔작지붕

- 주변 석축정비, 마당 정비(마사토 다짐)

위치	길이(m)	석축형식	배수로
법당 배면	43.10	자연석석축, 허튼층쌓기	자연석 배수로
법당 정면 (요사채 배면)	53.80	자연석석축, 허튼층쌓기	자연석 배수로
마당정비	마사토다짐(법당 마당 620m ² + 요사채 마당 1,150m ² = 1,770m ²)		

라. 자문의견

- (발굴조사) 2021.03.24. / 문화재위원 ○○○, ○○문화재연구원장 ○○○
 - 지금까지 조사된 ‘구 청룡사 사역’은 나말려초~조선전기 까지 증·개축 현상을 보이며, 중복된 형태로 노출되었음
 - 최상단의 노출된 유구는 사역 동편 쪽에서 정면 3칸, 측면 3칸 정도 건물지가 확인되나, 대응전지인지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신축 대응전(보호각)은 현재 드러난 건물지와 평면상을 맞추는 것은 위치와 규모 등에 있어서 맞지 않으므로 별건으로 진행하되, 노출된 유구는 매장 유구 복토기준에 근거하여 충분히 복토하여 훼손이 없도록 할 것
 - 보호각의 신축은 해당부서와 설계도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현지 복토보존한 유구에 훼손이 없도록 설계할 것
 -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치석재는 일괄 보관 관리토록 하고, 해체·확인된 탑재는 복원 시에 관계분야의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 (건축설계) 2021.06.28. / 문화재위원장 ○○○
 - 건물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하고 다포양식 팔작지붕으로 함
 - 불상은 당초 현황대로 봉안함
 - 마당과 주변 배수가 원활하게 정비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불단·석축 설치 등 세부 사항 관계전문가 자문 받아 추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19. 예천 청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요사채 개축 검토

가. 제안사항

‘19, ’21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북 예천군 소재 보물 「예천 청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요사채 개축 설계(안)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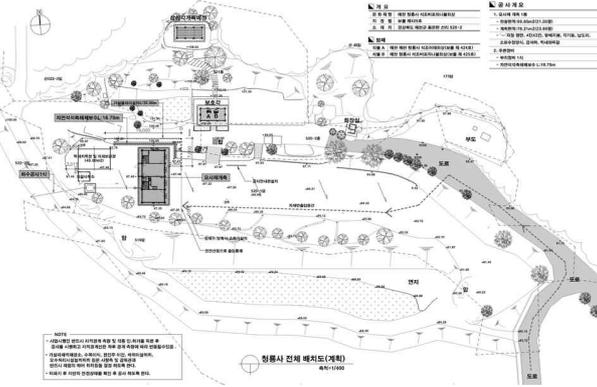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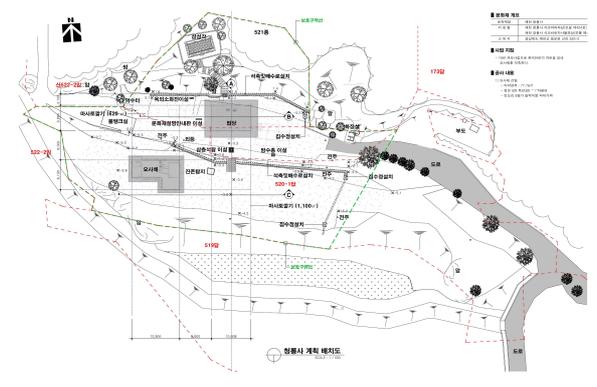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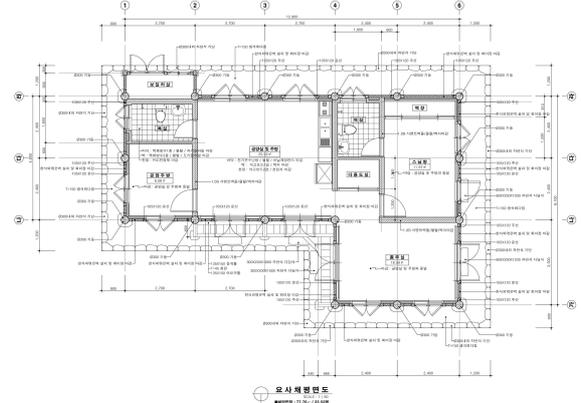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19. ’21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북 예천군 소재 보물 「예천 청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요사채 개축 설계(안)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4차 건축문화재분과 검토결과(2019.07.18) : 조건부 가결
- 요사채를 3칸 규모로 축소토록 하고 시굴조사를 선행한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예천 청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선리 521 외 1필지(520-2)
 - 지정일 : 1965. 07. 16.
- (2) 사업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선리 520-1번지
 - 사업예산
 - ‘19년 : 500,000천원(국비 350,000천원, 지방비 150,000천원)
 - ‘21년 : 550,000천원(국비 385,000천원, 지방비 165,000천원)
 - ※ 사업구분 : 수리기술과 설계심사 대상
 - 사업지침 : (‘21년) ‘19년 계속 사업으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요사채를 개축한다.

○ 주요내용 : 요사채 건축

구분	기존안 (2019.07.18.)	금 차
배치	 <p>형통사 전체 배치도(계획)</p>	 <p>형통사 계획 배치도</p>
평면	 <p>요사채 평면도(계획)</p>	 <p>요사채 평면도</p>
면적	75.24m ²	77.76m ²
층수	지상1층	지상1층
양식	민도리, 5량가, 맞배지붕	민도리, 5량가, 팔작지붕
비고	법당 진입 축선상 요사채 평면칸수 4칸	법당 진입 축선상 요사채 평면칸수 3칸

라. 자문의견

○ 2021.06.28. / 문화재위원장 ○○○

- 기존 발굴 유구는 복토하여 보존하고 협소한 대지를 감안하여 칸수를 축소하는 의결 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함

1) 건물은 현재 요사채의 기능(승방, 요사, 공양간, 종무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ㄱ자형 평면으로 구성하고 겹처마, 소로수장 민도리형식으로 함.

2) 마당과 주변 복토 구역은 지반을 견실히 하고 배수체계를 수립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1-07-020

20.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청송군 소재 보물 「청송 대전사 보광전」 주변 주방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허가신청 27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소 계		27건	원안가결 18건 조건부가결 8건 부결 1건	
보물 청송 대전사 보광전	경북 청송 (○○○)	<input type="checkbox"/> 주방천 하천재해예방사업 <input type="checkbox"/> 위치 - 시점 : 청송군 주왕산면 상의리 435-10 새들보 - 종점 : 청송군 청송읍 송생리 용전천 합류점 - 제1구역(문화재에서 종점부까지 358m 이격) - 원지형 보존 <input type="checkbox"/> 영향검토구간 내 사업내용 1) 하천재해예방사업 정비구간 (새들보~무명7교, L=200m) ① 무명7교(합성형라멘교) : L=37.0m, B=8.5m ② 고수호안(굴림석쌓기) : L=200m, A=2,140㎡ ③ 배수시설물 : 배수통관 3개소(Φ800mm) 2) 하천 문화공간 조성공 ① 상의뜨락 A=2,230㎡	원안가결	'21.06.25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국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경북 영주 (○○○)	<input type="checkbox"/> 창고시설 신축 ○ 위치 :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422번지 2호 - 제1구역(영주 부석사 당간지주에서 482m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저온저장고 신축 - 규모 : 6.60m * 5.00m = 33.00㎡ - 높이 : 5.93m - 구조 : 경량철골조 / 기타지붕(샌드위치패널)	원안가결	'21.06.25
보물 안동 청원루	경북 안동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95-2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4m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1,567㎡ - 건축면적 : 107.34㎡ - 구조 : 전통 목구조 - 높이 : 6.33m	원안가결	'21.06.25
보물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	경북 청도 (○○○)	<input type="checkbox"/>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신축 ○ 위치 : 청도군 충각면 현리리 383 - 제4구역(보호구역에서 420m 이격) - 동식물관련시설 개별심의 ○ 내용 : 축사 2동 신축(주1동, 가설1동) - 건축면적 : 234.96㎡ - 연면적 : 234.96㎡ - 구조 : 파이프조 - 높이 : 7.05m	원안가결	'21.06.25
보물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 불좌상	경기 평택 (○○○)	<input type="checkbox"/> 심복사 화장실 건립공사 ○ 위치 : 평택시 덕북5길 47-24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77m 이격) ○ 사업내용 : 화장실 건립 - 사업비 : 200백만원(시비 160, 자부담 40) - 면 적 : 25.92㎡(7.2m*3.6m) - 양 식 : 한식목구조, 민도리, 3량가	원안가결	'21.06.25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 불좌상	경기 평택 (○○○)	<input type="checkbox"/> 심복사 종각 건립공사 ○ 위치 : 평택시 덕북5길 47-24 - 제1구역(문화재에서 17m, 보호구역에서 2.8m 이격) ○ 사업내용 : 종각 건립 - 사업비 : 300백만원(자부담) - 면 적 : 13.39㎡(3.66m * 3.66m) - 양 식 : 한식목구조, 이익공, 사모정	원안가결	'21.06.25
보물 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	경남 산청 (○○○)	<input type="checkbox"/> 농지(전) 개간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윤리 산45-22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30m 이격) - 개별심의 ○ 목적 : 다년생식물재배(고추, 땅콩 등) ○ 내용 - 대지면적 : 20,438㎡ - 사업면적 : 2,374㎡ - 농지조성 : 측구배수로 186m, 사면녹화(초류종자살포) 220㎡ 등 - 수목제거 : 총 133본(소나무 106본, 상수리나무 13본, 굴참나무 8본, 기타활엽수 6본) ※ 2021.6월 1차 내부검토: 보류(신청부지 수목 현황 및 제거 계획에 대한 자료 필요)	원안가결	'21.06.25
보물 합천 백암리 석등	경남 합천 (○○○)	<input type="checkbox"/> 농막 설치 ○ 위치 : 합천군 대양면 백암리 42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97m 이격) - 개별심의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397㎡ - 농막면적 : 18㎡(3*6*2.6m) - 재질 : 철골프레임(컨테이너)	원안가결	'21.06.25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p>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 동구 (○○○)</p>	<p><input type="checkbox"/> 화장실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동구 도학동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구역(삼층석탑에서 60m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화장실 1동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 9.36㎡ - 구조 : 정면 2칸 측면 1칸, 납도리 3량가 무익공집 - 지붕 : 한식중와 맞배지붕 - 높이 : 3.98m - 자연석석축 설치 : L=13.7m, H=0.9m 	원안가결	‘21.07.07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p>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 동구 (○○○)</p>	<p><input type="checkbox"/> 템플스테이 건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동구 도학동 37-1 외 7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구역(삼층석탑에서 160m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설선당(템플스테이) 1동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 116.16㎡ - 구조 : 정면 5칸 측면 2칸, 굴도리 5량가 익공집 - 지붕 : 한식중와 맞배지붕 - 높이 : 7.55m - 자연석석축 설치 : L=37m, H=1.45m 	원안가결	‘21.07.07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안동 개목사 원통전</p>	<p style="text-align: center;">경북 안동 (○○○)</p>	<p><input type="checkbox"/> 도로정비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안동시 서후면 광평리 산75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330m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콘크리트 확포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연장 : 1,150m(영향검토구역 내 350m) - 영향검토구역 내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포장 : A=492㎡ · 아스콘덧씌우기 : A=2,100㎡ 	원안가결	‘21.07.0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p>	<p style="text-align: center;">경북 성주 (○○○)</p>	<p>□ 마을회관 증축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217-2 외 2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구역(문화재에서 100m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기존 마을회관 지붕 태양광시설 철거 후 비가림시설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물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 : 183.68㎡ · 연면적 : 176.79㎡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층수 : 지상1층 - 증축 내용 : 비가림시설 설치로 최고높이 0.33m 증가(5.67m → 6.0m) · 구조 : 경량철골구조(100*100각관) · 지붕 : 0.5t 강판기와잇기 	원안가결	‘21.07.07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경주 용명리 삼층석탑</p>	<p style="text-align: center;">경북 경주 (○○○)</p>	<p>□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산314, 906, 907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구역(문화재에서 380m 이격) - 도로, 교량 등 신설 및 확장 개별심의 ○ 내용 : 완충저류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파기 8,639.0㎡(최대 굴착높이 9.7m) · 되메우기 3,485.0㎡ - 관로공사 : 관로(D80~400mm)설치 L=468.0m - 구조물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충저류시설(Q=900㎡) 1식 · 제내천 진입교량(B=6.0m) 1식 · 밸브실, 맨홀펌프장 각 1개소 - 건축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전기실) 1동, 최고높이 8.20m, · 건축면적 183.52㎡, 연면적 165.58㎡ 	원안가결	‘21.07.0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완주 송광사 대웅전	전북 완주 (○○○)	<input type="checkbox"/> 송광사 서재 건립공사 ○ 위치 :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255-16 - 보호구역 내(대웅전에서 약 60m 이격) ○ 사업내용 : 서재 건립 - 사업비 : 400백만원(자부담) - 건축면적 : 57.6㎡ - 구조 : 한식목구조, 정면 4칸, 측면 2칸, 5량가, 맞배지붕 - 최고높이 : 6.14m	원안가결	'21.07.07
보물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	충북 청주 (○○○)	<input type="checkbox"/> 버섯재배사 신축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계산리 16 - 제3구역(보호구역에서 170m 이격) ·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이하 ○ 사업내용 : 버섯재배사 신축 - 대지면적 : 1,567㎡ - 건축면적 : 165㎡ - 높이 : 6.4m - 구조 : 철골조	원안가결	'21.07.07
보물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충북 제천 (○○○)	<input type="checkbox"/> 재해위험 및 화재예방을 위한 수목제거 ○ 위치 : 제천시 장락동 산6번지 - 제1구역(문화재에서 40m 이격) ○ 사업내용 : 재해위험 화재예방 수목제거 - 위험수목 제거 : 66본(1,475㎡) - 수종 : 참나무, 가시나무 ※ 지난 5월 집중호우로 나무 한그루가 전도되었고, 재해위험 우려로 장락사 측의 수목제거 요청	원안가결	'21.07.0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함양 덕전리 마애여래입상	경남 함양 (○○○)	<input type="checkbox"/> 가족 장지조성 ○ 위치 : 함양군 마천면 덕전리 105-9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92m 이격) - 원지형 보존 ○ 내용 - 용지면적 : 576㎡ - 부지면적 : 99㎡ - 장지조성 : 자연장지 7기, 잔디식재 등	원안가결	'21.07.07									
보물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강원 원주 (○○○)	<input type="checkbox"/> 하천정비 사업(2차) ○ 위치 :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526 외 2필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79m 이격) - 개별심의 ○ 목적 : 호우로 인한 인근 사유지 침식 방지 및 위험구간 정비 ○ 예산 : 300백만원(지방비) ○ 내용 : 하천정비 전석쌓기 - 철거공사 · 시점, 종점부 암거다리 접합석축 헐기 · 종점부 폐다리 헐기 · 잠목, 잠초 제거 - 토공사 · 하천 전석쌓기 토공사 · 줄폐, 붕괴사면 복구(L=8.0m) - 석축공사(전석쌓기)	원안가결	'21.07.07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부결안</th> <th>신청안</th> </tr> </thead> <tbody> <tr> <td>본선</td> <td>L=233.0m, W=3m×H=1.5m</td> <td>L=230.0m, W=1.8~3m× H=0.9~1.5m</td> </tr> <tr> <td>지선</td> <td>L=24.0m, W=2m×H=1.2m</td> <td>L=24.0m, W=1~1.2m× H=0.9~1.2m</td> </tr> </tbody> </table>	구분	부결안	신청안	본선	L=233.0m, W=3m×H=1.5m	L=230.0m, W=1.8~3m× H=0.9~1.5m	지선	L=24.0m, W=2m×H=1.2m	L=24.0m, W=1~1.2m× H=0.9~1.2m		
구분	부결안	신청안											
본선	L=233.0m, W=3m×H=1.5m	L=230.0m, W=1.8~3m× H=0.9~1.5m											
지선	L=24.0m, W=2m×H=1.2m	L=24.0m, W=1~1.2m× H=0.9~1.2m											
		- 운반공사 및 폐기물 처리 등 ※ 2021.4월 자체처리: 부결(지형에 따라 석축 높이·폭 등 조절 필요)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칠곡 송림사 오층석탑	경북 칠곡 (○○○)	<input type="checkbox"/> 농지 조성 ○ 위치 :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83번지 - 제1구역(문화재에서 110m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토지 성토 등 - 흙쌓기 : H=0.8~2.0m, A=2,162.0㎡ - 토사수로 : L=18.0m ※ 동일 부지 현상변경 행위 불허('20.8월,11월) - ('20.8월)건축(연)면적 324㎡/높이 5.2m - ('20.11월)건축(연)면적 95.94㎡/높이 6.2m	조건부가결 (성토량 최소화)	'21.06.25
보물 경주 삼랑사지 당간지주	경북 경주 (○○○)	<input type="checkbox"/> 도시계획도로(소3-36) 개설공사 ○ 위치 : 경주시 성건동 445-14번지 일원 - 제5구역(보호구역에서 136m 이격) - 도로개설은 개별심의 ○ 내용 : 도로개설(B=4.1~5.8m, L=139m) 1) 토공 : 터파기 V=578.0㎡, 되메우기 V=184.0㎡, 잔토처리 V=393.0㎡ 2) 배수공 : L형측구 L=133m 3) 포장공 : 아스콘포장 683㎡, 보도블록 설치 137㎡ 4) 부대공 : 1식	조건부가결 (공사 전 시굴조사 실시)	'21.06.25
보물 군위 대율리 석조여래입상	경북 군위 (○○○)	<input type="checkbox"/> 근린생활시설 증축 ○ 위치 :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862-1외 2필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00m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휴게음식점 신축 - 규모 : 1층 - 대지면적 : 1,106㎡ - 건축면적 : 40.5㎡ - 연면적 : 40.5㎡ - 구조 : 경량철골조 - 높이 : 4.8m	조건부가결 (경상북도 문화재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	'21.06.25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해남 미황사 응진당</p>	<p style="text-align: center;">전남 해남 (○○○)</p>	<p>□ 미황사 적목당 건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산248 외 - 문화재구역(응진당에서 약 35m 이격) - 명승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구역에 위치하나 보물 「해남 미황사 응진당」 인근에 건립 - 과거에 요사가 있던 위치(항공사진) - 현재 부지내 석축유구 존재, 건물지 추정됨. 시굴조사 필요 - 응진당과 같은 횡축선상에 위치, 수목이나 담장을 설치해 구분 ○ 사업내용 : 적목당 건립 - 사업비 : 300백만원(도비 150, 군비150) - 건축면적 : 69.16㎡ - 구조 : 한식목구조, 정면 4칸, 측면 2칸, 5량가, 겹처마, 팔작지붕 - 최고높이 : 6.21m 	<p>조건부가결 (시굴조사 후 재검토)</p>	<p style="text-align: center;">‘21.06.25</p>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서울 장의사지 당간지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 종로 (○○○)</p>	<p>□ 주민편의시설 및 공영주차장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종로구 신영동 219-11 -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44m 이격) ·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이하 ○ 사업내용 : 주민편의시설 및 공영주차장 신축 - 대지면적 : 316㎡ - 건축면적 : 211.72㎡ - 연 면 적 : 653.69㎡ (주차시설 499.39㎡, 주민편의 154.3㎡) - 높 이 : 7.95m(옥탑포함 9.25m) - 층 수 : 지하1층, 지상2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p>조건부가결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 하에 실시토록 함)</p>	<p style="text-align: center;">‘21.07.07</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여주 신륵사 조사당	경기 여주 (○○○)	<input type="checkbox"/> 신륵사 구룡루 해체보수공사 ○ 위치 : 여주시 신륵사길 73 - 보호구역(문화재에서 60m 이격) ○ 사업내용 : 신륵사 구룡루 해체보수 - 사업비 : 63,000천원(도비보조사업) - 보수내용 : 초석 이상 전체해체보수 · 석공사 : 초석 3개소 신재교체 · 목공사 : 도리 7개소, 창방 8개소, 기둥 9개소, 대량 2개소, 층량 1개소, 종량 1개소, 연목 부연 50% 신재 교체 · 지붕공사 : 해체 후 재설치(기와신재 50%) · 수장공사 : 우물마루 신재교체 100% · 교체 부재 단청	조건부가결 (보수방향, 해체범위 등에 대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21.07.07
보물 완주 안심사 금강계단	전북 완주 (○○○)	<input type="checkbox"/> 농사용 가설건축물(창고) 설치 ○ 위치 :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22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00m 이격) ○ 사업내용 : 농사용 창고 가설건축물 - 면 적 : 18㎡ (6m * 3m) - 구 조 : 조립식판넬	조건부가결 (허가일로 부터 3년 경과 시, 문화재보호 법 관련 재허가를 득할 것)	'21.07.07
보물 함양 승안사지 삼층석탑	경남 함양 (○○○)	<input type="checkbox"/> 삼층석탑 주변 배수로 설치 ○ 위치 :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산10-9 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0m 이격) - 개별심의 ○ 목적 : 산 토사 흘러내림 방지 등을 통해 문화재 보호 ○ 경비 : 30,000천원(군비) ○ 내용 - 배수로(U형플류관 D600) L=170.0m - 사면보호망(코아네트) 설치 A=515.15㎡ - 사면녹화(씨드스프레이) A=515.15㎡ - 집수정 1개소 설치	부결 (전체 배수체계 재검토 필요)	'21.06.25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국보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	충남 논산 (○○○)	<input type="checkbox"/> 근린생활시설 건립 ○ 위치 : 논산시 관촉동 239-2번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25m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일반음식점 신축 3동 - 대지면적 : 5,635㎡ - 건축면적 : 1,026㎡ - 연면적 : 1,026㎡(각 동 342㎡) - 층수 / 최고높이 : 1층 / 10m - 구조 : 일반철골구조 / 경사지붕 위 기와 ※ 동일 부지 현상변경 행위통지 현황	부결 (역사문화 경관 저해)	'21.07.07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1차('20.3.)</th> <th>2차('20.4.)</th> <th>3차('20.5.)</th> </tr> </thead> <tbody> <tr> <td>통 지</td> <td>불허(위원회)</td> <td>불허(위원회)</td> <td>불허(위원회)</td> </tr> <tr> <td>용 도</td> <td>근린생활시설</td> <td>근린생활시설</td> <td>근린생활시설</td> </tr> <tr> <td>동 수</td> <td>2개동</td> <td>3개동</td> <td>2개동</td> </tr> <tr> <td>연면적</td> <td>2,293.98㎡</td> <td>2,010.30㎡</td> <td>2,015.98㎡</td> </tr> <tr> <td>구 조</td> <td>RC조</td> <td>RC조</td> <td>RC조</td> </tr> <tr> <td>층 수</td> <td>지상2층</td> <td>지상1층</td> <td>지상2층</td> </tr> <tr> <td>높 이</td> <td>8.0m</td> <td>8.0m</td> <td>8.0m</td> </tr> </tbody> </table>			구 분	1차('20.3.)	2차('20.4.)	3차('20.5.)	통 지	불허(위원회)	불허(위원회)	불허(위원회)	용 도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동 수	2개동	3개동	2개동	연면적	2,293.98㎡	2,010.30㎡	2,015.98㎡	구 조	RC조	RC조	RC조	층 수	지상2층	지상1층	지상2층	높 이	8.0m	8.0m	8.0m
		구 분			1차('20.3.)	2차('20.4.)	3차('20.5.)																													
		통 지			불허(위원회)	불허(위원회)	불허(위원회)																													
		용 도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동 수			2개동	3개동	2개동																													
		연면적			2,293.98㎡	2,010.30㎡	2,015.98㎡																													
		구 조			RC조	RC조	RC조																													
		층 수			지상2층	지상1층	지상2층																													
		높 이			8.0m	8.0m	8.0m																													
* 위원회 부결사유																																				
(1차) 주 진입로이며 규모가 커서 진입부 경관 훼손 우려																																				
(2차) 개선안도 규모가 크고 경관 훼손 우려																																				
(3차) 역사문화경관저해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접수 10명